

2025 자체연구 보고서

2025년 대전교육중단연구 결과 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 이 지 혜(대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자 | 나 종 민(국민대학교 교수)

노 민 정(구즉초등학교 교사)

김 다 솔(대전새미래중학교 교사)

김 유 리(국민대학교 연구원)

박 선 주(공주대학교 강의교수)

연구협력관 | 박 서 준(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이 기 명(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절차	6
제3절 분석 방법	7
 제2장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9
제1절 대전교육종단연구 설계	11
제2절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개요	19
제3절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참여 결과	37
 제3장 학생 결과	 41
제1절 배경	43
제2절 가정생활	45
제3절 학교생활	93
제4절 학생역량	163
제5절 학생특성	213
제6절 교육경험	221
제7절 웰빙	236
제8절 진로진학	245
제9절 소결	249

제4장 학부모(보호자) 결과	253
제1절 배경	255
제2절 학교인식	260
제3절 가정지원	280
제4절 웰빙	299
제5절 소결	302
 제5장 교사 결과	 305
제1절 배경	307
제2절 직무	310
제3절 학교인식	358
제4절 웰빙	399
제5절 소결	410
 제6장 학교장 결과	 413
제1절 배경	415
제2절 직무	419
제3절 학교인식	434
제4절 웰빙	452
제5절 소결	457
 제7장 행정실 직원 결과	 461
제1절 배경	463
제2절 직무	467
제3절 학교인식	472
제4절 웰빙	483

제5절 소결	487
제8장 결론 및 제언	491
제1절 결론	493
제2절 제언	513
■ 참고문헌	519

표 목차

〈표 2-1〉 종단연구와 횡단연구의 비교	14
〈표 2-2〉 대전교육종단연구 조사 대상	15
〈표 2-3〉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문항검토 대상	20
〈표 2-4〉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조사도구 재구조화(변수 추가) 결과	21
〈표 2-5〉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설문 방법	22
〈표 2-6〉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조사도구	23
〈표 2-7〉 학생 조사도구	24
〈표 2-8〉 학부모 조사도구	28
〈표 2-9〉 교사 조사도구	30
〈표 2-10〉 학교장 조사도구	33
〈표 2-11〉 행정실 직원 조사도구	35
〈표 2-12〉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응답률	37
〈표 2-13〉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학교 응답률	39
〈표 3-1〉 학생 개인 및 학교배경	44
〈표 3-2〉 학생의 (1주일 기준) 아침 식사 빈도, 운동 빈도, 충분한 수면 빈도 교차분석 결과	48
〈표 3-3〉 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 교차분석 결과	51
〈표 3-4〉 학생의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 교차분석 결과	54
〈표 3-5〉 학생의 선호 여가 활동, 실제 여가 활동의 교차분석 결과	56
〈표 3-6〉 학생의 한 달 기준 평균 독서량 교차분석 결과	58
〈표 3-7〉 학생의 독서 분야 교차분석 결과	59
〈표 3-8〉 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교차분석 결과	62
〈표 3-9〉 학생의 스마트기기 의존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65
〈표 3-10〉 학생의 하루 중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67

〈표 3-11〉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69
〈표 3-12〉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70
〈표 3-13〉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72
〈표 3-14〉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73
〈표 3-15〉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75
〈표 3-16〉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77
〈표 3-17〉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79
〈표 3-18〉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80
〈표 3-19〉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82
〈표 3-20〉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83
〈표 3-21〉 학생의 1주일 평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85
〈표 3-22〉 학생의 국어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86
〈표 3-23〉 학생의 수학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87
〈표 3-24〉 학생의 영어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88
〈표 3-25〉 학생의 과학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89
〈표 3-26〉 학생의 사회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90
〈표 3-27〉 학생의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91
〈표 3-28〉 학생의 학교만족도 교차분석 결과	94
〈표 3-29〉 학생의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95
〈표 3-30〉 학생의 교사-학생 간 소통 인식 교차분석 결과	97
〈표 3-31〉 학생의 교사-학생 간 소통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97
〈표 3-32〉 학생의 학생회 운영 인식 교차분석 결과	98
〈표 3-33〉 학생의 학생회 운영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99
〈표 3-34〉 학생의 학급 예절 인식 교차분석 결과	100
〈표 3-35〉 학생의 학급 예절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01
〈표 3-36〉 학생의 학급 협력 인식 교차분석 결과	102
〈표 3-37〉 학생의 학급 협력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03
〈표 3-38〉 학생의 학급 질서 인식 교차분석 결과	104

〈표 3-39〉 학생의 학급 질서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05
〈표 3-40〉 학생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교차분석 결과	107
〈표 3-41〉 학생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08
〈표 3-42〉 학생의 디지털수업 환경 인식 교차분석 결과	109
〈표 3-43〉 학생의 디지털수업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10
〈표 3-44〉 학생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교차분석 결과	111
〈표 3-45〉 학생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12
〈표 3-46〉 학생의 학교시설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114
〈표 3-47〉 학생의 학교시설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15
〈표 3-48〉 학생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116
〈표 3-49〉 학생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17
〈표 3-50〉 학생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118
〈표 3-51〉 학생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19
〈표 3-52〉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120
〈표 3-53〉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21
〈표 3-54〉 학생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122
〈표 3-55〉 학생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23
〈표 3-56〉 학생의 교사 지식 전문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125
〈표 3-57〉 학생의 교사 지식 전문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26
〈표 3-58〉 학생의 교사 수업 전문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127
〈표 3-59〉 학생의 교사 수업 전문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28
〈표 3-60〉 학생의 교사 도구 활용 인식 교차분석 결과	129
〈표 3-61〉 학생의 교사 도구 활용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30
〈표 3-62〉 학생의 교사 수업 중 피드백 인식 교차분석 결과	131
〈표 3-63〉 학생의 교사 수업 중 피드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32
〈표 3-64〉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인식 교차분석 결과	134
〈표 3-65〉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35
〈표 3-66〉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 인식 교차분석 결과	136

〈표 3-67〉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37
〈표 3-68〉 학생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138
〈표 3-69〉 학생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39
〈표 3-70〉 학생의 평가 방법의 다양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141
〈표 3-71〉 학생의 평가 방법의 다양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42
〈표 3-72〉 학생의 평가 결과의 효율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143
〈표 3-73〉 학생의 평가 결과의 효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44
〈표 3-74〉 학생의 평가 피드백의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145
〈표 3-75〉 학생의 평가 피드백의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46
〈표 3-76〉 학생의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148
〈표 3-77〉 학생의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49
〈표 3-78〉 학생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150
〈표 3-79〉 학생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51
〈표 3-80〉 학생의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153
〈표 3-81〉 학생의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54
〈표 3-82〉 학생의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155
〈표 3-83〉 학생의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56
〈표 3-84〉 학생의 진로교육 다양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158
〈표 3-85〉 학생의 진로교육 다양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59
〈표 3-86〉 학생의 진로교육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160
〈표 3-87〉 학생의 진로교육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161
〈표 3-88〉 초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교차분석 결과	165
〈표 3-89〉 초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t 검정 결과	167
〈표 3-90〉 중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교차분석 결과	169
〈표 3-91〉 중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t 검정 결과	171
〈표 3-92〉 고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교차분석 결과	173
〈표 3-93〉 고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t 검정 결과	175
〈표 3-94〉 초등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교차분석 결과	178

〈표 3-95〉 초등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t 검정 결과	180
〈표 3-96〉 중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교차분석 결과	182
〈표 3-97〉 중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t 검정 결과	184
〈표 3-98〉 고등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교차분석 결과	186
〈표 3-99〉 고등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t 검정 결과	188
〈표 3-100〉 초등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교차분석 결과	191
〈표 3-101〉 초등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t 검정 결과	193
〈표 3-102〉 중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교차분석 결과	195
〈표 3-103〉 중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t 검정 결과	197
〈표 3-104〉 고등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교차분석 결과	199
〈표 3-105〉 고등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t 검정 결과	201
〈표 3-106〉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03
〈표 3-107〉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04
〈표 3-108〉 학생의 자아탄력성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05
〈표 3-109〉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06
〈표 3-110〉 학생의 공동체 의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07
〈표 3-111〉 학생의 진로성숙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09
〈표 3-112〉 학생의 디지털활용 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10
〈표 3-113〉 학생의 생태환경 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11
〈표 3-114〉 학생과 친구와의 관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13
〈표 3-115〉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14
〈표 3-116〉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15
〈표 3-117〉 학생의 행복감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17
〈표 3-118〉 학생의 자아존중감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18
〈표 3-119〉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19
〈표 3-120〉 학생의 대전 과학연구소 견학 경험 교차분석 결과	221
〈표 3-121〉 학생의 과학축제 참여 경험 교차분석 결과	222
〈표 3-122〉 학생의 대전 실험실습 중심 과학실험 경험 교차분석 결과	223

〈표 3-123〉 학생의 AI 관련 수업 경험 교차분석 결과	224
〈표 3-124〉 학생의 AI 관련 전시 참여 경험 교차분석 결과	225
〈표 3-125〉 학생의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 교차분석 결과	226
〈표 3-126〉 학생의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27
〈표 3-127〉 학생의 과학도시 자부심 교차분석 결과	228
〈표 3-128〉 학생의 과학도시 자부심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29
〈표 3-129〉 학생의 영재교육 참여 경험 교차분석 결과	231
〈표 3-130〉 학생의 영재교육 경험분야 교차분석 결과	232
〈표 3-131〉 학생의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33
〈표 3-132〉 학생의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34
〈표 3-133〉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교차분석 결과	237
〈표 3-134〉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38
〈표 3-135〉 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 교차분석 결과	239
〈표 3-136〉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교차분석 결과	240
〈표 3-137〉 중·고등학생의 흡연경험 교차분석 결과	242
〈표 3-138〉 중·고등학생의 음주경험 교차분석 결과	243
〈표 3-139〉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교차분석 결과	245
〈표 3-140〉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시 희망 전공계열 교차분석 결과	246
〈표 3-141〉 중·고등학생이 희망하는 학력수준 교차분석 결과	247
〈표 4-1〉 학부모 개인 배경	257
〈표 4-2〉 학부모의 자녀 학교배경	259
〈표 4-3〉 학부모의 자녀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60
〈표 4-4〉 학부모의 자녀 교사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62
〈표 4-5〉 학부모의 자녀 학교 교육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64
〈표 4-6〉 학부모의 자녀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목적 교차분석 결과	265
〈표 4-7〉 학부모의 자녀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66
〈표 4-8〉 학부모의 자녀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 교차분석 결과	267

〈표 4-9〉 학부모의 자녀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68
〈표 4-10〉 학부모의 자녀 학교시설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70
〈표 4-11〉 학부모의 자녀 학교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72
〈표 4-12〉 학부모의 학교 정보와 소통 기회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74
〈표 4-13〉 학부모의 학교 소통·참여 경험 교차분석 결과	277
〈표 4-14〉 학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80
〈표 4-15〉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81
〈표 4-16〉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대 교차분석 결과	282
〈표 4-17〉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283
〈표 4-18〉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284
〈표 4-19〉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285
〈표 4-20〉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286
〈표 4-21〉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286
〈표 4-22〉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예체능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287
〈표 4-23〉 학부모의 자녀 국어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288
〈표 4-24〉 학부모의 자녀 수학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289
〈표 4-25〉 학부모의 자녀 영어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290
〈표 4-26〉 학부모의 자녀 과학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290
〈표 4-27〉 학부모의 자녀 사회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291
〈표 4-28〉 학부모의 자녀 예체능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292
〈표 4-29〉 학부모의 자녀 국어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293
〈표 4-30〉 학부모의 자녀 수학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294
〈표 4-31〉 학부모의 자녀 영어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295
〈표 4-32〉 학부모의 자녀 과학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296
〈표 4-33〉 학부모의 자녀 사회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297
〈표 4-34〉 학부모의 자녀 예체능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298
〈표 4-35〉 학부모의 평상시 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299
〈표 4-36〉 학부모 자살생각 교차분석 결과	300

〈표 4-37〉 학부모 우울감 교차분석 결과	301
〈표 5-1〉 교사 개인 및 학교배경	308
〈표 5-2〉 교사의 직업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11
〈표 5-3〉 교사의 교사효능감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13
〈표 5-4〉 교사의 교수·학습 설계 전문성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15
〈표 5-5〉 교사의 교수·학습 실행 전문성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16
〈표 5-6〉 교사의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18
〈표 5-7〉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재정)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19
〈표 5-8〉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시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20
〈표 5-9〉 교사의 전문성 개발 기회 인식 교차분석 결과	326
〈표 5-10〉 교사의 기관중심 연수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31
〈표 5-11〉 교사의 단위학교 연수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32
〈표 5-12〉 교사의 교육연구회 활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33
〈표 5-13〉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34
〈표 5-14〉 교사의 교육청 수업컨설팅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35
〈표 5-15〉 교사의 교내 수업장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36
〈표 5-16〉 교사의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37
〈표 5-17〉 교사의 수업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39
〈표 5-18〉 교사의 학생평가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0
〈표 5-19〉 교사의 학력책임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1
〈표 5-20〉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작성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2
〈표 5-21〉 교사의 동아리활동 지도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3
〈표 5-22〉 교사의 각종대회 지도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4
〈표 5-23〉 교사의 교외활동 지도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5
〈표 5-24〉 교사의 생활지도 상담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6
〈표 5-25〉 교사의 안전사고, 학교폭력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7
〈표 5-26〉 교사의 학부모 상담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8

〈표 5-27〉 교사의 공문처리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49
〈표 5-28〉 교사의 민원대응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50
〈표 5-29〉 교사의 업무회의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51
〈표 5-30〉 교사의 학교행사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52
〈표 5-31〉 교사의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53
〈표 5-32〉 교사의 학생 교권침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54
〈표 5-33〉 교사의 동료교사 관계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55
〈표 5-34〉 교사의 관리자 관계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56
〈표 5-35〉 교사의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59
〈표 5-36〉 교사의 학교문화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61
〈표 5-37〉 교사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63
〈표 5-38〉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64
〈표 5-39〉 교사의 수업내용 재구성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65
〈표 5-40〉 교사의 교수방법 결정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66
〈표 5-41〉 교사의 평가방법 결정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67
〈표 5-42〉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결정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68
〈표 5-43〉 교사의 행정업무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69
〈표 5-44〉 학급 내 위기학생(학습부진, 정서행동) 수 교차분석 결과	373
〈표 5-45〉 교사의 학습부진 학생 정책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74
〈표 5-46〉 교사의 학습부진 학생 가정 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75
〈표 5-47〉 교사의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정책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76
〈표 5-48〉 교사의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가정 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77
〈표 5-49〉 교사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80
〈표 5-50〉 교사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82
〈표 5-51〉 교사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83
〈표 5-52〉 교사의 학교시설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84
〈표 5-53〉 교사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85
〈표 5-54〉 교사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86

〈표 5-55〉 교사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87
〈표 5-56〉 교사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88
〈표 5-57〉 교사의 학부모·지역사회 협력 빈도 교차분석 결과	391
〈표 5-58〉 교사의 학부모 역할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94
〈표 5-59〉 교사의 학부모 참여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95
〈표 5-60〉 교사의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96
〈표 5-61〉 교사의 지역사회 협력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97
〈표 5-62〉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 교차분석 결과	400
〈표 5-63〉 교권침해 주체별 빈도(복수 응답 가능)	401
〈표 5-64〉 교권침해 유형별 빈도(복수 응답 가능)	403
〈표 5-65〉 동일 대상으로부터의 교권침해 빈도 교차분석 결과	404
〈표 5-66〉 교사 평상시 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06
〈표 5-67〉 교사의 자살생각 경험(최근 6개월) 교차분석 결과	407
〈표 5-68〉 교사의 우울감 경험(최근 6개월) 교차분석 결과	408
〈표 6-1〉 학교장 개인 및 학교배경	417
〈표 6-2〉 학교장의 직무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20
〈표 6-3〉 학교장의 교수학습 전문성 지원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21
〈표 6-4〉 학교장의 교육계획 수립 및 학사 운영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22
〈표 6-5〉 학교장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23
〈표 6-6〉 학교장의 학생중심교육 운영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24
〈표 6-7〉 학교장의 교직원 인사 및 조직 관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25
〈표 6-8〉 학교장의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협력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26
〈표 6-9〉 학교장의 학교시설 및 재정 관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27
〈표 6-10〉 학교장의 비전 제시 및 목표 관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28
〈표 6-11〉 학교장의 변혁 지향성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30
〈표 6-12〉 학교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31
〈표 6-13〉 학교장의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32

〈표 6-14〉 학교장의 윤리 의식과 공정성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33
〈표 6-15〉 학교장의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35
〈표 6-16〉 학교장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36
〈표 6-17〉 학교장의 학부모 역할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37
〈표 6-18〉 학교장의 학부모 참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38
〈표 6-19〉 학교장의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39
〈표 6-20〉 학교장의 지역사회 협력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40
〈표 6-21〉 학교장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에 대한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42
〈표 6-22〉 학교장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에 대한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44
〈표 6-23〉 학교장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45
〈표 6-24〉 학교장의 시설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46
〈표 6-25〉 학교장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47
〈표 6-26〉 학교장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48
〈표 6-27〉 학교장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49
〈표 6-28〉 학교장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450
〈표 6-29〉 학교장의 평상시 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53
〈표 6-30〉 학교장의 자살생각(최근 6개월 간) 경험 교차분석 결과	454
〈표 6-31〉 학교장의 우울감 경험(최근 6개월 간) 교차분석 결과	455
〈표 7-1〉 행정실 직원 개인 배경	464
〈표 7-2〉 행정실 직원 소속 학교 배경	466
〈표 7-3〉 행정실 직원 직무요구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68
〈표 7-4〉 행정실 직원의 직무 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69
〈표 7-5〉 행정실 직원의 전문성 개발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71
〈표 7-6〉 행정실 직원의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73
〈표 7-7〉 행정실 직원의 학교문화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75
〈표 7-8〉 행정실 직원의 학교시설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78
〈표 7-9〉 행정실 직원의 학교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81

〈표 7-10〉 행정실 직원의 평상시 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484
〈표 7-11〉 행정실 직원의 자살생각 교차분석 결과	485
〈표 7-12〉 행정실 직원의 우울감 교차분석 결과	48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절차와 방법	6
[그림 2-1] 자료의 수집 시기에 따른 연구 종류	11
[그림 2-2]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메인 화면	16
[그림 2-3]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설문조사(좌), 온라인 유레카 설문조사(우)	16
[그림 2-4] 대전교육종단연구 조사 대상 추적 설계	18
[그림 3-1] 학교급별 학생 거주지역	43
[그림 3-2] 남·여학생의 1주일 기준 아침 식사하는 날의 수	45
[그림 3-3]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기준 아침 식사하는 날의 수	46
[그림 3-4] 남·여학생의 1주일 기준 30분 이상 운동하는 날의 수	46
[그림 3-5]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기준 30분 이상 운동하는 날의 수	47
[그림 3-6] 남·여학생의 1주일 기준 충분한 수면을 하는 날의 수	47
[그림 3-7]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기준 충분한 수면을 하는 날의 수	48
[그림 3-8] 남·여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50
[그림 3-9] 학교급별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50
[그림 3-10] 남·여학생의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	52
[그림 3-11] 학교급별 학생의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	53
[그림 3-12] 남·여학생의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	53
[그림 3-13] 학교급별 학생의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	54
[그림 3-14] 남·여학생의 한 달 기준 평균 독서량	57
[그림 3-15] 학교급별 학생의 한 달 기준 평균 독서량	58
[그림 3-16] 학생의 스마트기기 의존도	64
[그림 3-17] 남·여학생의 하루 중 자율학습 시간	66

[그림 3-18] 학교급별 학생의 하루 중 자율학습 시간	67
[그림 3-19]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자율학습 시간	68
[그림 3-20]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자율학습 시간	68
[그림 3-21]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자율학습 시간	69
[그림 3-22]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자율학습 시간	70
[그림 3-23]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자율학습 시간	71
[그림 3-24]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자율학습 시간	71
[그림 3-25]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자율학습 시간	72
[그림 3-26]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자율학습 시간	73
[그림 3-27]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자율학습 시간	74
[그림 3-28]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자율학습 시간	74
[그림 3-29]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	76
[그림 3-30]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	77
[그림 3-31]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78
[그림 3-32]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78
[그림 3-33]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	79
[그림 3-34]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	80
[그림 3-35]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	81
[그림 3-36]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	81
[그림 3-37]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	82
[그림 3-38]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	83
[그림 3-39]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참여 시간	84
[그림 3-40]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참여 시간	84
[그림 3-41] 남·여학생의 학교만족도	93
[그림 3-42] 학교급별 학생의 학교만족도	94
[그림 3-43] 학생의 학교만족도	95
[그림 3-44]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	203
[그림 3-45]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206

[그림 3-46] 학생의 공동체 의식	207
[그림 3-47] 학생의 진로성숙도	209
[그림 3-48] 학생의 디지털활용 역량	210
[그림 3-49] 학생의 생태환경 역량	211
[그림 3-50] 학생과 친구와의 관계	213
[그림 3-51]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214
[그림 3-52]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	215
[그림 3-53] 학생의 행복감	217
[그림 3-54] 학생의 자아존중감	218
[그림 3-55]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219
[그림 3-56] 남·여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236
[그림 3-57] 학교급별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237
[그림 3-58]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238
[그림 4-1] 학교급별 학부모 연령	256
[그림 4-2] 학교급별 학부모 학력	256
[그림 4-3] 학부모 학교만족도	260
[그림 4-4] 학부모 자녀와의 관계	280
[그림 4-5] 학부모 평상시 스트레스	299
[그림 5-1] 교사 응답 현황(성별, 교직경력, 학교급, 학교 규모, 소재지)	308
[그림 5-2] 교사의 직업만족도	311
[그림 5-3] 교사효능감	313
[그림 5-4] 교사의 교수·학습 설계 전문성 인식	314
[그림 5-5] 교사의 교수·학습 실행 전문성 인식	316
[그림 5-6] 교사의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인식	317
[그림 5-7] 교사의 학교만족도	359
[그림 5-8] 교사의 학교문화 인식	360

[그림 5-9] 교사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	362
[그림 5-10] 학급 내 학습부진 학생 수(담임교사 응답)	371
[그림 5-11] 학급 내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수(담임교사 응답)	372
[그림 5-12] 교사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380
[그림 5-13] 교사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	381
[그림 5-14] 교사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383
[그림 5-15]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성별)	399
[그림 5-16]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경력별)	399
[그림 5-17]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학교급별)	400
[그림 5-18] 교사의 평상시 스트레스	406
[그림 6-1] 학교장의 학교급에 따른 총 교직경력	415
[그림 6-2] 학교장의 학교급에 따른 교육전문직 경험 유무	416
[그림 6-3] 학교장의 학교급에 따른 최종학력	416
[그림 6-4] 학교장의 학교급에 따른 학교 소재지	417
[그림 6-5] 학교장의 직무만족도	419
[그림 6-6] 학교장의 학교만족도	434
[그림 6-7] 학교장의 학교장 리더십	436
[그림 6-8] 학교장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442
[그림 6-9] 학교장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	443
[그림 6-10] 학교장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445
[그림 6-11] 학교장의 평상시 스트레스	453
[그림 6-12] 학교장의 우울감 경험 유무(성별)	455
[그림 7-1] 학교급별 행정실 직원 근무경력	463
[그림 7-2] 학교급별 행정실 직원 직급	464
[그림 7-3] 행정실 직원의 직무요구(성별 · 학교급별)	467
[그림 7-4] 행정실 직원의 직무요구(경력별)	467

[그림 7-5] 행정실 직원의 직무만족도(성별 · 학교급별)	469
[그림 7-6] 행정실 직원의 직무만족도(경력별)	469
[그림 7-7] 행정실 직원 학교만족도(성별 · 학교급별)	472
[그림 7-8] 행정실 직원 학교만족도(경력별)	472
[그림 7-9] 행정실 직원의 평상시 스트레스(성별 · 학교급별)	483
[그림 7-10] 행정실 직원의 평상시 스트레스(경력별)	48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절차

제3절 분석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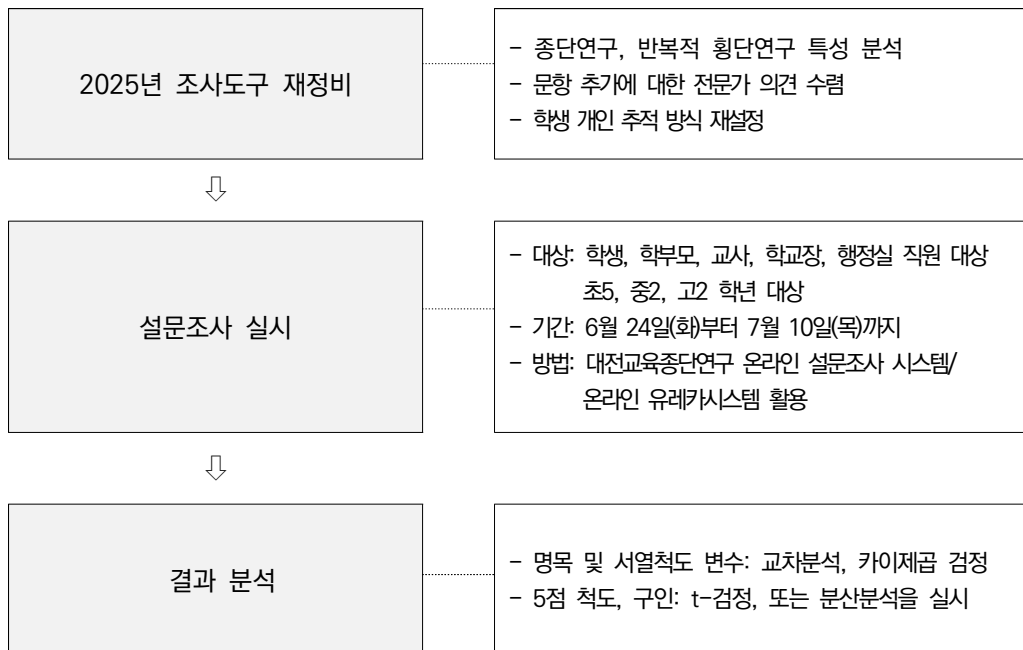
- 교육분야에서 종단연구는 단기간의 단면적 조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교육현상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지역사회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장기적 과정이므로, 시점별 비교를 통해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학생의 학업성취나 행복감, 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문화 등은 일시적 요인보다 누적된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 집단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종단연구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교육개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함.
- 또한 종단연구는 지역 및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 교육정책은 특정 시기의 여론이나 단기성과에 의해 좌우되기 쉬우나, 종단자료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성과의 누적적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함. 특히 학령 전기부터 고등학교, 나아가 성인기까지의 연계적 추적을 통해 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면,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나 정책적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종단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과 ‘증거중심의 의사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실현하는 핵심적 연구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음.
- 대전교육종단연구(Daejeo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는 대전 지역 학생, 교직원, 학교의 변화와 성장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전교육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임. 2023년과 2024년 문항개발과 예비조사를 거쳐 본 연구가 도입되었으며, 2024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졌음.

- 2024년 델파이 조사를 통해 대전교육중단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대전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연구”로 정의하였음(이지혜 외, 2024, p3).
- 교육 분야에서 종단데이터 구축의 핵심은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위한 정책지식(policy knowledge)의 생산에 있음.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교육 현상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근거한 실증 데이터 중심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안영은, 송진주, 이승연, 2021). 증거기반 정책은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정책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정책 담당자에게 교육현상과 사회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그 교육적 의의가 큼(정송, 노언경, 이청아, 2020; 고길곤 외, 2019 재인용).
- 대전교육중단연구는 종단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횡단연구의 장점을 결합한 ‘결합형 설계(hybrid design)’로 추진되고 있음(이지혜 외, 2024). 즉, 반복적 횡단연구에 개인 추적조사 시스템을 연계하여 종단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육 현상의 변화를 집단 수준뿐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음. 대전 지역 학생의 신체적·인지적·정의적 발달과 학교 교육의 효과, 대전교육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생, 교사, 학교장, 학부모, 행정실 직원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표본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선정하여 각 학년 전수를 조사하였으며, 학부모는 해당 학년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사는 담임 및 교과교사 전원을, 학교장과 행정실 직원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 대전교육중단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첫째, 학생의 성장과 발달 수준을 확인하여 대전 학생의 신체적·인지적·정의적 역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둘째,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환경, 교수·학습, 평가, 학교풍토 등 다양한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셋째, 학생·교직원·학부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전교육정책의 실행성과를 분석하여,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전교육중단연구는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육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데이터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교직원의 정책연구 역량과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보고서, 통계분석 자료, 학술저널 발간 및 학술대회·연구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할 계획임.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전교육종단연구는 지역 교육정책의 과학화와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연구 절차

- 이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2025년 조사도구 재정비, 설문조사 실시, 결과 분석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음. 먼저, 조사도구 재정비 단계에서는 중단연구의 특성과 반복적 횡단연구의 특성을 조사하였음. 2024년 조사도구를 기초로 현장에서 추가 요구가 나온 변수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또한 학생 개인의 주관적 응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문항 수정이 이루어졌음. 또한 현장의 설문조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참여를 비로그인 방식으로 변경함.
- 이후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대전교육중단연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과 유레카 시스템을 병행 활용하였음. 수집된 데이터의 결과 분석은 SPSS 27.0.1.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t-검정, 또는 분산분석을 실시함.



[그림 1-1] 연구 절차와 방법

제3절 분석 방법

1. 데이터 처리

가. 데이터 처리

- 수집된 설문 데이터는 시스템상 선택문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필수 응답으로 처리되어 결측치(Missing Value)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명, 학교명 등 주관식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이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상치(Outlier)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함. 따라서 데이터 정제 과정은 중복 응답과 불성실 응답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둠.

나. 중복 응답 처리

- 동일한 응답자가 여러 번 설문에 참여한 경우를 식별하여 데이터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반', '번호', '응답 제출 시간'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중복 응답으로 판단하였으며, 교사, 교장, 행정직원은 '응답 제출 시간'과 '응답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중복 응답으로 판단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복으로 식별된 데이터는 가장 먼저 제출된 최초의 응답만을 유효한 데이터로 처리하고, 이후의 응답은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삭제 처리함.

다. 불성실 응답 처리

- 설문 문항을 성실하게 읽고 답변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응답자의 배경 정보를 묻는 문항을 제외한 이 설문의 대부분 문항에서 특정 번호 하나로만 일관되게 응답한 경우를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함. 불성실 응답으로 판별된 데이터는 분석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전체 데이터를 분석 대상에서 삭제함.

2. 분석 방법

- 변수의 척도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음. 명목 및 서열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교차분석하였으며, 응답이 불균형하여 카이제곱 실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범주화하여 분석하였음. 학생 설문의 자기주도성, 학부모 설문의 자녀와의 관계, 교사 설문의 학교문화, 학교장 설문의 학교장 리더십 등과 같이 구인을 측정한 변수는 t-검정, 또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산분석 시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Brown-Forsythe ANOVA, 사후검정으로 Games-Howell 검정을 실시하였음.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27.0.1임.

제2장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제1절 대전교육종단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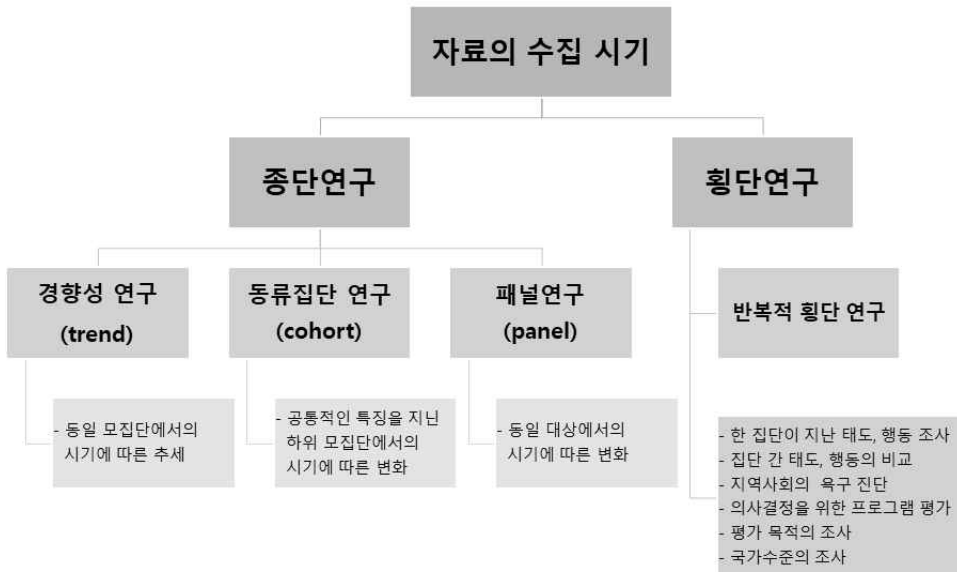
제2절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개요

제3절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참여 결과

제2장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제1절 대전교육종단연구 설계

- 조사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시점과 횟수에 따라 종단적 조사와 횡단적 조사로 구분할 수 있음.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tudy)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로, 자료 수집 시점이 2회 이상이며 동일하거나 최소한 비교 가능한 분석 대상을 포함함(Menard, 1991). 종단연구는 연구 목적과 설계 방식에 따라 경향성 연구(trend study), 동류집단 연구(cohort study), 패널 연구(panel study)로 구분함. [그림 2-1]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재구성한 것임.



[그림 2-1] 자료의 수집 시기에 따른 연구 종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재구성)

1. 중단연구

- 중단연구는 특정 시점의 정적인 단면을 보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 방법으로 Menard(1991)는 중단연구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간격으로, 동일하거나 최소한 비교 가능한 분석 대상에 대해, 동일한 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로 정의함.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적인 변화 과정을 비디오처럼 기록하는 접근법으로 크게 변화의 패턴을 기술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 중단 데이터는 원인 변수의 측정 시기에 따라 선·후 측정시기가 명확하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중단연구는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경향성 연구, 동류집단 연구, 패널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경향성 연구(Trend study)는 추세연구라고도 하며,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표본이 다르나 연구 목적이 동일한 연구임. 일정한 기간 동안 전체 모집단 내의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한 연구대상의 특정 속성을 여러 시기에 관찰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임.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모집단)를 대상으로 수학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매년 조사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동류집단 연구(Cohort study)는 모집단은 고정되어 있으나 매년 다른 표본을 추출하여 그 모집단의 변화 경향성을 분석하는 연구임. 공통된 특징을 지닌 하위 모집단(코호트)이라는 것이 특징임. 예를 들면 특정 연도에 임용된 고등학교 교사들(모집단)의 교직만족도 변화를 연구할 경우, 매년 다른 교사들이 무선 추출되어 연구가 진행되므로 표본은 매년 달라짐.
- 패널 연구(Panel study)는 일한 대상(표본)에 대한 반복적 측정으로 표본 변화에 대한 지속적 연구로서, 그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 형태임. 패널연구는 종단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 대상이 손실될 때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성태제, 시기자, 200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재인용)

2. 반복적 횡단연구

-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는 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한 집단의 태도나 행동을 파악하거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함. 주로 지역사회 욕구조사, 프로그램 평가, 정책 진단, 국가 수준 통계 조사 등에 활용됨. 횡단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광범위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한 번의 조사로 끝나는 표본조사가 일반적이지만, 반복적 횡단연구는 매년 새로운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 수집하는 방법임. 이러한 데이터는 연도에 따라 단면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음(UK Data Service, 2015).
- 대표적인 반복적 횡단연구 사례로 ‘인구 주택 총조사’를 들 수 있음. 인구 주택 총조사¹⁾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임. 반복적 횡단연구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표본이므로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회과학 분야의 반복적 횡단연구 사례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 등이 있음.
-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 전체의 총합적 수준(aggregate level)에서 특정 태도나 행동의 변화 추세(trend)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함. 하지만 각 시점의 표본이 달라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변화는 알 수 있어도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개인 수준의 변화 동학(dynamics of individual change)은 파악할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10년 전보다 청소년의 평균 행복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것이 기존 학생들의 행복도가 낮아진 것인지 새로운 세대의 특성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음. 개인 수준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추적하는 패널 연구가 요구됨.
- <표 2-1>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에서 제시한 종단연구와 횡단연구의 특성, 장점과 단점을 각각 비교한 것임. 종단연구는 다양한 분석과 해석 등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운영과 유지에 어려움이 많아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적절히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1) <https://www.census.go.kr/main/ehpp/aa/ehppaa100m02> 참고

〈표 2-1〉 종단연구와 횡단연구의 비교

구분	종단연구	횡단연구
특성	- 대표성을 고려한 비교적 소수의 대상을 표집 -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연구가 일단 시작하면 도중에 사용하던 도구를 바꾸기 어려움	- 서로 비슷한 항목을 가진 다수의 대상을 표집함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의 특성을 밝혀서 일반적 성향을 알 수 있음 - 개선된 최신의 검사도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비교적 선택이 자유로움
장점	- 소수의 대상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찰, 기록하므로 개인 내 변화와 목적 이외의 유의미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초기와 후기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 용이함	- 종단연구에 비해 경비와 시간, 노력이 절약됨 - 각 연령에 따른 대푯값을 구해서 그 값들을 연결하여 일반적 성장곡선을 그려볼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다양한 측정도구 선택이 가능함 - 연구대상 관리 및 선정이 비교적 용이함
단점	- 긴 시간과 노력, 경비가 많이 듦 - 표집된 연구 대상이 중도 탈락하거나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교집단과 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한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검사도구를 이용한 측정을 해야 하므로 신뢰성이 약해질 수 있음	- 단지 성장의 일반적 경향만을 알 수 있을 뿐 개인적 변화상을 알 수는 없음 - 표집된 대상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행동의 초기와 후기 인과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어려움
비고	종단연구와 횡단연구의 결합을 통해 종단-연속적 연구, 횡단-연속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출처: 한국학술정보원.(2019). 교육 ODA 사업평가의 종단설계 가능성 탐색(p.4).

○ 반복적 횡단연구는 기본적으로 단일 시점의 횡단연구를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수행하는 형태로, 종단연구와 횡단연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표본이 시기별로 다름

- 각 조사 시점마다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므로, 동일한 개인을 추적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개별 변화가 아니라 모집단 수준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음.

2)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적·집단적 변화 분석 가능

- 동일한 조사도구와 문항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나 조직의 구조적 변화나 집단별 인식 변화를 장기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음.

3) 조사 유지의 효율성과 대표성 확보 용이

- 개인 추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률이 낮고, 매 시점에서 새로운 표본을 통해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규모 사회조이나 정책평가 연구에서 자주 활용됨.

3. 대전교육종단연구의 설계

가. 대전교육종단연구 정의

- 대전교육종단연구는 데이터기반의 대전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연구임.

나. 조사 대상

- 대전교육종단연구의 조사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을 포함한 다섯 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조사 대상의 범위와 특성은 <표 2-2>와 같음.

<표 2-2> 대전교육종단연구 조사 대상

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5학년 전체	2학년 전체
학부모	대상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1인	
교사	교무부장, 연구부장, 5학년부장, 5학년 지도교사 전체	교무부장, 연구부장, 2학년부장, 2학년 담임 및 비교과 담임교사 전체
학교장	학교장 전체	
행정실 직원	행정실 직원 전체	

다.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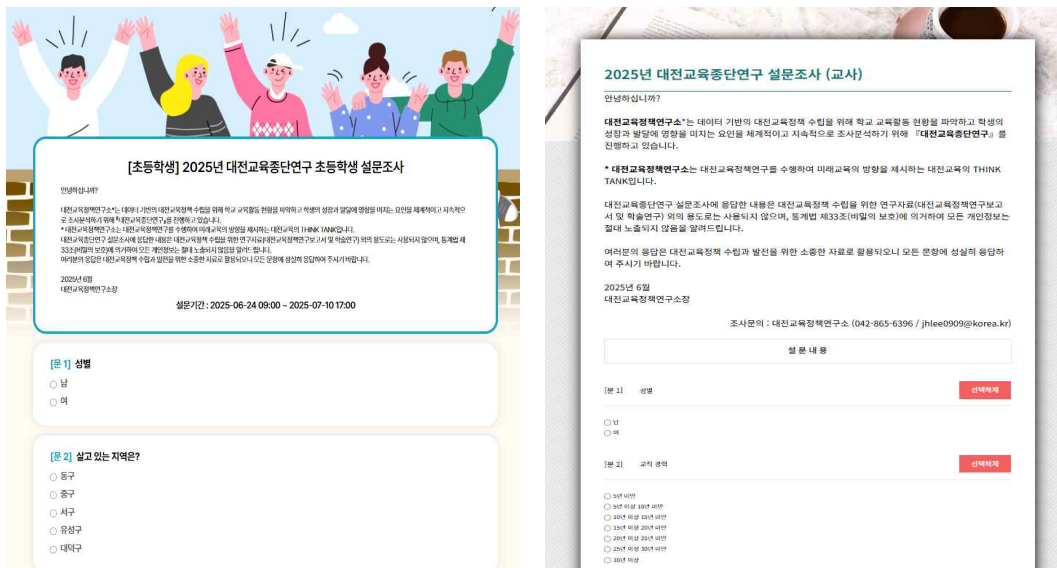
- 대전교육종단연구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음.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은 2024년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왔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였으며, 2025년에는 적용 범위를 학부모까지 확대하였음. 그 외 집단인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레카(Eureka)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

- 이에 따라 2025년 조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교사·학교장·행정실 직원은 온라인 유레카 시스템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였음. 모든 설문 응답 자료와 분석 결과 등은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공유되고 있음.



[그림 2-2]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메인 화면



[그림 2-3]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설문조사(좌), 온라인 유레카 설문조사(우)

라. 설계의 특성

1) 반복적 횡단조사와 패널조사의 결합적 설계

- 대전교육종단연구는 반복적 횡단조사와 패널조사의 결합형 설계를 적용하고 있음. 매년 동일 학년의 학생을 전수 조사하는 반복적 횡단연구(repeated cross-sectional study)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되, 전국 최초로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및 관리가 가능한 종단적 요소를 함께 반영하였음.
- 이를 통해 대전교육종단연구는 한편으로는 시기별 집단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학생의 성장 궤적과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중적 연구 구조를 구축하였음. 또한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정보²⁾의 안전한 관리 및 데이터 연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2) 1회기 추적 대상 데이터의 수집 계획

- **1회기 추적조사 대상 데이터는 2025년 초등학교 5학년을 시작으로, 2028년 중학교 2학년, 2031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집될 예정임.** [그림 2-4]에서와 같이, 2025년에 초등학교 5학년으로 참여한 학생 집단이 2028년 중학교 2학년, 2031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각 시점에서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됨.
- 이와 같이 6년 동안 세 차례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수준의 성장 및 변화 과정을 추적·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단연구(패널조사)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

2) 2025년부터 학생의 추적을 위하여 학생의 학교명, 반, 번호, 이름을 수집함.

연도	초5		중2		고2
2025	14년생		11년생		08년생
2026	15년생		12년생		09년생
2027	16년생		13년생		10년생
2028	17년생		14년생		11년생
2029	18년생		15년생		12년생
2030	19년생		16년생		13년생
2031	20년생		17년생		14년생

→ 1회기 추적 대상 데이터 수집 완료

[그림 2-4] 대전교육종단연구 조사 대상 추적 설계

제2절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개요

1.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목적과 개요

가. 조사의 목적

- 대전교육종단연구는 대전광역시 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학생의 성장과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임.
-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을 포함한 다섯 개 집단을 대상으로 문항 개발과 예비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 1차 본조사가 반복적 횡단연구 형태로 시행되었음.
- 2024년 조사는 학생의 종단적 추적을 위해 ‘대전교육종단연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초등학생 대상 조사에서 담임교사의 행정·지도 부담이 다소 크게 나타났음.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참여 편의성과 현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로그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대전교육종단연구의 반복적 횡단연구는 2024년에 시행되었으며, 패널 구축을 위한 추적조사 데이터 수집은 2025년부터 수행되었음.

나. 조사도구 재구조화

- 2023년 교권보호법 제정·시행과 2025년 대전 지역 학교 내 강력범죄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 안팎의 안전과 교육공동체의 정신건강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였음. 이에 대전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선제적 진단과 정책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아울러 학생의 행복감과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과별 수업 이해도 및 흥미도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갈등 및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가정 환경 요소 또한 함께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에서는 문항 추가 및 수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대전교육종단연구

문항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진행하였음. 위원회의 구성은 <표 2-3>과 같음. 문항 검토는 2025년 4월 14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일부 변수(문항)를 조정하고 조사도구를 재구조화하였음.

<표 2-3>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문항검토 대상

순	소속 (학교급)	직급	대상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곽○○
2		장학사	김○○
3	초등학교	교장	윤○○
4		교감	오○○
5		교사	박 ○
6		교사	전○○
7		교사	강○○
8		행정실장	민○○
9	중학교	교장	조○○
10		교감	남○○
11		교사	김○○
12		교감	임○○
13		교사	김○○
14		교감	이○○
15	고등학교	교사	조○○
16		교사	김○○
17		교사	하○○
18		교사	이○○

다. 조사도구 재구조화 결과

○ 2024년 조사도구에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소영역(변수)은 <표 2-4>와 같음. 이번 조사는 2024년 1차 조사 결과와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사교육, 학교안전, 교과역량, 교권보호, 정신건강 등 주요 영역의 변수를 확대·보완함으로써 조사도구의 포괄성과 정책 활용성을 강화하였음.

- 첫째, 사교육 영역을 확장하여 학생은 사교육 참여 시간 변수를, 학부모는 사교육 참여 시간과 비용 변수를 추가하였음.
- 둘째, 학교환경 및 안전 영역은 2024년 연구 결과와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해양 관련 8개 변수를 모든 조사대상(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에게 공통 적용하였음.
- 셋째, 학업역량 영역은 기존의 학업성취도에 더해 교과별 수업이해도와 흥미도를 포함하고, 교과 범위를 국어·영어·수학에서 과학, 사회, 예체능까지 확대하였음.

- 넷째, 교권보호 관련 변수를 신설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경험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다섯째, 웰빙 영역에서 정신건강(스트레스, 자살생각, 우울감)과 약물건강(흡연, 음주) 변수를 강화하였으며, 조사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였음.

○ 이와 같은 조사도구 재구조화는 2025년 대전교육중단연구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환경의 질, 교육공동체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임.

〈표 2-4〉 2025년 대전교육중단연구 조사도구 재구조화(변수 추가) 결과

소영역_변수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
	초	중	고				
사교육 시간_국,영,수,과,사,예체능	✓	✓	✓	✓			
사교육 비용_국,영,수,과,사,예체능				✓			
학교시설 인식_ 휴식공간 환경					✓	✓	✓
학교시설 인식_ 디지털수업 환경						✓	✓
학교안전 인식_ 시설 안전	✓	✓	✓	✓			
학교안전 인식_ 학교폭력 안전					✓	✓	✓
학교안전 인식_ 외부침입 안전	✓	✓	✓	✓	✓	✓	✓
학교안전 인식_ 학교주변 안전	✓	✓	✓	✓			
교과별 수업이해도_국,영,수,과,사,예체능	✓	✓	✓				
교과별 흥미도_국,영,수,과,사,예체능	✓	✓	✓				
대전교육_대전 AI·로봇·코딩 수업 경험	✓	✓	✓				
대전교육_AI·로봇·코딩 전시 경험	✓	✓	✓				
교권침해 경험, 주체, 유형, 빈도					✓		
웰빙_평상시 스트레스	✓	✓	✓	✓	✓	✓	✓
웰빙_자살생각		✓	✓	✓	✓	✓	✓
웰빙_우울감		✓	✓	✓	✓	✓	✓
웰빙_흡연경험		✓	✓				
웰빙_음주경험		✓	✓				

2. 설문방법

-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설문조사는 <표 2-5>와 같이 진행되었음. 조사 방법은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과 시스템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음. 학생과 학부모는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였으며,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은 온라인 유레카(Eureka)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에 응답하였음. 설문조사는 2025년 6월 24일(화)부터 7월 10일(목)까지 총 17일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음.
- 설문조사 기간 및 참여 방법은 학교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하였음.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급별로 설문조사 일정을 구분하여 안내하였으며, 특히 학부모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 기간인 6월 24일(화)부터 7월 10일(목)까지 자유롭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또한 학교 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전체 조사 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설문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였음.
-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요 변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표 2-5>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설문 방법

영역	설문 대상	설문 기간	학교 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전체	- 동부교육지원청 소속교: 6. 24.(화) ~ 6. 25.(수) - 서부교육지원청 소속교: 6. 26.(목) ~ 6. 27.(금)	154교
	5학년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전체		
	교무부장교사, 연구부장교사, 5학년 부장교사, 5학년 지도교사(담임, 교담 및 비교과 담당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	- 동부교육지원청 소속교 : 6. 30.(월) ~ 7. 1.(화) - 서부교육지원청 소속교 : 7. 2.(수) ~ 7. 3.(목)	90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전체		
	교무부장교사, 연구부장교사, 2학년 부장교사, 2학년 지도교사(담임, 교담 및 비교과 담당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	- 7. 7.(월) 09:00 ~ 7. 10.(목) 17:00	62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전체		
	교무부장교사, 연구부장교사, 2학년 부장교사, 2학년 지도교사(담임, 교담 및 비교과 담당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		

3. 조사도구

-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의 조사도구는 <표 2-6>과 같이 최종 구성되었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유형에 따른 세부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등학교 종류’ 변수가 추가되어 중학교에 비해 문항 수가 1개 더 많은 구성을 갖추고 있음. 이는 표 내에서 괄호로 표시하였음. 학생 조사도구는 초·중·고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과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은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초등학생용 조사도구는 중·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문항 수가 다소 적게 구성되었음.
- <표 2-7>부터 <표 2-11>까지는 각 조사대상 집단별 조사도구의 구성을 제시한 것임. 각 표에서는 조사대상 집단별 구인(construct)의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구인에 해당하는 변수는 ‘○’로 표기하였음. 또한 5개 집단(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행정직원)에 공통으로 적용된 변수는 ‘●’로, 두 개 집단 이상(예: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에 공통으로 적용된 변수는 ‘◎’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공통 변수의 경우 문항 서술이 5개 집단에게 모두 동일함.

<표 2-6>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조사도구

구분	학생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학교장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고등학교)
	초	중	고				
영역 수	8	8	8	4	4	4	4
변수 수	112	118	118	66(67)	86(87)	40(41)	33(34)
문항 수	154	160	161	73(74)	125(126)	45(46)	45(46)

가. 학생

〈표 2-7〉 학생 조사도구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여부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배경	개인배경	1	성별		●	1	1	1
		2	거주지역			1	1	1
		3	주 보호자			1	1	1
		4	형제자매 수			1	1	1
	학교배경	5	학교급		●	1	1	1
		6	학교 설립 유형		●	1	1	1
		7	고등학교 유형		●	-	-	1
		8	학교 규모		●	1	1	1
		9	학교 소재지		●	1	1	1
가정생활	생활습관	10	아침식사 빈도			1	1	1
		11	규칙적인 운동 빈도			1	1	1
		12	충분한 수면 빈도			1	1	1
		13	수면 시간			1	1	1
	여가 활동	14	평일 여가 시간			1	1	1
		15	주말 여가 시간			1	1	1
		16	선호 여가 활동			1	1	1
		17	실제 여가 활동			1	1	1
	독서	18	독서량			1	1	1
		19	독서분야			1	1	1
	스마트기기	20	온라인게임 시간			1	1	1
		21	온라인채팅·SNS 시간			1	1	1
		22	학습동영상 시청 시간			1	1	1
		23	각종동영상 시청 시간			1	1	1
		24	스마트기기 의존도	○		4	4	4
	자율학습	25	(하루) 자율학습 시간			1	1	1
		26	(1주일) 자율학습 시간: 국어			1	1	1
		27	(1주일) 자율학습 시간: 수학			1	1	1
		28	(1주일) 자율학습 시간: 영어			1	1	1
		29	(1주일) 자율학습 시간: 과학			1	1	1
		30	(1주일) 자율학습 시간: 사회			1	1	1
	사교육 시간	31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국어			1	1	1
		32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수학			1	1	1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여부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33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영어			1	1	1
		34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과학			1	1	1
		35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사회			1	1	1
		36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예체능			1	1	1
	사교육 목적	37	사교육 목적: 국어			1	1	1
		38	사교육 목적: 수학			1	1	1
		39	사교육 목적: 영어			1	1	1
		40	사교육 목적: 과학			1	1	1
		41	사교육 목적: 사회			1	1	1
		42	사교육 목적: 예체능			1	1	1
학교생활	학교만족도	43	학교만족도		●	1	1	1
	학교문화 인식	44	교사-학생 소통			1	1	1
		45	학생회 운영			1	1	1
		46	학급 예절			1	1	1
		47	학급 협력			1	1	1
		48	학급 질서			1	1	1
	학교시설 인식	49	휴식공간 환경		●	1	1	1
		50	디지털수업 환경		●	1	1	1
		51	청결한 학교 환경		●	1	1	1
	학교안전 인식	52	시설 안전		●	1	1	1
		53	학교폭력 안전		●	1	1	1
		54	외부침입 안전		●	1	1	1
		55	등하굣길 교통 안전		●	1	1	1
		56	학교주변 안전		●	1	1	1
	교사 인식	57	교사 지식 전문성			1	1	1
		58	교사 수업 전문성			1	1	1
		59	교사 도구 활용			1	1	1
		60	교사 수업 중 피드백			1	1	1
	수업 인식	61	수업 활발한 토의토론			1	1	1
		62	수업 활발한 모둠활동			1	1	1
		63	나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1	1	1
	평가 인식	64	평가 방법의 다양성			1	1	1
		65	평가 결과의 효율성			1	1	1
		66	평가 피드백의 효과			1	1	1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여부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67	교과학습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1	1	1
		68	특기·적성 분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1	1	1
	동아리활동	69	교과학습 관련 동아리활동 효과			1	1	1
		70	특기·적성 분야 동아리활동 효과			1	1	1
	진로교육	71	진로교육 다양성			1	1	1
		72	진로교육 효과			1	1	1
학생역량	교과별 학업성취도	73	학업성취도: 국어			1	1	1
		74	학업성취도: 수학			1	1	1
		75	학업성취도: 영어			1	1	1
		76	학업성취도: 과학			1	1	1
		77	학업성취도: 사회			1	1	1
	교과별 수업이해도	78	수업이해도: 국어			1	1	1
		79	수업이해도: 수학			1	1	1
		80	수업이해도: 영어			1	1	1
		81	수업이해도: 과학			1	1	1
		82	수업이해도: 사회			1	1	1
	교과별 흥미도	83	교과 흥미도: 국어			1	1	1
		84	교과 흥미도: 수학			1	1	1
		85	교과 흥미도: 영어			1	1	1
		86	교과 흥미도: 과학			1	1	1
		87	교과 흥미도: 사회			1	1	1
	사회적 역량	88	자기주도 학습역량	○		4	4	4
		89	자이탄력성	○		4	4	4
		90	의사소통 역량	○		4	4	4
		91	공동체역식	○		4	4	4
	미래 역량	92	진로성숙도	○		5	5	5
		93	디지털활용 역량	○		4	4	4
		94	생태환경 역량	○		4	4	4
학생 특성	인간관계	95	친구와의 관계	○		4	4	4
		96	(담임)교사와의 관계	○		4	4	4
		97	학부모와의 관계	○		4	4	4
	심리정서	98	행복감	○		4	4	4
		99	자아존중감	○		4	4	4
		100	학업스트레스	○		4	4	4
교육경험	AI·과학도시	101	대덕특구 과학연구소 교육			1	1	1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여부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대전교육	102	대전 과학축제·행사 경험			1	1	1
		103	대전 실험·실습 중심 과학수업 경험			1	1	1
		104	대전 AI·로봇·코딩 수업 경험			1	1	1
		105	대전 AI·로봇·코딩 전시 경험			1	1	1
		106	대전 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			1	1	1
		107	대전 과학도시 자부심			1	1	1
	영재교육	108	영재교육 경험 여부(기관)			1	1	1
		109	영재교육 경험 분야			1	1	1
		110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			1	1	1
		111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			1	1	1
	웰빙	정신건강	112	평상시 스트레스		●	1	1
113			자살생각		●	-	1	1
114			우울감		●	-	1	1
약물건강		115	흡연 경험			-	1	1
		116	음주 경험			-	1	1
진로진학	진로진학	117	진학/진로 계획			-	1	1
		118	교육포부			-	1	1
합계						154	160	161

나. 학부모

〈표 2-8〉 학부모 조사도구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배경	개인배경	1	자녀와 관계			1	1	1
		2	성별		●	1	1	1
		3	연령			1	1	1
		4	최종학력			1	1	1
	자녀배경	5	형제자매 수			1	1	1
		6	학교급		●	1	1	1
		7	학교 설립 유형		●	1	1	1
		8	고등학교 유형		●	-	-	1
		9	학교 규모		●	1	1	1
		10	학교 소재지		●	1	1	1
학교인식	학교만족도	11	학교만족도			1	1	1
	교사 인식	12	교사 학생 소통			1	1	1
		13	교사 수업열의			1	1	1
		14	교사 학생이해			1	1	1
		15	교사 상담지도			1	1	1
	학교교육 인식	16	학생 학습지도			1	1	1
		17	학생 특가적성 개발			1	1	1
		18	학생중심 교육			1	1	1
		19	평가 다양성			1	1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인식	20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목적			1	1	1
		21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1	1	1
		22	특가·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목적			1	1	1
		23	특가·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1	1	1
	학교시설 인식	24	휴식공간 환경		●	1	1	1
		25	디지털수업 환경		●	1	1	1
		26	청결한 학교 환경		●	1	1	1
		27	시설 안전		●	1	1	1
	학교안전 인식	28	학교폭력 안전		●	1	1	1
		29	외부침입 안전		●	1	1	1
		30	등하굣길 교통 안전		●	1	1	1
		31	학교주변 안전		●	1	1	1
		32	학교일정 정보 제공			1	1	1
	정보와 소통 기회	33	자녀 학교생활 정보 제공			1	1	1
		34	교사와 소통 가능성			1	1	1
		35	학부모 교육 기회			1	1	1
		36	학교활동 참여 기회			1	1	1
		37	학부모단체 활동			1	1	1
	학부모참여 활동	38	학교 봉사활동			1	1	1
		39	학부모총회			1	1	1
		40	학부모 연수			1	1	1
		41	공개수업 참관			1	1	1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가정지원		42	대면 상담			1	1	1
		43	비대면 상담			1	1	1
		학부모 역할	44	자녀와의 관계	○		4	4
	45		학습 지원	○		5	5	5
	46		교육 기대			1	1	1
	사교육 시간	47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국어			1	1	1
		48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수학			1	1	1
		49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영어			1	1	1
		50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과학			1	1	1
		51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사회			1	1	1
		52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예체능			1	1	1
	사교육 목적 (참여하는 경우)	53	사교육 목적: 국어			1	1	1
		54	사교육 목적: 수학			1	1	1
		55	사교육 목적: 영어			1	1	1
		56	사교육 목적: 과학			1	1	1
		57	사교육 목적: 사회			1	1	1
		58	사교육 목적: 예체능			1	1	1
	사교육 비용 (참여하는 경우)	59	(1개월) 사교육 비용: 국어			1	1	1
		60	(1개월) 사교육 비용: 수학			1	1	1
		61	(1개월) 사교육 비용: 영어			1	1	1
		62	(1개월) 사교육 비용: 과학			1	1	1
		63	(1개월) 사교육 비용: 사회			1	1	1
		64	(1개월) 사교육 비용: 예체능			1	1	1
웰빙	정신건강	65	평상시 스트레스		●	1	1	1
		66	자살생각		●	1	1	1
		67	우울감		●	1	1	1
합계						73	73	74

다. 교사

〈표 2-9〉 교사 조사도구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배경	개인배경	1	성별			1	1	1
		2	교직경력		●	1	1	1
		3	담당(전공)과목			1	1	1
		4	최종학력			1	1	1
	학교배경	5	학교급		●	1	1	1
		6	학교 설립 유형		●	1	1	1
		7	고등학교 유형		●	-	-	1
		8	학교 규모		●	1	1	1
		9	학교 소재지		●	1	1	1
		10	담임여부			1	1	1
		11	학급 학생 수			1	1	1
직무	직업만족도	12	교직만족도		●	1	1	1
	수업전문성	13	교사효능감	○		8	8	8
		14	교수학습 설계 전문성	○		7	7	7
		15	교수학습 실행 전문성	○		8	8	8
		16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		7	7	7
	전문성 개발 지원	17	전문성 개발 재정 지원			1	1	1
		18	전문성 개발 시간 지원			1	1	1
	전문성 개발 기회	19	기관중심 연수 경험			1	1	1
		20	단위학교 연수 경험			1	1	1
		21	교육연구회 활동 경험			1	1	1
		22	교사학습공동체 경험			1	1	1
		23	교육청 수업컨설팅 경험			1	1	1
		24	교내 수업장학 경험			1	1	1
		25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경험			1	1	1
	전문성 개발 효과	26	기관중심 연수 효과			1	1	1
		27	단위학교 연수 효과			1	1	1
		28	교육연구회 활동 효과			1	1	1
		29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효과			1	1	1
		30	교육청 수업컨설팅 효과			1	1	1
		31	교내 수업장학 효과			1	1	1
		32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효과			1	1	1
	업무스트레스	33	수업			1	1	1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34	학생평가			1	1	1
		35	학력책임			1	1	1
		36	학교생활기록부작성			1	1	1
		37	동아리활동 지도			1	1	1
		38	각종대회 지도			1	1	1
		39	교외활동 지도			1	1	1
		40	생활지도 상담			1	1	1
		41	안전사고, 학교폭력			1	1	1
		42	학부모 상담			1	1	1
		43	공문처리			1	1	1
		44	민원대응			1	1	1
		45	업무회의			1	1	1
		46	학교행사			1	1	1
		47	학부모 교권침해			1	1	1
		48	학생 교권침해			1	1	1
		49	동료교사 관계			1	1	1
		50	관리자 관계			1	1	1
학교인식	학교만족도	51	학교만족도			1	1	1
	학교문화	52	(개방적) 학교문화	○		9	9	9
	학교장 리더십	53	학교장 리더십	○		6	6	6
	교사 자율성	54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1	1	1
		55	수업내용 결정 자율성			1	1	1
		56	교수방법 결정 자율성			1	1	1
		57	평가방법 결정 자율성			1	1	1
		58	학생 생활지도 결정 자율성			1	1	1
		59	행정업무 자율성			1	1	1
	위기학생 지원	60	학습부진 학생 수			1	1	1
		61	학습부진 학생 정책지원			1	1	1
		62	학습부진 학생 가정 지원			1	1	1
		63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수			1	1	1
		64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정책지원			1	1	1
		65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가정 지원			1	1	1
	학교시설 인식	66	휴식공간 환경		●	1	1	1
		67	디지털수업 환경		●	1	1	1
		68	청결한 학교 환경		●	1	1	1
	학교안전 인식	69	시설 안전		●	1	1	1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70	학교폭력 안전		●	1	1	1
		71	외부침입 안전		●	1	1	1
		72	등하굣길 교통 안전		●	1	1	1
		73	학교주변 안전		●	1	1	1
	학부모·지역사회 협력	74	학부모 상담 경험			1	1	1
		75	학부모 공개수업 경험			1	1	1
		76	지역사회 연계 경험			1	1	1
	학부모·지역사회 인식	77	학부모 역할 인식		◐	1	1	1
		78	학부모 참여 인식		◐	1	1	1
		79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		◐	1	1	1
		80	지역사회 협력 인식		◐	1	1	1
웰빙	교육활동 보호	81	교권침해 경험			1	1	1
		82	교권침해 주체			1	1	1
		83	교권침해 유형			1	1	1
		84	교권침해 빈도			1	1	1
	정신건강	85	평상시 스트레스		●	1	1	1
		86	자살생각		●	1	1	1
		87	우울감		●	1	1	1
합계						99	99	100

라. 학교장

〈표 2-10〉 학교장 조사도구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배경	개인배경	1	성별		●	1	1	1
		2	교직경력		○	1	1	1
		3	학교장 경력			1	1	1
		4	교육전문직 경험			1	1	1
		5	담당(전공)과목			1	1	1
		6	최종학력		○	1	1	1
	학교배경	7	학교급		●	1	1	1
		8	학교 설립 유형		●	1	1	1
		9	고등학교 유형		●	-	-	1
		10	학교 규모		●	1	1	1
		11	학교 소재지		●	1	1	1
직무	직무만족도	12	직무만족도		○	1	1	1
	직무역량 인식	13	교수학습 전문성 지원			1	1	1
		14	교육계획 수립 및 학사 운영			1	1	1
		15	교육과정 개발 운영			1	1	1
		16	학생중심교육 운영			1	1	1
		17	교직원 인사 및 조직 관리			1	1	1
		18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협력			1	1	1
		19	학교시설 및 재정 관리			1	1	1
		20	비전 제시 및 목표 관리			1	1	1
	리더십역량 인식	21	변혁 지향성			1	1	1
		22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1	1	1
		23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			1	1	1
		24	윤리 의식과 공정성			1	1	1
학교인식	학교만족도	25	학교만족도		●	1	1	1
	학교장 리더십	26	학교장 리더십	○	○	6	6	6
	학부모·지역사회 인식	27	학부모 역할		○	1	1	1
		28	학부모 참여		○	1	1	1
		29	지역사회 교육소재		○	1	1	1
		30	지역사회 협력		○	1	1	1
	학교시설 인식	31	휴식공간 환경		●	1	1	1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32	디지털수업 환경		●	1	1	1
		33	청결한 학교 환경		●	1	1	1
	학교안전 인식	34	시설 안전		●	1	1	1
		35	학교폭력 안전		●	1	1	1
		36	외부침입 안전		●	1	1	1
		37	등하굣길 교통 안전		●	1	1	1
		38	학교주변 안전		●	1	1	1
		웰빙	정신건강	39	평상시 스트레스		●	1
40	자살생각				●	1	1	1
41	우울감				●	1	1	1
합계						45	45	46

마. 행정실 직원

〈표 2-11〉 행정실 직원 조사도구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배경	개인배경	1	성별		●	1	1	1
		2	근무경력		○	1	1	1
		3	최종학력		○	1	1	1
		4	직급			1	1	1
	학교배경	5	학교급		●	1	1	1
		6	학교 설립 유형		●	1	1	1
		7	고등학교 유형		●	-	-	1
		8	학교 규모		●	1	1	1
		9	학교 소재지		●	1	1	1
직무	직무수행	10	직무요구	○		4	4	4
		11	직무만족도	○		4	4	4
	전문성개발	12	직무관련 교육기회			1	1	1
		13	직무관련 교육지원			1	1	1
		14	직무교육 도움도			1	1	1
학교인식	학교만족도	15	학교만족도			1	1	1
	조직문화	16	관계지향 조직문화	○		3	3	3
		17	성취지향 조직문화	○		3	3	3
		18	변화지향 조직문화	○		3	3	3
	학교문화	19	학교장 역할중재			1	1	1
		20	학교장 업무배정			1	1	1
		21	교사와 행정실 직원 소통			1	1	1
		22	행정실 직원 간 소통			1	1	1
		23	학교와 민원인 소통			1	1	1
	학교시설 인식	24	휴식공간 환경		●	1	1	1
		25	디지털수업 환경		●	1	1	1
		26	청결한 학교 환경		●	1	1	1
	학교안전 인식	27	시설 안전		●	1	1	1
		28	학교폭력 안전		●	1	1	1
		29	외부침입 안전		●	1	1	1
		30	등하굣길 교통 안전		●	1	1	1
		31	학교주변 안전		●	1	1	1

영역	소영역	순	변수	구인	집단 공통	문항 수		
						초	중	고
웰빙	정신건강	32	평상시 스트레스		●	1	1	1
		33	자살생각		●	1	1	1
		34	우울감		●	1	1	1
합계						45	45	46

제3절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참여 결과

1.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참여자 응답률

-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는 2025년 6월 24일(화)부터 7월 10일(목)까지 17일간 실시되었음. 조사는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의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전체 추정 모집단 73,605명 중 총 29,795명이 참여하여 40.5%의 응답률을 기록함.

〈표 2-12〉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응답률

(단위: 명)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응답률	추정 모집단	응답률	추정 모집단	응답률	추정 모집단	응답률	추정 모집단
학생	9,817 (80.6%)	12,181	8,549 (63.8%)	13,402	4,083 (31.3%)	13,055	22,449 (58.1%)	38,638
학부모	2,995 (24.6%)	12,181	2,002 (14.9%)	13,402	523 (4.0%)	13,055	5,520 (6.7%)	38,638
교사	471 (58.1%)	811	525 (54.7%)	960	441 (35.9%)	1,229	1,437 (49.6%)	2,900
학교장	56 (36.8%)	152	37 (41.1%)	90	28 (45.2%)	62	121 (39.8%)	304
행정실 직원	110 (19.6%)	562	77 (24.8%)	311	81 (25.2%)	321	268 (22.4%)	1,194
총계							29,795 (40.5%)	81,674

- 학생은 전체 추정 모집단 38,638명 중 22,449명이 참여하여 58.1%의 응답률을 보임.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생 9,817명(80.6%), 중학생 8,549명(63.8%), 고등학생 4,083명(31.3%)이 참여함. 2024년(11,304명, 29.1%)과 비교하여 참여 인원은 11,145명, 응답률은 29.0%p 증가함.

- 학부모는 전체 추정 모집단 38,638명 중 5,520명이 참여하여 14.3%의 응답률을 보임.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학부모 2,995명(24.6%), 중학생 학부모 2,002명(14.9%), 고등학생 학부모 523명(4.0%)이 참여함. 2024년(4,374명, 11.3%) 대비 참여 인원은 1,146명, 응답률은 3.0%p 증가함.
- 교사는 전체 추정 모집단 2,900명 중 1,437명이 참여하여 49.6%의 응답률을 보임. 학교급별 참여 인원은 초등학교 471명(58.1%), 중학교 525명(54.7%), 고등학교 441명(35.9%)이 참여함. 2024년(1,018명, 34.9%)과 비교하여 참여 인원은 419명, 응답률은 14.7%p 증가함.
- 학교장은 전체 304명 중 121명이 참여하여 39.8%의 응답률을 보임. 초등학교 56명(36.8%), 중학교 37명(41.1%), 고등학교 28명(45.2%)이 각각 참여함. 2024년(175명, 57.9%) 대비 참여 인원은 54명, 응답률은 18.1%p 감소함.
- 행정실 직원은 전체 추정모집단 1,194명 중 268명이 참여하여 22.5%의 응답률을 보임. 초등학교 110명(19.6%), 중학교 77명(24.8%), 고등학교 81명(25.2%)이 각각 참여함. 2024년(285명, 25.4%) 대비 참여 인원은 17명, 응답률은 2.9%p 감소함.

2.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학교 응답률

- 2025 대전교육종단연구 학교 기준 응답률은 <표 2-12>와 같음. 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응답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모집단은 2025년 5월 기준 「대전 기본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대전 관내 전체 초등학교 154교 중 135교(87.7%), 중학교 90교 중 79교(87.8%), 고등학교 62교 중 27교(43.5%)가 참여하였음.
- 학교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공립 133교(98.5%), 사립 2교(1.5%)가 참여하여 모집단 구성(공립 98.7%, 사립 1.3%)과 거의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였음. 중학교는 공립 64교(81.0%), 사립 15교(19.0%)가 참여하였으며, 이는 모집단 구성(공립 82.2%, 사립 17.8%)과 유사하여 설립 유형별 대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고등학교는 공립 25교(53.2%), 사립 22교(46.8%)가 참여하여 모집단 구성(공립 54.8%, 사립 45.2%)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설립 유형에 따른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참여 초등학교는 동구 19교(14.1%), 중구 24교(17.8%), 서구 35교(25.9%), 유성구 39교(28.9%), 대덕구 18교(13.3%)로 분포하여 대전 지역 내 학교 수 비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참여 중학교는 동구 8교(10.1%), 중구 13교(16.5%), 서구 28교(35.4%), 유성구 21교(26.6%), 대덕구 9교(11.4%)로 분포하여 서구·유성구 중심의 모집단 구조를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지역 간 균형과 대표성이 확보됨. 참여 고등학교는 동구 6교(19.4%), 중구 10교(21.3%), 서구 15교(31.9%), 유성구 12교(25.5%), 대덕구 4교(8.5%)로 분포하여 모집단과 유사한 지역 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지역적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표 2-13〉 2025년 대전교육중단연구 학교 응답률

(단위: 교)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응답률	모집단	응답률	모집단	응답률	모집단
학교급		135(87.7%)	154(100%)	79(87.8%)	90(100%)	27(43.5%)	62교(100%)
설립 구분	공립	133(98.5%)	152(98.7%)	64(81.0%)	74(82.2%)	25(53.2%)	34(54.8%)
	사립	2(1.5%)	2(1.3%)	15(19.0%)	16(17.8%)	22(46.8%)	28(45.2%)
학교 소재지	동구	19(14.1%)	23(14.9%)	8(10.1%)	12(13.3%)	6(12.8%)	9(14.5%)
	중구	24(17.8%)	27(17.5%)	13(16.5%)	14(15.6%)	10(21.3%)	14(22.6%)
	서구	35(25.9%)	41(26.6%)	28(35.4)	29(32.2%)	15(31.9%)	17(27.4%)
	유성구	39(28.9%)	42(27.3%)	21(26.6%)	23(25.6%)	12(25.5%)	17(27.4%)
	대덕구	18(13.3%)	21(13.6%)	9(11.4%)	12(13.3%)	4(8.5%)	5(8.1%)
총계		135교(100%)	154교(100%)	79교(100%)	90교(100%)	27교(100%)	62교(100%)

제3장 학생 결과

제1절 배경

제2절 가정생활

제3절 학교생활

제4절 학생역량

제5절 학생특성

제6절 교육경험

제7절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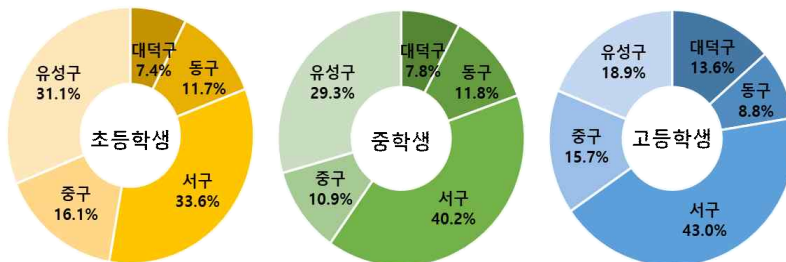
제8절 진로진학

제9절 소결

제3장 학생 결과

제1절 배경

- 학생 응답자의 성별, 거주지역, 주 보호자, 형제·자매 수(학생 미포함)와 같은 개인배경과 학교 설립 유형 현황은 <표 3-1>과 같음.
- **성별**은 전체 응답자 22,449명 중 남학생 11,387명(50.7%), 여학생 11,062명(49.3%) 이었음.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5,086명(51.8%), 여학생은 4,731명(48.2%),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4,280명(50.1%), 여학생은 4,269명(49.9%),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2,021명(49.5%), 여학생은 2,062명(50.5%)이었음.
- **거주지역**은 서구 8,493명(37.8%), 유성구 6,338명(28.2%), 중구 3,154명(14.0%), 동구 2,518명(11.2%), 대덕구 1,946명(8.7%)이 참여하였음.



[그림 3-1] 학교급별 학생 거주지역

- **형제·자매 수(학생 미포함)**는 1명이 13,239명(59.0%), 2명이 4,552명(20.3%), 없음이 3,568명(15.9%), 3명이 786명(3.5%), 4명 이상 304명(1.4%)이었음.
- **주 보호자**는 어머니와 아버지 18,968명(84.5%), 어머니 2,382명(10.6%), 아버지 601명(2.7%),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367명(1.6%), 그 외 어른 91명(0.4%), 친척(이모, 고모, 삼촌 등) 40(0.2%)이었음.

○ 학교 설립 유형은 공립 19,855명(88.4%), 사립 2,594명(11.6%)이 참여했음.

〈표 3-1〉 학생 개인 및 학교배경

N=22,449

항목	구분	초 (n=9,817)		중 (n=8,549)		고 (n=4,083)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5,086	51.8%	4,280	50.1%	2,021	49.5%	11,387	50.7%
	여	4,731	48.2%	4,269	49.9%	2,062	50.5%	11,062	49.3%
거주 지역	대덕구	728	7.4%	664	7.8%	554	13.6%	1,946	8.7%
	동구	1,149	11.7%	1,008	11.8%	361	8.8%	2,518	11.2%
	서구	3,301	33.6%	3,437	40.2%	1,755	43.0%	8,493	37.8%
	중구	1,582	16.1%	931	10.9%	641	15.7%	3,154	14.0%
	유성구	3,057	31.1%	2,509	29.3%	772	18.9%	6,338	28.2%
형제 · 자매 수	없음	1,766	18.0%	1,283	15.0%	519	12.7%	3,568	15.9%
	1명	5,759	58.7%	5,010	58.6%	2,470	60.5%	13,239	59.0%
	2명	1,781	18.1%	1,853	21.7%	918	22.5%	4,552	20.3%
	3명	341	3.5%	315	3.7%	130	3.2%	786	3.5%
	4명 이상	170	1.7%	88	1.0%	46	1.1%	304	1.4%
주 보호자	어머니와 아버지	8,225	83.8%	7,254	84.9%	3,489	85.5%	18,968	84.5%
	어머니	1,064	10.8%	891	10.4%	427	10.5%	2,382	10.6%
	아버지	215	2.2%	275	3.2%	111	2.7%	601	2.7%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244	2.5%	90	1.1%	33	0.8%	367	1.6%
	친척(이모,고모,삼촌 등)	22	0.2%	10	0.1%	8	0.2%	40	0.2%
	그 외 어른	47	0.5%	29	0.3%	15	0.4%	91	0.4%
학교 유형	공립	9,750	99.3%	7,709	90.2%	2,396	58.7%	19,855	88.4%
	사립	67	0.7%	840	9.8%	1,687	41.3%	2,594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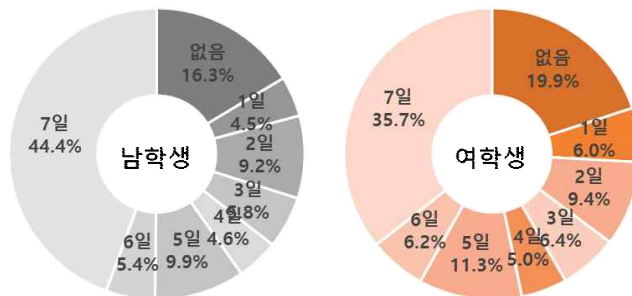
제2절 가정생활

1. 생활습관

- 학생의 1주일 기준 아침 식사 빈도, 운동 빈도(30분 이상 운동하는 날의 수), 충분한 수면 빈도(다음 날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잠을 자는 날의 수), 평일 평균 수면시간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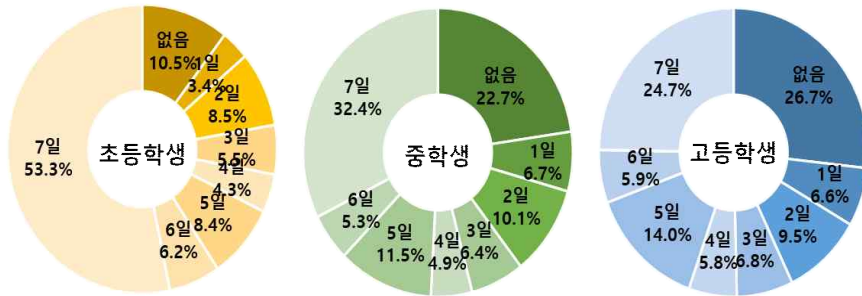
가. 아침식사 빈도

- 학생의 1주일 기준 아침 식사 빈도는 7일(40.1%), 없음(18.1%), 5일(10.6%), 2일(9.3%), 3일(6.1%), 6일(5.8%), 1일(5.2%), 4일(4.8%)의 순으로,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7일(44.4%), 없음(16.3%), 5일(9.9%) 등이고, 여학생은 7일(35.7%), 없음(19.9%), 5일(11.3%) 등으로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 남·여학생의 1주일 기준 아침 식사하는 날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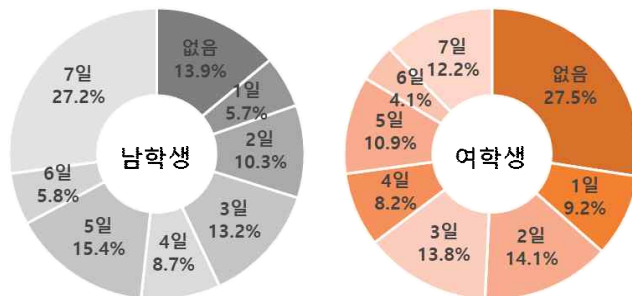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7일(53.3%), 없음(10.5%), 2일(8.5%) 등이고, 중학생은 7일(32.4%), 없음(22.7%), 5일(11.5%) 등이고, 고등학생은 없음(26.7%), 7일(24.7%), 5일(14.0%) 등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1주일 기준 아침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였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기준 아침 식사하는 날의 수

나. 규칙적인 운동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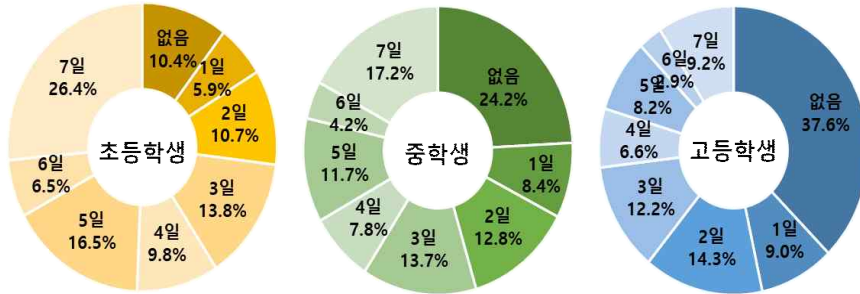
- 학생의 1주일 기준 운동 빈도는 없음(20.6%), 7일(19.8%), 3일(13.5%), 5일(13.1%), 2일(12.1%), 4일(8.5%), 1일(7.4%), 6일(5.0%)의 순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일 운동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7일(27.2%), 5일(15.4%), 없음(13.9%) 등이고, 여학생은 없음(27.5%), 2일(14.1%), 3일(13.8%) 등으로 1주일 기준 운동하는 날의 빈도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 남·여학생의 1주일 기준 30분 이상 운동하는 날의 수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7일(26.4%), 5일(16.5%), 3일(13.8%) 등이고, 중학생은 없음(24.2%), 7일(17.2%), 3일(13.7%) 등이고, 고등학생은 없음(37.6%), 2일(14.3%), 3일(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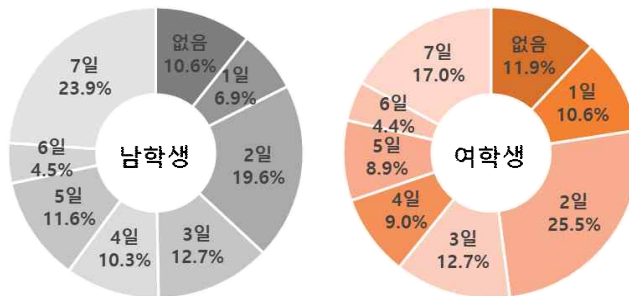
등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1주일 기준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였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기준 30분 이상 운동하는 날의 수

다. 충분한 수면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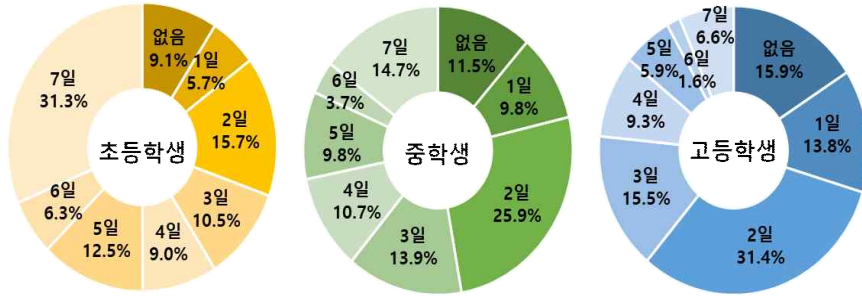
- 학생의 **충분한 수면 빈도**는 2일(22.5%), 7일(20.5%), 3일(12.7%), 없음(11.2%), 5일(10.3%), 4일(9.7%), 1일(8.7%), 6일(4.4%)의 순으로, 2일만 충분히 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일 충분히 잔다는 응답이 많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7일(23.9%), 2일(19.6%), 3일(12.7%) 등이고, 여학생은 2일(25.5%), 7일(17.0%), 3일(12.7%) 등으로 1주일 기준 충분한 수면을 한다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6] 남·여학생의 1주일 기준 충분한 수면을 하는 날의 수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7일(31.3%), 2일(15.7%), 5일(12.5%) 등이고, 중학생은 2일

(25.9%), 7일(14.7%), 3일(13.9%) 등이고, 고등학생은 2일(31.4%), 없음(15.9%), 3일(15.5%) 등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1주일 기준 충분한 수면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였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7]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기준 충분한 수면을 하는 날의 수

〈표 3-2〉 학생의 (1주일 기준) 아침 식사 빈도, 운동 빈도, 충분한 수면 빈도 교차분석 결과

N=2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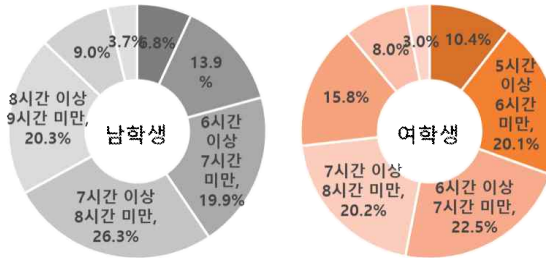
항목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χ^2
(1주일 기준) 아침 식사 빈도	전체	4,059	1,171	2,085	1,368	1,081	2,375	1,302	9,008	22,449	-
		18.1%	5.2%	9.3%	6.1%	4.8%	10.6%	5.8%	40.1%	100.0%	
	남	1,858	507	1,042	659	526	1,124	612	5,059	11,387	196.219***
		16.3%	4.5%	9.2%	5.8%	4.6%	9.9%	5.4%	44.4%	100.0%	
	여	2,201	664	1,043	709	555	1,251	690	3,949	11,062	
		19.9%	6.0%	9.4%	6.4%	5.0%	11.3%	6.2%	35.7%	100.0%	
	초	1,028	332	830	542	423	826	604	5,232	9,817	1627.412***
		10.5%	3.4%	8.5%	5.5%	4.3%	8.4%	6.2%	53.3%	100.0%	
	중	1,939	570	866	550	422	979	456	2,767	8,549	
		22.7%	6.7%	10.1%	6.4%	4.9%	11.5%	5.3%	32.4%	100.0%	
	고	1,092	269	389	276	236	570	242	1,009	4,083	
		26.7%	6.6%	9.5%	6.8%	5.8%	14.0%	5.9%	24.7%	100.0%	

항목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χ^2
(1주일, 30분 기준) 운동 빈도	전체	4,617	1,669	2,731	3,029	1,899	2,951	1,112	4,441	22,449	-
		20.6%	7.4%	12.2%	13.5%	8.5%	13.1%	5.0%	19.8%	100.0%	
	남	1,578	653	1,171	1,498	989	1,750	656	3,092	11,387	1418.113***
		13.9%	5.7%	10.3%	13.2%	8.7%	15.4%	5.8%	27.2%	100.0%	
	여	3,039	1,016	1,560	1,531	910	1,201	456	1,349	1,062	1418.113***
		27.5%	9.2%	14.1%	13.8%	8.2%	10.9%	4.1%	12.2%	100.0%	
	초	1,017	581	1,049	1,357	965	1,619	634	2,595	9,817	2009.857***
		10.4%	5.9%	10.7%	13.8%	9.8%	16.5%	6.5%	26.4%	100.0%	
	중	2,065	721	1,097	1,174	665	997	361	1,469	8,549	
		24.2%	8.4%	12.8%	13.7%	7.8%	11.7%	4.2%	17.2%	100.0%	
	고	1,535	367	585	498	269	335	117	377	4,083	
		37.6%	9.0%	14.3%	12.2%	6.6%	8.2%	2.9%	9.2%	100.0%	
(1주일 기준) 충분한 수면 빈도	전체	2,523	1,956	5,044	2,848	2,176	2,307	995	4,600	22,449	-
		11.2%	8.7%	22.5%	12.7%	9.7%	10.3%	4.4%	20.5%	100.0%	
	남	1,206	783	2,228	1,443	1,176	1,322	508	2,721	11,387	365.097***
		10.6%	6.9%	19.6%	12.7%	10.3%	11.6%	4.5%	23.9%	100.0%	
	여	1,317	1,173	2,816	1,405	1,000	985	487	1,879	11,062	365.097***
		11.9%	10.6%	25.5%	12.7%	9.0%	8.9%	4.4%	17.0%	100.0%	
	초	892	556	1,544	1,030	881	1,227	616	3,071	9,817	2198.767***
		9.1%	5.7%	15.7%	10.5%	9.0%	12.5%	6.3%	31.3%	100.0%	
	중	982	837	2,216	1,187	916	838	313	1,260	8,549	
		11.5%	9.8%	25.9%	13.9%	10.7%	9.8%	3.7%	14.7%	100.0%	
	고	649	563	1,284	631	379	242	66	269	4,083	
		15.9%	13.8%	31.4%	15.5%	9.3%	5.9%	1.6%	6.6%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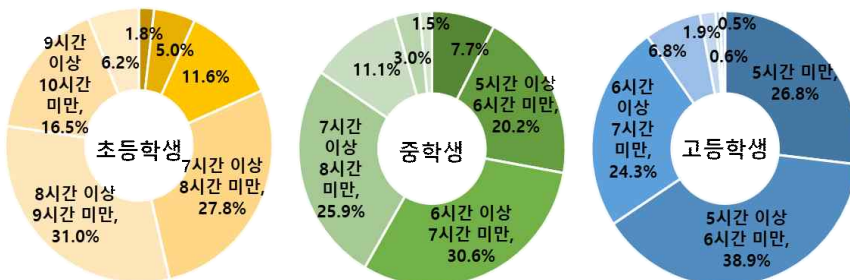
라. 수면 시간

- 학생의 **평일 기준 평균 수면시간**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과 같음.
- 학생의 평일 기준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23.3%),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21.2%),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18.1%),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17.0%), 5시간 미만(8.6%),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8.5%), 10시간 이상(3.4%)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26.3%),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20.3%),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19.9%) 등이고, 여학생은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22.5%),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20.2%),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20.1%) 등으로 평일 기준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길었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8] 남·여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31.0%),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27.8%),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16.5%) 등이고, 중학생은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30.6%),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25.9%),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20.2%) 등이고, 고등학생은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38.9%), 5시간 미만(26.8%),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24.3%) 등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일 기준 평균 수면시간은 더 짧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9] 학교급별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표 3-3〉 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χ^2
평일 평균 수면시간	전체	1,932 8.6%	3,807 17.0%	4,750 21.2%	5,227 23.3%	4,069 18.1%	1,906 8.5%	758 3.4%	22,449 100.0%	-
	남	779 6.8%	1,581 13.9%	2,263 19.9%	2,998 26.3%	2,316 20.3%	1,024 9.0%	426 3.7%	11,387 100.0%	400.891***
	여	1,153 10.4%	2,226 20.1%	2,487 22.5%	2,229 20.2%	1,753 15.8%	882 8.0%	332 3.0%	11,062 100.0%	
	초	181 1.8%	492 5.0%	1,143 11.6%	2,730 27.8%	3,039 31.0%	1,624 16.5%	608 6.2%	9,817 100.0%	
	중	655 7.7%	1,725 20.2%	2,613 30.6%	2,218 25.9%	953 11.1%	260 3.0%	125 1.5%	8,549 100.0%	9018.480***
	고	1,096 26.8%	1,590 38.9%	994 24.3%	279 6.8%	77 1.9%	22 0.5%	25 0.6%	4,0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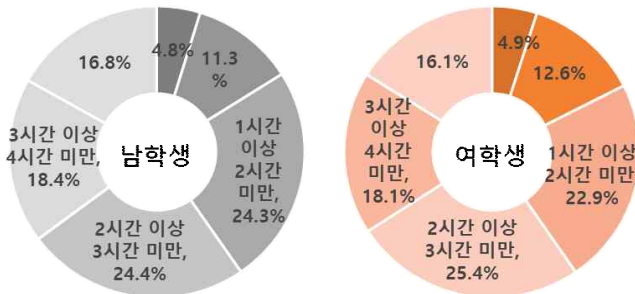
*** $p < .001$

-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은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초등학생은 비교적 규칙적인 식사, 운동,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반면,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아침 결식 빈도는 높아지고, 운동 빈도와 수면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아침 결식 빈도와 수면 부족 비율이 높고, 운동 빈도는 낮게 나타났음. 이러한 변화는 학업 부담 증가와 자기관리 능력의 차이, 또래 문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단순한 학업 중심의 교육을 넘어 생활습관 전반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학교 조식 지원, 체력 증진 프로그램, 수면 교육 등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리듬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교육적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성별과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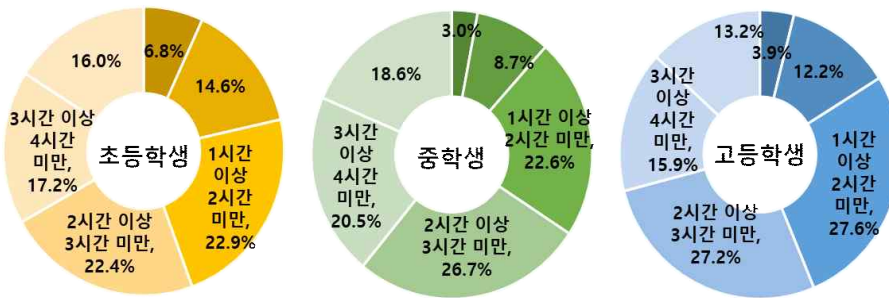
가. 평일 여가 시간

- 학생의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 **선호 여가 활동**, **실제 여가 활동**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와 같음.
- 학생의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4.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3.6%),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8.2%), 5시간 이상(16.5%), 30분 이상 1시간 미만(11.9%), 30분 미만(4.8%)의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4.4%),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4.3%),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8.4%) 등이고, 여학생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5.4%),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2.9%),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8.1%) 등으로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0] 남·여학생의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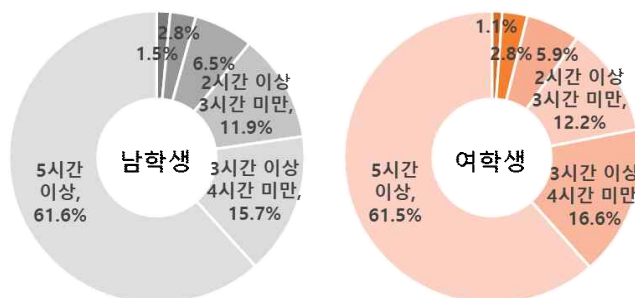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2.4%),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2.9%),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7.2%) 등이고, 중학생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6.7%),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2.6%),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20.5%) 등이고, 고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7.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7.2%),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5.9%) 등으로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 비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1] 학교급별 학생의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

나. 주말 여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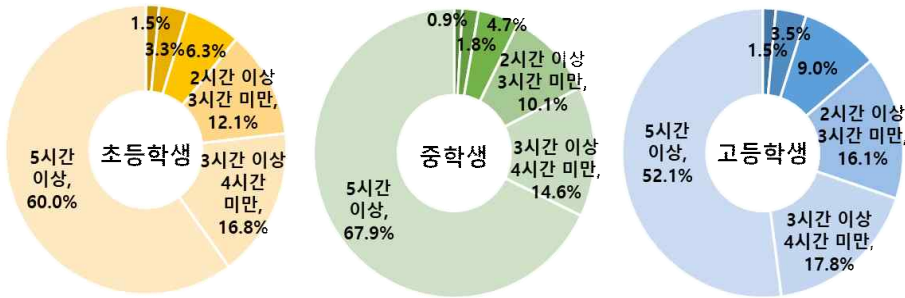
- 학생의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은 5시간 이상(61.6%),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6.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2.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6.2%), 30분 이상 1시간 미만(2.8%), 30분 미만(1.3%)의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5시간 이상(61.6%),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5.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1.9%) 등이고, 여학생은 5시간 이상(61.5%),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6.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2.2%) 등으로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5시간 이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2] 남·여학생의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5시간 이상(60.0%),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6.8%),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2.1%) 등이고, 중학생은 5시간 이상(67.9%),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4.6%), 2시간 이상 3

시간 미만(10.1%) 등이고, 고등학생은 5시간 이상(52.1%),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7.8%),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6.1%) 등으로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5시간 이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3] 학교급별 학생의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

〈표 3-4〉 학생의 평일 하루 기준 여가 시간, 주말 하루 기준 여가 시간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구분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χ^2
평일 하루기준 여가 시간	전체	1,085 4.8%	2,677 11.9%	5,307 23.6%	5,594 24.9%	4,090 18.2%	3,696 16.5%	22,449 100.0%	-
	남	541 4.8%	1,286 11.3%	2,769 24.3%	2,783 24.4%	2,092 18.4%	1,916 16.8%	11,387 100.0%	16.785***
	여	544 4.9%	1,391 12.6%	2,538 22.9%	2,811 25.4%	1,998 18.1%	1,780 16.1%	11,062 100.0%	
	초	672 6.8%	1,437 14.6%	2,249 22.9%	2,200 22.4%	1,691 17.2%	1,568 16.0%	9,817 100.0%	458.570***
	중	253 3.0%	741 8.7%	1,932 22.6%	2,283 26.7%	1,751 20.5%	1,589 18.6%	8,549 100.0%	
	고	160 3.9%	499 12.2%	1,126 27.6%	1,111 27.2%	648 15.9%	539 13.2%	4,083 100.0%	
주말 하루기준 여가 시간	전체	289 1.3%	624 2.8%	1,392 6.2%	2,702 12.0%	3,620 16.1%	13,822 61.6%	22,449 100.0%	-
	남	166 1.5%	319 2.8%	741 6.5%	1,357 11.9%	1,786 15.7%	7,018 61.6%	11,387 100.0%	11.831***
	여	123 1.1%	305 2.8%	651 5.9%	1,345 12.2%	1,834 16.6%	6,804 61.5%	11,062 100.0%	
	초	149 1.5%	322 3.3%	623 6.3%	1,184 12.1%	1,647 16.8%	5,892 60.0%	9,817 100.0%	363.414***
	중	79 0.9%	158 1.8%	403 4.7%	860 10.1%	1,247 14.6%	5,802 67.9%	8,549 100.0%	
	고	61 1.5%	144 3.5%	366 9.0%	658 16.1%	726 17.8%	2,128 52.1%	4,083 100.0%	

*** $p < .001$

다. 선호 여가 활동과 실제 여가 활동

- 학생의 **선호 여가 활동**과 **실제 여가 활동**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음.
- 학생의 **선호 여가 활동**은 여행(22.2%), 휴식(쉽)(16.0%), 스포츠 활동(12.0%), 컴퓨터·스마트폰 게임(11.7%), 취미활동(10.6%), 사교활동(9.8%), SNS 활동(4.8%), 스포츠 관람(4.0%), TV·동영상 시청(3.7%), 식물·동물 돌보기(2.3%), 문화·예술 관람(1.6%), 문화·예술 활동(1.2%), 종교·봉사활동(0.2%)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컴퓨터·스마트폰게임(18.7%), 여행(18.6%), 스포츠 활동(17.8%) 등이고, 여학생은 여행(25.9%), 휴식(쉽)(16.6%), 취미활동(14.2%) 등으로 남학생은 컴퓨터·스마트폰게임, 여학생은 여행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여행(23.5%), 스포츠 활동(13.1%), 컴퓨터·스마트폰게임(12.3%) 등이고, 중학생은 여행(19.6%), 컴퓨터·스마트폰게임(12.7%), 스포츠 활동(12.4%) 등이고, 고등학생은 여행(24.5%), 휴식(쉽)(21.7%), 취미활동(8.9%) 등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여행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생의 **실제 여가 활동**은 컴퓨터·스마트폰게임(20.5%), 휴식(쉽)(17.2%), TV·동영상 시청(12.3%), 스포츠 활동(12.2%), SNS 활동(9.9%), 사교활동(9.5%), 취미활동(8.6%), 여행(3.3%), 스포츠 관람(2.9%), 식물·동물 돌보기(1.4%), 문화·예술 활동(1.1%), 문화·예술 관람(0.9%), 종교·봉사활동(0.4%)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컴퓨터·스마트폰게임(30.4%), 스포츠 활동(18.8%), 휴식(쉽)(16.8%) 등이고, 여학생은 휴식(쉽)(17.6%), TV·동영상 시청(15.9%), 사교활동(12.3%) 등으로 실제 여가 활동으로 남학생은 컴퓨터·스마트폰게임, 여학생은 휴식(쉽)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컴퓨터·스마트폰게임(19.6%), 휴식(쉽)(15.8%), 스포츠 활동(14.9%), 중학생은 컴퓨터·스마트폰게임(22.6%), 휴식(쉽)(16.9%), SNS 활동(14.8%), 고등학생은 휴식(쉽)(21.0%), 컴퓨터·스마트폰게임(18.3%), TV·동영상 시청(16.1%) 등으로 실제 여가 활동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은 컴퓨터·스마트폰게임, 고등학생은 휴식(쉽)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 학생의 선호 여가 활동, 실제 여가 활동의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구분	여행	스포츠 초관람	스포츠 초활동	문화 예술관람	문화 예술활동	종교· 봉사활동	TV· 동영상 시청	사교 활동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식물· 동물 돌보기	취미 활동	SNS 활동	휴식 (침)	계	χ^2
선호 여가 활동	전체	4,979 22.2%	903 4.0%	2,697 12.0%	367 1.6%	263 1.2%	44 0.2%	828 3.7%	2,194 9.8%	2,617 11.7%	523 2.3%	2,371 10.6%	1,080 4.8%	3,583 16.0%	22,449 100.0%	-
	남	2,117 18.6%	595 5.2%	2,023 17.8%	100 0.9%	86 0.8%	35 0.3%	298 2.6%	807 7.1%	2,125 18.7%	193 1.7%	803 7.1%	456 4.0%	1,749 15.4%	11,387 100.0%	2544.293***
	여	2,862 25.9%	308 2.8%	674 6.1%	267 2.4%	177 1.6%	9 0.1%	530 4.8%	1,387 12.5%	492 4.4%	330 3.0%	1,568 14.2%	624 5.6%	1,834 16.6%	11,062 100.0%	
	초	2,305 23.5%	343 3.5%	1,286 13.1%	26 0.3%	73 0.7%	11 0.1%	323 3.3%	1,121 11.4%	1,209 12.3%	367 3.7%	1,139 11.6%	412 4.2%	1,202 12.2%	9,817 100.0%	1085.960***
	중	1,673 19.6%	351 4.1%	1,063 12.4%	146 1.7%	103 1.2%	17 0.2%	314 3.7%	786 9.2%	1,084 12.7%	115 1.3%	870 10.2%	532 6.2%	1,495 17.5%	8,549 100.0%	
	고	1,001 24.5%	209 5.1%	348 8.5%	195 4.8%	87 2.1%	16 0.4%	191 4.7%	287 7.0%	324 7.9%	41 1.0%	362 8.9%	136 3.3%	886 21.7%	4,083 100.0%	
실제 여가 활동	전체	744 3.3%	652 2.9%	2,734 12.2%	192 0.9%	238 1.1%	88 0.4%	2,761 12.3%	2,125 9.5%	4,603 20.5%	305 1.4%	1,930 8.6%	2,221 9.9%	3,856 17.2%	22,449 100.0%	-
	남	324 2.8%	396 3.5%	2,140 18.8%	59 0.5%	89 0.8%	41 0.4%	1,000 8.8%	762 6.7%	3,463 30.4%	131 1.2%	589 5.2%	484 4.3%	1,909 16.8%	11,387 100.0%	3515.170***
	여	420 3.8%	256 2.3%	594 5.4%	133 1.2%	149 1.3%	47 0.4%	1,761 15.9%	1,363 12.3%	1,140 10.3%	174 1.6%	1,341 12.1%	1,737 15.7%	1,947 17.6%	11,062 100.0%	
	초	497 5.1%	244 2.5%	1,460 14.9%	28 0.3%	81 0.8%	31 0.3%	1,137 11.6%	1,136 11.6%	1,921 19.6%	229 2.3%	1,094 11.1%	409 4.2%	1,550 15.8%	9,817 100.0%	1614.001***
	중	162 1.9%	243 2.8%	974 11.4%	57 0.7%	98 1.1%	28 0.3%	968 11.3%	733 8.6%	1,933 22.6%	49 0.6%	591 6.9%	1,265 14.8%	1,448 16.9%	8,549 100.0%	
	고	85 2.1%	165 4.0%	300 7.3%	107 2.6%	59 1.4%	29 0.7%	656 16.1%	256 6.3%	749 18.3%	27 0.7%	245 6.0%	547 13.4%	858 21.0%	4,0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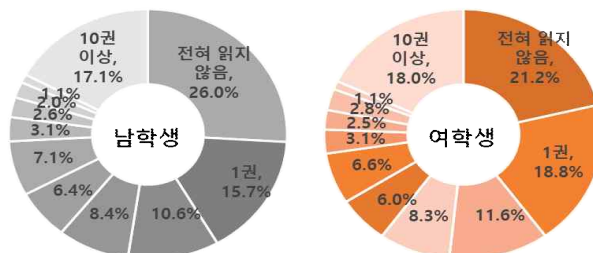
*** $p < .001$

- 학생들의 여가 활동은 성별보다는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평일 여가 시간은 초·중학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학업 부담으로 인해 여가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주말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5시간 이상의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일과 주말 모두 여가의 질적 다양성은 제한적임. 특히 여가 선호와 실제 활동 간의 괴리가 나타나, 학생들은 ‘여행’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는 남학생은 컴퓨터·스마트폰 게임, 여학생은 휴식이나 동영상 시청 등 수동적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학교급별로는 초·중학생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 스포츠, SNS 활동 등 비교적 활동적이고 사회적 여가를 즐긴 반면, 고등학생은 ‘휴식’과 ‘정서적 회복’ 중심의 여가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임. 이러한 변화는 학업 부담의 증가와 정서적 피로 누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학생들의 여가 활동이 발달 과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여가를 단순한 ‘남는 시간’이 아닌 ‘심리적 회복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교육적 접근이 요구됨.

3.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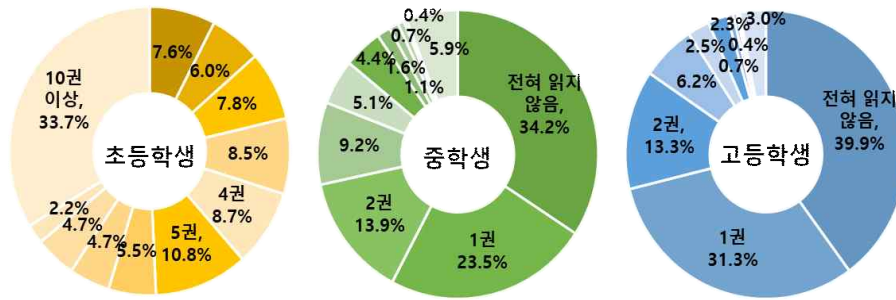
가. 독서량

- 학생의 **한 달 기준 평균 독서량**, 주로 읽는 **독서 분야**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과 같음.
- 학생의 **한 달 기준 평균 독서량**은 전혀 읽지 않음(23.6%), 10권 이상(17.5%), 1권(17.3%), 2권(11.1%), 3권(8.3%), 5권(6.8%), 4권(6.2%), 6권(3.1%), 7권(2.5%), 8권(2.4%), 9권(1.1%)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전혀 읽지 않음(26.0%), 10권 이상(17.1%), 1권(15.7%) 등이고, 여학생은 전혀 읽지 않음(21.2%), 1권(18.8%), 10권 이상(18.0%) 등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4] 남·여학생의 한 달 기준 평균 독서량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10권 이상(33.7%), 5권(10.8%), 4권(8.7%) 등이고, 중학생은 전혀 읽지 않음(34.2%), 1권(23.5%), 2권(13.9%) 등이고, 고등학생은 전혀 읽지 않음(39.9%), 1권(31.3%), 2권(13.3%) 등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5] 학교급별 학생의 한 달 기준 평균 독서량

〈표 3-6〉 학생의 한 달 기준 평균 독서량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구분	전혀 읽지 않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이상	계	χ^2
독서량	전체	5,299	3,873	2,498	1,873	1,392	1,530	697	571	537	245	3,934	22,449	-
		23.6%	17.3%	11.1%	8.3%	6.2%	6.8%	3.1%	2.5%	2.4%	1.1%	17.5%	100.0%	
	남	2,956	1,792	1,210	952	727	803	355	293	232	125	1,942	11,387	108.579***
		26.0%	15.7%	10.6%	8.4%	6.4%	7.1%	3.1%	2.6%	2.0%	1.1%	17.1%	100.0%	
	여	2,343	2,081	1,288	921	665	727	342	278	305	120	1,992	11,062	108.579***
		21.2%	18.8%	11.6%	8.3%	6.0%	6.6%	3.1%	2.5%	2.8%	1.1%	18.0%	100.0%	
	초	745	586	764	831	854	1,058	536	461	464	214	3,304	9,817	7984.002***
		7.6%	6.0%	7.8%	8.5%	8.7%	10.8%	5.5%	4.7%	4.7%	2.2%	33.7%	100.0%	
		2,925	2,011	1,189	787	434	380	133	92	61	30	507	8,549	
		34.2%	23.5%	13.9%	9.2%	5.1%	4.4%	1.6%	1.1%	0.7%	0.4%	5.9%	100.0%	
	중	1,629	1,276	545	255	104	92	28	18	12	1	123	4,083	7984.002***
		39.9%	31.3%	13.3%	6.2%	2.5%	2.3%	0.7%	0.4%	0.3%	0.0%	3.0%	100.0%	

*** $p < .001$

나. 독서분야

- 학생이 주로 읽는 **독서 분야**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7>과 같음.
- 학생이 주로 읽는 독서 분야는 문학(48.0%), 책을 읽지 않음(18.0%), 예술, 문화, 스포츠(7.5%), 취미(7.3%), 과학, 기술, 컴퓨터(7.2%), 역사, 철학, 논리(5.9%), 자기개발, 자서전, 심리/진로(3.1%), 경제, 경영(1.4%), 정치, 사회, 군사(1.3%), 종교(0.3%)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문학(34.0%), 책을 읽지 않음(21.7%), 과학, 기술, 컴퓨터(11.6%) 등이고, 여학생은 문학(62.4%), 책을 읽지 않음(14.1%), 취미(7.7%) 등으로 독서 분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문학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문학(46.1%), 취미(13.1%), 예술, 문화, 스포츠(11.5%) 등이고, 중학생은 문학(51.3%), 책을 읽지 않음(25.7%), 과학, 기술, 컴퓨터(5.5%) 등이고, 고등학생은 문학(45.5%), 책을 읽지 않음(27.6%), 과학, 기술, 컴퓨터(8.1%) 등으로 독서 분야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문학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 학생의 독서 분야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구분	책을 읽지 않음	문학	과학, 기술, 컴퓨터	경제, 경영	역사, 철학, 논리	자기 개발, 자서전, 심리/ 진로	예술, 문화, 스포츠	종교	정치, 사회, 군사	취미	계	χ^2
독서 분야	전체	4,034 18.0%	10,773 48.0%	1,613 7.2%	308 1.4%	1,329 5.9%	698 3.1%	1,689 7.5%	76 0.3%	293 1.3%	1,636 7.3%	22,449 100.0%	-
	남	2,476 21.7%	3,868 34.0%	1,316 11.6%	224 2.0%	951 8.4%	314 2.8%	1,156 10.2%	60 0.5%	235 2.1%	787 6.9%	11,387 100.0%	2386.854***
	여	1,558 14.1%	6,905 62.4%	297 2.7%	84 0.8%	378 3.4%	384 3.5%	533 4.8%	16 0.1%	58 0.5%	849 7.7%	11,062 100.0%	
	초	708 7.2%	4,530 46.1%	810 8.3%	108 1.1%	869 8.9%	187 1.9%	1,133 11.5%	32 0.3%	151 1.5%	1,289 13.1%	9,817 100.0%	2974.031***
	중	2,198 25.7%	4,385 51.3%	471 5.5%	105 1.2%	348 4.1%	230 2.7%	418 4.9%	28 0.3%	81 0.9%	285 3.3%	8,549 100.0%	
	고	1,128 27.6%	1,858 45.5%	332 8.1%	95 2.3%	112 2.7%	281 6.9%	138 3.4%	16 0.4%	61 1.5%	62 1.5%	4,083 100.0%	

*** $p < .001$

- 학생들의 독서활동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읽는 분야는 ‘문학’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서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 남학생의 경우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학생보다 높고, 1권 이상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여학생보다 낮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2.4%로 가장 높고, 중학생(65.8%), 고등학생(60.1%) 순으로 독서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학령이 높아질수록 학업 부담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독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함.
- 독서 분야에서는 남녀 모두 문학을 가장 선호하지만, 남학생은 과학·기술·컴퓨터 분야를, 여학생은 문학·취미·예술 분야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독서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학생의 인지적·정서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별과 발달 단계에 따라 관심 주제가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줌.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독서 참여율을 개선하고, 성별 및 흥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독서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스마트기기 사용

가. 온라인게임, 채팅·SNS, 학습 동영상 시청, 각종 동영상 시청 시간

- 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온라인게임 시간, 채팅·SNS 시간, 학습 동영상 시청 시간, 각종 동영상 시청 시간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8>과 같음.
- 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온라인게임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0.7%), 30분 이상 1시간 미만(16.8%), 전혀 하지 않음(15.8%),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4.9%), 30분 미만(14.9%),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7.8%), 5시간 이상(5.4%),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3.7%)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5.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8.5%), 30분 이상 1시간 미만(16.6%) 등이고, 여학생은 전혀 하지 않음(24.6%), 30분 미만(19.2%), 30분 이상 1시간 미만(17.0%) 등으로 온라인게임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2.3%), 30분 이상 1시간 미만(18.5%), 2시

간 이상 3시간 미만(15.2%) 등이고, 중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0.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6.4%), 전혀 하지 않음(17.0%) 등이고, 고등학생은 전혀 하지 않음(24.1%), 30분 미만(18.7%), 30분 이상 1시간 미만(18.6%) 등으로 온라인게임 시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고등학생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채팅·SNS 시간**은 전혀 하지 않음(23.7%), 30분 미만(17.6%),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6.5%), 30분 이상 1시간 미만(14.2%),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3.0%),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7.6%), 5시간 이상(4.0%),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3.3%)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전혀 하지 않음(30.4%), 30분 미만(19.4%),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5.1%) 등이고, 여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7.9%), 전혀 하지 않음(16.9%), 30분 미만(15.8%) 등으로 채팅·SNS 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전혀 하지 않음(41.0%), 30분 미만(23.9%), 30분 이상 1시간 미만(13.0%) 등이고, 중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0.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8.1%), 30분 이상 1시간 미만(14.1%) 등이고, 고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6.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9.2%), 30분 이상 1시간 미만(17.4%) 등으로 채팅·SNS 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 동영상 시청 시간**은 전혀 하지 않음(28.3%), 30분 이상 1시간 미만(20.4%), 30분 미만(20.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6.4%),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8.5%),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3.1%), 5시간 이상(1.8%),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1.3%)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전혀 하지 않음(29.7%), 30분 미만(20.2%), 30분 이상 1시간 미만(19.7%) 등이고, 여학생은 전혀 하지 않음(26.8%), 30분 이상 1시간 미만(21.2%), 30분 미만(20.3%) 등으로 학습 동영상 시청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전혀 하지 않음(27.9%), 30분 미만(24.1%), 30분 이상 1시간 미만(23.1%) 등이고, 중학생은 전혀 하지 않음(31.5%), 30분 이상 1시간 미만(18.7%), 30분 미만(18.3%) 등이고, 고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4.1%), 전혀 하지 않음(22.4%), 30분 이상 1시간 미만(17.6%) 등으로 학습 동영상 시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각종 동영상 시청 시간**은 1시간 2시간 미만(25.3%), 30분 이상 1시간 미만(19.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8.6%), 30분 미만(11.1%),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0.0%), 5시간 이상(6.8%),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4.9%), 전혀 하지 않음(3.6%)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5.0%), 30분 이상 1시간 미만(20.8%),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7.9%) 등이고, 여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5.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9.3%), 30분 이상 1시간 미만(18.4%) 등으로 각종 동영상 시청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3.2%), 30분 이상 1시간 미만(22.8%), 30분 미만(16.1%) 등이고, 중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6.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1.6%), 30분 이상 1시간 미만(16.5%) 등이고, 고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8.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2.7%), 30분 이상 1시간 미만(18.5%) 등으로 각종 동영상 시청 시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 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구분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χ^2
온라인 게임	전체	3,550 15.8%	3,336 14.9%	3,762 16.8%	4,646 20.7%	3,347 14.9%	1,759 7.8%	838 3.7%	1,211 5.4%	22,449 100.0%	-
	남	828	1,212	1,886	2,848	2,102	1,153	526	832	11,387	2106.517***

항목	구분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χ^2
	여	7.3%	10.6%	16.6%	25.0%	18.5%	10.1%	4.6%	7.3%	100.0%	691.503***
		2,722	2,124	1,876	1,798	1,245	606	312	379	11,062	
		24.6%	19.2%	17.0%	16.3%	11.3%	5.5%	2.8%	3.4%	100.0%	
	초 중 고	1,114	1,391	1,820	2,190	1,493	792	424	593	9,817	
		11.3%	14.2%	18.5%	22.3%	15.2%	8.1%	4.3%	6.0%	100.0%	
		1,450	1,183	1,184	1,711	1,402	768	339	512	8,549	
		17.0%	13.8%	13.8%	20.0%	16.4%	9.0%	4.0%	6.0%	100.0%	
		986	762	758	745	452	199	75	106	4,083	
		24.1%	18.7%	18.6%	18.2%	11.1%	4.9%	1.8%	2.6%	100.0%	
채팅 · SNS	전체	5,326	3,951	3,187	3,707	2,927	1,709	736	906	22,449	-
	남	23.7%	17.6%	14.2%	16.5%	13.0%	7.6%	3.3%	4.0%	100.0%	898.660***
		3,459	2,205	1,582	1,722	1,211	654	243	311	11,387	
		30.4%	19.4%	13.9%	15.1%	10.6%	5.7%	2.1%	2.7%	100.0%	
	여	1,867	1,746	1,605	1,985	1,716	1,055	493	595	11,062	4805.296***
		16.9%	15.8%	14.5%	17.9%	15.5%	9.5%	4.5%	5.4%	100.0%	
		4,029	2,351	1,276	909	595	310	143	204	9,817	
		41.0%	23.9%	13.0%	9.3%	6.1%	3.2%	1.5%	2.1%	100.0%	
		1,010	1,093	1,202	1,733	1,548	969	448	546	8,549	
	초 중 고	11.8%	12.8%	14.1%	20.3%	18.1%	11.3%	5.2%	6.4%	100.0%	
		287	507	709	1,065	784	430	145	156	4,083	
		7.0%	12.4%	17.4%	26.1%	19.2%	10.5%	3.6%	3.8%	100.0%	
학습 동영상 시청	전체	6,345	4,544	4,585	3,688	1,898	701	293	395	22,449	-
	남	28.3%	20.2%	20.4%	16.4%	8.5%	3.1%	1.3%	1.8%	100.0%	31.689***
		3,378	2,298	2,245	1,838	946	334	133	215	11,387	
		29.7%	20.2%	19.7%	16.1%	8.3%	2.9%	1.2%	1.9%	100.0%	
	여	2,967	2,246	2,340	1,850	952	367	160	180	11,062	757.758***
		26.8%	20.3%	21.2%	16.7%	8.6%	3.3%	1.4%	1.6%	100.0%	
		2,741	2,370	2,272	1,360	559	221	123	171	9,817	
		27.9%	24.1%	23.1%	13.9%	5.7%	2.3%	1.3%	1.7%	100.0%	
		2,691	1,568	1,595	1,346	788	291	108	162	8,549	
	초 중 고	31.5%	18.3%	18.7%	15.7%	9.2%	3.4%	1.3%	1.9%	100.0%	
		913	606	718	982	551	189	62	62	4,083	
		22.4%	14.8%	17.6%	24.1%	13.5%	4.6%	1.5%	1.5%	100.0%	
각종 동영상 시청	전체	818	2,498	4,405	5,681	4,177	2,249	1,098	1,523	22,449	-
	남	3.6%	11.1%	19.6%	25.3%	18.6%	10.0%	4.9%	6.8%	100.0%	135.890***

항목	구분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χ^2
	여	4.4%	12.1%	20.8%	25.0%	17.9%	8.8%	4.2%	6.9%	100.0%	
		319	1,119	2,039	2,839	2,134	1,247	623	742	11,062	
		2.9%	10.1%	18.4%	25.7%	19.3%	11.3%	5.6%	6.7%	100.0%	
	초 중 고	604	1,581	2,239	2,278	1,402	720	412	581	9,817	1204.914***
		6.2%	16.1%	22.8%	23.2%	14.3%	7.3%	4.2%	5.9%	100.0%	
		154	650	1,410	2,232	1,848	1,048	491	716	8,549	
		1.8%	7.6%	16.5%	26.1%	21.6%	12.3%	5.7%	8.4%	100.0%	
		60	267	756	1,171	927	481	195	226	4,083	
		1.5%	6.5%	18.5%	28.7%	22.7%	11.8%	4.8%	5.5%	100.0%	

*** $p < .001$

나. 스마트기기 의존도

- 학생의 스마트기기 의존도의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9>와 같음.
- 학생의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2.61(SD=0.9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2.48(SD=0.91), 여학생 평균은 2.74(SD=0.94)로, 스마트폰 의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2.22(SD=0.87), 중학생 평균은 2.87(SD=0.88), 고등학생 평균은 2.99(SD=0.85)로, 스마트기기 의존도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초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6] 학생의 스마트기기 의존도

〈표 3-9〉 학생의 스마트기기 의존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스마트기기 의존도	전체	22,449	2.61	0.94	-	-
	남	11,387	2.48	0.91	-20.58***	-
	여	11,062	2.74	0.94		
	초	9,817	2.22	0.87	1793.23***	고>중>초
	중	8,549	2.87	0.88		
	고	4,083	2.99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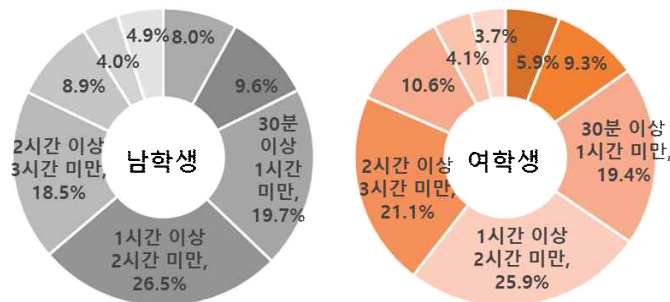
*** $p<.001$

-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활용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온라인게임은 남학생의 이용률이 높고,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이용 시간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이 두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반면 채팅·SNS는 여학생의 이용률이 높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사용 시간이 증가하여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활용함.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학습 동영상 시청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대신 일반 동영상 시청이 성별과 관계없이 하루 1~2시간 내외로 가장 많이 이루어짐. 이는 스마트기기가 학습보다는 오락 및 사회적 교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스마트기기 의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으며,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는 학령이 높아질수록 스마트기기가 학습, 여가, 또래 관계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단순한 생활습관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 발달, 사회적 관계 형성, 학습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과제임을 시사함.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스마트기기를 학습적·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생 스스로 스마트기기를 학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자율학습

가. (하루) 자율학습 시간

- 학생의 하루 중 **자율학습 시간**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0>과 같음.
- 학생의 하루 중 자율학습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6.2%),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9.8%), 30분 이상 1시간 미만(19.6%),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9.7%), 30분 미만(9.4%), 하지 않음(6.9%), 5시간 이상(4.3%),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4.0%)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6.5%), 30분 이상 1시간 미만(19.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8.5%) 등이고, 여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5.9%),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1.1%), 30분 이상 1시간 미만(19.4%) 등으로 자율학습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7] 남·여학생의 하루 중 자율학습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7.3%), 30분 이상 1시간 미만(25.4%),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16.9%) 등이고, 중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7.5%),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1.7%), 30분 이상 1시간 미만(16.6%) 등이고, 고등학생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2.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0.6%),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14.5%) 등으로 자율학습 시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고등학생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8] 학교급별 학생의 하루 중 자율학습 시간

〈표 3-10〉 학생의 하루 중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N=2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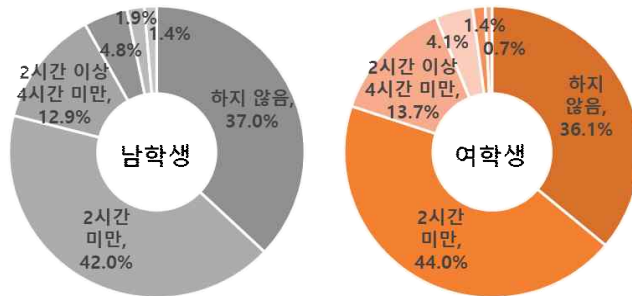
항목	구분	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χ^2
자율 학습 시간	전체	1,557 6.9%	2,117 9.4%	4,392 19.6%	5,875 26.2%	4,446 19.8%	2,187 9.7%	907 4.0%	968 4.3%	22,449 100.0%	-
	남	908 8.0%	1,092 9.6%	2,241 19.7%	3,012 26.5%	2,108 18.5%	1,016 8.9%	451 4.0%	559 4.9%	11,387 100.0%	92.296***
	여	649 5.9%	1,025 9.3%	2,151 19.4%	2,863 25.9%	2,338 21.1%	1,171 10.6%	456 4.1%	409 3.7%	11,062 100.0%	
	초	410 4.2%	1,058 10.8%	2,490 25.4%	2,678 27.3%	1,655 16.9%	776 7.9%	358 3.6%	392 4.0%	9,817 100.0%	1070.570***
	중	774 9.1%	785 9.2%	1,421 16.6%	2,355 27.5%	1,857 21.7%	819 9.6%	272 3.2%	266 3.1%	8,549 100.0%	
	고	373 9.1%	274 6.7%	481 11.8%	842 20.6%	934 22.9%	592 14.5%	277 6.8%	310 7.6%	4,083 100.0%	

*** $p < .001$

나. (1주일) 자율학습 시간: 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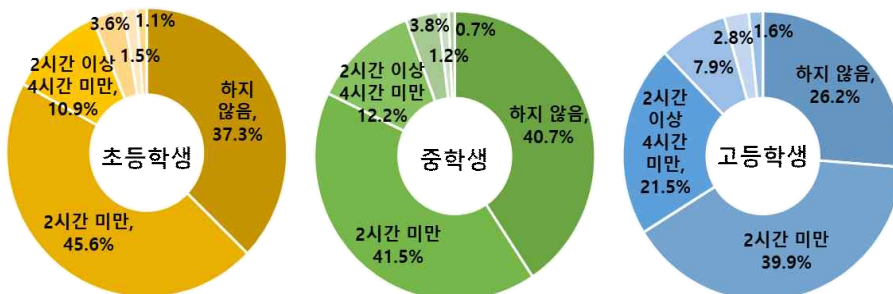
○ 학생의 교과목별(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자율학습 시간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1〉, 〈표 3-12〉, 〈표 3-13〉, 〈표 3-14〉, 〈표 3-15〉와 같음.

-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자율학습 시간은 2시간 미만(43.0%), 하지 않음(36.5%),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3.3%),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4.5%),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1.6%), 8시간 이상(1.1%)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2시간 미만(42.0%), 하지 않음(37.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2.9%) 등이고, 여학생은 2시간 미만(44.0%), 하지 않음(36.1%),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3.7%) 등으로 국어 자율학습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시간 미만 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19]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자율학습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2시간 미만(45.6%), 하지 않음(37.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0.9%) 등이고, 중학생은 2시간 미만(41.5%), 하지 않음(40.7%),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2.2%) 등이고, 고등학생은 2시간 미만(39.9%), 하지 않음(26.2%),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1.5%) 등으로 국어 자율학습 시간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2시간 미만 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0]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자율학습 시간

〈표 3-11〉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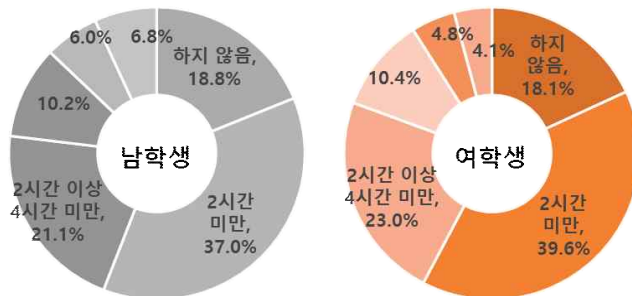
N=22,449

항목	구분	하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국어 자율학습 시간	전체	8,205 36.5%	9,651 43.0%	2,990 13.3%	1,000 4.5%	367 1.6%	236 1.1%	22,449 100.0%	-
	남	4,216 37.0%	4,782 42.0%	1,472 12.9%	547 4.8%	216 1.9%	154 1.4%	11,387 100.0%	45.391***
	여	3,989 36.1%	4,869 44.0%	1,518 13.7%	453 4.1%	151 1.4%	82 0.7%	11,062 100.0%	
	초	3,658 37.3%	4,476 45.6%	1,067 10.9%	355 3.6%	151 1.5%	110 1.1%	9,817 100.0%	648.398***
	중	3,476 40.7%	3,544 41.5%	1,047 12.2%	322 3.8%	100 1.2%	60 0.7%	8,549 100.0%	
	고	1,071 26.2%	1,631 39.9%	876 21.5%	323 7.9%	116 2.8%	66 1.6%	4,083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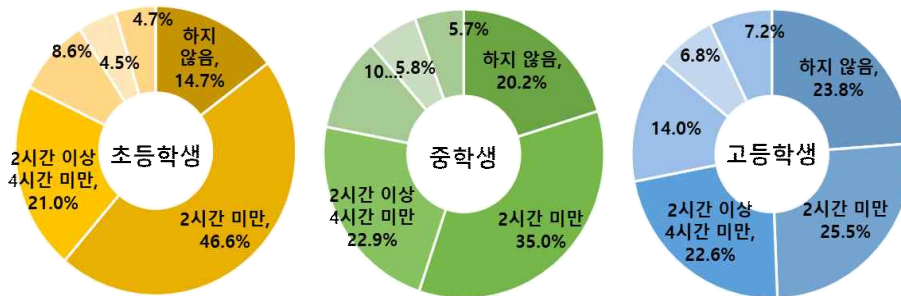
다. (1주일) 자율학습 시간: 수학

-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자율학습 시간은 2시간 미만(38.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2.0%), 하지 않음(18.5%),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10.3%), 8시간 이상(5.5%),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5.4%)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2시간 미만(37.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1.1%), 하지 않음(18.8%) 등이고, 여학생은 2시간 미만(39.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3.0%), 하지 않음(18.1%) 등으로 수학 자율학습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시간 미만 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1]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자율학습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2시간 미만(46.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1.0%), 하지 않음(14.7%) 등이고, 중학생은 2시간 미만(35.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2.9%), 하지 않음(20.2%) 등이고, 고등학생은 2시간 미만(25.5%), 하지 않음(23.8%),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2.6%) 등으로 수학 자율학습 시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2시간 미만 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2]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자율학습 시간

〈표 3-12〉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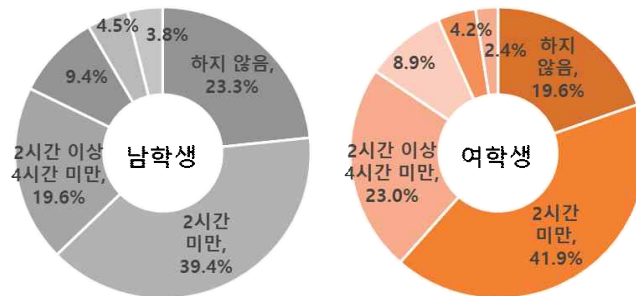
N=22,449

항목	구분	하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수학 자율학습 시간	전체	4,143 18.5%	8,601 38.3%	4,936 22.0%	2,318 10.3%	1,214 5.4%	1,237 5.5%	22,449 100.0%	-
	남	2,145 18.8%	4,217 37.0%	2,397 21.1%	1,167 10.2%	682 6.0%	779 6.8%	11,387 100.0%	109.805***
	여	1,998 18.1%	4,384 39.6%	2,539 23.0%	1,151 10.4%	532 4.8%	458 4.1%	11,062 100.0%	
	초	1,442 14.7%	4,570 46.6%	2,060 21.0%	849 8.6%	439 4.5%	457 4.7%	9,817 100.0%	683.437***
	중	1,728 20.2%	2,988 35.0%	1,954 22.9%	899 10.5%	496 5.8%	484 5.7%	8,549 100.0%	
	고	973 23.8%	1,043 25.5%	922 22.6%	570 14.0%	279 6.8%	296 7.2%	4,083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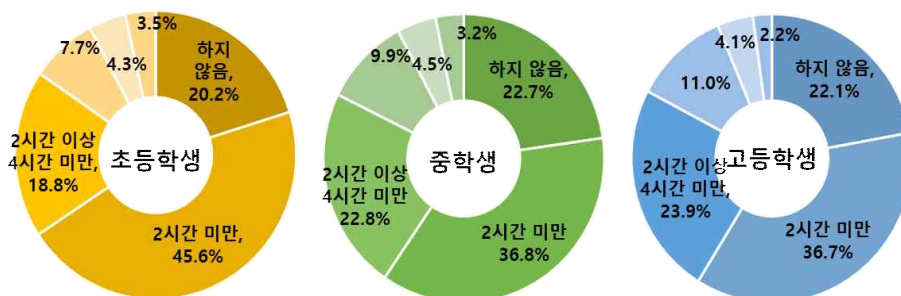
라. (1주일) 자율학습 시간: 영어

-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자율학습 시간은 2시간 미만(40.6%), 하지 않음(21.5%),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1.2%),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9.1%),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4.3%), 8시간 이상(3.2%),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2시간 미만(39.4%), 하지 않음(23.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9.6%) 등이고, 여학생은 2시간 미만(41.9%),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3.0%), 하지 않음(19.6%) 등으로 영어 자율학습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시간 미만 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3]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자율학습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2시간 미만(45.6%), 하지 않음(20.2%),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8.8%) 등이고, 중학생은 2시간 미만(36.8%),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2.8%), 하지 않음(22.7%) 등이고, 고등학생은 2시간 미만(36.7%),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3.9%), 하지 않음(22.1%) 등으로 영어 자율학습 시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2시간 미만 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4]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자율학습 시간

〈표 3-13〉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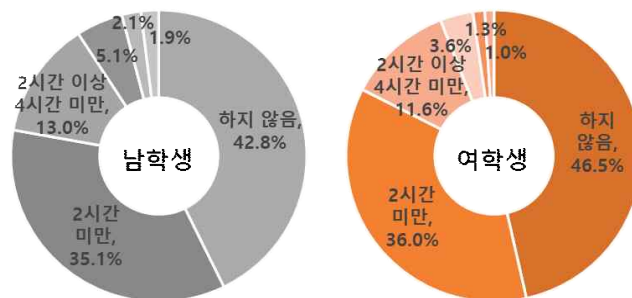
N=22,449

항목	구분	하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영어 자율학습 시간	전체	4,827 21.5%	9,117 40.6%	4,770 21.2%	2,051 9.1%	976 4.3%	708 3.2%	22,449 100.0%	-
	남	2,657 23.3%	4,484 39.4%	2,228 19.6%	1,066 9.4%	515 4.5%	437 3.8%	11,387 100.0%	112.665***
	여	2,170 19.6%	4,633 41.9%	2,542 23.0%	985 8.9%	461 4.2%	271 2.4%	11,062 100.0%	
	초	1,980 20.2%	4,473 45.6%	1,848 18.8%	752 7.7%	422 4.3%	342 3.5%	9,817 100.0%	232.090***
	중	1,943 22.7%	3,147 36.8%	1,946 22.8%	850 9.9%	386 4.5%	277 3.2%	8,549 100.0%	
	고	904 22.1%	1,497 36.7%	976 23.9%	449 11.0%	168 4.1%	89 2.2%	4,083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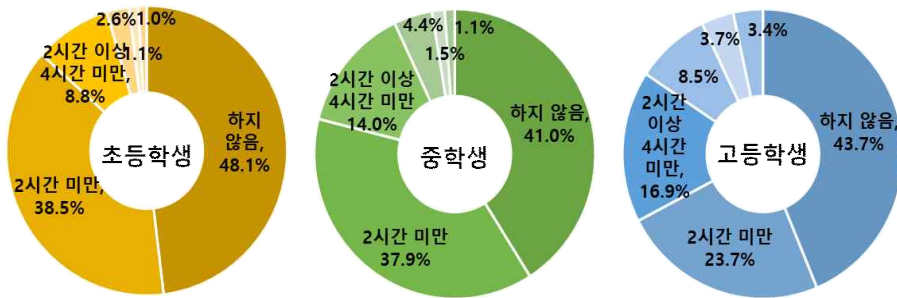
마. (1주일) 자율학습 시간: 과학

-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자율학습 시간은 하지 않음(44.6%), 2시간 미만(35.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2.3%),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4.4%),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1.7%), 8시간 이상(1.5%)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하지 않음(42.8%), 2시간 미만(35.1%),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3.0%) 등이고, 여학생은 하지 않음(46.5%), 2시간 미만(36.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1.6%) 등으로 과학 자율학습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5]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자율학습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하지 않음(48.1%), 2시간 미만(38.5%),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8.8%) 등이고, 중학생은 하지 않음(41.0%), 2시간 미만(37.9%),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4.0%) 등이고, 고등학생은 하지 않음(43.7%), 2시간 미만(23.7%),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6.9%) 등으로 과학 자율학습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6]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자율학습 시간

〈표 3-14〉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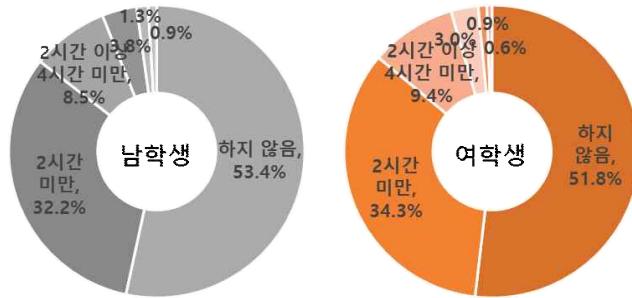
N=22,449

항목	구분	하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과학 자율학습 시간	전체	10,010 44.6%	7,984 35.6%	2,761 12.3%	982 4.4%	381 1.7%	331 1.5%	22,449 100.0%	-
	남	4,868 42.8%	3,997 35.1%	1,479 13.0%	584 5.1%	238 2.1%	221 1.9%	11,387 100.0%	113.029***
	여	5,142 46.5%	3,987 36.0%	1,282 11.6%	398 3.6%	143 1.3%	110 1.0%	11,062 100.0%	
	초	4,719 48.1%	3,779 38.5%	868 8.8%	253 2.6%	104 1.1%	94 1.0%	9,817 100.0%	927.079***
	중	3,506 41.0%	3,239 37.9%	1,201 14.0%	380 4.4%	125 1.5%	98 1.1%	8,549 100.0%	
	고	1,785 43.7%	966 23.7%	692 16.9%	349 8.5%	152 3.7%	139 3.4%	4,083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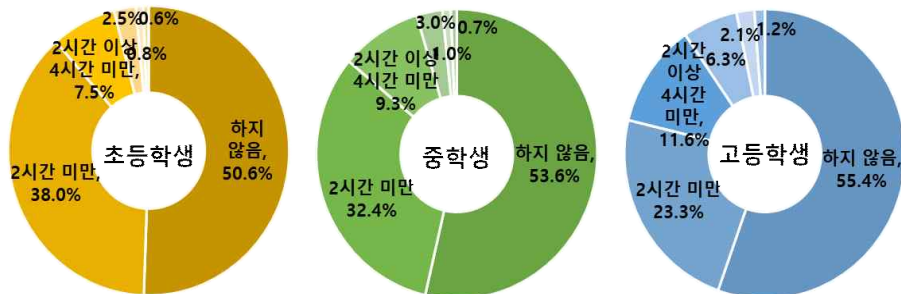
바. (1주일) 자율학습 시간: 사회

-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자율학습 시간은 하지 않음(52.6%), 2시간 미만(33.2%),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8.9%),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3.4%),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1.1%), 8시간 이상(0.7%)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하지 않음(53.4%), 2시간 미만(32.2%),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8.5%) 등이고, 여학생은 하지 않음(51.8%), 2시간 미만(34.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9.4%) 등으로 사회 자율학습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7]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자율학습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하지 않음(50.6%), 2시간 미만(38.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7.5%) 등이고, 중학생은 하지 않음(53.6%), 2시간 미만(32.4%),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9.3%) 등이고, 고등학생은 하지 않음(55.4%), 2시간 미만(23.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1.6%) 등으로 사회 자율학습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8]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자율학습 시간

〈표 3-15〉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자율학습 시간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구분	하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사회 자율학습 시간	전체	11,810 52.6%	7,454 33.2%	2,008 8.9%	761 3.4%	248 1.1%	168 0.7%	22,449 100.0%	-
	남	6,076 53.4%	3,665 32.2%	965 8.5%	431 3.8%	143 1.3%	107 0.9%	11,387 100.0%	42.123***
	여	5,734 51.8%	3,789 34.3%	1,043 9.4%	330 3.0%	105 0.9%	61 0.6%	11,062 100.0%	
	초	4,963 50.6%	3,728 38.0%	736 7.5%	247 2.5%	82 0.8%	61 0.6%	9,817 100.0%	448.289***
	중	4,584 53.6%	2,773 32.4%	797 9.3%	255 3.0%	82 1.0%	58 0.7%	8,549 100.0%	
	고	2,263 55.4%	953 23.3%	475 11.6%	259 6.3%	84 2.1%	49 1.2%	4,0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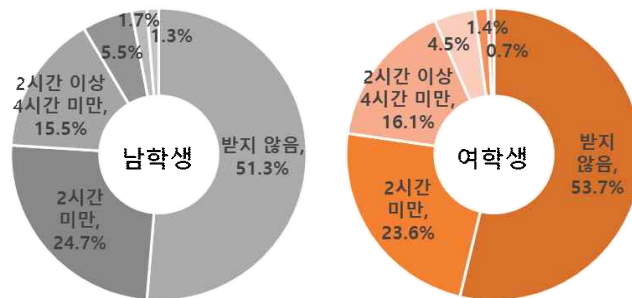
*** $p<.001$

-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녀 모두 1~2시간 미만 학습이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율학습 시간이 길었음. 그러나 남학생은 ‘학습하지 않는다’는 비율(8.0%)이 여학생(5.9%)보다 높은 반면, 5시간 이상 장시간 학습 비율도 더 높아 자율학습 수준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였음. 학교급별로는 초·중학생은 1~2시간 미만, 고등학생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아 학업 부담 증가를 반영함. 또한 국·어·수학·영어 과목 중심의 학습이 두드러지고, 국어와 과학은 ‘학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아 특정 교과 편중이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동시에 ‘학습하지 않음’ 비율도 높아져 학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고등학생의 2시간 이상 장시간 학습 비율 증가를 통해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수학·영어 중심 학습 부담 완화와 적성·진로 기반의 선택적 학습 환경 조성 필요함. 또한 학생 스스로 학습시간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지원이 요구됨.

6. 사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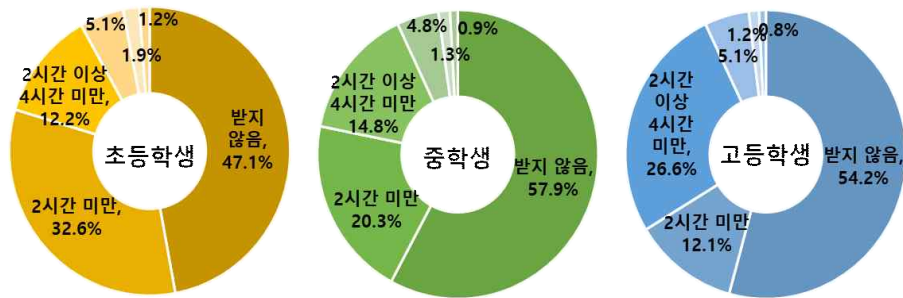
가. (1주일) 사교육 시간: 국어

- 학생의 1주일 평균 교과별(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참여 시간 및 사교육 목적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6>과 같음.
-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은 받지 않음(52.5%), 2시간 미만(24.2%),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5.8%),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5.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1.5%), 8시간 이상(1.0%)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받지 않음(51.3%), 2시간 미만(24.7%),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5.5%) 등이고, 여학생은 받지 않음(53.7%), 2시간 미만(23.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6.1%) 등으로 국어 사교육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29]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받지 않음(47.1%), 2시간 미만(32.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2.2%) 등이고, 중학생은 받지 않음(57.9%), 2시간 미만(20.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4.8%) 등이고, 고등학생은 받지 않음(54.2%),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6.6%), 2시간 미만(12.1%) 등으로 국어 사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0]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

〈표 3-16〉 학생의 1주일 평균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N=2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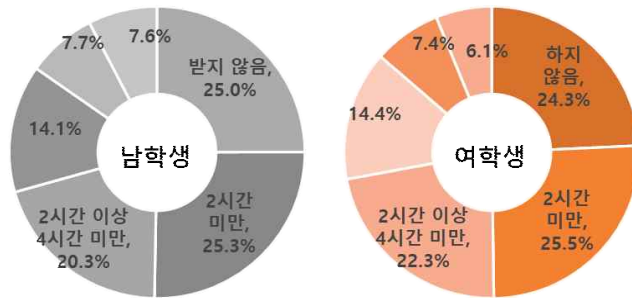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	전체	11,782 52.5%	5,425 24.2%	3,554 15.8%	1,119 5.0%	346 1.5%	223 1.0%	22,449 100.0%	-
	남	5,841 51.3%	2,814 24.7%	1,769 15.5%	626 5.5%	189 1.7%	148 1.3%	11,387 100.0%	46.486***
	여	5,941 53.7%	2,611 23.6%	1,785 16.1%	493 4.5%	157 1.4%	75 0.7%	11,062 100.0%	
	초	4,621 47.1%	3,199 32.6%	1,200 12.2%	498 5.1%	184 1.9%	115 1.2%	9,817 100.0%	1099.262***
	중	4,947 57.9%	1,733 20.3%	1,267 14.8%	412 4.8%	114 1.3%	76 0.9%	8,549 100.0%	
	고	2,214 54.2%	493 12.1%	1,087 26.6%	209 5.1%	48 1.2%	32 0.8%	4,083 100.0%	

*** $p < .001$

나. (1주일) 사교육 시간: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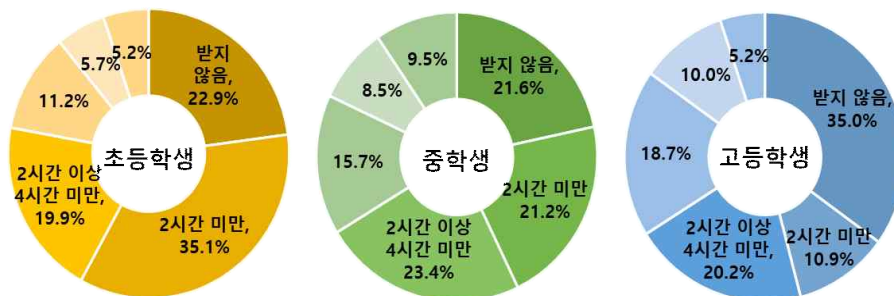
-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은 2시간 미만(25.4%), 받지 않음(24.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1.3%),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14.3%),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7.6%), 8시간 이상(6.9%)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2시간 미만(25.3%), 받지 않음(25.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0.3%), 등이고, 여학생은 2시간 미만(25.5%), 받지 않음(24.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2.3%) 등으로 수학 사교육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시간 미만으로 받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1]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2시간 미만(35.1%), 받지 않음(22.9%),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9.9%) 등이고, 중학생은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3.4%), 받지 않음(21.6%), 2시간 미만 (21.2%) 등이고, 고등학생은 받지 않음(35.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0.2%),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18.7%) 등으로 수학 사교육은 초등학교는 2시간 미만, 중학생은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받는 것에 비해, 고등학생은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2]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표 3-17〉 학생의 1주일 평균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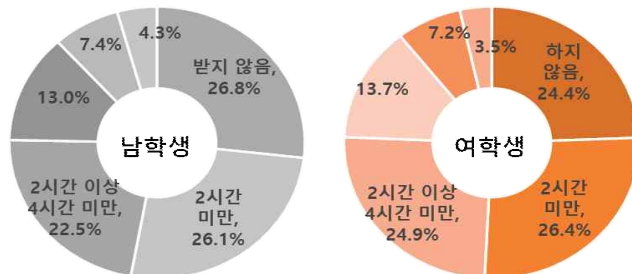
N=22,449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전체	5,525 24.6%	5,706 25.4%	4,780 21.3%	3,201 14.3%	1,698 7.6%	1,539 6.9%	22,449 100.0%	-
	남	2,842 25.0%	2,883 25.3%	2,316 20.3%	1,611 14.1%	874 7.7%	861 7.6%	11,387 100.0%	28.460***
	여	2,683 24.3%	2,823 25.5%	2,464 22.3%	1,590 14.4%	824 7.4%	678 6.1%	11,062 100.0%	
	초	2,247 22.9%	3,447 35.1%	1,952 19.9%	1,097 11.2%	559 5.7%	515 5.2%	9,817 100.0%	1376.084***
	중	1,850 21.6%	1,813 21.2%	2,004 23.4%	1,339 15.7%	730 8.5%	813 9.5%	8,549 100.0%	
	고	1,428 35.0%	446 10.9%	824 20.2%	765 18.7%	409 10.0%	211 5.2%	4,083 10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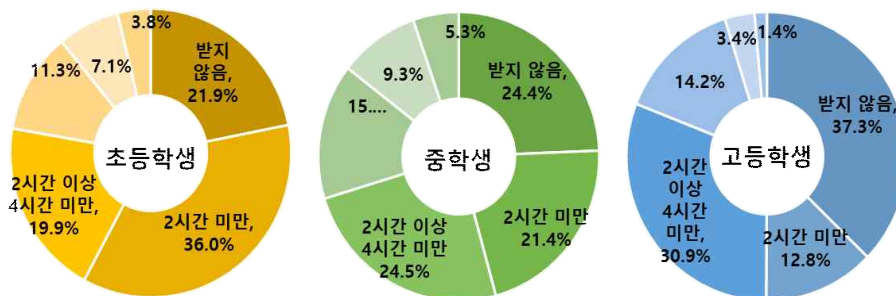
다. (1주일) 사교육 시간: 영어

-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은 2시간 미만(26.2%), 받지 않음(25.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3.7%),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13.3%),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7.3%), 8시간 이상(3.9%)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받지 않음(26.8%), 2시간 미만(26.1%),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2.5%) 등이고, 여학생은 2시간 미만(26.4%),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4.9%), 받지 않음(24.4%) 등으로 영어 사교육은 남학생의 경우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은 2시간 미만으로 받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3]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2시간 미만(36.0%), 받지 않음(21.9%),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9.9%) 등이고, 중학생은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24.5%), 받지 않음(24.4%), 2시간 미만(21.4%) 등이고, 고등학생은 받지 않음(37.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30.9%),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14.2%) 등으로 영어 사교육은 초등학생의 경우 2시간 미만, 중학생은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고등학생은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4]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

〈표 3-18〉 학생의 1주일 평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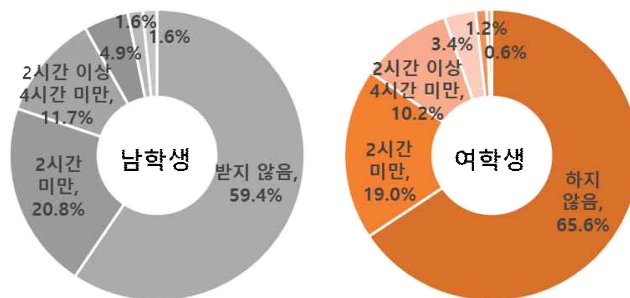
N=22,449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	전체	5,751 25.6%	5,885 26.2%	5,310 23.7%	2,991 13.3%	1,631 7.3%	881 3.9%	22,449 100.0%	-
	남	3,050 26.8%	2,969 26.1%	2,558 22.5%	1,475 13.0%	840 7.4%	495 4.3%	11,387 100.0%	39.567***
	여	2,701 24.4%	2,916 26.4%	2,752 24.9%	1,516 13.7%	791 7.2%	386 3.5%	11,062 100.0%	
	초	2,147 21.9%	3,533 36.0%	1,952 19.9%	1,112 11.3%	699 7.1%	374 3.8%	9,817 100.0%	1428.839***
	중	2,082 24.4%	1,829 21.4%	2,098 24.5%	1,299 15.2%	792 9.3%	449 5.3%	8,549 100.0%	
	고	1,522 37.3%	523 12.8%	1,260 30.9%	580 14.2%	140 3.4%	58 1.4%	4,083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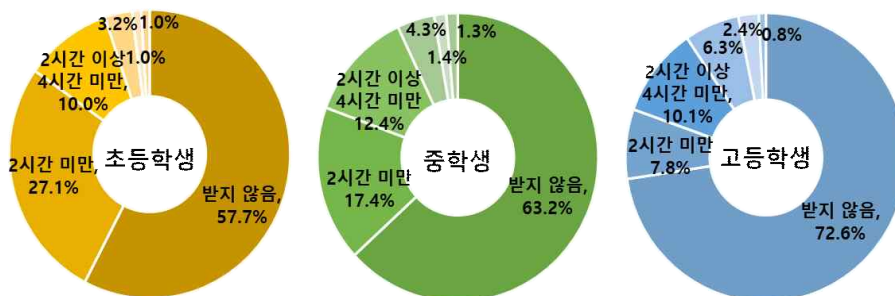
라.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과학

-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은 받지 않음(62.5%), 2시간 미만(19.9%),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0.9%),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4.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1.4%), 8시간 이상(1.1%)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받지 않음(59.4%), 2시간 미만(20.8%),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1.7%) 등이고, 여학생은 받지 않음(65.6%), 2시간 미만(19.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0.2%) 등으로 과학 사교육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5]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받지 않음(57.7%), 2시간 미만(27.1%),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0.0%) 등이고, 중학생은 받지 않음(63.2%), 2시간 미만(17.4%),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2.4%) 등이고, 고등학생은 받지 않음(72.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0.1%), 2시간 미만(7.8%) 등으로 과학 사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6]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

〈표 3-19〉 학생의 1주일 평균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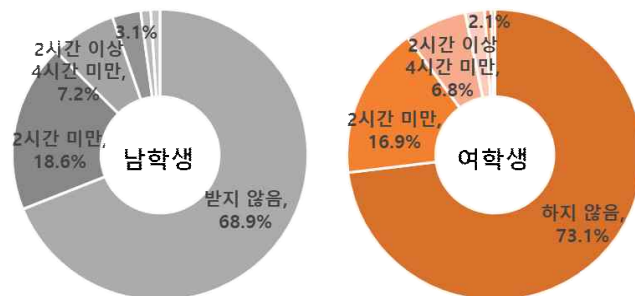
N=22,449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	전체	14,025 62.5%	4,473 19.9%	2,457 10.9%	936 4.2%	318 1.4%	240 1.1%	22,449 100.0%	-
	남	6,763 59.4%	2,371 20.8%	1,333 11.7%	556 4.9%	186 1.6%	178 1.6%	11,387 100.0%	145.365***
	여	7,262 65.6%	2,102 19.0%	1,124 10.2%	380 3.4%	132 1.2%	62 0.6%	11,062 100.0%	
	초	5,660 57.7%	2,664 27.1%	986 10.0%	310 3.2%	102 1.0%	95 1.0%	9,817 100.0%	829.154***
	중	5,400 63.2%	1,491 17.4%	1,059 12.4%	367 4.3%	120 1.4%	112 1.3%	8,549 100.0%	
	고	2,965 72.6%	318 7.8%	412 10.1%	259 6.3%	96 2.4%	33 0.8%	4,083 10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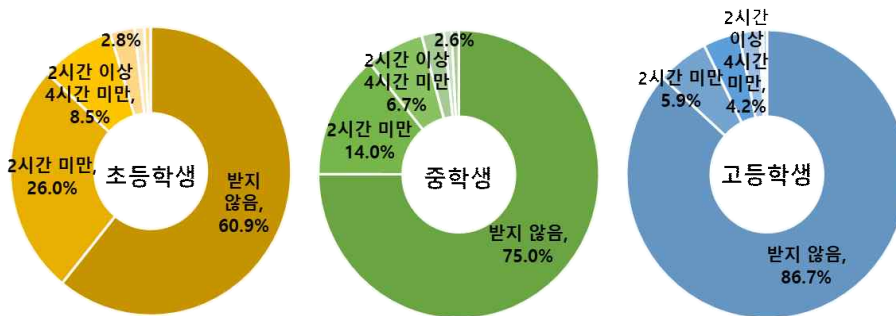
마. (1주일) 사교육 시간: 사회

-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은 받지 않음(71.0%), 2시간 미만(17.8%),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7.0%),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2.6%),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0.9%), 8시간 이상(0.7%)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받지 않음(68.9%), 2시간 미만(18.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7.2%) 등이고, 여학생은 받지 않음(73.1%), 2시간 미만(16.9%),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6.8%) 등으로 사회 사교육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7]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받지 않음(60.9%), 2시간 미만(26.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8.5%) 등이고, 중학생은 받지 않음(75.0%), 2시간 미만(14.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6.7%) 등이고, 고등학생은 받지 않음(86.7%), 2시간 미만(5.9%),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4.2%) 등으로 사회 사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8]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

〈표 3-20〉 학생의 1주일 평균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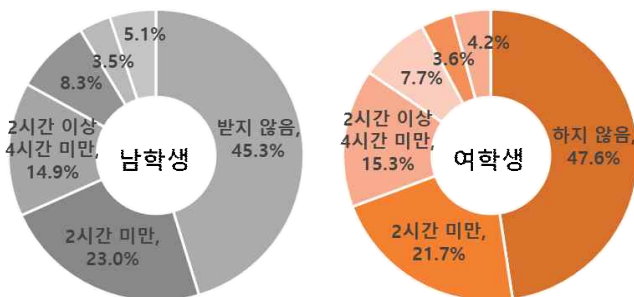
N=22,449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	전체	15,929 71.0%	3,990 17.8%	1,576 7.0%	592 2.6%	203 0.9%	159 0.7%	22,449 100.0%	-
	남	7,848 68.9%	2,123 18.6%	821 7.2%	356 3.1%	124 1.1%	115 1.0%	11,387 100.0%	83.914***
	여	8,081 73.1%	1,867 16.9%	755 6.8%	236 2.1%	79 0.7%	44 0.4%	11,062 100.0%	
	초	5,974 60.9%	2,550 26.0%	835 8.5%	278 2.8%	109 1.1%	71 0.7%	9,817 100.0%	1169.523***
	중	6,415 75.0%	1,198 14.0%	571 6.7%	218 2.6%	77 0.9%	70 0.8%	8,549 100.0%	
	고	3,540 86.7%	242 5.9%	170 4.2%	96 2.4%	17 0.4%	18 0.4%	4,083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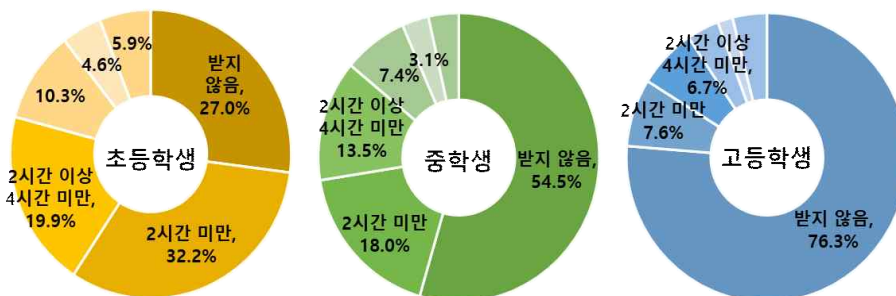
바. 사교육 참여 시간: 예체능

- 학생의 1주일 평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참여 시간은 받지 않음(46.5%), 2시간 미만(22.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5.1%),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8.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3.5%), 8시간 이상(4.6%)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받지 않음(45.3%), 2시간 미만(23.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4.9%) 등이고, 여학생은 받지 않음(47.6%), 2시간 미만(21.7%),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5.3%) 등으로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39] 남·여학생의 1주일 평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참여 시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2시간 미만(32.2%), 받지 않음(27.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9.9%) 등이고, 중학생은 받지 않음(54.5%), 2시간 미만(18.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3.5%) 등이고, 고등학생은 받지 않음(76.3%), 2시간 미만(7.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6.7%) 등으로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은 초등학생의 경우 2시간 미만으로 받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0] 학교급별 학생의 1주일 평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참여 시간

〈표 3-21〉 학생의 1주일 평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참여 시간	전체	10,428 46.5%	5,010 22.3%	3,386 15.1%	1,797 8.0%	790 3.5%	1,038 4.6%	22,449 100.0%	-
	남	5,159 45.3%	2,614 23.0%	1,692 14.9%	948 8.3%	397 3.5%	577 5.1%	11,387 100.0%	24.385***
	여	5,269 47.6%	2,396 21.7%	1,694 15.3%	849 7.7%	393 3.6%	461 4.2%	11,062 100.0%	
	초	2,655 27.0%	3,163 32.2%	1,953 19.9%	1,011 10.3%	455 4.6%	580 5.9%	9,817 100.0%	3250.582***
	중	4,659 54.5%	1,537 18.0%	1,158 13.5%	634 7.4%	264 3.1%	297 3.5%	8,549 100.0%	
	고	3,114 76.3%	310 7.6%	275 6.7%	152 3.7%	71 1.7%	161 3.9%	4,083 100.0%	

*** $p<.001$

-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교과 영역, 성별,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국어, 과학, 사회, 예체능(음악·미술·체육) 영역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수학과 영어에서는 2시간 미만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과 영어 사교육 참여율이 다소 높으며, 남학생은 과학·사회·예체능 영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학교급별로는 수학의 경우 중학생, 영어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폭넓게 시작된 사교육이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특정 과목(수학·영어)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이는 누적 학습의 특성을 지닌 수학과 영어 과목의 기초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조기 사교육 참여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의 순으로 수학과 영어의 장시간 사교육 참여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국어·사회·과학 등 다른 교과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 속에서 수학과 영어가 주요 변별 과목으로 인식되면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영어·예체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 다지기’나 ‘적성 탐색’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지만, 중·고등학교는 ‘입시 준비’ 중심으로 사교육 목적이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성장 단계별로 사교육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지며, 공교육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는 사교육 과잉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수학·영어 교과에서 수준별 맞춤형 학습과 보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어·사회·과학 교과의 공교육 내 학습경험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교과 및 예체능 영역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학습 결손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교 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교육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7. 사교육 목적

가. 사교육 목적: 국어

- 학생의 **교과별 사교육 목적**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2>와 같음. 2025년 교과별 사교육 목적 ‘받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11,440(51.0%)건을 분석함.
- 학생의 **국어 사교육 목적**은 보충학습(29.3%), 선행학습(27.9%), 모르겠음(18.7%), 심화학습(13.2%), 흥미, 자기개발(9.2%), 친구관계(1.6%)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보충학습(27.9%), 선행학습(27.1%), 모르겠음(20.5%) 등이고, 여학생은 보충학습(30.9%), 선행학습(28.8%), 모르겠음(16.7%) 등으로 국어 사교육 목적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충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보충학습(26.6%), 모르겠음(25.0%), 선행학습(24.6%) 등이고, 중학생은 선행학습(32.7%), 보충학습(29.7%), 모르겠음(15.7%) 등이고, 고등학생은 보충학습(36.6%), 선행학습(27.9%), 심화학습(25.2%) 등으로 국어 사교육 목적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생은 보충학습, 중학생은 선행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22> 학생의 국어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11,440

항목	구분	보충 학습	선행 학습	심화 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 관계	모르겠음	계	χ^2
국어 사교육 목적	전체	3,357 29.3%	3,195 27.9%	1,515 13.2%	1,054 9.2%	184 1.6%	2,135 18.7%	11,440 100.0%	-
	남	1,653 27.9%	1,604 27.1%	771 13.0%	564 9.5%	115 1.9%	1,212 20.5%	5,919 100.0%	43.330***
	여	1,704 30.9%	1,591 28.8%	744 13.5%	490 8.9%	69 1.2%	923 16.7%	5,521 100.0%	
	초	1,497 26.6%	1,388 24.6%	518 9.2%	696 12.4%	124 2.2%	1,408 25.0%	5,631 100.0%	856.694***
	중	1,149 29.7%	1,265 32.7%	507 13.1%	291 7.5%	47 1.2%	609 15.7%	3,868 100.0%	
	고	711 36.6%	542 27.9%	490 25.2%	67 3.5%	13 0.7%	118 6.1%	1,941 100.0%	

*** $p < .001$

나. 사교육 목적: 수학

- 학생의 **수학 사교육 목적**은 선행학습(44.3%), 보충학습(23.5%), 심화학습(13.9%), 모르겠음(12.2%), 흥미, 자기개발(5.4%), 친구관계(0.8%) 순이었음. 2025년 교과별 사교육 목적 '받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17,411(77.6%)건을 분석함.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선행학습(41.4%), 보충학습(21.5%), 심화학습(15.6%) 등이고, 여학생은 선행학습(47.2%), 보충학습(25.5%), 심화학습(12.1%) 등으로 수학 사교육 목적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선행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선행학습(39.3%), 보충학습(23.0%), 모르겠음(16.5%) 등이고, 중학생은 선행학습(50.4%), 보충학습(22.0%), 심화학습(13.2%) 등이고, 고등학생은 선행학습(43.6%), 보충학습(28.4%), 심화학습(21.1%) 등으로 수학 사교육 목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선행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23〉 학생의 수학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17,411

항목	구분	보충 학습	선행 학습	심화 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 관계	모르겠음	계	χ^2
수학 사교육 목적	전체	4,088 23.5%	7,711 44.3%	2,412 13.9%	947 5.4%	133 0.8%	2,120 12.2%	17,411 100.0%	-
	남	1,887 21.5%	3,642 41.4%	1,370 15.6%	620 7.1%	90 1.0%	1,182 13.4%	8,791 100.0%	226.055***
	여	2,201 25.5%	4,069 47.2%	1,042 12.1%	327 3.8%	43 0.5%	938 10.9%	8,620 100.0%	
	초	1,825 23.0%	3,109 39.3%	946 11.9%	655 8.3%	80 1.0%	1,303 16.5%	7,918 100.0%	765.065***
	중	1,500 22.0%	3,430 50.4%	900 13.2%	243 3.6%	42 0.6%	692 10.2%	6,807 100.0%	
	고	763 28.4%	1,172 43.6%	566 21.1%	49 1.8%	11 0.4%	125 4.7%	2,686 100.0%	

*** $p < .001$

다. 사교육 목적: 영어

- 학생의 영어 사교육 목적은 선행학습(36.6%), 보충학습(26.1%), 심화학습(14.7%), 모르겠음(13.5%), 흥미, 자기개발(8.0%), 친구관계(1.1%) 순이었음. 2025년 교과별 사교육 목적 '받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17,135(76.3%)건을 분석함.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선행학습(34.7%), 보충학습(25.0%), 심화학습(15.1%) 등이고, 여학생은 선행학습(38.5%), 보충학습(27.2%), 심화학습(14.3%) 등으로 영어 사교육 목적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선행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선행학습(33.1%), 보충학습(22.9%), 모르겠음(18.6%) 등이고, 중학생은 선행학습(44.8%), 보충학습(24.0%), 심화학습(15.3%) 등이고, 고등학생은 보충학습(40.9%), 선행학습(26.5%), 심화학습(23.8%) 등으로 영어 사교육 목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선행학습, 고등학생은 보충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24〉 학생의 영어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17,135

항목	구분	보충 학습	선행 학습	심화 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 관계	모르겠음	계	χ^2
영어 사교육 목적	전체	4,464 26.1%	6,267 36.6%	2,517 14.7%	1,372 8.0%	194 1.1%	2,321 13.5%	17,135 100.0%	-
	남	2,143 25.0%	2,979 34.7%	1,298 15.1%	745 8.7%	126 1.5%	1,297 15.1%	8,588 100.0%	84.315***
	여	2,321 27.2%	3,288 38.5%	1,219 14.3%	627 7.3%	68 0.8%	1,024 12.0%	8,547 100.0%	
	초	1,826 22.9%	2,634 33.1%	894 11.2%	985 12.4%	136 1.7%	1,484 18.6%	7,959 100.0%	1419.678***
	중	1,575 24.0%	2,944 44.8%	1,005 15.3%	305 4.6%	46 0.7%	699 10.6%	6,574 100.0%	
	고	1,063 40.9%	689 26.5%	618 23.8%	82 3.2%	12 0.5%	138 5.3%	2,602 100.0%	

*** $p < .001$

라. 사교육 목적: 과학

- 학생의 **과학 사교육 목적**은 선행학습(30.1%), 보충학습(25.6%), 모르겠음(19.9%), 흥미, 자기개발(12.0%), 심화학습(11.5%), 친구관계(1.0%) 순이었음. 2025년 교과별 사교육 목적 '받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9,286(41.4%)건을 분석함.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선행학습(28.7%), 보충학습(22.6%), 모르겠음(20.5%) 등이고, 여학생은 선행학습(31.8%), 보충학습(29.1%), 모르겠음(19.1%) 등으로 과학 사교육 목적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선행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선행학습(24.7%), 모르겠음(25.2%), 보충학습(24.0%) 등이고, 중학생은 선행학습(36.1%), 보충학습(27.5%), 모르겠음(16.4%) 등이고, 고등학생은 선행학습(34.0%), 보충학습(26.1%), 심화학습(25.0%) 등으로 과학 사교육 목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선행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25〉 학생의 과학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9,286

항목	구분	보충 학습	선행 학습	심화 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 관계	모르겠음	계	χ^2
과학 사교육 목적	전체	2,375 25.6%	2,792 30.1%	1,065 11.5%	1,114 12.0%	95 1.0%	1,845 19.9%	9,286 100.0%	-
	남	1,150 22.6%	1,456 28.7%	644 12.7%	720 14.2%	67 1.3%	1,042 20.5%	5,079 100.0%	115.726***
	여	1,225 29.1%	1,336 31.8%	421 10.0%	394 9.4%	28 0.7%	803 19.1%	4,207 100.0%	
	초	1,123 24.0%	1,153 24.7%	369 7.9%	793 17.0%	56 1.2%	1,179 25.2%	4,673 100.0%	707.991***
	중	939 27.5%	1,231 36.1%	396 11.6%	256 7.5%	30 0.9%	561 16.4%	3,413 100.0%	
	고	313 26.1%	408 34.0%	300 25.0%	65 5.4%	9 0.8%	105 8.8%	1,200 100.0%	

*** $p<.001$

마. 사교육 목적: 사회

- 학생의 **사회 사교육 목적**은 보충학습(29.4%), 모르겠음(25.4%), 선행학습(24.7%), 심화학습(8.9%), 흥미, 자기개발(8.8%), 친구관계(2.8%) 순이었음. 2025년 교과별 사교육 목적 ‘받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7,464(33.2%)건을 분석함.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보충학습(26.5%), 모르겠음(26.3%), 선행학습(24.0%) 등이고, 여학생은 보충학습(33.0%), 선행학습(25.5%), 모르겠음(24.4%) 등으로 사회 사교육 목적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충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보충학습(28.4%), 모르겠음(27.3%), 선행학습(23.6%) 등이고, 중학생은 보충학습(31.7%), 선행학습(26.3%), 모르겠음(24.0%) 등이고, 고등학생은 보충학습(28.1%), 선행학습(25.5%), 모르겠음(18.2%) 등으로 사회 사교육 목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보충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26〉 학생의 사회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7,464

항목	구분	보충 학습	선행 학습	심화 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 관계	모르겠음	계	χ^2
사회 사교육 목적	전체	2,198 29.4%	1,841 24.7%	664 8.9%	656 8.8%	206 2.8%	1,899 25.4%	7,464 100.0%	-
	남	1,081 26.5%	977 24.0%	405 9.9%	412 10.1%	130 3.2%	1,074 26.3%	4,079 100.0%	65.495***
	여	1,117 33.0%	864 25.5%	259 7.7%	244 7.2%	76 2.2%	825 24.4%	3,385 100.0%	
	초	1,240 28.4%	1,032 23.6%	326 7.5%	425 9.7%	155 3.5%	1,192 27.3%	4,370 100.0%	128.336***
	중	782 31.7%	649 26.3%	230 9.3%	177 7.2%	36 1.5%	593 24.0%	2,467 100.0%	
	고	176 28.1%	160 25.5%	108 17.2%	54 8.6%	15 2.4%	114 18.2%	627 100.0%	

*** $p<.001$

바. 사교육 목적: 예체능

- 학생의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목적**은 흥미, 자기개발(66.8%), 모르겠음(11.5%), 보충학습(7.2%), 선행학습(6.8%), 심화학습(4.9%), 친구관계(2.8%) 순이었음. 2025년 교과별 사교육 목적 '받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12,317(54.9%)건을 분석함.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흥미, 자기개발(61.6%), 모르겠음(13.3%), 보충학습(8.6%) 등이고, 여학생은 흥미, 자기개발(72.5%), 모르겠음(9.5%), 보충학습(5.7%) 등으로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목적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흥미, 자기개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흥미, 자기개발(67.4%), 모르겠음(12.5%), 보충학습(7.0%) 등이고, 중학생은 흥미, 자기개발(70.5%), 모르겠음(10.3%), 보충학습(6.7%) 등이고, 고등학생은 흥미, 자기개발(47.9%), 심화학습(21.6%), 보충학습(10.5%) 등으로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목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흥미, 자기개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27〉 학생의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12,317

항목	구분	보충 학습	선행 학습	심화 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 관계	모르겠음	계	χ^2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사교육 목적	전체	886 7.2%	835 6.8%	603 4.9%	8,231 66.8%	347 2.8%	1,415 11.5%	12,317 100.0%	-
	남	550 8.6%	510 8.0%	312 4.9%	3,951 61.6%	236 3.7%	855 13.3%	6,414 100.0%	192.220***
	여	336 5.7%	325 5.5%	291 4.9%	4,280 72.5%	111 1.9%	560 9.5%	5,903 100.0%	
	초	509 7.0%	495 6.8%	219 3.0%	4,899 67.4%	239 3.3%	907 12.5%	7,268 100.0%	756.694***
	중	271 6.7%	245 6.1%	166 4.1%	2,848 70.5%	91 2.3%	418 10.3%	4,039 100.0%	
	고	106 10.5%	95 9.4%	218 21.6%	484 47.9%	17 1.7%	90 8.9%	1,0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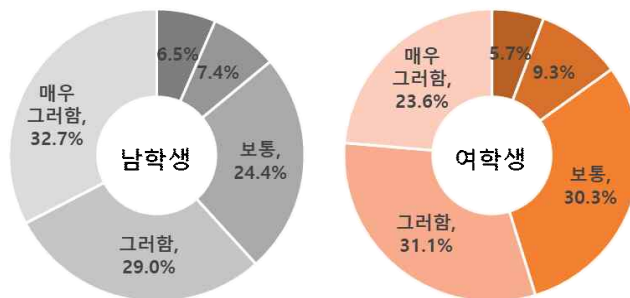
*** $p < .001$

- 학생들의 교과별 사교육 목적은 전반적으로 보충학습과 선행학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러한 경향은 성별이나 학교급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수학·영어·과학 교과에서는 초·중·고 전 학령에서 선행학습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남.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심화 및 입시 대비를 위한 보충학습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국어와 사회는 주로 보충학습 목적이 높으며, 예체능(음악·미술·체육)은 다른 교과와 달리 ‘흥미’와 ‘자기개발’을 이유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예체능 사교육도 입시 실기 준비와 연결되면서 ‘심화학습’과 ‘보충학습’의 성격으로 일부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교과별 사교육이 학생 개인의 흥미나 자율적 선택보다는 입시 중심의 학습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학생들이 수학과 영어 영역에서 학교 수업 이전에 사교육을 통해 미리 학습하는 경향은 공교육의 기능이 선행학습에 의해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학교 안에서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준별·심화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동시에 예체능 교육을 단순 취미 활동이 아닌 정서적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핵심 교육 영역으로 인식하여, 학교 내 체험 중심 프로그램과 자기표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체 학생의 약 10~25%가 사교육 목적을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며, 특히 초등학생에게서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많은 학생이 사교육 참여의 이유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학습 선택이 부모나 환경에 의해 외부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진로 인식 부족과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 대상의 교육적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 목적을 설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기결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제3절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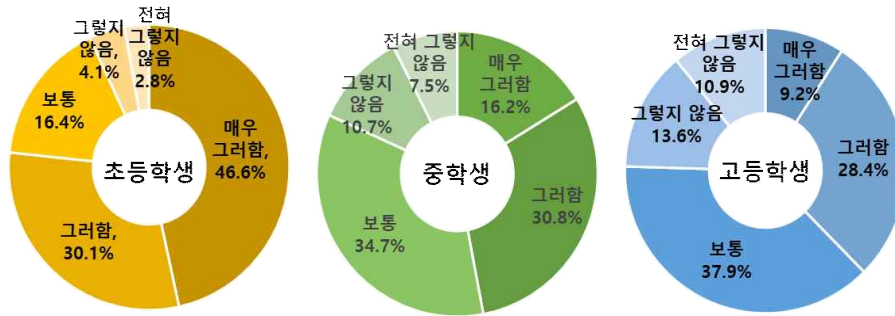
1. 학교만족도

- 학생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8>과 같음.
- 학교만족도에 대해 긍정응답은 58.3%(매우 그러함 28.2%, 그러함 30.1%)이며, 보통 27.3%, 부정응답은 14.5%(그렇지 않음 8.4%, 전혀 그렇지 않음 6.1%)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1.7%(매우 그러함 32.7%, 그러함 29.0%), 보통 24.4%, 부정응답 13.9%(그렇지 않음 7.4%, 전혀 그렇지 않음 6.5%)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4.7%(매우 그러함 23.6%, 그러함 31.1%), 보통 30.3%, 부정응답 15.0%(그렇지 않음 9.3%, 전혀 그렇지 않음 5.7%)로 학교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1] 남·여학생의 학교만족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76.7%(매우 그러함 46.6%, 그러함 30.1%), 보통 16.4%, 부정응답 6.9%(그렇지 않음 4.1%, 전혀 그렇지 않음 2.8%)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7.0%(매우 그러함 16.2%, 그러함 30.8%), 보통 34.7%, 부정응답 18.2%(그렇지 않음 10.7%, 전혀 그렇지 않음 7.5%),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37.6%(매우 그러함 9.2%, 그러함 28.4%), 보통 37.9%, 부정응답 24.5%(그렇지 않음 13.6%, 전혀 그렇지 않음 10.9%)로 학교만족도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2] 학교급별 학생의 학교만족도

〈표 3-28〉 학생의 학교만족도 교차분석 결과

N=2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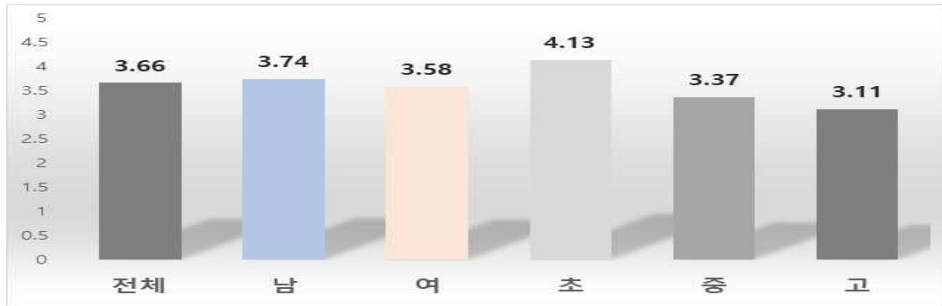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학교 만족도	전체	1,366 6.1%	1,877 8.4%	6,126 27.3%	6,746 30.1%	6,334 28.2%	22,449 100.0%	-
	남	737 6.5%	848 7.4%	2,778 24.4%	3,304 29.0%	3,720 32.7%	11,387 100.0%	270.326***
	여	629 5.7%	1,029 9.3%	3,348 30.3%	3,442 31.1%	2,614 23.6%	11,062 100.0%	
	초	277 2.8%	404 4.1%	1,611 16.4%	2,952 30.1%	4,573 46.6%	9,817 100.0%	3668.628***
	중	642 7.5%	918 10.7%	2,969 34.7%	2,633 30.8%	1,387 16.2%	8,549 100.0%	
	고	447 10.9%	555 13.6%	1,546 37.9%	1,161 28.4%	374 9.2%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29〉와 같음.

○ 학생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6(SD=1.15)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74(SD=1.18)이고, 여학생 평균은 3.58(SD=1.12)로 학교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4.13(SD=1.02), 중학생 평균은 3.37(SD=1.11), 고등학생 평균은 3.11(SD=1.10)로 학교만족도는 초등학생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3] 학생의 학교만족도

〈표 3-29〉 학생의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학교 만족도	전체	22,449	3.66	1.15	-	-
	남	11,387	3.74	1.18	10.63***	-
	여	11,062	3.58	1.12		
	초	9,817	4.13	1.02	1816.04***	초>중>고
	중	8,549	3.37	1.11		
	고	4,083	3.11	1.10		

*** $p < .001$

-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며,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점차 낮아짐. 초등학생의 긍정 응답 비율은 76.7%(평균 4.13)로 매우 높으나, 중학생(평균 3.37)과 고등학생(평균 3.11)은 점차 낮아지며, 특히 고등학생의 부정 응답 비율(24.5%)은 초등학생(6.9%)보다 약 3.5배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부담 증가, 입시 경쟁 심화, 또래 관계나 진로 고민 확대 등이 학교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학교만족도는 학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높고, 입시 압박이 큰 고등학교에서 낮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보임.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남녀 학생이 학교생활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여학생이 학습, 관계, 진로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체감할 가능성을 시사함. 따라서 학교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여학생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단순한 성취 중심의 교육을 넘어 학생이 학교에서 의미와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 진로, 정서적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 형태(남·여 공학, 남학교, 여학교)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형태에 따른 교과 활동 및 학생 경험의 차이를 탐색하는 추가적 후속 연구가 필요함.

2. 학교문화 인식

가. 교사-학생 소통

- 학생의 교사-학생 간 소통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0>과 같음.
- 학생의 교사-학생 간 소통 인식에 대해 긍정응답은 64.6%(매우 그러함 29.1%, 그러함 35.5%)이며, 보통 27.1%, 부정응답은 8.2%(그렇지 않음 5.1%, 전혀 그렇지 않음 3.1%)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6.3%(매우 그러함 31.1%, 그러함 35.2%), 보통 25.1%, 부정응답 8.6%(그렇지 않음 4.9%, 전혀 그렇지 않음 3.7%)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2.9%(매우 그러함 27.0%, 그러함 35.9%), 보통 29.2%, 부정응답 7.9%(그렇지 않음 5.4%, 전혀 그렇지 않음 2.5%)로 교사-학생 간 소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함.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75.7%(매우 그러함 42.3%, 그러함 33.4%), 보통 19.7%, 부정응답 4.6%(그렇지 않음 2.9%, 전혀 그렇지 않음 1.7%)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57.6%(매우 그러함 20.9%, 그러함 36.7%), 보통 32.2%, 부정응답 10.2%(그렇지 않음 6.3%, 전혀 그렇지 않음 3.9%),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2.8%(매우 그러함 14.6%, 그러함 38.2%), 보통 34.2%, 부정응답 13.0%(그렇지 않음 8.1%, 전혀 그렇지 않음 4.9%)로 교사-학생 간 소통은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0〉 학생의 교사-학생 간 소통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	χ^2
교사-학생 간 소통	전체	693 3.1%	1,156 5.1%	6,090 27.1%	7,980 35.5%	6,530 29.1%	22,449 100.0%	-
	남	416 3.7%	563 4.9%	2,855 25.1%	4,012 35.2%	3,541 31.1%	11,387 100.0%	94.589***
	여	277 2.5%	593 5.4%	3,235 29.2%	3,968 35.9%	2,989 27.0%	11,062 100.0%	
	초	164 1.7%	283 2.9%	1,937 19.7%	3,283 33.4%	4,150 42.3%	9,817 100.0%	1774.035***
	중	330 3.9%	541 6.3%	2,756 32.2%	3,137 36.7%	1,785 20.9%	8,549 100.0%	
	고	199 4.9%	332 8.1%	1,397 34.2%	1,560 38.2%	595 14.6%	4,083 100.0%	

*** $p<.001$

○ 학생의 교사-학생 간 소통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31〉과 같음.

○ 학생의 교사-학생 간 소통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2(SD=1.01)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85(SD=1.03)이고, 여학생 평균은 3.80(SD=0.98)으로 교사-학생 간 소통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4.12(SD=0.93), 중학생 평균은 3.64(SD=1.00), 고등학생 평균은 3.49(SD=1.00)로 교사-학생 간 소통은 초등학생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1〉 학생의 교사-학생 간 소통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교사-학생 간 소통	전체	22,449	3.82	1.01	-	-
	남	11,387	3.85	1.03	4.19***	-
	여	11,062	3.80	0.98		
	초	9,817	4.12	0.93	828.27***	초>중>고
	중	8,549	3.64	1.00		
	고	4,083	3.49	1.00		

*** $p<.001$

나. 학생회 운영

- 학생의 **학생회(학급회의, 전교임원회의)** 운영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2>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생회 운영에 대해 긍정응답은 55.7%(매우 그러함 25.4%, 그러함 30.3%)이며, 보통 34.0%, 부정응답은 10.4%(그렇지 않음 6.4%, 전혀 그렇지 않음 4.0%)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6.6%(매우 그러함 27.4%, 그러함 29.2%), 보통 32.0%, 부정응답 11.3%(그렇지 않음 6.4%, 전혀 그렇지 않음 4.9%)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4.7%(매우 그러함 23.3%, 그러함 31.4%), 보통 35.9%, 부정응답 9.3%(그렇지 않음 6.3%, 전혀 그렇지 않음 3.0%)로 학생회 운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72.7%(매우 그러함 40.4%, 그러함 32.3%), 보통 22.6%, 부정응답 4.7%(그렇지 않음 2.8%, 전혀 그렇지 않음 1.9%)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4.4%(매우 그러함 15.6%, 그러함 28.8%), 보통 42.3%, 부정응답 13.4%(그렇지 않음 8.4%, 전혀 그렇지 않음 5.0%)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38.5%(매우 그러함 10.0%, 그러함 28.5%), 보통 43.8%, 부정응답 17.8%(그렇지 않음 10.7%, 전혀 그렇지 않음 7.1%)로 학생회 운영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2> 학생의 학생회 운영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학생회 운영	전체	898 4.0%	1,432 6.4%	7,624 34.0%	6,794 30.3%	5,701 25.4%	22,449 100.0%	-
	남	561 4.9%	732 6.4%	3,649 32.0%	3,322 29.2%	3,123 27.4%	11,387 100.0%	121.263***
	여	337 3.0%	700 6.3%	3,975 35.9%	3,472 31.4%	2,578 23.3%	11,062 100.0%	
	초	184 1.9%	277 2.8%	2,220 22.6%	3,173 32.3%	3,963 40.4%	9,817 100.0%	2857.793***
	중	425 5.0%	720 8.4%	3,614 42.3%	2,459 28.8%	1,331 15.6%	8,549 100.0%	
	고	289 7.1%	435 10.7%	1,790 43.8%	1,162 28.5%	407 10.0%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학생회(학급회의, 전교임원회의) 운영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33>과 같음.
- 학생회 운영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7(SD=1.05)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68(SD=1.09), 여학생은 평균 3.66(SD=1.00)으로 학생회 운영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06(SD=0.95), 중학생은 평균 3.42(SD=1.01), 고등학생은 평균 3.24(SD=1.01)로 학생회 운영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3> 학생의 학생회 운영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학생회 운영	전체	22,449	3.67	1.05	-	-
	남	11,387	3.68	1.09	1.55***	-
	여	11,062	3.66	1.00		
	초	9,817	4.06	0.95	1470.35***	초>중>고
	중	8,549	3.42	1.01		
	고	4,083	3.24	1.01		

*** $p < .001$

다. 학급 예절

- 학생의 **학급 예절(선생님에게 예의 바른 정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4>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급 예절에 대해 긍정응답은 56.2%(매우 그러함 21.4%, 그러함 34.8%)이며, 보통 31.9%, 부정응답은 11.9%(그렇지 않음 8.0%, 전혀 그렇지 않음 3.9%)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6.6%(매우 그러함 23.3%, 그러함 33.3%), 보통 31.2%, 부정응답 12.2%(그렇지 않음 7.6%, 전혀 그렇지 않음 4.6%)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5.7%(매우 그러함 19.4%, 그러함 36.3%), 보통 32.5%, 부정응답 11.7%(그렇지 않음 8.5%, 전혀 그렇지 않음 3.2%)로 학급 예절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60.7%(매우 그러함 25.6%, 그러함 35.1%), 보통 29.5%, 부정응답 9.8%(그렇지 않음 7.0%, 전혀 그렇지 않음 2.8%)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7.7%(매우 그러함 16.6%, 그러함 31.1%), 보통 36.1%, 부정응답 0.0%(그렇지 않음 10.6%, 전혀 그렇지 않음 5.6%)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63.1%(매우 그러함 21.0%, 그러함 42.1%), 보통 28.8%, 부정응답 8.1%(그렇지 않음 5.2%, 전혀 그렇지 않음 2.9%)로 학급 예절은 고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초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4> 학생의 학급 예절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학급 예절	전체	874 3.9%	1,807 8.0%	7,153 31.9%	7,818 34.8%	4,797 21.4%	22,449 100.0%	-
	남	524 4.6%	862 7.6%	3,554 31.2%	3,797 33.3%	2,650 23.3%	11,387 100.0%	93.212***
	여	350 3.2%	945 8.5%	3,599 32.5%	4,021 36.3%	2,147 19.4%	11,062 100.0%	
	초	274 2.8%	690 7.0%	2,894 29.5%	3,442 35.1%	2,517 25.6%	9,817 100.0%	574.757***
	중	480 5.6%	905 10.6%	3,084 36.1%	2,658 31.1%	1,422 16.6%	8,549 100.0%	
	고	120 2.9%	212 5.2%	1,175 28.8%	1,718 42.1%	858 21.0%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학급 예절(선생님에게 예의 바른 정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35>와 같음.
- 학생의 학급 예절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2(SD=1.0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63(SD=1.06)이고, 여학생은 평균 3.60(SD=0.99)으로 학급 예절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74(SD=1.01), 중학생은 평균 3.43(SD=1.06), 고등학생은 평균 3.73(SD=0.95)으로 학급 예절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5> 학생의 학급 예절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학급 예절	전체	22,449	3.62	1.03	-	-
	남	11,387	3.63	1.06	2.06***	-
	여	11,062	3.60	0.99		
	초	9,817	3.74	1.01	245.37***	초>중, 고>중
	중	8,549	3.43	1.06		
	고	4,083	3.73	0.95		

*** $p<.001$

라. 학급 협력

- 학생의 **학급 협력(공동의 문제 해결)**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6>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급 협력에 대해 긍정응답은 48.3%(매우 그러함 18.4%, 그러함 29.9%)이며, 보통 36.9%, 부정응답은 14.8%(그렇지 않음 9.8%, 전혀 그렇지 않음 5.0%)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9.2%(매우 그러함 20.3%, 그러함 28.9%), 보통 35.7%, 부정응답 15.2%(그렇지 않음 9.4%, 전혀 그렇지 않음 5.8%)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7.4%(매우 그러함 16.4%, 그러함 31.0%), 보통 38.1%, 부정응답 14.6%(그렇지 않음 10.4%, 전혀 그렇지 않음 4.2%)로 학급 협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53.8%(매우 그러함 23.5%, 그러함 30.3%), 보통 35.0%, 부정응답 11.2%(그렇지 않음 7.5%, 전혀 그렇지 않음 3.7%)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0.2%(매우 그러함 13.8%, 그러함 26.4%), 보통 39.5%, 부정응답 20.2%(그렇지 않음 13.4%, 전혀 그렇지 않음 6.8%)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2.0%(매우 그러함 15.5%, 그러함 36.5%), 보통 35.8%, 부정응답 12.2%(그렇지 않음 8.0%, 전혀 그렇지 않음 4.2%)로 학급 협력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6> 학생의 학급 협력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학급 협력	전체	1,125 5.0%	2,211 9.8%	8,273 36.9%	6,720 29.9%	4,120 18.4%	22,449 100.0%	-
	남	659 5.8%	1,066 9.4%	4,061 35.7%	3,295 28.9%	2,306 20.3%	11,387 100.0%	95.272***
	여	466 4.2%	1,145 10.4%	4,212 38.1%	3,425 31.0%	1,814 16.4%	11,062 100.0%	
	초	367 3.7%	737 7.5%	3,432 35.0%	2,976 30.3%	2,305 23.5%	9,817 100.0%	648.734***
	중	585 6.8%	1,146 13.4%	3,380 39.5%	2,254 26.4%	1,184 13.8%	8,549 100.0%	
	고	173 4.2%	328 8.0%	1,461 35.8%	1,490 36.5%	631 15.5%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학급 협력(공동의 문제 해결)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37>과 같음.
- 학생의 학급 협력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7(SD=1.0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49(SD=1.09)이고, 여학생은 평균 3.45(SD=1.02)로 학급 협력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62(SD=1.04), 중학생은 평균 3.27(SD=1.07), 고등학생은 평균 3.51(SD=0.99)로 학급 협력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7> 학생의 학급 협력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학급 협력	전체	22,449	3.47	1.06	-	-
	남	11,387	3.49	1.09	2.50***	-
	여	11,062	3.45	1.02		
	초	9,817	3.62	1.04	265.81***	초>고>중
	중	8,549	3.27	1.07		
	고	4,083	3.51	0.99		

*** $p<.001$

마. 학급 질서

- 학생의 **학급 질서(질서를 잘 지키는 정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8>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급 질서에 대해 긍정응답은 41.9%(매우 그러함 14.5%, 그러함 27.4%)이며, 보통 38.6%, 부정응답은 19.6%(그렇지 않음 13.2%, 전혀 그렇지 않음 6.4%)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2.4%(매우 그러함 16.3%, 그러함 26.1%), 보통 37.6%, 부정응답 20.0%(그렇지 않음 12.8%, 전혀 그렇지 않음 7.2%)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1.3%(매우 그러함 12.6%, 그러함 28.7%), 보통 39.6%, 부정응답 19.2%(그렇지 않음 13.7%, 전혀 그렇지 않음 5.5%)로 학급 질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43.2%(매우 그러함 15.8%, 그러함 27.4%), 보통 39.5%, 부정응답 17.2%(그렇지 않음 12.1%, 전혀 그렇지 않음 5.1%)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35.4%(매우 그러함 12.1%, 그러함 23.3%), 보통 39.1%, 부정응답 25.6%(그렇지 않음 16.7%, 전혀 그렇지 않음 8.9%)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2.3%(매우 그러함 16.4%, 그러함 35.9%), 보통 35.3%, 부정응답 12.4%(그렇지 않음 8.4%, 전혀 그렇지 않음 4.0%)로 학급 질서는 고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초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8> 학생의 학급 질서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학급 질서	전체	1,428 6.4%	2,964 13.2%	8,663 38.6%	6,145 27.4%	3,249 14.5%	22,449 100.0%	-
	남	823 7.2%	1,452 12.8%	4,286 37.6%	2,968 26.1%	1,858 16.3%	11,387 100.0%	105.001***
	여	605 5.5%	1,512 13.7%	4,377 39.6%	3,177 28.7%	1,391 12.6%	11,062 100.0%	
	초	505 5.1%	1,191 12.1%	3,882 39.5%	2,692 27.4%	1,547 15.8%	9,817 100.0%	533.623***
	중	758 8.9%	1,431 16.7%	3,339 39.1%	1,988 23.3%	1,033 12.1%	8,549 100.0%	
	고	165 4.0%	342 8.4%	1,442 35.3%	1,465 35.9%	669 16.4%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학급 질서(질서를 잘 지키는 정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39>와 같음.
- 학생의 학급 질서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0(SD=1.07)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31(SD=1.11)이고, 여학생은 평균 3.29(SD=1.03)로 학급 질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37(SD=1.05), 중학생은 평균 3.13(SD=1.11), 고등학생은 평균 3.52(SD=0.99)로 학급 질서는 고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39> 학생의 학급 질서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학급 질서	전체	22,449	3.30	1.07	-	-
	남	11,387	3.31	1.11	1.56***	-
	여	11,062	3.29	1.03		
	초	9,817	3.37	1.05	218.22***	고>초>중
	중	8,549	3.13	1.11		
	고	4,083	3.52	0.99		

*** $p<.001$

- 학생들의 학교문화 인식은 교사-학생 간 소통, 학생회 운영, 학급 예절, 협력, 질서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그러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긍정 인식이 가장 높고, 중학교에서 급격히 낮아졌다가 고등학교에서 다소 회복되는 V자형 변화 양상을 보임. 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율성과 정체성 탐색이 강화되고, 또래 중심의 관계가 확대되면서 규범과 소통, 협력에 대한 인식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중학생 시기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교사-학생 간 소통은 초등학생($M=4.12$)이 가장 긍정적이지만 중학생($M=3.64$), 고등학생($M=3.49$)으로 갈수록 하락하며, 학생회 운영 인식 역시 초등학생(72.7%)에서 중학생(44.4%), 고등학생(38.5%)으로 급감함.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고하 고등학생의 경우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학업 중심적이고, 학생 자치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학급 예절, 협력, 질서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 학급 예절은 중학생($M=3.43$) 시기에 가장 낮았다가 고등학생($M=3.73$)에서 초등학생($M=3.74$) 수준으로 회복되며, 학급 협력 역시 중학생($M=3.27$)이 가장 낮게 나타남. 학급 질서는 고등학생($M=3.52$)이 가장 긍정적이고, 중학생($M=3.13$)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함. 이는 중학교 시기에 학생들의 자기 통제력 약화와 또래 관계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공동체 의식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으로 해석됨.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는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 인성교육, 협동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통해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학생 간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생활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비공식적 소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학생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제안한 의견이 학교 운영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마련하고, 학생 주도적 참여와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더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질서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규범 준수를 넘어서 학생의 자율성·공동체성·책임감을 함께 길러주는 학교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학교시설 인식

가. 휴식공간 환경

- 학생의 휴식공간 환경(휴식공간이 충분한 정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0>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휴식공간 환경에 대한 긍정응답은 49.4%(매우 그러함 22.0%, 그러함 27.4%)이며, 보통 30.4%, 부정응답은 20.3%(그렇지 않음 12.9%, 전혀 그렇지 않음 7.4%)로 전반적으로 긍정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은 52.4%(매우 그러함 25.2%, 그러함 27.2%)이며, 보통 28.0%, 부정응답 19.5%(그렇지 않음 11.9%, 전혀 그렇지 않음 7.6%)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은 46.1%(매우 그러함 18.6%, 그러함 27.5%), 보통 32.8%, 부정응답 21.1%(그렇지 않음 14.0%, 전혀 그렇지 않음 7.1%)로 휴식공간 환경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62.1%(매우 그러함 33.0%, 그러함 29.1%), 보통 25.0%, 부정응답 12.9%(그렇지 않음 8.1%, 전혀 그렇지 않음 4.8%)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38.5%(매우 그러함 13.9%, 그러함 24.6%), 보통 33.9%, 부정응답 27.6%(그렇지 않음 17.7%, 전혀 그렇지 않음 9.9%)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1.3%(매우 그러함 12.4%, 그러함 28.9%), 보통 35.7%, 부정응답 22.9%(그렇지 않음 14.7%, 전혀 그렇지 않음 8.2%)로 휴식공간 환경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0> 학생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휴식공간 환경	전체	1,652 7.4%	2,907 12.9%	6,818 30.4%	6,142 27.4%	4,930 22.0%	22,449 100.0%	-
	남	870 7.6%	1,360 11.9%	3,191 28.0%	3,097 27.2%	2,869 25.2%	11,387 100.0%	172.797***
	여	782 7.1%	1,547 14.0%	3,627 32.8%	3,045 27.5%	2,061 18.6%	11,062 100.0%	
	초	474 4.8%	791 8.1%	2,459 25.0%	2,855 29.1%	3,238 33.0%	9,817 100.0%	1675.618***
	중	845 9.9%	1,514 17.7%	2,900 33.9%	2,105 24.6%	1,185 13.9%	8,549 100.0%	
	고	333 8.2%	602 14.7%	1,459 35.7%	1,182 28.9%	507 12.4%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41>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휴식공간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4(SD=1.18)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50(SD=1.20)이고, 여학생은 평균 3.37(SD=1.14)로 휴식공간 환경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77(SD=1.13), 중학생은 평균 3.15(SD=1.16), 고등학생은 평균 3.23(SD=1.10)으로 휴식공간 환경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1> 학생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휴식공간 환경	전체	22,449	3.44	1.18	-	-
	남	11,387	3.50	1.20	8.74***	-
	여	11,062	3.37	1.14		
	초	9,817	3.77	1.13	771.53***	초>고>중
	중	8,549	3.15	1.16		
	고	4,083	3.23	1.10		

*** $p < .001$

나. 디지털수업 환경

- 학생의 디지털수업 환경(디지털 수업을 위한 시설 구축)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2>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디지털수업 환경에 대해 긍정응답은 58.2%(매우 그러함 25.7%, 그러함 32.5%)이며, 보통 31.6%, 부정응답은 10.2%(그렇지 않음 6.3%, 전혀 그렇지 않음 3.9%)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9.7%(매우 그러함 28.5%, 그러함 31.2%), 보통 29.0%, 부정응답 11.3%(그렇지 않음 6.5%, 전혀 그렇지 않음 4.8%)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6.7%(매우 그러함 22.9%, 그러함 33.8%), 보통 34.2%, 부정응답 9.1%(그렇지 않음 6.1%, 전혀 그렇지 않음 3.0%)로 디지털수업 환경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72.4%(매우 그러함 39.6%, 그러함 32.8%), 보통 23.2%, 부정응답 4.5%(그렇지 않음 2.7%, 전혀 그렇지 않음 1.8%)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7.8%(매우 그러함 16.0%, 그러함 31.8%), 보통 38.1%, 부정응답 14.1%(그렇지 않음 9.0%, 전혀 그렇지 않음 5.1%)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6.1%(매우 그러함 12.9%, 그러함 33.2%), 보통 38.1%, 부정응답 15.9%(그렇지 않음 9.4%, 전혀 그렇지 않음 6.5%)로 디지털수업 환경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2> 학생의 디지털수업 환경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디지털 수업 환경	전체	874 3.9%	1,418 6.3%	7,085 31.6%	7,296 32.5%	5,776 25.7%	22,449 100.0%	-
	남	547 4.8%	739 6.5%	3,307 29.0%	3,552 31.2%	3,242 28.5%	11,387 100.0%	176.396***
	여	327 3.0%	679 6.1%	3,778 34.2%	3,744 33.8%	2,534 22.9%	11,062 100.0%	
	초	173 1.8%	267 2.7%	2,273 23.2%	3,221 32.8%	3,883 39.6%	9,817 100.0%	2274.178***
	중	436 5.1%	768 9.0%	3,257 38.1%	2,721 31.8%	1,367 16.0%	8,549 100.0%	
	고	265 6.5%	383 9.4%	1,555 38.1%	1,354 33.2%	526 12.9%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디지털수업 환경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43>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디지털수업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0(SD=1.0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72(SD=1.09)이고, 여학생은 평균 3.68(SD=0.99)로 디지털수업 환경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06(SD=0.94), 중학생은 평균 3.45(SD=1.03), 고등학생은 평균 3.37(SD=1.03)로 디지털수업 환경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3> 학생의 디지털수업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디지털 수업 환경	전체	22,449	3.70	1.04	-	-
	남	11,387	3.72	1.09	3.19***	-
	여	11,062	3.68	0.99		
	초	9,817	4.06	0.94	1145.58***	초>중>고
	중	8,549	3.45	1.03		
	고	4,083	3.37	1.03		

*** $p < .001$

다. 청결한 학교 환경

- 학생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4>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청결한 학교 환경에 대해 긍정응답은 54.2%(매우 그러함 23.7%, 그러함 30.5%)이며, 보통 31.3%, 부정응답은 14.5%(그렇지 않음 9.0%, 전혀 그렇지 않음 5.5%)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0.6%(매우 그러함 17.9%, 그러함 32.7%), 보통 35.5%, 부정응답 13.8%(그렇지 않음 9.7%, 전혀 그렇지 않음 4.1%)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2.5%(매우 그러함 20.9%, 그러함 31.6%), 보통 33.4%, 부정응답 14.2%(그렇지 않음 9.4%, 전혀 그렇지 않음 4.8%)로 청결한 학교 환경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64.0%(매우 그러함 31.2%, 그러함 32.8%), 보통 26.6%, 부정응답 9.4%(그렇지 않음 6.5%, 전혀 그렇지 않음 2.9%)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2.9%(매우 그러함 13.3%, 그러함 29.6%), 보통 38.2%, 부정응답 18.9%(그렇지 않음 12.3%, 전혀 그렇지 않음 6.6%)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4.6%(매우 그러함 11.8%, 그러함 32.8%), 보통 39.6%, 부정응답 15.9%(그렇지 않음 10.1%, 전혀 그렇지 않음 5.8%)로 청결한 학교 환경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4> 학생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청결한 학교 환경	전체	623 5.5%	1,022 9.0%	3,564 31.3%	3,476 30.5%	2,702 23.7%	11,387 100.0%	-
	남	457 4.1%	1,078 9.7%	3,926 35.5%	3,618 32.7%	1,983 17.9%	11,062 100.0%	153.017***
	여	1,080 4.8%	2,100 9.4%	7,490 33.4%	7,094 31.6%	4,685 20.9%	22,449 100.0%	
	초	284 2.9%	636 6.5%	2,607 26.6%	3,224 32.8%	3,066 31.2%	9,817 100.0%	1467.587***
	중	561 6.6%	1,051 12.3%	3,267 38.2%	2,531 29.6%	1,139 13.3%	8,549 100.0%	
	고	235 5.8%	413 10.1%	1,616 39.6%	1,339 32.8%	480 11.8%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45>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청결한 학교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4(SD=1.0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58(SD=1.11)이고, 여학생은 평균 3.51(SD=1.03)로 청결한 학교 환경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83(SD=1.03), 중학생은 평균 3.31(SD=1.06), 고등학생은 평균 3.35(SD=1.00)로 청결한 학교 환경은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5> 학생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청결한 학교 환경	전체	22,449	3.54	1.07	-	-
	남	11,387	3.58	1.11	5.28***	-
	여	11,062	3.51	1.03		
	초	9,817	3.83	1.03	667.77***	초>중, 초>고
	중	8,549	3.31	1.06		
	고	4,083	3.35	1.00		

*** $p < .001$

- 학생들의 학교시설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세부 항목별로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임. 휴식공간 환경, 디지털 수업 환경, 청결한 학교 환경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중학교에서 가장 낮으며, 고등학교에서 다소 회복되는 V자형 경향을 보임. 특히 휴식공간과 청결도는 초등학생(휴식 M=3.77, 청결도 M=3.83)의 긍정 인식이 높으나 중학생(휴식 M=평균 3.15, 청결도 M=3.31)에서 급격히 낮아지고, 고등학생(휴식 M=3.52, 청결도 M=3.35)에서 다소 회복됨.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부담 증가와 교내 이용 공간 확대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학교시설을 체감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함.
- 디지털 수업 환경은 초등학생(평균 4.06)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중학생(평균 3.45), 고등학생(평균 3.37) 순으로 낮아짐. 이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중·고등학생들이 학습 현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 환경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디지털 기반 수업의 질적 활용도 제고와 인프라 정비가 필요함.
-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시설 만족도는 초등학교 중심의 시설 개선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며, 중·고등학교시설 환경의 체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함.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 휴게공간 확충과 공간 재구성, 청결 및 환경관리 전문화, 그리고 디지털 학습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과 휴식이 조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학교안전 인식

가. 시설 안전

- 학생의 **학교시설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6>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안전에 대해 긍정응답은 64.5%(매우 그러함 28.7%, 그러함 35.8%)이며, 보통 28.7%, 부정응답은 6.9%(그렇지 않음 4.1%, 전혀 그렇지 않음 2.8%)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6.3%(매우 그러함 31.7%, 그러함 34.6%), 보통 26.0%, 부정응답 7.7%(그렇지 않음 4.2%, 전혀 그렇지 않음 3.5%)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2.6%(매우 그러함 25.6%, 그러함 37.0%), 보통 31.3%, 부정응답 6.1%(그렇지 않음 4.0%, 전혀 그렇지 않음 2.1%)로 학교시설 안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77.0%(매우 그러함 43.5%, 그러함 33.5%), 보통 19.4%, 부정응답 3.6%(그렇지 않음 2.4%, 전혀 그렇지 않음 1.2%)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54.9%(매우 그러함 18.2%, 그러함 36.7%), 보통 35.3%, 부정응답 9.7%(그렇지 않음 5.6%, 전혀 그렇지 않음 4.1%)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4.2%(매우 그러함 14.8%, 그러함 39.4%), 보통 37.0%, 부정응답 8.8%(그렇지 않음 4.9%, 전혀 그렇지 않음 3.9%)로 학교시설 인식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비슷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6> 학생의 학교시설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학교시설 안전	전체	633 2.8%	911 4.1%	6,432 28.7%	8,033 35.8%	6,440 28.7%	22,449 100.0%	-
	남	404 3.5%	473 4.2%	2,966 26.0%	3,937 34.6%	3,607 31.7%	11,387 100.0%	180.098***
	여	229 2.1%	438 4.0%	3,466 31.3%	4,096 37.0%	2,833 25.6%	11,062 100.0%	
	초	121 1.2%	234 2.4%	1,901 19.4%	3,287 33.5%	4,274 43.5%	9,817 100.0%	2191.456***
	중	353 4.1%	477 5.6%	3,021 35.3%	3,138 36.7%	1,560 18.2%	8,549 100.0%	
	고	159 3.9%	200 4.9%	1,510 37.0%	1,608 39.4%	606 14.8%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학교시설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47>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3(SD=0.98)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87(SD=1.02)이고, 여학생은 평균 3.80(SD=0.94)으로 학교시설 안전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16(SD=0.90), 중학생은 평균 3.59(SD=0.98), 고등학생은 평균 3.56(SD=0.94)으로 학교시설 안전은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7> 학생의 학교시설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학교시설 안전	전체	22,449	3.83	0.98	-	-
	남	11,387	3.87	1.02	5.00***	-
	여	11,062	3.80	0.94		
	초	9,817	4.16	0.90	1030.64***	초>중, 초>고
	중	8,549	3.59	0.98		
	고	4,083	3.56	0.94		

*** $p < .001$

나. 학교폭력 안전

- 학생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8>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안전에 대해 긍정응답은 56.5%(매우 그러함 24.7%, 그러함 31.8%)이며, 보통 31.7%, 부정응답은 11.8%(그렇지 않음 7.6%, 전혀 그렇지 않음 4.2%)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8.9%(매우 그러함 28.1%, 그러함 30.8%), 보통 29.3%, 부정응답 11.8%(그렇지 않음 7.1%, 전혀 그렇지 않음 4.7%)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4.0%(매우 그러함 21.2%, 그러함 32.8%), 보통 34.2%, 부정응답 11.9%(그렇지 않음 8.2%, 전혀 그렇지 않음 3.7%)로 학교폭력 안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66.4%(매우 그러함 34.7%, 그러함 31.7%), 보통 24.9%, 부정응답 8.7%(그렇지 않음 6.1%, 전혀 그렇지 않음 2.6%)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5.6%(매우 그러함 16.8%, 그러함 28.8%), 보통 37.4%, 부정응답 16.9%(그렇지 않음 10.5%, 전혀 그렇지 않음 6.4%)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5.3%(매우 그러함 17.2%, 그러함 38.1%), 보통 36.1%, 부정응답 8.6%(그렇지 않음 5.3%, 전혀 그렇지 않음 3.3%)로 학교폭력 안전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8> 학생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학교폭력 안전	전체	944 4.2%	1,711 7.6%	7,122 31.7%	7,130 31.8%	5,542 24.7%	22,449 100.0%	-
	남	535 4.7%	805 7.1%	3,340 29.3%	3,506 30.8%	3,201 28.1%	11,387 100.0%	180.950***
	여	409 3.7%	906 8.2%	3,782 34.2%	3,624 32.8%	2,341 21.2%	11,062 100.0%	
	초	259 2.6%	596 6.1%	2,449 24.9%	3,111 31.7%	3,402 34.7%	9,817 100.0%	1348.481***
	중	549 6.4%	898 10.5%	3,200 37.4%	2,464 28.8%	1,438 16.8%	8,549 100.0%	
	고	136 3.3%	217 5.3%	1,473 36.1%	1,555 38.1%	702 17.2%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49>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안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5(SD=1.0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71(SD=1.09)이고, 여학생은 평균 3.60(SD=1.02)으로 학교폭력 안전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90(SD=1.03), 중학생은 평균 3.39(SD=1.08), 고등학생은 평균 3.60(SD=0.94)으로 학교폭력 안전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49> 학생 학교폭력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_Howell)
학교폭력 안전	전체	22,449	3.65	1.06	-	-
	남	11,387	3.71	1.09	7.82***	-
	여	11,062	3.60	1.02		
	초	9,817	3.90	1.03	548.55***	초>고>중
	중	8,549	3.39	1.08		
	고	4,083	3.60	0.94		

*** $p < .001$

다. 외부침입 안전

- 학생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0>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외부침입 안전에 대해 긍정응답은 68.9%(매우 그러함 34.4%, 그러함 34.5%)이며, 보통 25.0%, 부정응답은 6.2%(그렇지 않음 3.7%, 전혀 그렇지 않음 2.5%)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70.7%(매우 그러함 38.2%, 그러함 32.5%), 보통 22.5%, 부정응답 6.7%(그렇지 않음 3.6%, 전혀 그렇지 않음 3.1%)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7.1%(매우 그러함 30.5%, 그러함 36.6%), 보통 27.5%, 부정응답 5.5%(그렇지 않음 3.7%, 전혀 그렇지 않음 1.8%)로 외부침입 안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78.3%(매우 그러함 48.4%, 그러함 29.9%), 보통 17.0%, 부정응답 4.8%(그렇지 않음 3.1%, 전혀 그렇지 않음 1.7%)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62.5%(매우 그러함 25.5%, 그러함 37.0%), 보통 30.8%, 부정응답 6.7%(그렇지 않음 3.8%, 전혀 그렇지 않음 2.9%)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9.6%(매우 그러함 19.3%, 그러함 40.3%), 보통 32.0%, 부정응답 8.2%(그렇지 않음 4.8%, 전혀 그렇지 않음 3.4%)로 외부침입 안전은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0> 학생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외부침입 안전	전체	552 2.5%	828 3.7%	5,603 25.0%	7,744 34.5%	7,722 34.4%	22,449 100.0%	-
	남	357 3.1%	415 3.6%	2,563 22.5%	3,699 32.5%	4,353 38.2%	11,387 100.0%	224.347***
	여	195 1.8%	413 3.7%	3,040 27.5%	4,045 36.6%	3,369 30.5%	11,062 100.0%	
	초	165 1.7%	303 3.1%	1,664 17.0%	2,931 29.9%	4,754 48.4%	9,817 100.0%	1667.202***
	중	247 2.9%	327 3.8%	2,631 30.8%	3,166 37.0%	2,178 25.5%	8,549 100.0%	
	고	140 3.4%	198 4.8%	1,308 32.0%	1,647 40.3%	790 19.3%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51>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외부침입 안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5(SD=0.98)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99(SD=1.02)이고, 여학생은 평균 3.90(SD=0.94)로 외부침입 안전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20(SD=0.94), 중학생은 평균 3.78(SD=0.96), 고등학생은 평균 3.67(SD=0.95)로 외부침입 안전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1> 학생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외부침입 안전	전체	22,449	3.95	0.98	-	-
	남	11,387	3.99	1.02	6.75***	-
	여	11,062	3.90	0.94		
	초	9,817	4.20	0.94	647.43***	초>중>고
	중	8,549	3.78	0.96		
	고	4,083	3.67	0.95		

*** $p < .001$

라. 등하굣길 교통 안전

-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2>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등하굣길 교통 안전에 대해 긍정응답은 60.8%(매우 그러함 28.5%, 그러함 32.3%)이며, 보통 29.6%, 부정응답은 9.6%(그렇지 않음 6.6%, 전혀 그렇지 않음 3.0%)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3.3%(매우 그러함 32.0%, 그러함 31.3%), 보통 27.3%, 부정응답 9.5%(그렇지 않음 6.1%, 전혀 그렇지 않음 3.4%)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8.3%(매우 그러함 24.9%, 그러함 33.4%), 보통 31.9%, 부정응답 9.7%(그렇지 않음 7.2%, 전혀 그렇지 않음 2.5%)로 등하굣길 교통 안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72.1%(매우 그러함 40.9%, 그러함 31.2%), 보통 21.6%, 부정응답 6.4%(그렇지 않음 4.5%, 전혀 그렇지 않음 1.9%)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55.7%(매우 그러함 21.6%, 그러함 34.1%), 보통 33.9%, 부정응답 10.4%(그렇지 않음 7.2%, 전혀 그렇지 않음 3.2%)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4.8%(매우 그러함 13.4%, 그러함 31.4%), 보통 39.6%, 부정응답 15.6%(그렇지 않음 10.6%, 전혀 그렇지 않음 5.0%)로 등하굣길 교통 안전은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2>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등하굣길 교통 안전	전체	664 3.0%	1,485 6.6%	6,636 29.6%	7,260 32.3%	6,404 28.5%	22,449 100.0%	-
	남	382 3.4%	691 6.1%	3,105 27.3%	3,561 31.3%	3,648 32.0%	11,387 100.0%	171.750***
	여	282 2.5%	794 7.2%	3,531 31.9%	3,699 33.4%	2,756 24.9%	11,062 100.0%	
	초	182 1.9%	439 4.5%	2,118 21.6%	3,065 31.2%	4,013 40.9%	9,817 100.0%	1688.370***
	중	277 3.2%	614 7.2%	2,900 33.9%	2,914 34.1%	1,844 21.6%	8,549 100.0%	
	고	205 5.0%	432 10.6%	1,618 39.6%	1,281 31.4%	547 13.4%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53>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등하굣길 교통 안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7(SD=1.0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83(SD=1.05)이고, 여학생은 평균 3.71(SD=1.00)로 등하굣길 교통 안전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05(SD=0.98), 중학생은 평균 3.64(SD=1.00), 고등학생은 평균 3.38(SD=1.01)로 등하굣길 교통 안전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3>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등하굣길 교통 안전	전체	22,449	3.77	1.03	-	-
	남	11,387	3.83	1.05	8.45***	-
	여	11,062	3.71	1.00		
	초	9,817	4.05	0.98	782.60***	초>중>고
	중	8,549	3.64	1.00		
	고	4,083	3.38	1.01		

*** $p < .001$

마. 학교주변 안전

- 학생의 **학교주변 안전**(‘학교 주변 위험한 사각지대가 있다’ 역배점)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 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4>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해 긍정응답은 17.0%(매우 그러함 5.4%, 그러함 11.6%)이며, 보통 31.4%, 부정응답은 51.7%(그렇지 않음 31.7%, 전혀 그렇지 않음 20.0%)로 부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19.4%(매우 그러함 6.8%, 그러함 12.6%), 보통 30.2%, 부정응답 50.5% (그렇지 않음 29.2%, 전혀 그렇지 않음 21.3%)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14.5%(매우 그러함 4.0%, 그러함 10.5%), 보통 32.7%, 부정응답 52.9%(그렇지 않음 34.3%, 전혀 그렇지 않음 18.6%)로 학교 주변 안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17.0%(매우 그러함 5.4%, 그러함 11.6%), 보통 26.7%, 부정응답 56.3%(그렇지 않음 29.1%, 전혀 그렇지 않음 27.2%)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15.8%(매우 그러함 5.2%, 그러함 10.6%), 보통 34.0%, 부정응답 50.1%(그렇지 않음 34.8%, 전혀 그렇지 않음 15.3%) 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19.1%(매우 그러함 5.7%, 그러함 13.4%), 보통 37.2%, 부정응답 43.7% (그렇지 않음 31.3%, 전혀 그렇지 않음 12.4%)로 학교 주변 안전은 초등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4> 학생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학교 주변 안전	전체	4,480 20.0%	7,115 31.7%	7,050 31.4%	2,596 11.6%	1,208 5.4%	22,449 100.0%	-
	남	2,424 21.3%	3,321 29.2%	3,434 30.2%	1,438 12.6%	770 6.8%	11,387 100.0%	183.150***
	여	2,056 18.6%	3,794 34.3%	3,616 32.7%	1,158 10.5%	438 4.0%	11,062 100.0%	
	초	2,668 27.2%	2,858 29.1%	2,621 26.7%	1,140 11.6%	530 5.4%	9,817 100.0%	666.730***
	중	1,306 15.3%	2,979 34.8%	2,910 34.0%	908 10.6%	446 5.2%	8,549 100.0%	
	고	506 12.4%	1,278 31.3%	1,519 37.2%	548 13.4%	232 5.7%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학교 주변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55>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한 전체 평균은 2.51(SD=1.10)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2.54(SD=1.15)이고, 여학생은 평균 2.47(SD=1.03)로 학교 주변 안전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2.39(SD=1.16), 중학생은 평균 2.56(SD=1.04), 고등학생은 평균 2.69(SD=1.04)로 학교 주변 안전은 고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초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5> 학생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학교 주변 안전	전체	22,449	2.51	1.10	-	-
	남	11,387	2.54	1.15	5.13***	-
	여	11,062	2.47	1.03		
	초	9,817	2.39	1.16	121.37***	고>중>초
	중	8,549	2.56	1.04		
	고	4,083	2.69	1.04		

*** $p < .001$

- 학생들의 학교안전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학교주변 안전영역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남. 학교시설, 학교폭력, 외부침입, 등하굣길 교통안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긍정 반응이 높지만, 학교 주변 안전에서는 긍정 응답(17.0%)보다 부정 응답(51.7%)이 압도적으로 높음.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안전 인식이 높으며, 여학생은 특히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초등학교 시기에 높았던 긍정 인식이 중학교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 이는 중학교 시기에 신체적·정서적 불안정성과 또래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학교 내외의 안전 불안감이 커지는 현상으로 해석됨.
- 세부 영역별로 보면, 학교시설 안전 인식은 초등학생(M=4.16)이 가장 높고 중학생(M=3.59), 고등학생(M=3.56) 순으로 하락함.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실험·실습 등 잠재적 위험요소가 많은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실험실, 실습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 안전 인식은 중학생(M=3.39) 시기에 가장 낮으며, 또래 간 신체적·정서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이에 따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계 회복 중심의 프로그램,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피해학생 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외부침입 안전 인식은 초등학생(M=4.20)이 가장 높으나, 학교 규모와 이동이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학교 외부인의 출입 통제 강화를 위해 배움터지킴이 순찰 확대,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등 보안 인프라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등하굣길 교통안전 인식은 초등학생(M=4.05)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중학생(M=3.64), 고등학생(M=3.38) 순으로 낮아짐. 이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교통지도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관련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한편 학교주변 안전인식은 모든 영역 중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의 교통사고, 유해환경, 범죄 위험에 대해 높은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학교-경찰-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CCTV·보안등 확충,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등 다층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중·고등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개선과 참여형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교사 인식

가. 교사의 지식 전문성

- 학생의 **교사 지식 전문성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6>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지식 전문성에 대해 긍정응답은 80.1%(매우 그러함 44.7%, 그러함 35.4%)이며, 보통 17.0%, 부정응답은 3.0%(그렇지 않음 1.7%, 전혀 그렇지 않음 1.3%)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80.8%(매우 그러함 47.1%, 그러함 33.7%), 보통 15.7%, 부정응답 3.4%(그렇지 않음 1.8%, 전혀 그렇지 않음 1.6%)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79.3%(매우 그러함 42.3%, 그러함 37.0%), 보통 18.3%, 부정응답 2.4%(그렇지 않음 1.5%, 전혀 그렇지 않음 0.9%)로 교사의 지식 전문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89.0%(매우 그러함 63.3%, 그러함 25.7%), 보통 9.6%, 부정응답 1.4%(그렇지 않음 0.7%, 전혀 그렇지 않음 0.7%)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75.0%(매우 그러함 33.3%, 그러함 41.7%), 보통 21.2%, 부정응답 3.8%(그렇지 않음 2.1%, 전혀 그렇지 않음 1.7%)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69.4%(매우 그러함 24.1%, 그러함 45.3%), 보통 25.9%, 부정응답 4.8%(그렇지 않음 3.1%, 전혀 그렇지 않음 1.7%)로 교사의 지식 전문성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6> 학생의 교사 지식 전문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교사의 지식 전문성	전체	283 1.3%	374 1.7%	3,814 17.0%	7,937 35.4%	10,041 44.7%	22,449 100.0%	-
	남	185 1.6%	204 1.8%	1,793 15.7%	3,841 33.7%	5,364 47.1%	11,387 100.0%	93.978***
	여	98 0.9%	170 1.5%	2,021 18.3%	4,096 37.0%	4,677 42.3%	11,062 100.0%	
	초	70 0.7%	72 0.7%	943 9.6%	2,521 25.7%	6,211 63.3%	9,817 100.0%	2608.238***
	중	143 1.7%	177 2.1%	1,815 21.2%	3,568 41.7%	2,846 33.3%	8,549 100.0%	
	고	70 1.7%	125 3.1%	1,056 25.9%	1,848 45.3%	984 24.1%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교사 지식 전문성** 지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57>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지식 전문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4.21(SD=0.8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4.23(SD=0.89)이고, 여학생은 평균 4.18(SD=0.84)로 교사의 지식 전문성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50(SD=0.76), 중학생은 평균 4.03(SD=0.88), 고등학생은 평균 3.87(SD=0.87)로 교사의 지식 전문성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7> 학생의 교사 지식 전문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교사의 지식 전문성	전체	22,449	4.21	0.87	-	-
	남	11,387	4.23	0.89	3.99***	-
	여	11,062	4.18	0.84		
	초	9,817	4.50	0.76	1155.30***	초>중>고
	중	8,549	4.03	0.88		
	고	4,083	3.87	0.87		

*** $p<.001$

나. 교사의 수업 전문성

- 학생의 **교사 수업 전문성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8>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긍정응답은 74.7%(매우 그러함 40.9%, 그러함 33.8%)이며, 보통 20.5%, 부정응답은 4.7%(그렇지 않음 3.0%, 전혀 그렇지 않음 1.7%)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76.3%(매우 그러함 43.9%, 그러함 32.4%), 보통 19.1%, 부정응답 4.6%(그렇지 않음 2.6%, 전혀 그렇지 않음 2.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73.2%(매우 그러함 37.9%, 그러함 35.3%), 보통 21.9%, 부정응답 4.8%(그렇지 않음 3.4%, 전혀 그렇지 않음 1.4%)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88.5%(매우 그러함 62.8%, 그러함 25.7%), 보통 9.3%, 부정응답 2.2%(그렇지 않음 1.3%, 전혀 그렇지 않음 0.9%)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65.0%(매우 그러함 26.1%, 그러함 38.9%), 보통 28.3%, 부정응답 6.7%(그렇지 않음 4.3%, 전혀 그렇지 않음 2.4%)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62.0%(매우 그러함 19.3%, 그러함 42.7%), 보통 31.2%, 부정응답 6.8%(그렇지 않음 4.4%, 전혀 그렇지 않음 2.4%)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8> 학생의 교사 수업 전문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전체	387 1.7%	677 3.0%	4,606 20.5%	7,589 33.8%	9,190 40.9%	22,449 100.0%	-
	남	229 2.0%	298 2.6%	2,180 19.1%	3,686 32.4%	4,994 43.9%	11,387 100.0%	106.671***
	여	158 1.4%	379 3.4%	2,426 21.9%	3,903 35.3%	4,196 37.9%	11,062 100.0%	
	초	88 0.9%	130 1.3%	911 9.3%	2,520 25.7%	6,168 62.8%	9,817 100.0%	3747.459***
	중	201 2.4%	367 4.3%	2,420 28.3%	3,327 38.9%	2,234 26.1%	8,549 100.0%	
	고	98 2.4%	180 4.4%	1,275 31.2%	1,742 42.7%	788 19.3%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교사 수업 전문성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59>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4.09(SD=0.9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4.13(SD=0.95)이고, 여학생은 평균 4.05(SD=0.93)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48(SD=0.79), 중학생은 평균 3.82(SD=0.95), 고등학생은 평균 3.72(SD=0.91)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59> 학생의 교사 수업 전문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전체	22,449	4.09	0.94	-	-
	남	11,387	4.13	0.95	6.85***	-
	여	11,062	4.05	0.93		
	초	9,817	4.48	0.79	1758.29***	초>중>고
	중	8,549	3.82	0.95		
	고	4,083	3.72	0.91		

*** $p < .001$

다. 교사의 도구 활용

- 학생의 **교사 도구 활용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0>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도구 활용에 대해 긍정응답은 69.4%(매우 그러함 35.0%, 그러함 34.4%)이며, 보통 23.9%, 부정응답은 6.8%(그렇지 않음 4.6%, 전혀 그렇지 않음 2.2%)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9.4%(매우 그러함 35.8%, 그러함 33.6%), 보통 23.4%, 부정응답 7.2%(그렇지 않음 4.7%, 전혀 그렇지 않음 2.5%)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9.3%(매우 그러함 34.1%, 그러함 35.2%), 보통 24.4%, 부정응답 6.3%(그렇지 않음 4.5%, 전혀 그렇지 않음 1.8%)로 교사의 도구 활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82.9%(매우 그러함 52.2%, 그러함 30.7%), 보통 14.5%, 부정응답 2.7%(그렇지 않음 1.8%, 전혀 그렇지 않음 0.9%)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60.7%(매우 그러함 23.7%, 그러함 37.0%), 보통 30.3%, 부정응답 9.0%(그렇지 않음 6.3%, 전혀 그렇지 않음 2.7%)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5.0%(매우 그러함 17.1%, 그러함 37.9%), 보통 33.2%, 부정응답 11.8%(그렇지 않음 7.8%, 전혀 그렇지 않음 4.0%)로 교사의 도구 활용은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0> 학생의 교사 도구 활용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교사의 도구 활용	전체	483 2.2%	1,036 4.6%	5,364 23.9%	7,718 34.4%	7,848 35.0%	22,449 100.0%	-
	남	286 2.5%	533 4.7%	2,664 23.4%	3,824 33.6%	4,080 35.8%	11,387 100.0%	25.849***
	여	197 1.8%	503 4.5%	2,700 24.4%	3,894 35.2%	3,768 34.1%	11,062 100.0%	
	초	86 0.9%	175 1.8%	1,421 14.5%	3,012 30.7%	5,123 52.2%	9,817 100.0%	2712.924***
	중	233 2.7%	542 6.3%	2,587 30.3%	3,160 37.0%	2,027 23.7%	8,549 100.0%	
	고	164	319	1,356	1,546	698	4,083	
		4.0%	7.8%	33.2%	37.9%	17.1%	100.0%	

*** $p < .001$

- 학생의 **교사 도구 활용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61>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도구 활용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5(SD=0.98)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96(SD=1.00)이고, 여학생은 평균 3.95(SD=0.96)로 교사의 도구 활용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32(SD=0.85), 중학생은 평균 3.73(SD=0.98), 고등학생은 평균 3.56(SD=0.99)로 교사의 도구 활용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1> 학생의 교사 도구 활용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교사의 도구 활용	전체	22,449	3.95	0.98	-	-
	남	11,387	3.96	1.00	0.24***	-
	여	11,062	3.95	0.96		
	초	9,817	4.32	0.85	1367.71***	초>중>고
	중	8,549	3.73	0.98		
	고	4,083	3.56	0.99		

*** $p < .001$

라.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

- 학생의 **교사 수업 중 피드백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2>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에 대해 긍정응답은 70.7%(매우 그러함 35.1%, 그러함 35.6%)이며, 보통 23.6%, 부정응답은 5.7%(그렇지 않음 3.9%, 전혀 그렇지 않음 1.8%)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70.1%(매우 그러함 35.6%, 그러함 34.5%), 보통 23.9%, 부정응답 5.9%(그렇지 않음 3.6%, 전혀 그렇지 않음 2.3%)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71.4%(매우 그러함 34.6%, 그러함 36.8%), 보통 23.3%, 부정응답 5.4%(그렇지 않음 4.1%, 전혀 그렇지 않음 1.3%)로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83.9%(매우 그러함 53.2%, 그러함 30.7%), 보통 13.5%, 부정응답 2.6%(그렇지 않음 1.7%, 전혀 그렇지 않음 0.9%)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61.4%(매우 그러함 22.9%, 그러함 38.5%), 보통 30.6%, 부정응답 7.9%(그렇지 않음 5.5%, 전혀 그렇지 않음 2.4%)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8.6%(매우 그러함 17.1%, 그러함 41.5%), 보통 33.1%, 부정응답 8.3%(그렇지 않음 5.7%, 전혀 그렇지 않음 2.6%)로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2> 학생의 교사 수업 중 피드백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	전체	409 1.8%	866 3.9%	5,296 23.6%	7,999 35.6%	7,879 35.1%	22,449 100.0%	-
	남	263 2.3%	415 3.6%	2,719 23.9%	3,933 34.5%	4,057 35.6%	11,387 100.0%	43.298***
	여	146 1.3%	451 4.1%	2,577 23.3%	4,066 36.8%	3,822 34.6%	11,062 100.0%	
	초	93 0.9%	163 1.7%	1,327 13.5%	3,012 30.7%	5,222 53.2%	9,817 100.0%	2831.681***
	중	209 2.4%	469 5.5%	2,619 30.6%	3,292 38.5%	1,960 22.9%	8,549 100.0%	
	고	107 2.6%	234 5.7%	1,350 33.1%	1,695 41.5%	697 17.1%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교사 수업 중 피드백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63>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8(SD=0.95)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98(SD=0.97)이고, 여학생은 평균 3.99(SD=0.93)로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은 여학생이 남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34(SD=0.84), 중학생은 평균 3.74(SD=0.95), 고등학생은 평균 3.65(SD=0.92)로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3> 학생의 교사 수업 중 피드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	전체	22,449	3.98	0.95	-	-
	남	11,387	3.98	0.97	-1.27***	-
	여	11,062	3.99	0.93		
	초	9,817	4.34	0.84	1352.07***	초>중>고
	중	8,549	3.74	0.95		
	고	4,083	3.65	0.92		

*** $p<.001$

- 학생들의 교사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지식 전문성, 수업 전문성, 도구 활용, 수업 중 피드백 등 모든 영역에서 초등학교의 긍정 인식이 가장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이었음. 성별로는 교사의 지식 전문성, 수업 전문성, 도구 활용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 영역에서는 여학생의 긍정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음. 특히 교사의 도구 활용 영역에서 초등학교의 긍정 인식이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의 기대 수준과 실제 수업 환경 간의 격차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세부적으로 보면, 교사의 지식 전문성은 초등학교(M=4.50)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M=3.87)에서 가장 낮았으며, 수업 전문성 또한 초등학교(M=4.48), 고등학교(M=3.72) 순으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학습 내용이 심화되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이 교사의 전문성을 보다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현상을 반영함. 교사의 도구 활용 능력은 초등학교(M=4.32), 중학교(M=3.73), 고등학교(M=3.56) 순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에듀테크의 실질적 활용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시사했음. 반면, 교사의 수업 중 피드백은 여학생의 긍정 인식이 다소 높았으며, 초등학교(M=4.34)에서 고등학교(M=3.65)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입시 중심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가 개별 학생의 학습 과정에 세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사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변화하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사의 전문성, 수업 다양성, 개인 맞춤형 피드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음. 따라서 교사의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심화 연수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에듀테크 기반 수업 역량 강화, 형성평가 및 개별 피드백 활성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음. 또한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 피드백 영역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학습 반응의 차이를 교사가 교육 전략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원 연수 및 현장 적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었음.

6. 수업 인식

가.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4>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에 대해 긍정응답은 47.5%(매우 그러함 21.7%, 그러함 25.8%)이며, 보통 35.0%, 부정응답은 17.5%(그렇지 않음 12.1%, 전혀 그렇지 않음 5.4%)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7.7%(매우 그러함 23.1%, 그러함 24.6%), 보통 34.2%, 부정응답 18.1%(그렇지 않음 12.0%, 전혀 그렇지 않음 6.1%)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7.4%(매우 그러함 20.3%, 그러함 27.1%), 보통 35.8%, 부정응답 16.8%(그렇지 않음 12.2%, 전혀 그렇지 않음 4.6%)로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64.8%(매우 그러함 34.1%, 그러함 30.7%), 보통 27.7%, 부정응답 7.5%(그렇지 않음 5.4%, 전혀 그렇지 않음 2.1%)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34.6%(매우 그러함 13.1%, 그러함 21.5%), 보통 41.0%, 부정응답 24.4%(그렇지 않음 16.8%, 전혀 그렇지 않음 7.6%)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33.2%(매우 그러함 10.1%, 그러함 23.1%), 보통 40.0%, 부정응답 26.8%(그렇지 않음 18.3%, 전혀 그렇지 않음 8.5%)로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4>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전체	1,204 5.4%	2,715 12.1%	7,857 35.0%	5,794 25.8%	4,879 21.7%	22,449 100.0%	-
	남	692 6.1%	1,367 12.0%	3,897 34.2%	2,800 24.6%	2,631 23.1%	11,387 100.0%	59.417***
	여	512 4.6%	1,348 12.2%	3,960 35.8%	2,994 27.1%	2,248 20.3%	11,062 100.0%	
	초	205 2.1%	532 5.4%	2,716 27.7%	3,015 30.7%	3,349 34.1%	9,817 100.0%	2677.571***
	중	652 7.6%	1,434 16.8%	3,509 41.0%	1,835 21.5%	1,119 13.1%	8,549 100.0%	
	고	347 8.5%	749 18.3%	1,632 40.0%	944 23.1%	411 10.1%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65>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6(SD=1.12)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47(SD=1.15)이고, 여학생은 평균 3.46(SD=1.08)으로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89(SD=1.01), 중학생은 평균 3.16(SD=1.09), 고등학생은 평균 3.08(SD=1.07)로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5>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전체	22,449	3.46	1.12	-	-
	남	11,387	3.47	1.15	0.25***	-
	여	11,062	3.46	1.08		
	초	9,817	3.89	1.01	1461.42***	초>중>고
	중	8,549	3.16	1.09		
	고	4,083	3.08	1.07		

*** $p < .001$

나.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

○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6>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에 대해 긍정응답은 54.0%(매우 그러함 23.3%, 그러함 30.7%)이며, 보통 33.4%, 부정응답은 12.6%(그렇지 않음 8.5%, 전혀 그렇지 않음 4.1%)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5.1%(매우 그러함 25.2%, 그러함 29.9%), 보통 32.0%, 부정응답 12.9%(그렇지 않음 8.3%, 전혀 그렇지 않음 4.6%)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3.0%(매우 그러함 21.4%, 그러함 31.6%), 보통 34.9%, 부정응답 12.2%(그렇지 않음 8.6%, 전혀 그렇지 않음 3.6%)로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68.8%(매우 그러함 35.1%, 그러함 33.7%), 보통 24.8%, 부정응답 6.5%(그렇지 않음 4.3%, 전혀 그렇지 않음 2.2%)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3.3%(매우 그러함 15.3%, 그러함 28.0%), 보통 40.6%, 부정응답 16.1%(그렇지 않음 11.0%, 전혀 그렇지 않음 5.1%)이고, 고등학교는 긍정응답 41.4%(매우 그러함 12.0%, 그러함 29.4%), 보통 38.9%, 부정응답 19.7%(그렇지 않음 13.2%, 전혀 그렇지 않음 6.5%)로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교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6>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	전체	918 4.1%	1,900 8.5%	7,497 33.4%	6,897 30.7%	5,237 23.3%	22,449 100.0%	-
	남	519 4.6%	949 8.3%	3,640 32.0%	3,406 29.9%	2,873 25.2%	11,387 100.0%	67.797***
	여	399 3.6%	951 8.6%	3,857 34.9%	3,491 31.6%	2,364 21.4%	11,062 100.0%	
	초	214 2.2%	420 4.3%	2,433 24.8%	3,308 33.7%	3,442 35.1%	9,817 100.0%	2028.144***
	중	438 5.1%	943 11.0%	3,474 40.6%	2,390 28.0%	1,304 15.3%	8,549 100.0%	
	고	266 6.5%	537 13.2%	1,590 38.9%	1,199 29.4%	491 12.0%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67>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1(SD=1.0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63(SD=1.09)이고, 여학생은 평균 3.58(SD=1.03)로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95(SD=0.98), 중학생은 평균 3.37(SD=1.03), 고등학생은 평균 3.27(SD=1.05)로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7> 학생의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수업 중 활발한 모둠활동	전체	22,449	3.61	1.06	-	-
	남	11,387	3.63	1.09	3.14***	-
	여	11,062	3.58	1.03		
	초	9,817	3.95	0.98	1021.64***	초>중>고
	중	8,549	3.37	1.03		
	고	4,083	3.27	1.05		

*** $p < .001$

다. 나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 학생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8>과 같음.
- 학생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에 대해 긍정응답은 70.6%(매우 그러함 35.2%, 그러함 35.4%)이며, 보통 24.7%, 부정응답은 4.6%(그렇지 않음 3.2%, 전혀 그렇지 않음 1.4%)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9.8%(매우 그러함 36.2%, 그러함 33.6%), 보통 25.1%, 부정응답 5.1%(그렇지 않음 3.2%, 전혀 그렇지 않음 1.9%)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71.6%(매우 그러함 34.3%, 그러함 37.3%), 보통 24.3%, 부정응답 4.1%(그렇지 않음 3.1%, 전혀 그렇지 않음 1.0%)로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79.7%(매우 그러함 46.4%, 그러함 33.3%), 보통 17.9%, 부정응답 2.4%(그렇지 않음 1.7%, 전혀 그렇지 않음 0.7%)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62.8%(매우 그러함 27.4%, 그러함 35.4%), 보통 30.5%, 부정응답 6.8%(그렇지 않음 4.7%, 전혀 그렇지 않음 2.1%)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65.5%(매우 그러함 24.8%, 그러함 40.7%), 보통 29.0%, 부정응답 5.5%(그렇지 않음 3.6%, 전혀 그렇지 않음 1.9%)으로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은 초등학교의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8> 학생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전체	324 1.4%	713 3.2%	5,546 24.7%	7,957 35.4%	7,909 35.2%	22,449 100.0%	-
	남	215 1.9%	370 3.2%	2,853 25.1%	3,830 33.6%	4,119 36.2%	11,387 100.0%	60.396***
	여	109 1.0%	343 3.1%	2,693 24.3%	4,127 37.3%	3,790 34.3%	11,062 100.0%	
	초	71 0.7%	166 1.7%	1,756 17.9%	3,267 33.3%	4,557 46.4%	9,817 100.0%	1194.597***
	중	176 2.1%	399 4.7%	2,605 30.5%	3,028 35.4%	2,341 27.4%	8,549 100.0%	
	고	77 1.9%	148 3.6%	1,185 29.0%	1,662 40.7%	1,011 24.8%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69>와 같음.
- 학생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4.00(SD=0.93)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99(SD=0.96)이고, 여학생은 평균 4.01(SD=0.89)로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은 여학생이 남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23(SD=0.85), 중학생은 평균 3.81(SD=0.96), 고등학생은 평균 3.83(SD=0.91)으로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은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69> 학생의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전체	22,449	4.00	0.93	-	-
	남	11,387	3.99	0.96	-1.46***	-
	여	11,062	4.01	0.89		
	초	9,817	4.23	0.85	573.44***	초>중, 초>고
	중	8,549	3.81	0.96		
	고	4,083	3.83	0.91		

*** $p<.001$

- 학생들의 수업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토의·토론과 모둠활동에 대한 긍정 인식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수업 중 활발한 토의·토론, 모둠활동,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 세 영역 모두 초등학교의 긍정 반응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순으로 낮아짐. 성별로는 토의·토론과 수업활동 참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모둠활동에서는 여학생의 긍정 인식이 더 높음. 특히 모둠활동 영역의 경우 초등학교(M=3.95), 중학생(M=3.37), 고등학생(M=3.27) 순으로 급격히 감소함. 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입시 중심 수업과 개인 성취 위주의 평가 체제가 협력적 학습 경험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토의·토론 수업 인식 역시 초등학교(M=3.89)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중학생(M=3.16), 고등학생(M=3.08)의 순으로 낮아지고, 부정 응답률이 약 3.5배 증가함. 이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더욱 전달식 강의 중심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 주도적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해석됨. 수업활동 참여 적극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며, 초등학교(M=4.23) 시기에 가장 적극적이었다가 중학생(M=3.81) 이후 다소 감소함. 그러나 토의·토론이나 모둠활동의 급감에 비해 참여 의지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학생들이 여전히 학습 참여에 대한 내적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 중심 수업의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며,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따라서 토의·토론 중심의 수업문화 정착, 프로젝트 기반 협력학습(PBL) 도입, 형성평가 중심의 참여형 수업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학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발문 기법과 디지털 참여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 수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업 방법의 개선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협력 역량·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핵심적 교육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7. 평가 인식

가. 평가 방법의 다양성

- 학생의 **평가 방법의 다양성(시험, 프로젝트, 실험, 토론, 논술)**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70>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평가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응답은 60.4%(매우 그러함 24.6%, 그러함 35.8%)이며, 보통 32.9%, 부정응답은 6.7%(그렇지 않음 4.5%, 전혀 그렇지 않음 2.2%)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9.0%(매우 그러함 25.1%, 그러함 33.9%), 보통 33.6%, 부정응답 7.4%(그렇지 않음 4.7%, 전혀 그렇지 않음 2.7%)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2.0%(매우 그러함 24.1%, 그러함 37.9%), 보통 32.1%, 부정응답 5.9%(그렇지 않음 4.3%, 전혀 그렇지 않음 1.6%)로 평가 방법의 다양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68.5%(매우 그러함 31.4%, 그러함 34.4%), 보통 29.3%, 부정응답 4.9%(그렇지 않음 3.5%, 전혀 그렇지 않음 1.4%)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56.3%(매우 그러함 20.5%, 그러함 35.8%), 보통 35.9%, 부정응답 7.9%(그렇지 않음 5.2%, 전혀 그렇지 않음 2.7%)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6.1%(매우 그러함 16.7%, 그러함 39.4%), 보통 35.2%, 부정응답 8.7%(그렇지 않음 5.7%, 전혀 그렇지 않음 3.0%)로 평가 방법의 다양성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0> 학생의 평가 방법의 다양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평가 방법의 다양성	전체	490 2.2%	1,018 4.5%	7,380 32.9%	8,044 35.8%	5,517 24.6%	22,449 100.0%	-
	남	310 2.7%	537 4.7%	3,828 33.6%	3,856 33.9%	2,856 25.1%	11,387 100.0%	63.796***
	여	180 1.6%	481 4.3%	3,552 32.1%	4,188 37.9%	2,661 24.1%	11,062 100.0%	
	초	138 1.4%	341 3.5%	2,877 29.3%	3,378 34.4%	3,083 31.4%	9,817 100.0%	530.490***
	중	229 2.7%	443 5.2%	3,065 35.9%	3,058 35.8%	1,754 20.5%	8,549 100.0%	
	고	123	234	1,438	1,608	680	4,083	
		3.0%	5.7%	35.2%	39.4%	16.7%	100.0%	

*** $p < .001$

- 학생의 평가 방법의 다양성(시험, 프로젝트, 실험, 토론, 논술)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71>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평가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6(SD=0.95)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74(SD=0.98)이고, 여학생은 평균 3.78(SD=.0.91)로 평가 방법의 다양성은 여학생이 남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91(SD=0.93), 중학생은 평균 3.66(SD=0.95), 고등학생은 평균 3.61(SD=0.93)로 평가 방법의 다양성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1> 학생의 평가 방법의 다양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평가 방법의 다양성	전체	22,449	3.76	0.95	-	-
	남	11,387	3.74	0.98	-3.57***	-
	여	11,062	3.78	0.91		
	초	9,817	3.91	0.93	223.64***	초>중>고
	중	8,549	3.66	0.95		
	고	4,083	3.61	0.93		

*** $p<.001$

나. 평가 결과의 효율성

- 학생의 **평가 결과의 효율성(평가를 통한 학습 수준 파악)**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 분석 결과는 <표 3-72>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평가 결과의 효율성에 대해 긍정응답은 66.4%(매우 그러함 27.4%, 그러함 39.0%)이며, 보통 27.6%, 부정응답은 6.0%(그렇지 않음 3.9%, 전혀 그렇지 않음 2.1%)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6.9%(매우 그러함 29.4%, 그러함 37.5%), 보통 26.4%, 부정응답 6.6%(그렇지 않음 4.0%, 전혀 그렇지 않음 2.6%)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5.8%(매우 그러함 25.3%, 그러함 40.5%), 보통 28.7%, 부정응답 5.5%(그렇지 않음 3.9%, 전혀 그렇지 않음 1.6%)로 평가 결과의 효율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74.3%(매우 그러함 37.4%, 그러함 36.9%), 보통 21.3%, 부정응답 4.4%(그렇지 않음 3.0%, 전혀 그렇지 않음 1.4%)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62.1%(매우 그러함 21.8%, 그러함 40.3%), 보통 30.8%, 부정응답 7.1%(그렇지 않음 4.4%, 전혀 그렇지 않음 2.7%)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56.2%(매우 그러함 15.1%, 그러함 41.1%), 보통 35.8%, 부정응답 7.9%(그렇지 않음 5.2%, 전혀 그렇지 않음 2.7%)로 평가 결과의 효율성은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2> 학생의 평가 결과 효율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평가 결과의 효율성	전체	476 2.1%	883 3.9%	6,191 27.6%	8,748 39.0%	6,151 27.4%	22,449 100.0%	-
	남	301 2.6%	455 4.0%	3,011 26.4%	4,271 37.5%	3,349 29.4%	11,387 100.0%	87.600***
	여	175 1.6%	428 3.9%	3,180 28.7%	4,477 40.5%	2,802 25.3%	11,062 100.0%	
	초	134 1.4%	291 3.0%	2,095 21.3%	3,626 36.9%	3,671 37.4%	9,817 100.0%	1065.028***
	중	230 2.7%	378 4.4%	2,634 30.8%	3,443 40.3%	1,864 21.8%	8,549 100.0%	
	고	112 2.7%	214 5.2%	1,462 35.8%	1,679 41.1%	616 15.1%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평가 결과의 효율성(평가를 통한 학습 수준 파악)**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73>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평가 결과의 효율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6(SD=0.94)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87(SD=0.97)이고, 여학생은 평균 3.84(SD=0.90)로 평가 결과의 효율성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06(SD=0.91), 중학생은 평균 3.74(SD=0.94), 고등학생은 평균 3.61(SD=0.90)로 평가 결과의 효율성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3> 학생의 평가 결과의 효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평가 결과의 효율성	전체	22,449	3.86	0.94	-	-
	남	11,387	3.87	0.97	2.36***	-
	여	11,062	3.84	0.90		
	초	9,817	4.06	0.91	462.30***	초>중>고
	중	8,549	3.74	0.94		
	고	4,083	3.61	0.90		

*** $p < .001$

다. 평가 피드백의 효과

- 학생의 **평가 피드백의 효과(평가를 통한 실력 향상 방법 확인)**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74>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평가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 긍정응답은 54.1%(매우 그러함 22.4%, 그러함 31.7%)이며, 보통 35.6%, 부정응답은 10.3%(그렇지 않음 6.9%, 전혀 그렇지 않음 3.4%)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6.7%(매우 그러함 25.3%, 그러함 31.4%), 보통 33.1%, 부정응답 10.2%(그렇지 않음 6.2%, 전혀 그렇지 않음 4.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1.4%(매우 그러함 19.4%, 그러함 32.0%), 보통 38.2%, 부정응답 10.5%(그렇지 않음 7.7%, 전혀 그렇지 않음 2.8%)로 평가 피드백의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60.9%(매우 그러함 29.8%, 그러함 31.1%), 보통 31.6%, 부정응답 7.5%(그렇지 않음 5.1%, 전혀 그렇지 않음 2.4%)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9.6%(매우 그러함 18.0%, 그러함 31.6%), 보통 38.0%, 부정응답 12.4%(그렇지 않음 8.2%, 전혀 그렇지 않음 4.2%)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6.7%(매우 그러함 13.5%, 그러함 33.2%), 보통 40.3%, 부정응답 13.0%(그렇지 않음 8.8%, 전혀 그렇지 않음 4.2%)로 평가 피드백의 효과는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4> 학생의 평가 피드백의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평가 피드백의 효과	전체	760 3.4%	1,558 6.9%	7,994 35.6%	7,116 31.7%	5,021 22.4%	22,449 100.0%	-
	남	450 4.0%	706 6.2%	3,773 33.1%	3,581 31.4%	2,877 25.3%	11,387 100.0%	167.214***
	여	310 2.8%	852 7.7%	4,221 38.2%	3,535 32.0%	2,144 19.4%	11,062 100.0%	
	초	235 2.4%	496 5.1%	3,103 31.6%	3,056 31.1%	2,927 29.8%	9,817 100.0%	686.365***
	중	355 4.2%	702 8.2%	3,246 38.0%	2,704 31.6%	1,542 18.0%	8,549 100.0%	
	고	170 4.2%	360 8.8%	1,645 40.3%	1,356 33.2%	552 13.5%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평가 피드백 효과(평가를 통한 실력 향상 방법 확인)**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75>와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평가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3(SD=1.01)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68(SD=1.04)이고, 여학생은 평균 3.57(SD=0.98)로 평가 피드백의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81(SD=1.00), 중학생은 평균 3.51(SD=1.01), 고등학생은 평균 3.43(SD=0.97)으로 평가 피드백의 효과는 초등학생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5> 학생의 평가 피드백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평가 피드백의 효과	전체	22,449	3.63	1.01	-	-
	남	11,387	3.68	1.04	7.77***	-
	여	11,062	3.57	0.98		
	초	9,817	3.81	1.00	299.00***	초>중>고
	중	8,549	3.51	1.01		
	고	4,083	3.43	0.97		

*** $p < .001$

- 학생의 평가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평가의 다양성·효율성·피드백 효과에 대한 긍정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평가 방법의 다양성(시험·프로젝트·실험·토론·논술 등)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초등학생(M=3.91) 시기에 가장 높고 중학생(M=3.66), 고등학생(M=3.61) 순으로 감소함. 이는 초등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가 활성화된 반면,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지필고사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강화되고 있음을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평가 결과의 효율성(학습 수준 파악)과 평가 피드백의 효과(실력 향상 도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초등학생(M=4.06, M=3.81)이 가장 높고, 중학생(M=3.74, M=3.51), 고등학생(M=3.61, M=3.43) 순으로 점차 낮아짐. 특히 평가 피드백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아, 학교 현장에서 평가가 ‘학습을 위한 평가’보다는 ‘결과 중심의 평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평가를 학습 성장의 기회보다는 성적 산출의 과정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평가 결과가 학생의 실제 학습 수준을 진단하기보다 서열화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함. 따라서 학교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강화하고, 서·논술형 및 프로젝트형 평가 등 수행평가 중심의 다원적 평가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가 이후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가 학생의 자기 성찰과 학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나아가 교사들이 평가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수 있도록 형성평가 역량 강화 연수와 평가 환류 기반의 교수 설계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가. 교과학습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 학생의 교과학습(예: 독서, 영어, 과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 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76>과 같음. 2025년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참여하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10,245건(45.6%)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긍정응답은 60.1%(매우 그러함 30.3%, 그러함 29.8%)이며, 보통 31.7%, 부정응답은 8.2%(그렇지 않음 5.2%, 전혀 그렇지 않음 3.0%)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1.1%(매우 그러함 32.6%, 그러함 28.5%), 보통 30.3%, 부정응답 8.6%(그렇지 않음 4.9%, 전혀 그렇지 않음 3.7%)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8.9%(매우 그러함 27.7%, 그러함 31.2%), 보통 33.4%, 부정응답 7.7%(그렇지 않음 5.6%, 전혀 그렇지 않음 2.1%)로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긍정응답 74.4%(매우 그러함 43.7%, 그러함 30.7%), 보통 21.3%, 부정응답 4.3%(그렇지 않음 2.8%, 전혀 그렇지 않음 1.5%)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8.7%(매우 그러함 20.9%, 그러함 27.8%), 보통 40.6%, 부정응답 10.6%(그렇지 않음 6.6%, 전혀 그렇지 않음 4.0%)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7.3%(매우 그러함 16.4%, 그러함 30.9%), 보통 40.2%, 부정응답 12.5%(그렇지 않음 8.0%, 전혀 그렇지 않음 4.5%)로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는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6> 학생의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N=10,245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전체	306 3.0%	531 5.2%	3,252 31.7%	3,048 29.8%	3,108 30.3%	10,245 100.0%	-
	남	205 3.7%	269 4.9%	1,675 30.3%	1,577 28.5%	1,803 32.6%	5,529 100.0%	57.721***
	여	101 2.1%	262 5.6%	1,577 33.4%	1,471 31.2%	1,305 27.7%	4,716 100.0%	
	초	71 1.5%	132 2.8%	991 21.3%	1,431 30.7%	2,034 43.7%	4,659 100.0%	968.711***
	중	141 4.0%	233 6.6%	1,424 40.6%	973 27.8%	733 20.9%	3,504 100.0%	
	고	94 4.5%	166 8.0%	837 40.2%	644 30.9%	341 16.4%	2,082 100.0%	

*** $p < .001$

- 학생의 교과학습(예: 독서, 영어, 과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 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77>과 같음. 2025년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참여하지 않음’ 1번 응답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2=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려함, 5=매우 그려함)로 응답범주를 재코딩하여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9(SD=1.0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81(SD=1.06)이고, 여학생은 평균 3.77(SD=0.99)로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12(SD=0.94), 중학생은 평균 3.55(SD=1.02), 고등학생은 평균 3.47(SD=1.00)로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7> 학생의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0,245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전체	10,245	3.79	1.03	-	-
	남	5,529	3.81	1.06	2.36***	-
	여	4,716	3.77	0.99		
	초	4,659	4.12	0.94	484.14***	초>중>고
	중	3,504	3.55	1.02		
	고	2,082	3.47	1.00		

*** $p < .001$

나. 특기·적성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 학생의 특기·적성(예: 바둑, 운동, 컴퓨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78>과 같음. 2025년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참여하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9,497(42.3%)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긍정응답은 63.1%(매우 그러함 35.8% 그러함 27.3%)이며, 보통 29.5% 부정응답은 7.5%(그렇지 않음 4.8% 전혀 그렇지 않음 2.7%)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5.1%(매우 그러함 38.9%, 그러함 26.2%), 보통 27.4%, 부정응답 7.5%(그렇지 않음 4.4%, 전혀 그렇지 않음 3.1%)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0.6%(매우 그러함 31.9%, 그러함 28.7%), 보통 32.0%, 부정응답 7.3%(그렇지 않음 5.2%, 전혀 그렇지 않음 2.1%)로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생은 긍정응답 78.3%(매우 그러함 50.4%, 그러함 27.9%), 보통 17.9%, 부정응답 3.8%(그렇지 않음 2.6%, 전혀 그렇지 않음 1.2%)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52.1%(매우 그러함 25.6%, 그러함 26.5%), 보통 38.6%, 부정응답 9.2%(그렇지 않음 6.0%, 전혀 그렇지 않음 3.2%)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3.9%(매우 그러함 16.6%, 그러함 27.3%), 보통 42.5%, 부정응답 13.5%(그렇지 않음 8.1%, 전혀 그렇지 않음 5.4%)로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는 초등학교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8> 학생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N=9,497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전체	253 2.7%	453 4.8%	2,801 29.5%	2,592 27.3%	3,398 35.8%	9,497 100.0%	-
	남	162 3.1%	228 4.4%	1,427 27.4%	1,363 26.2%	2,028 38.9%	5,208 100.0%	66.990***
	여	91 2.1%	225 5.2%	1,374 32.0%	1,229 28.7%	1,370 31.9%	4,289 100.0%	
	초	56 1.2%	118 2.6%	805 17.9%	1,252 27.9%	2,263 50.4%	4,494 100.0%	1102.067***
	중	109 3.2%	204 6.0%	1,305 38.6%	896 26.5%	865 25.6%	3,379 100.0%	
	고	88 5.4%	131 8.1%	691 42.5%	444 27.3%	270 16.6%	1,624 100.0%	

*** $p<.001$

- 학생의 특기·적성(예: 바둑, 운동, 컴퓨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 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79>와 같음. 2025년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참여하지 않음’ 1번 응답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2=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리함, 5=매우 그리함)로 응답범주를 재코딩하여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9(SD=1.0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93(SD=1.06)이고, 여학생은 평균 3.83(SD=1.01)로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23(SD=0.92), 중학생은 평균 3.65(SD=1.03), 고등학생은 평균 3.42(SD=1.03)로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79> 학생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9,497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효과	전체	9,497	3.89	1.03	-	-
	남	5,208	3.93	1.06	4.88***	-
	여	4,289	3.83	1.01		
	초	4,494	4.23	0.92	568.76***	초>중>고
	중	3,379	3.65	1.03		
	고	1,624	3.42	1.03		

*** $p < .001$

- 학생의 방과후학교 활동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교과학습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모두에서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교과학습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는 초등학생(M=4.12)이 가장 높으나, 중학생(M=3.55), 고등학생(M=3.47)의 순으로 만족도가 급감함. 이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심화나 실질적 학력 향상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기·적성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또한 초등학생(M=4.23)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중학생(M=3.65), 고등학생(M=3.42)의 순으로 낮아짐. 이는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효과성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학업 부담 증가, 진로 탐색의 필요성 확대, 사교육으로의 이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업적·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심화형·전문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교과 영역에서는 수준별 소규모 강좌, 심화탐구 프로그램, 교사-학생 멘토링 과정 등을 도입하여 학습 결손을 보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내실화 전략이 요구됨. 또한 특기·적성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술·체육·기술·진로탐색 등 미래역량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자기계발과 진로 설계를 동시에 지원해야 함.
- 아울러 성별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일부 프로그램이 특정 성별의 흥미에 치우쳐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남녀 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종합적으로,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진로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9. 동아리 활동

가. 교과학습 관련 동아리활동 효과

- 학생의 교과학습(예: 독서, 영어, 과학)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 분석 결과는 <표 3-80>과 같음. 2025년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참여하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11,153(49.7%)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에 대해 긍정응답은 55.1%(매우 그러함 24.3%, 그러함 30.8%)이며, 보통 36.4%, 부정응답은 8.4%(그렇지 않음 5.4%, 전혀 그렇지 않음 3.0%)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5.8%(매우 그러함 26.9%, 그러함 28.9%), 보통 35.2%, 부정응답 9.1%(그렇지 않음 5.3%, 전혀 그렇지 않음 3.8%)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4.5%(매우 그러함 21.5%, 그러함 33.0%), 보통 37.7%, 부정응답 7.8%(그렇지 않음 5.6%, 전혀 그렇지 않음 2.2%)로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66.3%(매우 그러함 36.5%, 그러함 29.8%), 보통 28.7%, 부정응답 5.0%(그렇지 않음 3.4%, 전혀 그렇지 않음 1.6%)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50.0%(매우 그러함 20.2%, 그러함 29.8%), 보통 39.6%, 부정응답 10.3%(그렇지 않음 6.6%, 전혀 그렇지 않음 3.7%)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8.3%(매우 그러함 14.3%, 그러함 34.0%), 보통 41.7%, 부정응답 9.9%(그렇지 않음 6.2%, 전혀 그렇지 않음 3.7%)로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는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0> 학생의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N=11,153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	전체	338 3.0%	606 5.4%	4,061 36.4%	3,439 30.8%	2,709 24.3%	11,153 100.0%	-
	남	219 3.8%	306 5.3%	2,046 35.2%	1,677 28.9%	1,560 26.9%	5,808 100.0%	75.247***
	여	119 2.2%	300 5.6%	2,015 37.7%	1,762 33.0%	1,149 21.5%	5,345 100.0%	
	초	61 1.6%	126 3.4%	1,073 28.7%	1,116 29.8%	1,367 36.5%	3,743 100.0%	559.017***
	중	177 3.7%	313 6.6%	1,873 39.6%	1,413 29.8%	958 20.2%	4,734 100.0%	
	고	100 3.7%	167 6.2%	1,115 41.7%	910 34.0%	384 14.3%	2,676 100.0%	

*** $p < .001$

- 학생의 교과학습(예: 독서, 영어, 과학)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81>과 같음. 2025년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 '참여하지 않음' 1번 응답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2=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려함, 5=매우 그려함)로 응답범주를 재코딩하여 11,153(49.7%)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8(SD=1.00)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70(SD=1.04)이고, 여학생은 평균 3.66(SD=0.95)로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96(SD=0.97), 중학생은 평균 3.56(SD=1.00), 고등학생은 평균 3.49(SD=0.94)로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1> 학생의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1,153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 효과	전체	11,153	3.68	1.00	-	-
	남	5,808	3.70	1.04	2.07***	-
	여	5,345	3.66	0.95		
	초	3,743	3.96	0.97	241.63***	초>중>고
	중	4,734	3.56	1.00		
	고	2,676	3.49	0.94		

*** $p < .001$

나. 특기·적성 관련 동아리활동 효과

- 학생의 특기·적성(예: 바둑, 운동, 컴퓨터)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82>와 같음. 2025년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참여하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10,637(47.4%)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에 대해 긍정응답은 59.9%(매우 그러함 30.8%, 그러함 29.1%)이며, 보통 33.0%, 부정응답은 7.0%(그렇지 않음 4.3%, 전혀 그렇지 않음 2.7%)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1.8%(매우 그러함 34.2%, 그러함 27.6%), 보통 31.2%, 부정응답 7.0%(그렇지 않음 4.0%, 전혀 그렇지 않음 3.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7.9%(매우 그러함 27.0%, 그러함 30.9%), 보통 35.2%, 부정응답 7.0%(그렇지 않음 4.7%, 전혀 그렇지 않음 2.3%)로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74.3%(매우 그러함 47.3%, 그러함 27.0%), 보통 22.3%, 부정응답 3.4%(그렇지 않음 2.4%, 전혀 그렇지 않음 1.0%)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52.0%(매우 그러함 22.4%, 그러함 29.6%), 보통 38.8%, 부정응답 9.2%(그렇지 않음 5.6%, 전혀 그렇지 않음 3.6%)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8.0%(매우 그러함 15.7%, 그러함 32.3%), 보통 42.3%, 부정응답 9.7%(그렇지 않음 5.6%, 전혀 그렇지 않음 4.1%)로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는 초등학교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2> 학생의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N=10,637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	전체	285 2.7%	461 4.3%	3,512 33.0%	3,099 29.1%	3,280 30.8%	10,637 100.0%	-
	남	172 3.0%	229 4.0%	1,777 31.2%	1,574 27.6%	1,950 34.2%	5,702 100.0%	75.794***
	여	113 2.3%	232 4.7%	1,735 35.2%	1,525 30.9%	1,330 27.0%	4,935 100.0%	
	초	44 1.0%	101 2.4%	937 22.3%	1,132 27.0%	1,986 47.3%	4,200 100.0%	1022.447***
	중	150 3.6%	237 5.6%	1,637 38.8%	1,251 29.6%	947 22.4%	4,222 100.0%	
	고	91 4.1%	123 5.6%	938 42.3%	716 32.3%	347 15.7%	2,215 100.0%	

*** $p < .001$

- 학생의 특기·적성(예: 바둑, 운동, 컴퓨터)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83>과 같음. 2025년 팽팽팽 ‘참여하지 않음’ 1번 응답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2=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려함, 5=매우 그려함)로 응답범주를 재코딩하여 10,637(47.4%)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1(SD=1.01)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86(SD=1.03)이고, 여학생은 평균 3.76(SD=0.98)으로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4.17(SD=0.93), 중학생은 평균 3.62(SD=1.01), 고등학생은 평균 3.50(SD=0.96)으로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3> 학생의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0,637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효과	전체	10,637	3.81	1.01	-	-
	남	5,702	3.86	1.03	5.35***	-
	여	4,935	3.76	0.98		
	초	4,200	4.17	0.93	491.41***	초>중>고
	중	4,222	3.62	1.01		
	고	2,215	3.50	0.96		

*** $p < .001$

-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에게 주도적 학습 경험과 또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교과학습 관련 동아리의 효과성은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낮아짐. 이러한 결과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과 동아리가 지적 탐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학습 공동체보다는 대학입시 중심의 활동으로 운영되는 경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과 동아리가 학생 주도적 탐구활동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교사의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한편 특기·적성 관련 동아리의 효과 역시 초·중·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학업 부담이 커지는 상급학교에서 예체능 및 취미 중심 동아리의 양적·질적 부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동아리 개설과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연계가 요구됨.
- 동아리 활동 효과에 나타난 성별과 학교급별 차이는 동아리 활동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줌.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현재의 동아리 유형이나 운영 방식이 남학생의 선호나 학습 방식에 더 잘 부합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에 여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학생의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또한 학교급별 차이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 초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새로운 경험과 또래 관계 형성의 장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업 중심의 생활패턴으로 인해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동아리 운영은 단순한 참여 기회 확대를 넘어 학교급별 발달 단계와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며, 학생의 자율성, 흥미, 진로 탐색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동아리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10. 진로 교육

가. 진로교육 다양성

- 학생의 **진로교육 다양성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84>와 같음. 2025년 진로교육 다양성 '참여하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16,734(74.5%)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교육 다양성에 대해 긍정응답은 50.1%(매우 그러함 20.4%, 그러함 29.7%)이며, 보통 38.9%, 부정응답은 10.9%(그렇지 않음 6.8%, 전혀 그렇지 않음 4.1%)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2.5%(매우 그러함 23.1%, 그러함 29.4%), 보통 37.5%, 부정응답 9.9%(그렇지 않음 5.7%, 전혀 그렇지 않음 4.2%)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7.8%(매우 그러함 17.8%, 그러함 30.0%), 보통 40.3%, 부정응답 11.9%(그렇지 않음 7.9%, 전혀 그렇지 않음 4.0%)로 진로교육 다양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60.9%(매우 그러함 30.5%, 그러함 30.4%), 보통 34.0%, 부정응답 5.0%(그렇지 않음 3.2%, 전혀 그렇지 않음 1.8%)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3.4%(매우 그러함 14.9%, 그러함 28.5%), 보통 42.2%, 부정응답 14.4%(그렇지 않음 8.8%, 전혀 그렇지 않음 5.6%)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1.9%(매우 그러함 11.2%, 그러함 30.7%), 보통 42.4%, 부정응답 15.6%(그렇지 않음 9.8%, 전혀 그렇지 않음 5.8%)로 진로교육 다양성은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4> 학생의 진로교육 다양성 인식 교차분석 결과

N=16,734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진로교육 다양성	전체	688 4.1%	1,136 6.8%	6,515 38.9%	4,974 29.7%	3,421 20.4%	16,734 100.0%	-
	남	353 4.2%	471 5.7%	3,116 37.5%	2,444 29.4%	1,923 23.1%	8,307 100.0%	99.325***
	여	335 4.0%	665 7.9%	3,399 40.3%	2,530 30.0%	1,498 17.8%	8,427 100.0%	
	초	121 1.8%	218 3.2%	2,290 34.0%	2,048 30.4%	2,057 30.5%	6,734 100.0%	1013.246***
	중	369 5.6%	581 8.8%	2,771 42.2%	1,873 28.5%	980 14.9%	6,574 100.0%	
	고	198 5.8%	337 9.8%	1,454 42.4%	1,053 30.7%	384 11.2%	3,426 100.0%	

*** $p < .001$

- 학생의 **진로교육 다양성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85>와 같음. 2025년 진로교육 다양성 ‘참여하지 않음’ 1번 응답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2=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리함, 5=매우 그리함)로 응답범주를 재코딩하여 16,734(74.5%)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교육 다양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6(SD=1.02)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62(SD=1.03)이고, 여학생은 평균 3.50(SD=1.00)으로 진로교육 다양성은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85(SD=0.96), 중학생은 평균 3.38(SD=1.02), 고등학생은 평균 3.32(SD=0.99)로 진로교육 다양성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5> 학생의 진로교육 다양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6,734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진로교육 다양성	전체	16,734	3.56	1.02	-	-
	남	8,307	3.62	1.03	99.325***	-
	여	8,427	3.50	1.00		
	초	6,734	3.85	0.96	1013.246***	초>중>고
	중	6,574	3.38	1.02		
	고	3,426	3.32	0.99		

*** $p < .001$

나. 진로교육 효과

- 학생의 **진로교육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86>과 같음. 2025년 진로교육 효과 ‘참여하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17,245(76.8%)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응답은 46.8%(매우 그러함 19.7%, 그러함 27.1%)이며, 보통 37.3%, 부정응답은 16.0%(그렇지 않음 9.8%, 전혀 그렇지 않음 6.2%)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8.7%(매우 그러함 22.6%, 그러함 26.1%), 보통 36.6%, 부정응답 14.8%(그렇지 않음 8.5%, 전혀 그렇지 않음 6.3%)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4.9%(매우 그러함 16.9%, 그러함 28.0%), 보통 38.0%, 부정응답 17.2%(그렇지 않음 11.1%, 전혀 그렇지 않음 6.1%)로 진로교육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긍정응답 55.6%(매우 그러함 28.7%, 그러함 26.9%), 보통 34.2%, 부정응답 10.1%(그렇지 않음 6.8%, 전혀 그렇지 않음 3.3%)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0.0%(매우 그러함 14.5%, 그러함 25.5%), 보통 39.1%, 부정응답 20.8%(그렇지 않음 12.4%, 전혀 그렇지 않음 8.4%)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42.3%(매우 그러함 12.0%, 그러함 30.3%), 보통 39.8%, 부정응답 18.0%(그렇지 않음 10.6%, 전혀 그렇지 않음 7.4%)로 진로교육 효과는 초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6> 학생의 진로교육 효과 인식 교차분석 결과

N=17,245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진로교육 효과	전체	1,063 6.2%	1,690 9.8%	6,427 37.3%	4,665 27.1%	3,400 19.7%	17,245 100.0%	-
	남	538 6.3%	729 8.5%	3,134 36.6%	2,237 26.1%	1,936 22.6%	8,574 100.0%	108.744***
	여	525 6.1%	961 11.1%	3,293 38.0%	2,428 28.0%	1,464 16.9%	8,671 100.0%	
	초	232 3.3%	476 6.8%	2,380 34.2%	1,873 26.9%	1,995 28.7%	6,956 100.0%	799.364***
	중	571 8.4%	841 12.4%	2,646 39.1%	1,725 25.5%	982 14.5%	6,765 100.0%	
	고	260 7.4%	373 10.6%	1,401 39.8%	1,067 30.3%	423 12.0%	3,524 100.0%	

*** $p < .001$

- 학생의 **진로교육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87>과 같음. 2025년 진로교육 효과 ‘참여하지 않음’ 1번 응답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2=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려함, 5=매우 그려함)로 응답범주를 재코딩하여 17,245(76.8%)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교육 효과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4(SD=1.10)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 3.50(SD=1.12)이고, 여학생은 평균 3.39(SD=1.08)로 진로교육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평균 3.71(SD=1.06), 중학생은 평균 3.25(SD=1.11), 고등학생은 평균 3.29(SD=1.05)로 진로교육 효과는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7> 학생의 진로교육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7,245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진로교육 효과	전체	17,245	3.44	1.10	-	-
	남	8,574	3.50	1.12	6.95***	-
	여	8,671	3.39	1.08		
	초	6,956	3.71	1.06	352.18***	초>중, 초>고
	중	6,765	3.25	1.11		
	고	3,524	3.29	1.05		

*** $p < .001$

-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진로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흥미 중심의 체험활동이 다양하게 제공되지만, 상급학교로 갈수록 진로 선택의 압박이 커지면서 학교 진로 교육이 학생들의 변화된 관심과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 교육의 다양성과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진로 탐색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따라서 진로 교육의 다양성 확대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별에 따른 관심사를 반영한 질적 다양성의 강화가 필요함.

- 진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다양성 인식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초등학생의 긍정적 반응이 높았던 반면, 중·고등학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반응을 보임. 이는 진로 선택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학교 진로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학교 진로 교육이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흥미·적성 탐색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교과 학습과 진로 탐색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전문 진로 상담교사를 확충하여 학생 맞춤형 상담과 코칭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직업 탐색, 기업가정신 함양, 지역사회 연계 직업 체험 등 실질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제4절 학생역량

1.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가. 초등학생 교과별 학업성취도

-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88>과 같음.
- 초등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잘하는 편(43.0%), 보통(33.0%), 매우 잘하는 편(19.1%), 못하는 편(3.8%), 아주 못하는 편(1.2%)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7.8%(매우 잘하는 편 17.8%, 잘하는 편 40.0%), 보통 35.9%, 부정응답 6.3%(못하는 편 4.6%, 아주 못하는 편 1.7%)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6.7%(매우 잘하는 편 20.4%, 잘하는 편 46.3%), 보통 29.8%, 부정응답 3.5%(못하는 편 2.9%, 아주 못하는 편 0.6%)로 국어 학업성취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잘하는 편(34.0%), 매우 잘하는 편(27.0%), 보통(25.7%), 못하는 편(9.8%), 아주 못하는 편(3.5%)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6.4%(매우 잘하는 편 32.2%, 잘하는 편 34.2%), 보통 22.7%, 부정응답 10.9%(못하는 편 7.6%, 아주 못하는 편 3.3%)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5.1%(매우 잘하는 편 21.3%, 잘하는 편 33.8%), 보통 28.9%, 부정응답 16.0%(못하는 편 12.2%, 아주 못하는 편 3.8%)로 수학 학업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잘하는 편(30.9%), 매우 잘하는 편(29.2%), 보통(25.1%), 못하는 편(10.5%), 아주 못하는 편(4.3%)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8.7%(매우 잘하는 편 28.7%, 잘하는 편 30.0%), 보통 25.5%, 부정응답 15.9%(못하는 편 10.9%, 아주 못하는 편 5.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1.6%(매우 잘하는 편 29.7%, 잘하는 편 31.9%), 보통 24.6%, 부정응답 13.8%(못하는 편 10.2%, 아주 못하는 편 3.6%)로 영어 학업성취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보통(39.3%), 잘하는 편(32.9%), 매우 잘하는 편(17.4%), 못하는 편(8.1%), 아주 못하는 편(2.3%)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3.5%(매우

잘하는 편 21.7%, 잘하는 편 31.8%), 보통 37.1%, 부정응답 9.4%(못하는 편 6.9%, 아주 못하는 편 2.5%)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6.8%(매우 잘하는 편 12.6%, 잘하는 편 34.2%), 보통 41.8%, 부정응답 11.4%(못하는 편 9.4%, 아주 못하는 편 2.0%)로 과학 학업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은 보통(43.7%), 잘하는 편(26.9%), 못하는 편(13.0%), 매우 잘하는 편(12.2%), 아주 못하는 편(4.3%)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2.2%(매우 잘하는 편 14.5%, 잘하는 편 27.7%), 보통 42.2%, 부정응답 15.6%(못하는 편 11.6%, 아주 못하는 편 4.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5.6%(매우 잘하는 편 9.7%, 잘하는 편 25.9%), 보통 45.3%, 부정응답 19.1%(못하는 편 14.5%, 아주 못하는 편 4.6%)로 사회 학업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8〉 초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교차분석 결과

N=9,817

항목	초등학생	아주 못하는 편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	계	χ^2
국어 학업 성취도	전체	113 1.2%	370 3.8%	3,239 33.0%	4,224 43.0%	1,871 19.1%	9,817 100.0%	-
	남	85 1.7%	234 4.6%	1,827 35.9%	2,035 40.0%	905 17.8%	5,086 100.0%	102.782***
	여	28 0.6%	136 2.9%	1,412 29.8%	2,189 46.3%	966 20.4%	4,731 100.0%	
수학 학업 성취도	전체	347 3.5%	963 9.8%	2,520 25.7%	3,338 34.0%	2,649 27.0%	9,817 100.0%	-
	남	167 3.3%	386 7.6%	1,155 22.7%	1,738 34.2%	1,640 32.2%	5,086 100.0%	199.304***
	여	180 3.8%	577 12.2%	1,365 28.9%	1,600 33.8%	1,009 21.3%	4,731 100.0%	
영어 학업 성취도	전체	424 4.3%	1,034 10.5%	2,460 25.1%	3,036 30.9%	2,863 29.2%	9,817 100.0%	-
	남	253 5.0%	553 10.9%	1,296 25.5%	1,526 30.0%	1,458 28.7%	5,086 100.0%	16.204***
	여	171 3.6%	481 10.2%	1,164 24.6%	1,510 31.9%	1,405 29.7%	4,731 100.0%	
과학 학업 성취도	전체	222 2.3%	797 8.1%	3,861 39.3%	3,233 32.9%	1,704 17.4%	9,817 100.0%	-
	남	129 2.5%	351 6.9%	1,885 37.1%	1,615 31.8%	1,106 21.7%	5,086 100.0%	158.124***
	여	93 2.0%	446 9.4%	1,976 41.8%	1,618 34.2%	598 12.6%	4,731 100.0%	
사회 학업 성취도	전체	421 4.3%	1,273 13.0%	4,288 43.7%	2,636 26.9%	1,199 12.2%	9,817 100.0%	-
	남	205 4.0%	589 11.6%	2,144 42.2%	1,410 27.7%	738 14.5%	5,086 100.0%	71.471***
	여	216 4.6%	684 14.5%	2,144 45.3%	1,226 25.9%	461 9.7%	4,731 100.0%	

*** $p < .001$

-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성별 t 검정 결과는 <표 3-89>와 같음.
- 초등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5(SD=0.8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8(SD=0.88)이고, 여학생 평균은 3.83(SD=0.80)으로 국어 학업성취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1(SD=1.0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85(SD=1.06)이고, 여학생 평균은 3.57(SD=1.07)로 수학 학업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0(SD=1.12)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7(SD=1.15)이고, 여학생 평균은 3.74(SD=1.10)로 영어 학업성취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5(SD=0.9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3(SD=0.98)이고, 여학생 평균은 3.46(SD=0.90)으로 과학 학업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0(SD=0.98)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37(SD=1.00)이고, 여학생 평균은 3.22(SD=0.96)로 사회 학업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89〉 초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t 검정 결과

N=9,817

항목	초등학생	N	M	SD	t
국어 학업 성취도	전체	9,817	3.75	0.84	-
	남	5,086	3.68	0.88	-9.09***
	여	4,731	3.83	0.80	
수학 학업 성취도	전체	9,817	3.71	1.07	-
	남	5,086	3.85	1.06	12.94***
	여	4,731	3.57	1.07	
영어 학업 성취도	전체	9,817	3.70	1.12	-
	남	5,086	3.67	1.15	-3.27***
	여	4,731	3.74	1.10	
과학 학업 성취도	전체	9,817	3.55	0.94	-
	남	5,086	3.63	0.98	9.05***
	여	4,731	3.46	0.90	
사회 학업 성취도	전체	9,817	3.30	0.98	-
	남	5,086	3.37	1.00	7.72***
	여	4,731	3.22	0.96	

*** $p < .001$

나. 중학생 교과별 학업성취도

- 중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90>과 같음.
- 중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A(41.6%), B(30.8%), C(18.4%), D(5.5%), E(3.7%)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8.6%(A 37.5%, B 31.1%), C 20.2%, 부정응답 11.2%(D 6.4%, E 4.8%)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76.1%(A 45.7%, B 30.4%), C 16.7%, 부정응답 7.3%(D 4.7%, E 2.6%)로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A(35.0%), B(23.6%), C(18.5%), E(12.0%), D(11.0%)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1.9%(A 38.4%, B 23.5%), C 18.1%, 부정응답 20.1%(D 9.7%, E 10.4%)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5.2%(A 31.5%, B 23.7%), C 18.8%, 부정응답 26.0%(D 12.3%, E 13.7%)로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A(46.6%), B(22.0%), C(14.4%), E(8.7%), D(8.3%)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8.3%(A 46.6%, B 21.7%), C 14.6%, 부정응답 17.2%(D 8.2%, E 9.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8.9%(A 46.6%, B 22.3%), C 14.2%, 부정응답 17.0%(D 8.5%, E 8.5%)로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A(36.0%), B(23.5%), C(20.7%), D(11.9%), E(7.9%)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0.6%(A 36.3%, B 24.3%), C 20.4%, 부정응답 19.0%(D 10.8%, E 8.2%)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8.4%(A 35.7%, B 22.7%), C 21.1%, 부정응답 20.5%(D 13.0%, E 7.5%)로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은 A(37.0%), B(21.5%), C(20.7%), D(11.8%), E(9.0%)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8.3%(A 36.5%, B 21.8%), C 21.0%, 부정응답 20.7%(D 11.1%, E 9.6%)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8.5%(A 37.4%, B 21.1%), C 20.4%, 부정응답 21.0%(D 12.6%, E 8.4%)로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0〉 중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교차분석 결과

N=8,549

항목	중학생	E	D	C	B	A	계	χ^2
국어 학업 성취도	전체	316 3.7%	472 5.5%	1,577 18.4%	2,631 30.8%	3,553 41.6%	8,549 100.0%	-
	남	207 4.8%	272 6.4%	864 20.2%	1,333 31.1%	1,604 37.5%	4,280 100.0%	89.785***
	여	109 2.6%	200 4.7%	713 16.7%	1,298 30.4%	1,949 45.7%	4,269 100.0%	
수학 학업 성취도	전체	1,026 12.0%	938 11.0%	1,580 18.5%	2,017 23.6%	2,988 35.0%	8,549 100.0%	-
	남	443 10.4%	415 9.7%	776 18.1%	1,004 23.5%	1,642 38.4%	4,280 100.0%	61.383***
	여	583 13.7%	523 12.3%	804 18.8%	1,013 23.7%	1,346 31.5%	4,269 100.0%	
영어 학업 성취도	전체	748 8.7%	711 8.3%	1,230 14.4%	1,879 22.0%	3,981 46.6%	8,549 100.0%	-
	남	386 9.0%	350 8.2%	623 14.6%	928 21.7%	1,993 46.6%	4,280 100.0%	1.422***
	여	362 8.5%	361 8.5%	607 14.2%	951 22.3%	1,988 46.6%	4,269 100.0%	
과학 학업 성취도	전체	673 7.9%	1,016 11.9%	1,772 20.7%	2,010 23.5%	3,078 36.0%	8,549 100.0%	-
	남	353 8.2%	462 10.8%	873 20.4%	1,040 24.3%	1,552 36.3%	4,280 100.0%	12.974***
	여	320 7.5%	554 13.0%	899 21.1%	970 22.7%	1,526 35.7%	4,269 100.0%	
사회 학업 성취도	전체	769 9.0%	1,013 11.8%	1,770 20.7%	1,837 21.5%	3,160 37.0%	8,549 100.0%	-
	남	412 9.6%	474 11.1%	897 21.0%	935 21.8%	1,562 36.5%	4,280 100.0%	9.419***
	여	357 8.4%	539 12.6%	873 20.4%	902 21.1%	1,598 37.4%	4,269 100.0%	

*** $p < .001$

- 중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성별 t 검정 결과는 <표 3-91>과 같음.
- 중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4.01(SD=1.0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90(SD=1.12)이고, 여학생 평균은 4.12(SD=1.01)로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9(SD=1.3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70(SD=1.34)이고, 여학생 평균은 3.47(SD=1.39)로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9(SD=1.31)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89(SD=1.32)이고, 여학생 평균은 3.90(SD=1.30)으로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8(SD=1.28)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70(SD=1.28)이고, 여학생 평균은 3.66(SD=1.28)으로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6(SD=1.32)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5(SD=1.33)이고, 여학생 평균은 3.67(SD=1.31)로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1〉 중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t 검정 결과

N=8,549

항목	중학생	N	M	SD	t
국어 학업 성취도	전체	8,549	4.01	1.07	-
	남	4,280	3.90	1.12	-9.46***
	여	4,269	4.12	1.01	
수학 학업 성취도	전체	8,549	3.59	1.37	-
	남	4,280	3.70	1.34	7.63***
	여	4,269	3.47	1.39	
영어 학업 성취도	전체	8,549	3.89	1.31	-
	남	4,280	3.89	1.32	-0.49***
	여	4,269	3.90	1.30	
과학 학업 성취도	전체	8,549	3.68	1.28	-
	남	4,280	3.70	1.28	1.18***
	여	4,269	3.66	1.28	
사회 학업 성취도	전체	8,549	3.66	1.32	-
	남	4,280	3.65	1.33	-0.75***
	여	4,269	3.67	1.31	

*** $p < .001$

다. 고등학생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 고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92>와 같음.
- 고등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A(30.9%), C(26.4%), B(25.4%), D(12.2%), E(5.1%)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7.2%(A 33.0%, B 24.2%), C 25.1%, 부정응답 17.7%(D 12.3%, E 5.4%)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5.4%(A 28.8%, B 26.6%), C 27.7%, 부정응답 16.9%(D 12.1%, E 4.8%)로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A(26.4%), C(23.5%), B(21.8%), D(15.9%), E(12.4%)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3.2%(A 30.9%, B 22.3%), C 22.4%, 부정응답 24.4%(D 13.7%, E 10.7%)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3.3%(A 22.0%, B 21.3%), C 24.6%, 부정응답 32.1%(D 18.0%, E 14.1%)로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A(28.5%), C(26.1%), B(20.4%), D(15.1%), E(9.9%)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0.3%(A 31.1%, B 19.2%), C 25.3%, 부정응답 24.3%(D 14.7%, E 9.6%)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7.5%(A 25.9%, B 21.6%), C 26.8%, 부정응답 25.7%(D 15.6%, E 10.1%)로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A(26.3%), C(24.7%), B(19.9%), D(14.8%), E(14.2%)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9.3%(A 29.5%, B 19.8%), C 23.1%, 부정응답 27.6%(D 13.3%, E 14.3%)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3.2%(A 23.2%, B 20.0%), C 26.4%, 부정응답 30.5%(D 16.3%, E 14.2%)로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은 A(32.7%), C(25.3%), B(22.1%), D(10.3%), E(9.6%)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5.0%(A 35.0%, B 20.0%), C 23.0%, 부정응답 22.0%(D 9.7%, E 12.3%)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4.5%(A 30.4%, B 24.1%), C 27.6%, 부정응답 17.9%(D 10.9%, E 7.0%)로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2〉 고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교차분석 결과

N=4,083

항목	고등학생	E	D	C	B	A	계	χ^2
국어 학업 성취도	전체	208 5.1%	498 12.2%	1,079 26.4%	1,038 25.4%	1,260 30.9%	4,083 100.0%	-
	남	109 5.4%	248 12.3%	507 25.1%	490 24.2%	667 33.0%	2,021 100.0%	11.581***
	여	99 4.8%	250 12.1%	572 27.7%	548 26.6%	593 28.8%	2,062 100.0%	
수학 학업 성취도	전체	507 12.4%	648 15.9%	960 23.5%	889 21.8%	1,079 26.4%	4,083 100.0%	-
	남	216 10.7%	277 13.7%	453 22.4%	450 22.3%	625 30.9%	2,021 100.0%	54.598***
	여	291 14.1%	371 18.0%	507 24.6%	439 21.3%	454 22.0%	2,062 100.0%	
영어 학업 성취도	전체	403 9.9%	618 15.1%	1,064 26.1%	834 20.4%	1,164 28.5%	4,083 100.0%	-
	남	195 9.6%	297 14.7%	511 25.3%	389 19.2%	629 31.1%	2,021 100.0%	13.950***
	여	208 10.1%	321 15.6%	553 26.8%	445 21.6%	535 25.9%	2,062 100.0%	
과학 학업 성취도	전체	581 14.2%	604 14.8%	1,010 24.7%	813 19.9%	1,075 26.3%	4,083 100.0%	-
	남	289 14.3%	268 13.3%	466 23.1%	401 19.8%	597 29.5%	2,021 100.0%	26.608***
	여	292 14.2%	336 16.3%	544 26.4%	412 20.0%	478 23.2%	2,062 100.0%	
사회 학업 성취도	전체	393 9.6%	420 10.3%	1,034 25.3%	902 22.1%	1,334 32.7%	4,083 100.0%	-
	남	248 12.3%	196 9.7%	465 23.0%	405 20.0%	707 35.0%	2,021 100.0%	53.097***
	여	145 7.0%	224 10.9%	569 27.6%	497 24.1%	627 30.4%	2,062 100.0%	

*** $p < .001$

- 고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성별 t 검정 결과는 <표 3-93>과 같음.
- 고등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5(SD=1.18)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7(SD=1.20)이고, 여학생 평균은 3.62(SD=1.16)로 국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4(SD=1.35)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49(SD=1.34)이고, 여학생 평균은 3.19(SD=1.34)로 수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3(SD=1.31)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48(SD=1.32)이고, 여학생 평균은 3.38(SD=1.29)로 영어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29(SD=1.3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37(SD=1.40)이고, 여학생 평균은 3.22(SD=1.35)로 과학 학업성취도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8(SD=1.30)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56(SD=1.37)이고, 여학생 평균은 3.60(SD=1.22)으로 사회 학업성취도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3〉 고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t 검정 결과

N=4,083

항목	고등학생	N	M	SD	t
국어 학업 성취도	전체	4,083	3.65	1.18	-
	남	2,021	3.67	1.20	1.31***
	여	2,062	3.62	1.16	
수학 학업 성취도	전체	4,083	3.34	1.35	-
	남	2,021	3.49	1.34	7.14***
	여	2,062	3.19	1.34	
영어 학업 성취도	전체	4,083	3.43	1.31	-
	남	2,021	3.48	1.32	2.39***
	여	2,062	3.38	1.29	
과학 학업 성취도	전체	4,083	3.29	1.37	-
	남	2,021	3.37	1.40	3.57***
	여	2,062	3.22	1.35	
사회 학업 성취도	전체	4,083	3.58	1.30	-
	남	2,021	3.56	1.37	-1.04***
	여	2,062	3.60	1.22	

*** $p < .001$

- 학생의 학업성취도 인식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교과로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급 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국어와 영어에서는 여학생이,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은 성취도 인식을 보이며, 사회 교과는 초등에서는 남학생,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잘한다고 인식하였음.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학업성취도 인식을 보이지만, 사회 교과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남. 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과목별 성별 우위 경향이 강화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 계열 구분과 입시 경쟁의 영향으로 성별에 따른 학업 선택과 성취 격차가 뚜렷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됨. 또한 초등학교 단계부터 여학생은 언어 교과에서, 남학생은 수리·탐구 교과에서 자신이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학업 자신감 형성에 성별 고정관념이 조기에 내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 인식의 성별 차이가 단순한 점수 격차를 넘어, 사회적 성 역할 기대와 교육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줌.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정 교과에 대한 성별 우위 인식이 강화되며,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수학에서 여학생의 자신감 저하가 두드러지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주요 교과 전반에서 남학생의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남. 이는 여학생이 진로와 입시에 대한 부담 속에서 학업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을 시사함.
-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성 중립적 교수법을 적용하여 남학생의 언어 능력과 여학생의 과학·수학 탐구 역량을 균형 있게 신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여학생의 수학·과학 학습 흥미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 학습, 실생활 연계 문제 해결 중심 수업 등 다양한 교수 전략이 요구됨. 또한 여학생의 학업 자신감과 진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성공적인 여성 롤모델과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진학 지도 전략이 필요함.

2. 교과별 수업이해도

가. 초등학교 교과별 수업이해도

○ 초등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수업이해도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94>와 같음.

○ 초등학교의 국어 수업이해도는 높은 편(41.1%), 매우 높은 편(31.9%), 보통(23.3%), 낮은 편(2.8%), 아주 낮은 편(1.0%)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8.2%(매우 높은 편 29.5%, 높은 편 38.7%), 보통 26.7%, 부정응답 5.1%(낮은 편 3.7%, 아주 낮은 편 1.4%)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78.1%(매우 높은 편 34.4%, 높은 편 43.7%), 보통 19.7%, 부정응답 2.2%(낮은 편 1.7%, 아주 낮은 편 0.5%)로 국어 수업이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교의 수학 수업이해도는 매우 높은 편(41.5%), 높은 편(29.0%), 보통(19.8%), 낮은 편(7.0%), 아주 낮은 편(2.8%)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72.8%(매우 높은 편 46.6%, 높은 편 26.2%), 보통 18.9%, 부정응답 8.2%(낮은 편 5.4%, 아주 낮은 편 2.8%)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7.8%(매우 높은 편 35.9%, 높은 편 31.9%), 보통 20.8%, 부정응답 11.3%(낮은 편 8.6%, 아주 낮은 편 2.7%)로 수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교의 영어 수업이해도는 매우 높은 편(40.7%), 높은 편(27.7%), 보통(21.2%), 낮은 편(7.4%), 아주 낮은 편(3.1%)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6.1%(매우 높은 편 40.1%, 높은 편 26.0%), 보통 22.2%, 부정응답 11.7%(낮은 편 7.9%, 아주 낮은 편 3.8%)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70.7%(매우 높은 편 41.2%, 높은 편 29.5%), 보통 20.0%, 부정응답 9.3%(낮은 편 6.9%, 아주 낮은 편 2.4%)로 영어 수업이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교의 과학 수업이해도는 높은 편(34.3%), 보통(30.3%), 매우 높은 편(27.6%), 낮은 편(6.2%), 아주 낮은 편(1.5%)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4.0%(매우 높은 편 32.1%, 높은 편 31.9%), 보통 28.4%, 부정응답 7.7%(낮은 편 5.9%, 아주 낮은 편 1.8%)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9.7%(매우 높은 편 22.8%, 높은 편 36.9%), 보통 32.5%, 부정응답 7.7%(낮은 편 6.6%, 아주 낮은 편 1.1%)로 과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교의 **사회 수업이해도**는 높은 편(30.2%), 보통(35.4%), 매우 높은 편(22.0%), 낮은 편(9.6%), 아주 낮은 편(2.8%)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4.5%(매우 높은 편 25.5%, 높은 편 29.0%), 보통 34.1%, 부정응답 11.4%(낮은 편 8.5%, 아주 낮은 편 2.9%)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9.8%(매우 높은 편 18.4%, 높은 편 31.4%), 보통 36.9%, 부정응답 13.4%(낮은 편 10.7%, 아주 낮은 편 2.7%)로 사회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4〉 초등학교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교차분석 결과

N=9,817

항목	초등학교	아주 낮은 편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	χ^2
국어 수업 이해도	전체	95 1.0%	270 2.8%	2,292 23.3%	4,033 41.1%	3,127 31.9%	9,817 100.0%	-
		71 1.4%	190 3.7%	1,358 26.7%	1,966 38.7%	1,501 29.5%	5,086 100.0%	
	남	24 0.5%	80 1.7%	934 19.7%	2,067 43.7%	1,626 34.4%	4,731 100.0%	141.377***
수학 수업 이해도	전체	274 2.8%	683 7.0%	1,945 19.8%	2,844 29.0%	4,071 41.5%	9,817 100.0%	-
		144 2.8%	274 5.4%	962 18.9%	1,335 26.2%	2,371 46.6%	5,086 100.0%	
	남	130 2.7%	409 8.6%	983 20.8%	1,509 31.9%	1,700 35.9%	4,731 100.0%	136.209***
영어 수업 이해도	전체	304 3.1%	726 7.4%	2,079 21.2%	2,717 27.7%	3,991 40.7%	9,817 100.0%	-
		192 3.8%	401 7.9%	1,131 22.2%	1,322 26.0%	2,040 40.1%	5,086 100.0%	
	남	112 2.4%	325 6.9%	948 20.0%	1,395 29.5%	1,951 41.2%	4,731 100.0%	36.273***
과학 수업 이해도	전체	146 1.5%	610 6.2%	2,979 30.3%	3,371 34.3%	2,711 27.6%	9,817 100.0%	-
		92 1.8%	298 5.9%	1,442 28.4%	1,623 31.9%	1,631 32.1%	5,086 100.0%	
	남	54 1.1%	312 6.6%	1,537 32.5%	1,748 36.9%	1,080 22.8%	4,731 100.0%	117.181***
사회 수업 이해도	전체	274 2.8%	938 9.6%	3,478 35.4%	2,963 30.2%	2,164 22.0%	9,817 100.0%	-
		148 2.9%	433 8.5%	1,733 34.1%	1,477 29.0%	1,295 25.5%	5,086 100.0%	
	남	126 2.7%	505 10.7%	1,745 36.9%	1,486 31.4%	869 18.4%	4,731 100.0%	78.488***

*** $p < .001$

-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수업이해도에 대한 성별 t 검정 결과는 <표 3-95>와 같음.
- 초등학생의 국어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4.00(SD=0.87)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91(SD=0.91)이고, 여학생 평균은 4.10(SD=0.80)으로 국어 수업이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수학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9(SD=1.0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4.08(SD=1.06)이고, 여학생 평균은 3.90(SD=1.07)으로 수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영어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5(SD=1.09)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91(SD=1.13)이고, 여학생 평균은 4.00(SD=1.05)으로 영어 수업이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과학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0(SD=0.96)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87(SD=0.99)이고, 여학생 평균은 3.74(SD=0.92)로 과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사회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9(SD=1.02)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6(SD=1.04)이고, 여학생 평균은 3.52(SD=1.00)로 사회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5〉 초등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t 검정 결과

N=9,817

항목	초등학생	N	M	SD	t
국어 수업 이해도	전체	9,817	4.00	0.87	-
	남	5,086	3.91	0.91	-10.73***
	여	4,731	4.10	0.80	
수학 수업 이해도	전체	9,817	3.99	1.07	-
	남	5,086	4.08	1.06	8.75***
	여	4,731	3.90	1.07	
영어 수업 이해도	전체	9,817	3.95	1.09	-
	남	5,086	3.91	1.13	-4.36***
	여	4,731	4.00	1.05	
과학 수업 이해도	전체	9,817	3.80	0.96	-
	남	5,086	3.87	0.99	6.65***
	여	4,731	3.74	0.92	
사회 수업 이해도	전체	9,817	3.59	1.02	-
	남	5,086	3.66	1.04	6.57***
	여	4,731	3.52	1.00	

*** $p < .001$

나. 중학생 교과별 수업이해도

- 중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수업이해도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96>과 같음.
- 중학생의 국어 수업이해도는 높은 편(36.3%), 보통(32.6%), 매우 높은 편(22.9%), 낮은 편(5.8%), 아주 낮은 편(2.4%)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7.1%(매우 높은 편 23.2%, 높은 편 33.9%), 보통 33.3%, 부정응답 9.6%(낮은 편 6.5%, 아주 낮은 편 3.1%)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61.5%(매우 높은 편 22.7%, 높은 편 38.8%), 보통 31.8%, 부정응답 6.7%(낮은 편 5.1%, 아주 낮은 편 1.6%)로 국어 수업이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수학 수업이해도는 보통(26.4%), 매우 높은 편(25.1%), 높은 편(24.1%), 낮은 편(14.9%), 아주 낮은 편(9.5%)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3.9%(매우 높은 편 30.7%, 높은 편 23.2%), 보통 25.2%, 부정응답 20.9%(낮은 편 12.6%, 아주 낮은 편 8.3%)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4.3%(매우 높은 편 19.4%, 높은 편 24.9%), 보통 27.7%, 부정응답 28.0%(낮은 편 17.3%, 아주 낮은 편 10.7%)로 수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영어 수업이해도는 매우 높은 편(28.8%), 높은 편(27.1%), 보통(24.9%), 낮은 편(11.7%), 아주 낮은 편(7.5%)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7.2%(매우 높은 편 31.8%, 높은 편 25.4%), 보통 23.4%, 부정응답 19.4%(낮은 편 11.4%, 아주 낮은 편 8.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4.7%(매우 높은 편 25.9%, 높은 편 28.8%), 보통 26.4%, 부정응답 18.9%(낮은 편 11.9%, 아주 낮은 편 7.0%)로 영어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과학 수업이해도는 높은 편(25.3%), 보통(34.2%), 매우 높은 편(18.8%), 낮은 편(15.3%), 아주 낮은 편(6.4%)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8.5%(매우 높은 편 23.2%, 높은 편 25.3%), 보통 32.9%, 부정응답 18.5%(낮은 편 12.5%, 아주 낮은 편 6.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9.8%(매우 높은 편 14.4%, 높은 편 25.4%), 보통 35.4%, 부정응답 24.8%(낮은 편 18.1%, 아주 낮은 편 6.7%)로 과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사회 수업이해도**는 보통(34.8%), 높은 편(23.7%), 매우 높은 편(19.0%), 낮은 편(14.9%), 아주 낮은 편(7.6%)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5.6%(매우 높은 편 22.4%, 높은 편 23.2%), 보통 33.3%, 부정응답 21.2%(낮은 편 13.4%, 아주 낮은 편 7.8%)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9.9%(매우 높은 편 15.7%, 높은 편 24.2%), 보통 36.3%, 부정응답 23.8%(낮은 편 16.3%, 아주 낮은 편 7.5%)로 사회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6〉 중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교차분석 결과

N=8,549

항목	중학생	아주 낮은 편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	χ^2
국어 수업이해도	전체	202 2.4%	496 5.8%	2,784 32.6%	3,107 36.3%	1,960 22.9%	8,549 100.0%	-
	남	133 3.1%	279 6.5%	1,427 33.3%	1,450 33.9%	991 23.2%	4,280 100.0%	43.811***
	여	69 1.6%	217 5.1%	1,357 31.8%	1,657 38.8%	969 22.7%	4,269 100.0%	
수학 수업이해도	전체	810 9.5%	1,278 14.9%	2,258 26.4%	2,058 24.1%	2,145 25.1%	8,549 100.0%	-
	남	354 8.3%	540 12.6%	1,077 25.2%	993 23.2%	1,316 30.7%	4,280 100.0%	161.384***
	여	456 10.7%	738 17.3%	1,181 27.7%	1,065 24.9%	829 19.4%	4,269 100.0%	
영어 수업이해도	전체	642 7.5%	996 11.7%	2,130 24.9%	2,315 27.1%	2,466 28.8%	8,549 100.0%	-
	남	344 8.0%	489 11.4%	1,003 23.4%	1,085 25.4%	1,359 31.8%	4,280 100.0%	45.660***
	여	298 7.0%	507 11.9%	1,127 26.4%	1,230 28.8%	1,107 25.9%	4,269 100.0%	
과학 수업이해도	전체	544 6.4%	1,310 15.3%	2,921 34.2%	2,166 25.3%	1,608 18.8%	8,549 100.0%	-
	남	256 6.0%	537 12.5%	1,409 32.9%	1,083 25.3%	995 23.2%	4,280 100.0%	138.765***
	여	288 6.7%	773 18.1%	1,512 35.4%	1,083 25.4%	613 14.4%	4,269 100.0%	
사회 수업이해도	전체	653 7.6%	1,270 14.9%	2,975 34.8%	2,024 23.7%	1,627 19.0%	8,549 100.0%	-
	남	332 7.8%	573 13.4%	1,424 33.3%	993 23.2%	958 22.4%	4,280 100.0%	69.748***
	여	321 7.5%	697 16.3%	1,551 36.3%	1,031 24.2%	669 15.7%	4,269 100.0%	

*** $p < .001$

- 중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수업이해도에 대한 성별 t 검정 결과는 <표 3-97>과 같음.
- 중학생의 국어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2(SD=0.9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7(SD=1.00)이고, 여학생 평균은 3.76(SD=0.91)로 국어 수업이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수학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0(SD=1.27)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56(SD=1.27)이고, 여학생 평균은 3.25(SD=1.25)로 수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영어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8(SD=1.2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1(SD=1.26)이고, 여학생 평균은 3.55(SD=1.19)로 영어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과학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5(SD=1.1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47(SD=1.15)이고, 여학생 평균은 3.22(SD=1.11)로 과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사회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2(SD=1.1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39(SD=1.19)이고, 여학생 평균은 3.24(SD=1.13)로 사회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7〉 중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t 검정 결과

N=8,549

항목	중학생	N	M	SD	t
국어 수업 이해도	전체	8,549	3.72	0.96	-
	남	4,280	3.67	1.00	-4.07***
	여	4,269	3.76	0.91	
수학 수업 이해도	전체	8,549	3.40	1.27	11.16***
	남	4,280	3.56	1.27	
	여	4,269	3.25	1.25	
영어 수업 이해도	전체	8,549	3.58	1.23	2.46***
	남	4,280	3.61	1.26	
	여	4,269	3.55	1.19	
과학 수업 이해도	전체	8,549	3.35	1.14	10.15***
	남	4,280	3.47	1.15	
	여	4,269	3.22	1.11	
사회 수업 이해도	전체	8,549	3.32	1.16	5.95***
	남	4,280	3.39	1.19	
	여	4,269	3.24	1.13	

*** $p < .001$

다. 고등학생 교과별 수업이해도

- 고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수업이해도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98>과 같음.
- 고등학생의 국어 수업이해도는 보통(39.3%), 높은 편(33.1%), 매우 높은 편(16.7%), 낮은 편(7.5%), 아주 낮은 편(3.5%)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9.5%(매우 높은 편 19.4%, 높은 편 30.1%), 보통 37.7%, 부정응답 12.8%(낮은 편 8.4%, 아주 낮은 편 4.4%)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9.9%(매우 높은 편 13.9%, 높은 편 36.0%), 보통 40.8%, 부정응답 9.2%(낮은 편 6.6%, 아주 낮은 편 2.6%)로 국어 수업이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수학 수업이해도는 보통(32.6%), 높은 편(21.9%), 낮은 편(18.4%), 매우 높은 편(13.6%), 아주 낮은 편(13.5%)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39.6%(매우 높은 편 17.5%, 높은 편 22.1%), 보통 32.1%, 부정응답 28.4%(낮은 편 16.7%, 아주 낮은 편 11.7%)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1.5%(매우 높은 편 9.8%, 높은 편 21.7%), 보통 33.2%, 부정응답 35.3%(낮은 편 20.0%, 아주 낮은 편 15.3%)로 수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영어 수업이해도는 보통(35.1%), 높은 편(24.5%), 낮은 편(15.4%), 매우 높은 편(14.5%), 아주 낮은 편(10.4%)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0.1%(매우 높은 편 16.8%, 높은 편 23.3%), 보통 33.7%, 부정응답 26.1%(낮은 편 15.0%, 아주 낮은 편 11.1%)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8.0%(매우 높은 편 12.3%, 높은 편 25.7%), 보통 36.5%, 부정응답 25.6%(낮은 편 15.9%, 아주 낮은 편 9.7%)로 영어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과학 수업이해도는 보통(37.9%), 높은 편(21.0%), 낮은 편(14.9%), 아주 낮은 편(13.9%), 매우 높은 편(12.3%)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37.5%(매우 높은 편 16.4%, 높은 편 21.1%), 보통 34.5%, 부정응답 28.0%(낮은 편 14.0%, 아주 낮은 편 14.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29.3%(매우 높은 편 8.4%, 높은 편 20.9%), 보통 41.3%, 부정응답 29.5%(낮은 편 15.7%, 아주 낮은 편 13.8%)로 과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사회 수업이해도**는 보통(41.0%), 높은 편(26.1%), 매우 높은 편(17.2%), 낮은 편(8.2%), 아주 낮은 편(7.6%)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2.0%(매우 높은 편 19.8%, 높은 편 22.2%), 보통 38.6%, 부정응답 19.4%(낮은 편 8.8%, 아주 낮은 편 10.6%)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4.5%(매우 높은 편 14.6%, 높은 편 29.9%), 보통 43.3%, 부정응답 12.2%(낮은 편 7.6%, 아주 낮은 편 4.6%)로 사회 수업이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8〉 고등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교차분석 결과

N=4,083

항목	고등학생	아주 낮은 편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	χ^2
국어 수업 이해도	전체	142 3.5%	306 7.5%	1,604 39.3%	1,351 33.1%	680 16.7%	4,083 100.0%	-
	남	89 4.4%	169 8.4%	762 37.7%	608 30.1%	393 19.4%	2,021 100.0%	46.070***
	여	53 2.6%	137 6.6%	842 40.8%	743 36.0%	287 13.9%	2,062 100.0%	
수학 수업 이해도	전체	551 13.5%	750 18.4%	1,332 32.6%	895 21.9%	555 13.6%	4,083 100.0%	-
	남	236 11.7%	337 16.7%	648 32.1%	447 22.1%	353 17.5%	2,021 100.0%	60.679***
	여	315 15.3%	413 20.0%	684 33.2%	448 21.7%	202 9.8%	2,062 100.0%	
영어 수업 이해도	전체	424 10.4%	630 15.4%	1,435 35.1%	1,000 24.5%	594 14.5%	4,083 100.0%	-
	남	225 11.1%	303 15.0%	682 33.7%	471 23.3%	340 16.8%	2,021 100.0%	21.427***
	여	199 9.7%	327 15.9%	753 36.5%	529 25.7%	254 12.3%	2,062 100.0%	
과학 수업 이해도	전체	567 13.9%	607 14.9%	1,549 37.9%	856 21.0%	504 12.3%	4,083 100.0%	-
	남	283 14.0%	283 14.0%	698 34.5%	426 21.1%	331 16.4%	2,021 100.0%	67.029***
	여	284 13.8%	324 15.7%	851 41.3%	430 20.9%	173 8.4%	2,062 100.0%	
사회 수업 이해도	전체	309 7.6%	333 8.2%	1,674 41.0%	1,065 26.1%	702 17.2%	4,083 100.0%	-
	남	215 10.6%	177 8.8%	781 38.6%	448 22.2%	400 19.8%	2,021 100.0%	96.296***
	여	94 4.6%	156 7.6%	893 43.3%	617 29.9%	302 14.6%	2,062 100.0%	

*** $p < .001$

- 고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수업이해도에 대한 성별 t 검정 결과는 <표 3-99>와 같음.
- 고등학생의 국어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2(SD=0.9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52(SD=1.03)이고, 여학생 평균은 3.52(SD=0.90)로 국어 수업이해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었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수학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4(SD=1.22)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17(SD=1.24)이고, 여학생 평균은 2.91(SD=1.19)로 수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영어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17(SD=1.1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20(SD=1.21)이고, 여학생 평균은 3.15(SD=1.13)로 영어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과학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3(SD=1.19)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12(SD=1.25)이고, 여학생 평균은 2.94(SD=1.12)로 과학 수업이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사회 수업이해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7(SD=1.09)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32(SD=1.19)이고, 여학생 평균은 3.43(SD=0.98)으로 사회 수업이해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99〉 고등학생의 교과별 수업이해도 t 검정 결과

N=4,083

항목	고등학생	N	M	SD	t
국어 수업 이해도	전체	4,083	3.52	0.97	-
	남	2,021	3.52	1.03	-0.09***
	여	2,062	3.52	0.90	
수학 수업 이해도	전체	4,083	3.04	1.22	-
	남	2,021	3.17	1.24	6.93***
	여	2,062	2.91	1.19	
영어 수업 이해도	전체	4,083	3.17	1.17	-
	남	2,021	3.20	1.21	1.25***
	여	2,062	3.15	1.13	
과학 수업 이해도	전체	4,083	3.03	1.19	-
	남	2,021	3.12	1.25	4.71***
	여	2,062	2.94	1.12	
사회 수업 이해도	전체	4,083	3.37	1.09	-
	남	2,021	3.32	1.19	-3.16***
	여	2,062	3.43	0.98	

*** $p < .001$

-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교과별 수업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단계부터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여학생은 국어와 영어 등 언어 영역에서 높은 이해도를 보이며, 남학생은 수학, 과학, 사회 등 수리·탐구 영역에서 더 높은 이해도를 보임.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에서도 지속되어, 국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에서 남학생의 수업이해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사회 과목에서 여학생의 이해도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인문사회 계열 중심 과목에서 여학생의 학습 적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영역과 이해 방식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학교급에 따라 과목 특성에 따른 성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수업이해도의 성별·학교급별 차이는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교과별 맞춤형 교수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함.
- 수업이해도에 나타난 성별 격차는 단순한 인지적 차이를 넘어, 학습 자신감과 진로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교육 현상으로 해석됨.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교사가 성별에 따른 이해도 차이를 인식하고, 개별화된 피드백과 참여형 수업을 통해 초기 학습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학·과학 교과에서 여학생의 이해도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학습 불안감을 줄이고 개념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수준별 지도, 협력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요구됨.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수학·과학 교과의 전반적인 이해도 수준이 낮게 나타나, 성별과 관계없이 개념 중심 교수법과 탐구 기반 수업 혁신이 필요함. 동시에 여학생의 이공계 진로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학습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진로 연계형 학습 지원과 여성 과학인 멘토링을 강화해야 함. 이처럼 성별과 학교급별 학습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수·학습 지원 체계 구축은 학생 모두의 학습 이해도 향상과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음.

3. 교과별 흥미도

가. 초등학교 교과별 흥미도

○ 초등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흥미도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00>과 같음.

- 초등학교의 국어 흥미도는 보통(34.8%), 높은 편(28.2%), 매우 높은 편(20.1%), 낮은 편(10.8%), 아주 낮은 편(6.0%)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4.3%(매우 높은 편 19.3%, 높은 편 25.0%), 보통 36.0%, 부정응답 19.8%(낮은 편 11.9%, 아주 낮은 편 7.9%)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2.8%(매우 높은 편 21.1%, 높은 편 31.7%), 보통 33.5%, 부정응답 13.7%(낮은 편 9.7%, 아주 낮은 편 4.0%)으로 국어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교의 수학 흥미도는 매우 높은 편(29.7%), 보통(24.4%), 높은 편(24.0%), 낮은 편(11.7%), 아주 낮은 편(10.3%)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0.1%(매우 높은 편 36.0%, 높은 편 24.1%), 보통 21.9%, 부정응답 18.0%(낮은 편 8.8%, 아주 낮은 편 9.2%)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6.6%(매우 높은 편 22.8%, 높은 편 23.8%), 보통 27.1%, 부정응답 26.4%(낮은 편 14.8%, 아주 낮은 편 11.6%)로 수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교의 영어 흥미도는 매우 높은 편(29.4%), 높은 편(27.3%), 보통(25.6%), 낮은 편(9.8%), 아주 낮은 편(8.0%)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6.1%(매우 높은 편 30.3%, 높은 편 25.8%), 보통 25.0%, 부정응답 18.9%(낮은 편 9.7%, 아주 낮은 편 9.2%)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57.3%(매우 높은 편 28.5%, 높은 편 28.8%), 보통 26.1%, 부정응답 16.6%(낮은 편 9.9%, 아주 낮은 편 6.7%)로 영어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교의 과학 흥미도는 보통(30.0%), 매우 높은 편(27.3%), 높은 편(26.6%), 낮은 편(10.0%), 아주 낮은 편(6.1%)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60.0%(매우 높은 편 34.5%, 높은 편 25.5%), 보통 26.5%, 부정응답 13.5%(낮은 편 7.2%, 아주 낮은 편 6.3%)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7.2%(매우 높은 편 19.5%, 높은 편 27.7%), 보통 33.9%, 부정응답 18.9%(낮은 편 13.0%, 아주 낮은 편 5.9%)로 과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교의 **사회 흥미도**는 보통(35.4%), 높은 편(20.7%), 매우 높은 편(16.4%), 낮은 편(16.0%), 아주 낮은 편(11.5%)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1.0%(매우 높은 편 20.0%, 높은 편 21.0%), 보통 34.2%, 부정응답 24.7%(낮은 편 13.9%, 아주 낮은 편 10.8%) 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2.9%(매우 높은 편 12.4%, 높은 편 20.5%), 보통 36.7%, 부정응답 30.4%(낮은 편 18.1%, 아주 낮은 편 12.3%)로 사회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 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00〉 초등학교의 교과별 흥미도 교차분석 결과

N=9,817

항목	초등학교	아주 낮은 편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	χ^2
국어 흥미도	전체	591 6.0%	1,063 10.8%	3,415 34.8%	2,770 28.2%	1,978 20.1%	9,817 100.0%	-
	남	400 7.9%	604 11.9%	1,829 36.0%	1,272 25.0%	981 19.3%	5,086 100.0%	116.864***
	여	191 4.0%	459 9.7%	1,586 33.5%	1,498 31.7%	997 21.1%	4,731 100.0%	
수학 흥미도	전체	1,015 10.3%	1,145 11.7%	2,393 24.4%	2,352 24.0%	2,912 29.7%	9,817 100.0%	-
	남	468 9.2%	447 8.8%	1,112 21.9%	1,226 24.1%	1,833 36.0%	5,086 100.0%	260.093***
	여	547 11.6%	698 14.8%	1,281 27.1%	1,126 23.8%	1,079 22.8%	4,731 100.0%	
영어 흥미도	전체	786 8.0%	960 9.8%	2,509 25.6%	2,676 27.3%	2,886 29.4%	9,817 100.0%	-
	남	469 9.2%	493 9.7%	1,272 25.0%	1,312 25.8%	1,540 30.3%	5,086 100.0%	31.842***
	여	317 6.7%	467 9.9%	1,237 26.1%	1,364 28.8%	1,346 28.5%	4,731 100.0%	
과학 흥미도	전체	600 6.1%	981 10.0%	2,950 30.0%	2,609 26.6%	2,677 27.3%	9,817 100.0%	-
	남	319 6.3%	367 7.2%	1,347 26.5%	1,298 25.5%	1,755 34.5%	5,086 100.0%	333.681***
	여	281 5.9%	614 13.0%	1,603 33.9%	1,311 27.7%	922 19.5%	4,731 100.0%	
사회 흥미도	전체	1,129 11.5%	1,566 16.0%	3,478 35.4%	2,037 20.7%	1,607 16.4%	9,817 100.0%	-
	남	548 10.8%	709 13.9%	1,741 34.2%	1,069 21.0%	1,019 20.0%	5,086 100.0%	122.882***
	여	581 12.3%	857 18.1%	1,737 36.7%	968 20.5%	588 12.4%	4,731 100.0%	

*** $p < .001$

-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흥미도에 대한 성별 t 검정 결과는 〈표 3-101〉과 같음.
- 초등학생의 국어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6(SD=1.11)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36(SD=1.15)이고, 여학생 평균은 3.56(SD=1.05)로 국어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수학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1(SD=1.31)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9(SD=1.29)이고, 여학생 평균은 3.32(SD=1.29)로 수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영어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0(SD=1.23)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58(SD=1.26)이고, 여학생 평균은 3.62(SD=1.18)로 영어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과학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9(SD=1.1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75(SD=1.18)이고, 여학생 평균은 3.42(SD=1.12)로 과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초등학생의 사회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15(SD=1.21)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26(SD=1.23)이고, 여학생 평균은 3.03(SD=1.17)로 사회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01〉 초등학교의 교과별 흥미도 t 검정 결과

N=9,817

항목	초등학생	N	M	SD	t
국어 흥미도	전체	9,817	3.46	1.11	-
	남	5,086	3.36	1.15	-9.02***
	여	4,731	3.56	1.05	
수학 흥미도	전체	9,817	3.51	1.30	-
	남	5,086	3.69	1.29	14.38***
	여	4,731	3.32	1.29	
영어 흥미도	전체	9,817	3.60	1.23	-
	남	5,086	3.58	1.26	-1.72***
	여	4,731	3.62	1.18	
과학 흥미도	전체	9,817	3.59	1.16	-
	남	5,086	3.75	1.18	14.19***
	여	4,731	3.42	1.12	
사회 흥미도	전체	9,817	3.15	1.21	-
	남	5,086	3.26	1.23	9.46***
	여	4,731	3.03	1.17	

*** $p < .001$

나. 중학생 교과별 흥미도

○ 중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흥미도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02>와 같음.

○ 중학생의 국어 흥미도는 보통(36.6%), 높은 편(26.0%), 매우 높은 편(17.9%), 낮은 편(12.1%), 아주 낮은 편(7.3%)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0.1%(매우 높은 편 17.6%, 높은 편 22.5%), 보통 38.1%, 부정응답 21.9%(낮은 편 13.2%, 아주 낮은 편 8.7%)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7.8%(매우 높은 편 18.2%, 높은 편 29.6%), 보통 35.2%, 부정응답 17.0%(낮은 편 11.1%, 아주 낮은 편 5.9%)로 국어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수학 흥미도는 보통(28.2%), 높은 편(21.3%), 매우 높은 편(17.4%), 아주 낮은 편(17.1%), 낮은 편(16.0%),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5.0%(매우 높은 편 23.0%, 높은 편 22.0%), 보통 27.9%, 부정응답 27.1%(낮은 편 12.9%, 아주 낮은 편 14.2%)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2.3%(매우 높은 편 11.8%, 높은 편 20.5%), 보통 28.4%, 부정응답 39.2%(낮은 편 19.2%, 아주 낮은 편 20.0%)로 수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영어 흥미도는 보통(31.6%), 높은 편(23.3%), 매우 높은 편(18.2%), 낮은 편(13.7%), 아주 낮은 편(13.1%)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3.2%(매우 높은 편 20.7%, 높은 편 22.5%), 보통 30.8%, 부정응답 26.0%(낮은 편 12.8%, 아주 낮은 편 13.2%)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9.9%(매우 높은 편 15.7%, 높은 편 24.2%), 보통 32.3%, 부정응답 27.8%(낮은 편 14.7%, 아주 낮은 편 13.1%)로 영어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과학 흥미도는 보통(30.1%), 높은 편(23.6%), 매우 높은 편(20.2%), 낮은 편(14.2%), 아주 낮은 편(12.0%)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9.2%(매우 높은 편 25.2%, 높은 편 24.0%), 보통 28.8%, 부정응답 22.0%(낮은 편 11.6%, 아주 낮은 편 10.4%)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8.3%(매우 높은 편 15.1%, 높은 편 23.2%), 보통 31.3%, 부정응답 30.3%(낮은 편 16.7%, 아주 낮은 편 13.6%)로 과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사회 흥미도는 보통(32.9%), 높은 편(20.4%), 매우 높은 편(16.6%), 낮은 편(15.4%), 아주 낮은 편(14.6%)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38.8%(매우 높은 편 19.0%,

높은 편 19.8%), 보통 32.8%, 부정응답 28.4%(낮은 편 13.8%, 아주 낮은 편 14.6%)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5.3%(매우 높은 편 14.2%, 높은 편 21.1%), 보통 33.1%, 부정응답 31.7%(낮은 편 17.1%, 아주 낮은 편 14.6%)로 사회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02〉 중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교차분석 결과

N=8,549

항목	구분	아주 낮은 편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	χ^2
국어 흥미도	전체	625 7.3%	1,037 12.1%	3,133 36.6%	2,223 26.0%	1,531 17.9%	8,549 100.0%	-
	남	371 8.7%	564 13.2%	1,632 38.1%	961 22.5%	752 17.6%	4,280 100.0%	76.584***
	여	254 5.9%	473 11.1%	1,501 35.2%	1,262 29.6%	779 18.2%	4,269 100.0%	
수학 흥미도	전체	1,461 17.1%	1,372 16.0%	2,408 28.2%	1,819 21.3%	1,489 17.4%	8,549 100.0%	-
	남	608 14.2%	551 12.9%	1,195 27.9%	942 22.0%	984 23.0%	4,280 100.0%	250.753***
	여	853 20.0%	821 19.2%	1,213 28.4%	877 20.5%	505 11.8%	4,269 100.0%	
영어 흥미도	전체	1,123 13.1%	1,175 13.7%	2,701 31.6%	1,994 23.3%	1,556 18.2%	8,549 100.0%	-
	남	565 13.2%	549 12.8%	1,320 30.8%	961 22.5%	885 20.7%	4,280 100.0%	38.485***
	여	558 13.1%	626 14.7%	1,381 32.3%	1,033 24.2%	671 15.7%	4,269 100.0%	
과학 흥미도	전체	1,026 12.0%	1,213 14.2%	2,570 30.1%	2,015 23.6%	1,725 20.2%	8,549 100.0%	-
	남	444 10.4%	498 11.6%	1,233 28.8%	1,026 24.0%	1,079 25.2%	4,280 100.0%	170.945***
	여	582 13.6%	715 16.7%	1,337 31.3%	989 23.2%	646 15.1%	4,269 100.0%	
사회 흥미도	전체	1,250 14.6%	1,320 15.4%	2,813 32.9%	1,747 20.4%	1,419 16.6%	8,549 100.0%	-
	남	627 14.6%	589 13.8%	1,402 32.8%	848 19.8%	814 19.0%	4,280 100.0%	47.575***
	여	623 14.6%	731 17.1%	1,411 33.1%	899 21.1%	605 14.2%	4,269 100.0%	

*** $p < .001$

- 중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흥미도에 대한 성별 t 검정 결과는 <표 3-103>과 같음.
- 중학생의 국어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5(SD=1.1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27(SD=1.15)이고, 여학생 평균은 3.43(SD=1.09)로 국어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수학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6(SD=1.32)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27(SD=1.33)이고, 여학생 평균은 2.85(SD=1.28)로 수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영어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20(SD=1.26)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25(SD=1.28)이고, 여학생 평균은 3.15(SD=1.23)로 영어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과학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26(SD=1.26)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42(SD=1.27)이고, 여학생 평균은 3.09(SD=1.24)로 과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중학생의 사회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9(SD=1.2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15(SD=1.29)이고, 여학생 평균은 3.03(SD=1.24)으로 사회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03〉 중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t 검정 결과

N=8,549

구분	중학생	N	M	SD	t
국어 흥미도	전체	8,549	3.35	1.13	-
	남	4,280	3.27	1.15	-6.59***
	여	4,269	3.43	1.09	
수학 흥미도	전체	8,549	3.06	1.32	-
	남	4,280	3.27	1.33	14.75***
	여	4,269	2.85	1.28	
영어 흥미도	전체	8,549	3.20	1.26	-
	남	4,280	3.25	1.28	3.58***
	여	4,269	3.15	1.23	
과학 흥미도	전체	8,549	3.26	1.26	-
	남	4,280	3.42	1.27	12.02***
	여	4,269	3.09	1.24	
사회 흥미도	전체	8,549	3.09	1.26	-
	남	4,280	3.15	1.29	4.28***
	여	4,269	3.03	1.24	

*** $p < .001$

다. 고등학생 교과별 흥미도

- 고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흥미도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04>와 같음.
- 고등학생의 국어 흥미도는 보통(39.1%), 높은 편(27.5%), 매우 높은 편(15.9%), 낮은 편(10.2%), 아주 낮은 편(7.2%)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2.7%(매우 높은 편 17.5%, 높은 편 25.2%), 보통 38.2%, 부정응답 19.1%(낮은 편 11.0%, 아주 낮은 편 8.1%)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4.2%(매우 높은 편 14.4%, 높은 편 29.8%), 보통 40.0%, 부정응답 15.9%(낮은 편 9.5%, 아주 낮은 편 6.4%)로 국어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수학 흥미도는 보통(30.4%), 높은 편(21.2%), 낮은 편(15.7%), 아주 낮은 편(19.0%), 매우 높은 편(13.7%)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0.9%(매우 높은 편 18.2%, 높은 편 22.7%), 보통 30.3%, 부정응답 28.8%(낮은 편 13.6%, 아주 낮은 편 15.2%)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29.2%(매우 높은 편 9.4%, 높은 편 19.8%), 보통 30.5%, 부정응답 40.4%(낮은 편 17.7%, 아주 낮은 편 22.7%)로 수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영어 흥미도는 보통(36.3%), 높은 편(20.7%), 낮은 편(16.7%), 아주 낮은 편(14.9%), 매우 높은 편(11.3%)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34.5%(매우 높은 편 14.0%, 높은 편 20.5%), 보통 35.2%, 부정응답 30.2%(낮은 편 15.3%, 아주 낮은 편 14.9%)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29.6%(매우 높은 편 8.7%, 높은 편 20.9%), 보통 37.4%, 부정응답 32.9%(낮은 편 18.0%, 아주 낮은 편 14.9%)로 영어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과학 흥미도는 보통(29.9%), 높은 편(22.9%), 매우 높은 편(16.4%), 아주 낮은 편(19.1%), 낮은 편(11.6%)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3.6%(매우 높은 편 20.2%, 높은 편 23.4%), 보통 28.3%, 부정응답 28.2%(낮은 편 10.2%, 아주 낮은 편 18.0%)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5.2%(매우 높은 편 12.7%, 높은 편 22.5%), 보통 31.5%, 부정응답 33.3%(낮은 편 13.0%, 아주 낮은 편 20.3%)로 과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사회 흥미도는 보통(36.9%), 높은 편(21.2%), 매우 높은 편(15.8%), 아주 낮은 편

(14.8%), 낮은 편(11.3%) 순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36.1%(매우 높은 편 17.2%, 높은 편 18.9%), 보통 34.8%, 부정응답 29.0%(낮은 편 11.2%, 아주 낮은 편 17.8%)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8.0%(매우 높은 편 14.5%, 높은 편 23.5%), 보통 38.8%, 부정응답 23.2%(낮은 편 11.3%, 아주 낮은 편 11.9%)로 사회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04〉 고등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교차분석 결과

N=4,083

항목	고등학생	아주 낮은 편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	χ^2
국어 교과 흥미도	전체	294 7.2%	417 10.2%	1,598 39.1%	1,124 27.5%	650 15.9%	4,083 100.0%	-
	남	163 8.1%	222 11.0%	773 38.2%	509 25.2%	354 17.5%	2,021 100.0%	21.686***
	여	131 6.4%	195 9.5%	825 40.0%	615 29.8%	296 14.4%	2,062 100.0%	
수학 교과 흥미도	전체	776 19.0%	639 15.7%	1,241 30.4%	867 21.2%	560 13.7%	4,083 100.0%	-
	남	307 15.2%	275 13.6%	613 30.3%	459 22.7%	367 18.2%	2,021 100.0%	103.060***
	여	469 22.7%	364 17.7%	628 30.5%	408 19.8%	193 9.4%	2,062 100.0%	
영어 교과 흥미도	전체	610 14.9%	681 16.7%	1,484 36.3%	846 20.7%	462 11.3%	4,083 100.0%	-
	남	302 14.9%	310 15.3%	712 35.2%	415 20.5%	282 14.0%	2,021 100.0%	30.362***
	여	308 14.9%	371 18.0%	772 37.4%	431 20.9%	180 8.7%	2,062 100.0%	
과학 교과 흥미도	전체	781 19.1%	475 11.6%	1,222 29.9%	936 22.9%	669 16.4%	4,083 100.0%	-
	남	363 18.0%	206 10.2%	572 28.3%	472 23.4%	408 20.2%	2,021 100.0%	49.170***
	여	418 20.3%	269 13.0%	650 31.5%	464 22.5%	261 12.7%	2,062 100.0%	
사회 교과 흥미도	전체	605 14.8%	460 11.3%	1,505 36.9%	867 21.2%	646 15.8%	4,083 100.0%	-
	남	360 17.8%	227 11.2%	704 34.8%	382 18.9%	348 17.2%	2,021 100.0%	43.889***
	여	245 11.9%	233 11.3%	801 38.8%	485 23.5%	298 14.5%	2,062 100.0%	

*** $p < .001$

- 고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흥미도에 대한 성별 t 검정 결과는 <표 3-105>와 같음.
- 고등학생의 **국어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5(SD=1.09)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33(SD=1.13)이고, 여학생 평균은 3.36(SD=1.04)로 국어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수학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2.95(SD=1.29)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15(SD=1.29)이고, 여학생 평균은 2.75(SD=1.26)로 수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영어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2.97(SD=1.19)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03(SD=1.23)이고, 여학생 평균은 2.90(SD=1.15)로 영어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과학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6(SD=1.3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18(SD=1.35)이고, 여학생 평균은 2.94(SD=1.29)로 과학 흥미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고등학생의 **사회 흥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12(SD=1.2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06(SD=1.30)이고, 여학생 평균은 3.17(SD=1.17)로 사회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3-105〉 고등학생의 교과별 흥미도 t 검정 결과

N=4,083

항목	고등학생	N	M	SD	t
국어 흥미도	전체	4,083	3.35	1.09	-
	남	2,021	3.33	1.13	-0.96***
	여	2,062	3.36	1.04	
수학 흥미도	전체	4,083	2.95	1.29	-
	남	2,021	3.15	1.29	9.91***
	여	2,062	2.75	1.26	
영어 흥미도	전체	4,083	2.97	1.19	-
	남	2,021	3.03	1.23	3.41***
	여	2,062	2.90	1.15	
과학 흥미도	전체	4,083	3.06	1.33	-
	남	2,021	3.18	1.35	5.65***
	여	2,062	2.94	1.29	
사회 흥미도	전체	4,083	3.12	1.24	-
	남	2,021	3.06	1.30	-2.80***
	여	2,062	3.17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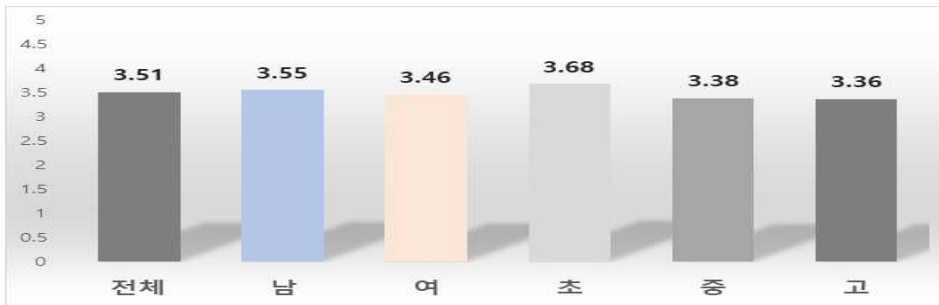
*** $p < .001$

-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교과에 대한 흥미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여학생이 국어와 영어에서, 남학생이 수학·과학·사회에서 더 높은 흥미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중·고등학생도 동일함. 특히 중학생은 수학과 과학에서 여학생의 흥미도가 낮고, 고등학생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흥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양상이 확인됨.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내용의 난이도 상승과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이 학습 흥미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또한 남학생의 수학·과학 중심 흥미가 유지되는 반면, 여학생의 언어·사회 중심 흥미가 강화되는 현상은 사회문화적 성 역할 기대, 학습 경험의 차이, 인지적 선호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이러한 결과는 교과별 흥미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효능감·성취 기대·진로 선택과 밀접히 연결된 교육적 요인임을 시사함.
- 교과별 흥미도의 성별 격차와 학교급별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별 특성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다층적 지원이 필요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초기 흥미를 확장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고, 교사가 성별에 따른 흥미 차이를 인지하여 개별화된 피드백과 동기유발 전략을 적용해야 함.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수학·과학 흥미 저하가 두드러지므로, 여성 과학자 멘토링, 실생활 연계 탐구활동, 협력 학습 등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전반적인 학습 흥미가 저하되는 만큼, 진로와 연계된 심화 탐구 과목 개설, 학생 주도적 연구(R&E) 활동 확대 등으로 학문적 호기심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 나아가 모든 학생이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융합적 사고와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 중립적이고 개별화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4. 사회적 역량

가. 자기주도 역량(자기주도 학습역량 및 자아탄력성)

-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자기주도 학습역량 및 자아탄력성)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06>과 같음.
-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1(SD=0.7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55(SD=0.78)이고, 여학생 평균은 3.46(SD=0.75)으로 자기주도 역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은 3.68(SD=0.75), 중학생 평균은 3.38(SD=0.76), 고등학교 평균은 3.36(SD=0.74)으로 자기주도 역량은 초등학교가 중학생과 고등학교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교는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4]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

<표 3-106>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자기주도 역량	전체	22,449	3.51	0.77	-	-
	남	11,387	3.55	0.78	8.60***	-
	여	11,062	3.46	0.75		
	초	9,817	3.68	0.75	463.31***	초>중, 초>고
	중	8,549	3.38	0.76		
	고	4,083	3.36	0.74		

*** $p < .001$

(1) 자기주도 학습역량

○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07>과 같음.

○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5(SD=0.91)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44(SD=0.92)이고, 여학생 평균은 3.46(SD=0.89)로 자기주도 학습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은 3.56(SD=0.90), 중학생 평균은 3.36(SD=0.91), 고등학교 평균은 3.38(SD=0.87)로 자기주도 학습역량은 초등학교가 중학생과 고등학교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교는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07>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자기주도 학습역량	전체	22,449	3.45	0.91	-	-
	남	11,387	3.44	0.92	-1.68***	-
	여	11,062	3.46	0.89		
	초	9,817	3.56	0.90	128.16***	초>중, 초>고
	중	8,549	3.36	0.91		
	고	4,083	3.38	0.87		

*** $p < .001$

(2) 자아탄력성

○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08>과 같음.

○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7(SD=0.89)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7(SD=0.88)이고, 여학생 평균은 3.47(SD=0.89)로 자아탄력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은 3.81(SD=0.86), 중학생 평균은 3.40(SD=0.89), 고등학교 평균은 3.35(SD=0.86)로 자아탄력성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교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08> 학생의 자아탄력성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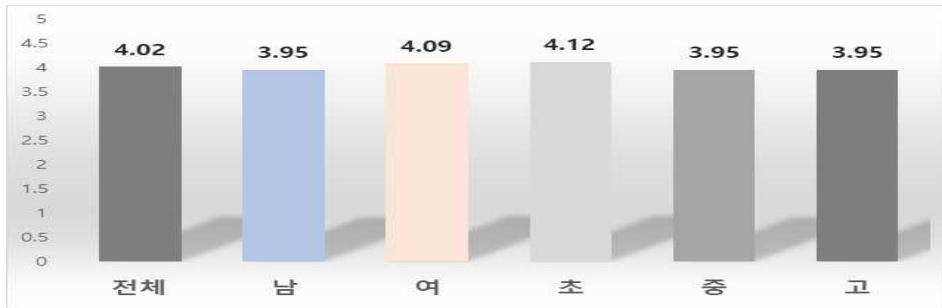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자아 탄력성	전체	22,449	3.57	0.89	-	-
	남	11,387	3.67	0.88	16.55***	-
	여	11,062	3.47	0.89		
	초	9,817	3.81	0.86	655.61***	초>중>고
	중	8,549	3.40	0.89		
	고	4,083	3.35	0.86		

*** $p < .001$

나. 의사소통 역량

-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09>와 같음.
-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전체 평균은 4.02(SD=0.7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95(SD=0.77)이고, 여학생 평균은 4.09(SD=0.70)로 의사소통 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4.12(SD=0.73), 중학생 평균은 3.95(SD=0.74), 고등학생 평균은 3.95(SD=0.73)로 의사소통 역량은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5]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표 3-109>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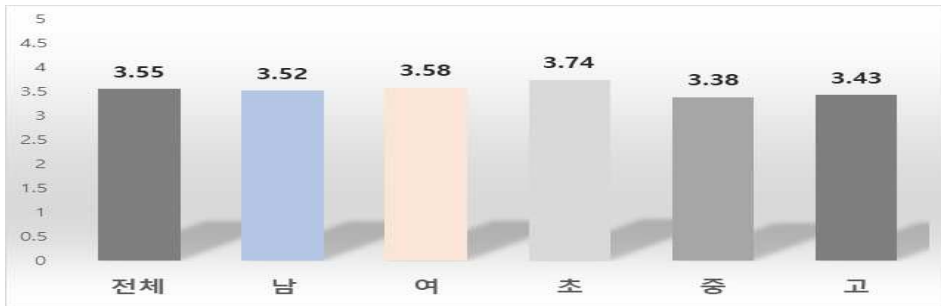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의사소통 역량	전체	22,449	4.02	0.74	-	-
	남	11,387	3.95	0.77	-14.63***	-
	여	11,062	4.09	0.70		
	초	9,817	4.12	0.73	147.29***	초>중, 초>고
	중	8,549	3.95	0.74		
	고	4,083	3.95	0.73		

*** $p < .001$

다. 공동체 의식

- 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0>과 같음.
- 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5(SD=0.85)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52(SD=0.88)이고, 여학생 평균은 3.58(SD=0.82)로 공동체 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3.74(SD=0.84), 중학생 평균은 3.38(SD=0.84), 고등학생 평균은 3.43(SD=0.83)으로 공동체 의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6] 학생의 공동체 의식

<표 3-110> 학생의 공동체 의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공동체 의식	전체	22,449	3.55	0.85	-	-
	남	11,387	3.52	0.88	-5.98***	-
	여	11,062	3.58	0.82		
	초	9,817	3.74	0.84	475.31***	초>고>중
	중	8,549	3.38	0.84		
	고	4,083	3.43	0.83		

*** $p < .001$

-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은 성별과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중·고등학생은 유사하게 낮았음. 초등학생의 높은 자기주도성은 놀이와 탐구 중심의 자율학습 환경 덕분으로 보이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경쟁 중심 교육환경이 자율성과 내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자율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조절 학습훈련, 멘토링, 성찰형 학습일지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자아탄력성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도록 해야 함.
-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짐. 초등학교 시기의 높은 역량은 활발한 또래 관계와 협동학습의 결과로 보이지만,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 중심 수업과 경쟁적 분위기가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따라 남학생을 위한 참여형 활동(토의·토론·역할극 등)을 확대하고, 전 학년에 걸쳐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민주시민 역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고 중학생 시기에 낮아졌다가 고등학생 단계에서 다시 상승하는 V자형 발달 특성을 보였음. 중학교 시기의 개인 중심적 성향은 사춘기와 경쟁 환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의식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발달 단계별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줌. 특히 중학교 시기를 ‘관계교육 집중기’로 설정해 학급자치, 봉사활동, 회복적 생활교육 등을 강화하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협력 프로젝트나 공동 과제 수행 등 실천 중심의 활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높았음. 초등학교 시기의 높은 성숙도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에 기인하지만, 상급학교로 갈수록 입시 부담과 현실적 제약으로 탐색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임. 여학생의 낮은 진로성숙도는 사회적 기대, 정보 접근성 부족, 진로탐색 방식의 차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폭넓은 직업체험과 탐색활동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 이해 기반의 진로탐색 및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특히 여학생의 진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여성 롤모델과의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학교급 간 연계성 있는 진로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5. 미래 역량

가. 진로성숙도

-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1>과 같음.
-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4.02(SD=0.7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4.06(SD=0.75)이고, 여학생 평균은 3.98(SD=0.72)로 진로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은 4.24(SD=0.68), 중학생 평균은 3.85(SD=0.74), 고등학교 평균은 3.84(SD=0.71)로 진로성숙도는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교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7] 학생의 진로성숙도

<표 3-111> 학생의 진로성숙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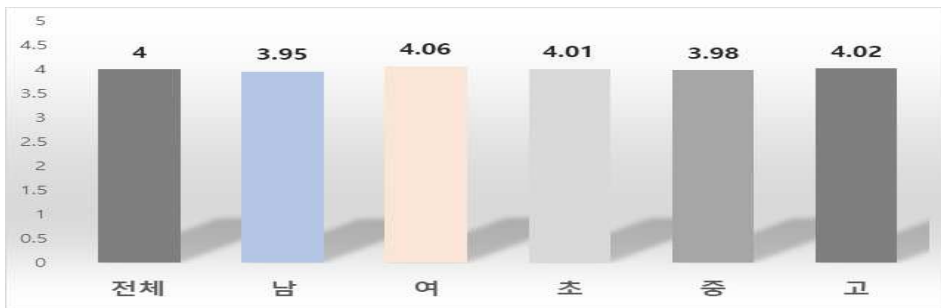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진로 성숙도	전체	22,449	4.02	0.73	-	-
	남	11,387	4.06	0.75	7.78***	-
	여	11,062	3.98	0.72		
	초	9,817	4.24	0.68	859.57***	초>중>고
	중	8,549	3.85	0.74		
	고	4,083	3.84	0.71		

*** $p < .001$

나. 디지털활용 역량

- 학생의 **디지털활용 역량**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2>와 같음.
- 학생의 디지털활용 역량에 대한 전체 평균은 4.00(SD=0.7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95(SD=0.79)이고, 여학생 평균은 4.06(SD=0.72)로 디지털활용 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4.01(SD=0.78), 중학생 평균은 3.98(SD=0.75), 고등학생 평균은 4.02(SD=0.73)로 디지털활용 역량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고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8] 학생의 디지털활용 역량

<표 3-112> 학생의 디지털활용 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디지털활용 역량	전체	22,449	4.00	0.76	-	-
	남	11,387	3.95	0.79	-11.12***	-
	여	11,062	4.06	0.72		
	초	9,817	4.01	0.78	3.89***	초>중
	중	8,549	3.98	0.75		
	고	4,083	4.02	0.73		

*** $p<.001$

다. 생태환경 역량

- 학생의 **생태환경 역량**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3>과 같음.
- 학생의 생태환경 역량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1(SD=0.7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5(SD=0.80)이고, 여학생 평균은 3.77(SD=0.70)로 생태환경 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3.86(SD=0.74), 중학생 평균은 3.58(SD=0.75), 고등학생 평균은 3.64(SD=0.74)로 생태환경 역량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49] 학생의 생태환경 역량

<표 3-113> 학생의 생태환경 역량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생태환경 역량	전체	22,449	3.71	0.76	-	-
	남	11,387	3.65	0.80	-11.91***	-
	여	11,062	3.77	0.70		
	초	9,817	3.86	0.74	349.34***	초>고>중
	중	8,549	3.58	0.75		
	고	4,083	3.64	0.74		

*** $p < .001$

- **학생의 디지털활용 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고,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중학생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초등학생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초등 교육 과정에서의 디지털 교육 효과와 더불어,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경험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풍부해졌음을 의미함. 그러나 고등학생의 역량이 초등학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체된 것은 고등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활용 역량의 성장 정체 또는 평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학습 및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여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려는 교육적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역량의 심화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학교급별 발달 수준과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한 정보기술 사용 교육을 넘어 인공지능(AI),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등 고차원적 디지털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함.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학생의 생태환경 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이어서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나타났음. 여학생의 생태환경 역량이 높은 것은 전통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여성에게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경향과 연관되며,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여학생들이 환경 감수성과 실천적 역량을 기를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초등학생 시기에는 체험 중심의 환경 교육이 흥미와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중학교 단계에서 역량이 가장 낮아지는 것은 환경 교육이 지식 전달에 그치고 학습자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초등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은 심화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교육의 부족을 시사함. 따라서 생태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기후변화·자원순환 등 환경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학생의 강점을 확장하고 남학생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성별 맞춤형 접근과, 중학교 시기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제5절 학생특성

1. 인간관계

가. 친구와의 관계

- 학생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4>와 같음.
- 학생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7(SD=0.8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70(SD=0.85)이고, 여학생 평균은 3.84(SD=0.80)로 친구와의 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3.79(SD=0.85), 중학생 평균은 3.74(SD=0.82), 고등학생 평균은 3.77(SD=0.79)로 친구와의 관계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0] 학생의 친구와의 관계

<표 3-114> 학생의 친구와의 관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친구와의 관계	전체	22,449	3.77	0.83	-	-
	남	11,387	3.70	0.85	-12.79***	-
	여	11,062	3.84	0.80		
	초	9,817	3.79	0.85	8.77***	초>중
	중	8,549	3.74	0.82		
	고	4,083	3.77	0.79		

*** $p < .001$

나. 교사와의 관계

-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담임 선생님 기준)**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5>와 같음.
-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4(SD=0.82)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91(SD=0.84)이고, 여학생 평균은 3.97(SD=0.80)로 교사와의 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4.09(SD=0.82), 중학생 평균은 3.83(SD=0.81), 고등학생 평균은 3.78(SD=0.79)로 교사와의 관계는 초등학생의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1]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표 3-115>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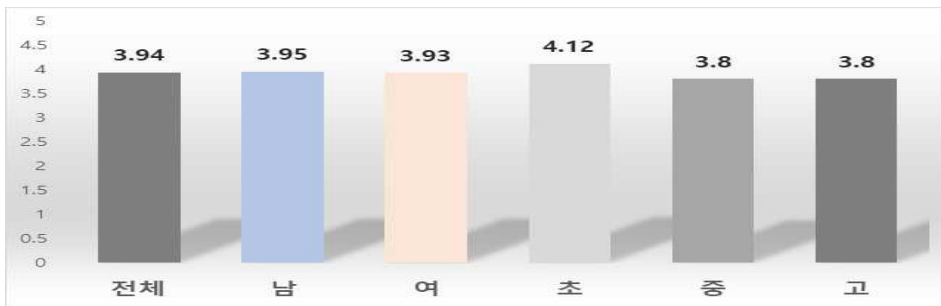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교사와의 관계	전체	22,449	3.94	0.82	-	-
	남	11,387	3.91	0.84	-5.09***	-
	여	11,062	3.97	0.80		
	초	9,817	4.09	0.82	333.84***	초>중>고
	중	8,549	3.83	0.81		
	고	4,083	3.78	0.79		

*** $p < .001$

다. 학부모와의 관계

- 학생의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6>과 같음.
- 학생의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4(SD=0.85)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95(SD=0.84)이고, 여학생 평균은 3.93(SD=0.85)로 학부모와의 관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4.12(SD=0.82), 중학생 평균은 3.80(SD=0.85), 고등학생 평균은 3.80(SD=0.84)으로 학부모와의 관계는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2] 학생의 학부모와의 관계

<표 3-116> 학생의 학부모와의 관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학부모와의 관계	전체	22,449	3.94	0.85	-	-
	남	11,387	3.95	0.84	1.60***	-
	여	11,062	3.93	0.85		
	초	9,817	4.12	0.82	387.13***	초>중, 초>고
	중	8,549	3.80	0.85		
	고	4,083	3.80	0.84		

*** $p < .001$

- 학생의 친구관계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학생은 관계의 질과 정서적 교류를 중시하여 또래 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반면, 남학생은 활동 중심의 교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음. 초등학생이 친구 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나타남. 중학생 시기 사춘기와 또래 갈등으로 가장 낮은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모든 학생이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학급 단위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협력·공감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학생에게는 관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 지원을, 남학생에게는 공감·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적 교육이 요구됨.
-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관계 만족도가 낮아짐. 초등학생은 교사와의 신뢰 관계가 강한 반면, 중·고등학생은 학업 부담과 또래 중심 사회화로 인해 교사와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결과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사-학생 관계가 학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교사는 단순한 학습지도자를 넘어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담 시간을 보장하고, 신뢰 기반의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학생의 보호자 관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생은 낮게 인식하였음. 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율성 욕구가 커지고 또래 관계가 중심이 되면서 학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가 커지는 현상을 반영함. 청소년기에는 통제보다 신뢰와 이해에 기반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므로, 가정에서는 개방적 대화를 강화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관계 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심리 변화를 이해하고 건설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심리·정서

가. 행복감

- 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7>과 같음.
- 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6(SD=0.97)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79(SD=0.96)이고, 여학생 평균은 3.52(SD=0.96)로 행복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3.93(SD=0.94), 중학생 평균은 3.50(SD=0.94), 고등학생 평균은 3.32(SD=0.92)로 행복감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3] 학생의 행복감

<표 3-117> 학생의 행복감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행복감	전체	22,449	3.66	0.97	-	-
	남	11,387	3.79	0.96	20.49***	-
	여	11,062	3.52	0.96		
	초	9,817	3.93	0.94	803.49***	초>중>고
	중	8,549	3.50	0.94		
	고	4,083	3.32	0.92		

*** $p < .001$

나. 자아존중감

-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8>과 같음.
-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1(SD=0.9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90(SD=0.93)이고, 여학생 평균은 3.71(SD=0.94)로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4.04(SD=0.90), 중학생 평균은 3.64(SD=0.94), 고등학생 평균은 3.59(SD=0.92)로 자아존중감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4] 학생의 자아존중감

<표 3-118> 학생의 자아존중감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자아존중감	전체	22,449	3.81	0.94	-	-
	남	11,387	3.90	0.93	14.71***	-
	여	11,062	3.71	0.94		
	초	9,817	4.04	0.90	560.18***	초>중>고
	중	8,549	3.64	0.94		
	고	4,083	3.59	0.92		

*** $p < .001$

다. 학업스트레스

-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19>와 같음.
-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평균은 3.13(SD=1.00)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04(SD=1.01)이고, 여학생 평균은 3.23(SD=0.98)로 학업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2.81(SD=1.02), 중학생 평균은 3.39(SD=0.92), 고등학생 평균은 3.37(SD=0.88)로 학업스트레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5]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표 3-119>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학업 스트레스	전체	22,449	3.13	1.00	-	-
	남	11,387	3.04	1.01	-14.23***	-
	여	11,062	3.23	0.98		
	초	9,817	2.81	1.02	1011.53***	중>초, 고>초
	중	8,549	3.39	0.92		
	고	4,083	3.37	0.88		

*** $p < .001$

- **학생의 행복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낮아졌음.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부담과 입시 경쟁, 또래 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으로 해석됨. 특히 중·고등학생은 자아 정체성 형성과 진로 불안, 사회적 비교로 행복감이 급격히 떨어지기 쉬우며, 여학생의 낮은 행복감은 사회적 기대와 외모 압박, 정서적 민감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따라서 학생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핵심 교육 목표로 삼고, 상담교사 확충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업과 관계의 균형 속에서 긍정적 정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전인적 지원이 필요함.
-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낮아졌음. 여학생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초기 신체 변화, 외모 중심 미디어 노출, 또래 비교 등 사회문화적 요인과 높은 자기기대, 관계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또한 입시 중심의 경쟁 환경은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내적 동기를 약화시켜 긍정적 자아 인식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와 자기수용을 강화하는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음.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 경쟁과 학업 부담이 심화되고,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기대와 높은 자기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중·고등학생 시기의 높은 스트레스는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어져 정신건강과 학업 지속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학교는 경쟁 완화와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며, 특히 여학생의 심리 지원과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제6절 교육경험

1. AI·과학도시 대전교육

가. 대전 과학연구소 교육

- 학생의 대전 과학연구소 견학 경험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20>과 같음.
- 학생의 대전 과학연구소 견학 경험은 없음(90.4%), 1회(4.0%), 2회(2.3%), 4회 이상(2.2%), 3회(1.1%)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없음(88.6%), 1회(4.1%), 4회 이상(3.0%) 등이고, 여학생은 없음(92.2%), 1회(3.8%), 2회(1.8%) 등으로 대덕특구 과학연구소 견학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견학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없음(90.0%), 1회(4.3%), 4회 이상(2.5%) 등이고, 중학생은 없음(91.4%), 1회(3.6%), 2회(2.2%) 등이고, 고등학생은 없음(89.1%), 1회(3.9%), 2회(3.4%) 등으로 대덕특구 과학연구소 견학 경험은 중학생이 견학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0> 학생의 대전 과학연구소 견학 경험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χ^2
대덕특구 과학연구소 견학 경험	전체	20,293 90.4%	895 4.0%	526 2.3%	238 1.1%	497 2.2%	22,449 100.0%	-
	남	10,089 88.6%	472 4.1%	327 2.9%	159 1.4%	340 3.0%	11,387 100.0%	124.077***
	여	10,204 92.2%	423 3.8%	199 1.8%	79 0.7%	157 1.4%	11,062 100.0%	
	초	8,840 90.0%	427 4.3%	201 2.0%	104 1.1%	245 2.5%	9,817 100.0%	50.505***
	중	7,814 91.4%	310 3.6%	185 2.2%	73 0.9%	167 2.0%	8,549 100.0%	
	고	3,639	158	140	61	85	4,083	
		89.1%	3.9%	3.4%	1.5%	2.1%	100.0%	

*** $p < .001$

나. 대전 과학축제 참여 경험

- 학생의 과학축제 참여 경험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21>과 같음.
- 학생의 과학축제 참여 경험은 없음(44.0%), 1회(17.4%), 4회 이상(17.2%), 2회(15.0%), 3회(6.4%)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없음(44.1%), 4회 이상(18.0%), 1회(16.9%) 등이고, 여학생은 없음(43.9%), 1회(17.9%), 4회 이상(16.5%) 등으로 과학축제 참여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없음(36.8%), 4회 이상(22.4%), 1회(16.7%) 등이고, 중학생은 없음(51.6%), 1회(17.5%), 2회(13.0%) 등이고, 고등학생은 없음(45.2%), 1회(18.9%), 2회(16.0%) 등으로 과학축제 참여 경험은 중학생이 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1> 학생의 과학축제 참여 경험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χ^2
과학축제 참여 경험	전체	9,869	3,903	3,369	1,443	3,865	22,449	-
		44.0%	17.4%	15.0%	6.4%	17.2%	100.0%	
	남	5,018	1,921	1,667	736	2,045	11,387	13.122***
		44.1%	16.9%	14.6%	6.5%	18.0%	100.0%	
	여	4,851	1,982	1,702	707	1,820	11,062	13.122***
		43.9%	17.9%	15.4%	6.4%	16.5%	100.0%	
	초	3,612	1,639	1,599	772	2,195	9,817	604.690***
		36.8%	16.7%	16.3%	7.9%	22.4%	100.0%	
	중	4,412	1,492	1,115	421	1,109	8,549	
		51.6%	17.5%	13.0%	4.9%	13.0%	100.0%	
	고	1,845	772	655	250	561	4,083	604.690***
		45.2%	18.9%	16.0%	6.1%	13.7%	100.0%	

*** $p < .001$

다. 대전 실험실습 중심 과학수업 경험

- 학생의 대전 실험실습 중심 과학수업 경험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22>와 같음.
- 학생의 대전 실험실습 중심 과학수업 경험은 없음(66.1%), 1회(12.4%), 4회 이상(9.9%), 2회(8.4%), 3회(3.2%)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없음(64.3%), 1회(12.0%), 4회 이상(11.3%) 등이고, 여학생은 없음(67.9%), 1회(12.9%), 4회 이상(8.5%) 등으로 실험실습 중심 과학수업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없음(62.3%), 1회(13.2%), 4회 이상(12.4%) 등이고, 중학생은 없음(69.8%), 1회(11.7%), 4회 이상(8.3%) 등이고, 고등학생은 없음(67.4%), 1회(12.1%), 4회 이상(7.2%) 등으로 실험실습 중심 과학수업 경험은 중학생이 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2> 학생의 대전 실험실습 중심 과학실험 경험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χ^2
실험실습 중심 과학실험 경험	전체	14,833 66.1%	2,791 12.4%	1,881 8.4%	724 3.2%	2,220 9.9%	22,449 100.0%	-
	남	7,323 64.3%	1,361 12.0%	1,011 8.9%	410 3.6%	1,282 11.3%	11,387 100.0%	75.977***
	여	7,510 67.9%	1,430 12.9%	870 7.9%	314 2.8%	938 8.5%	11,062 100.0%	
	초	6,116 62.3%	1,297 13.2%	828 8.4%	363 3.7%	1,213 12.4%	9,817 100.0%	195.086***
	중	5,965 69.8%	1,000 11.7%	642 7.5%	231 2.7%	711 8.3%	8,549 100.0%	
	고	2,752	494	411	130	296	4,083	
		67.4%	12.1%	10.1%	3.2%	7.2%	100.0%	

*** $p < .001$

라. 대전 AI관련 수업 경험

- 학생의 AI 관련(AI, 로봇, 코딩 등) 수업 경험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23>과 같음.
- 학생의 AI 관련 수업 경험은 없음(63.0%), 1회(15.2%), 4회 이상(9.9%), 2회(8.6%), 3회(3.3%)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없음(59.3%), 1회(15.2%), 4회 이상(12.4%) 등이고, 여학생은 없음(66.7%), 1회(15.2%), 2회(8.1%) 등으로 AI 관련 수업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 경험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없음(58.0%), 1회(15.7%), 4회 이상(13.6%) 등이고, 중학생은 없음(65.4%), 1회(15.1%), 2회(8.5%) 등이고, 고등학생은 없음(69.8%), 1회(14.2%), 2회(7.7%) 등으로 실험실습 중심 과학수업 경험은 고등학생이 참여 경험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3> 학생의 AI 관련 수업 경험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χ^2
AI 관련 수업 경험	전체	14,135	3,414	1,936	735	2,229	22,449	-
		63.0%	15.2%	8.6%	3.3%	9.9%	100.0%	
	남	6,758	1,734	1,039	440	1,416	11,387	225.451***
		59.3%	15.2%	9.1%	3.9%	12.4%	100.0%	
	여	7,377	1,680	897	295	813	11,062	225.451***
		66.7%	15.2%	8.1%	2.7%	7.3%	100.0%	
	초	5,692	1,543	892	356	1,334	9,817	345.170***
		58.0%	15.7%	9.1%	3.6%	13.6%	100.0%	
	중	5,594	1,290	728	271	666	8,549	
		65.4%	15.1%	8.5%	3.2%	7.8%	100.0%	
	고	2,849	581	316	108	229	4,083	345.170***
		69.8%	14.2%	7.7%	2.6%	5.6%	100.0%	

*** $p < .001$

마. 대전 AI관련 전시 경험

- 학생의 AI 관련((AI, 로봇, 코딩 등) 전시 참여 경험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24>와 같음.
- 학생의 AI 관련 전시 참여 경험은 없음(56.4%), 1회(18.6%), 2회(11.2%), 4회 이상(9.7%), 3회(4.1%)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없음(53.5%), 1회(18.4%), 4회 이상(12.3%) 등이고, 여학생은 없음(59.4%), 1회(18.8%), 2회(11.2%) 등으로 AI 관련 전시 참여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없음(48.4%), 1회(19.7%), 4회 이상(13.7%) 등이고, 중학생은 없음(62.1%), 1회(18.1%), 2회(9.9%) 등이고, 고등학생은 없음(63.7%), 1회(17.2%), 2회(10.6%) 등으로 AI 관련 전시 참여 경험은 고등학생이 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4> 학생의 AI 관련 전시 참여 경험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χ^2
AI 관련 전시 참여 경험	전체	12,665	4,176	2,516	920	2,172	22,449	-
		56.4%	18.6%	11.2%	4.1%	9.7%	100.0%	
	남 여	6,092	2,100	1,281	510	1,404	11,387	211.688***
		53.5%	18.4%	11.2%	4.5%	12.3%	100.0%	
		6,573	2,076	1,235	410	768	11,062	
		59.4%	18.8%	11.2%	3.7%	6.9%	100.0%	
	초 중 고	4,753	1,930	1,237	551	1,346	9,817	640.721***
		48.4%	19.7%	12.6%	5.6%	13.7%	100.0%	
		5,311	1,545	847	244	602	8,549	
		62.1%	18.1%	9.9%	2.9%	7.0%	100.0%	
		2,601	701	432	125	224	4,083	
		63.7%	17.2%	10.6%	3.1%	5.5%	100.0%	

*** $p < .001$

바. 대전 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

- 학생의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25>와 같음.
- 학생의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에 대해 긍정응답은 48.6%(매우 그러함 21.5%, 그러함 27.1%)이며, 보통 33.5%, 부정응답은 17.9%(그렇지 않음 5.3%, 전혀 그렇지 않음 12.6%)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50.3%(매우 그러함 24.8%, 그러함 25.5%), 보통 30.4%, 부정응답 19.3%(그렇지 않음 5.1%, 전혀 그렇지 않음 14.2%)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46.9%(매우 그러함 18.1%, 그러함 28.8%), 보통 36.6%, 부정응답 16.5%(그렇지 않음 5.6%, 전혀 그렇지 않음 10.9%)로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생은 긍정응답 60.0%(매우 그러함 32.9%, 그러함 27.1%), 보통 28.3%, 부정응답 11.7%(그렇지 않음 3.9%, 전혀 그렇지 않음 7.8%)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41.5%(매우 그러함 14.3%, 그러함 27.2%), 보통 36.6%, 부정응답 21.9%(그렇지 않음 6.1%, 전혀 그렇지 않음 15.8%),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36.1%(매우 그러함 9.3%, 그러함 26.8%), 보통 39.5%, 부정응답 24.4%(그렇지 않음 7.1%, 전혀 그렇지 않음 17.3%)로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은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5> 학생의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대전 (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	전체	2,818 12.6%	1,199 5.3%	7,517 33.5%	6,084 27.1%	4,831 21.5%	22,449 100.0%	-
	남	1,612 14.2%	578 5.1%	3,466 30.4%	2,903 25.5%	2,828 24.8%	11,387 100.0%	254.501***
	여	1,206 10.9%	621 5.6%	4,051 36.6%	3,181 28.8%	2,003 18.1%	11,062 100.0%	
	초	763 7.8%	386 3.9%	2,778 28.3%	2,659 27.1%	3,231 32.9%	9,817 100.0%	1622.436***
	중	1,350 15.8%	525 6.1%	3,126 36.6%	2,329 27.2%	1,219 14.3%	8,549 100.0%	
	고	705 17.3%	288 7.1%	1,613 39.5%	1,096 26.8%	381 9.3%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26>과 같음.

○ 학생의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0(SD=1.2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42(SD=1.30)이고, 여학생 평균은 3.38(SD=1.17)로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3.73(SD=1.18), 중학생 평균은 3.18(SD=1.23), 고등학생 평균은 3.04(SD=1.18)로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6> 학생의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대전 (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	전체	22,449	3.40	1.24	-	-
	남	11,387	3.42	1.30	2.56***	-
	여	11,062	3.38	1.17		
	초	9,817	3.73	1.18	709.18***	초>중>고
	중	8,549	3.18	1.23		
	고	4,083	3.04	1.18		

*** $p < .001$

사. 대전 과학도시 자부심

○ 학생의 **대전 과학도시 자부심**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27>과 같음.

○ 학생이 인식하는 과학도시 자부심에 대해 긍정응답은 38.7%(매우 그러함 21.2%, 그러함 17.5%)이며, 보통 33.2%, 부정응답은 28.0%(그렇지 않음 12.1%, 전혀 그렇지 않음 15.9%)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긍정응답 42.2%(매우 그러함 24.9%, 그러함 17.3%), 보통 30.3%, 부정응답 27.4%(그렇지 않음 10.5%, 전혀 그렇지 않음 16.9%)이고, 여학생은 긍정응답 35.1%(매우 그러함 17.5%, 그러함 17.6%), 보통 36.2%, 부정응답 28.7%(그렇지 않음 13.8%, 전혀 그렇지 않음 14.9%)로 과학도시 자부심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생은 긍정응답 52.3%(매우 그러함 33.9%, 그러함 18.4%), 보통 27.3%, 부정응답 20.4%(그렇지 않음 8.8%, 전혀 그렇지 않음 11.6%)이고, 중학생은 긍정응답 28.7%(매우 그러함 11.9%, 그러함 16.8%), 보통 36.4%, 부정응답 34.8%(그렇지 않음 15.3%, 전혀 그렇지 않음 19.5%)이고, 고등학생은 긍정응답 26.9%(매우 그러함 10.2%, 그러함 16.7%), 보통 40.9%, 부정응답 32.2%(그렇지 않음 13.5%, 전혀 그렇지 않음 18.7%)로 과학도시 자부심은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7〉 학생의 과학도시 자부심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2
과학도시 자부심	전체	3,574	2,725	7,460	3,920	4,770	22,449	-
		15.9%	12.1%	33.2%	17.5%	21.2%	100.0%	
	남	1,930	1,199	3,451	1,970	2,837	11,387	270.642***
		16.9%	10.5%	30.3%	17.3%	24.9%	100.0%	
	여	1,644	1,526	4,009	1,950	1,933	11,062	
		14.9%	13.8%	36.2%	17.6%	17.5%	100.0%	
	초	1,143	861	2,676	1,805	3,332	9,817	1911.613***
		11.6%	8.8%	27.3%	18.4%	33.9%	100.0%	
	중	1,669	1,311	3,113	1,435	1,021	8,549	
		19.5%	15.3%	36.4%	16.8%	11.9%	100.0%	
	고	762	553	1,671	680	417	4,083	
		18.7%	13.5%	40.9%	16.7%	10.2%	100.0%	

*** $p < .001$

- 학생의 **과학도시 자부심**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28>과 같음.
- 학생의 과학도시 자부심에 대한 전체 평균은 3.16(SD=1.33)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23(SD=1.38)이고, 여학생 평균은 3.09(SD=1.26)로 과학도시 자부심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3.54(SD=1.34), 중학생 평균은 2.86(SD=1.25), 고등학생 평균은 2.86(SD=1.20)으로 과학도시 자부심은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8> 학생의 과학도시 자부심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과학도시 자부심	전체	22,449	3.16	1.33	-	-
	남	11,387	3.23	1.38	7.73***	-
	여	11,062	3.09	1.26		
	초	9,817	3.54	1.34	775.72***	초>중, 초>고
	중	8,549	2.86	1.25		
	고	4,083	2.86	1.20		

*** $p < .001$

- 학생들의 과학교육 경험은 전반적이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교급별 격차가 뚜렷했음. 대덕특구 과학연구소 견학, 과학축제 참여, 실험 중심 과학수업, AI·코딩 관련 수업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경험 없음’ 응답이 많았고, 경험은 초등학교 남학생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는 과학교육 접근성의 불균형과 학교급 상승에 따른 체험학습 기회 감소, 그리고 여학생의 낮은 참여율 등 복합적 요인을 반영함.
- 또한 대전(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과 과학도시 자부심은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음. 초등학생은 과학 활동을 놀이·체험 중심으로 즐기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업 부담과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 과학교육이 지식 전달에 머물고 진로 탐색과의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었음. 특히 여학생의 낮은 참여율은 과학·AI 분야의 성별 편향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잠재적 과학 인재 발굴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 중심 도시인 대전이 보유한 풍부한 과학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이 과학을 단순한 교과가 아닌 생활 속 탐구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기술 도시 대전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과학을 즐기며 미래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과학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영재교육

가. 영재교육 경험 여부

- 학생의 **영재교육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29>와 같음.
2025년 영재교육 참여 경험 여부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2,927(13.0%)건을 분석함.
- 학생의 영재교육 참여 경험은 우리 학교에서 받음(37.9%),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받음(25.5%), 사설 학원에서 받음(20.3%), 대학교에서 받음(16.3%)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받음(35.5%),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받음(27.3%), 사설 학원에서 받음(19.9%) 등이고, 여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받음(41.7%),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받음(22.7%), 사설 학원에서 받음(21.0%) 등으로 영재교육 참여 경험 여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리 학교에서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받음(41.8%), 사설 학원에서 받음(26.1%),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받음(21.4%) 등이고, 중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받음(36.4%),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받음(30.9%), 대학교에서 받음(19.7%) 등이고, 고등학생은 대학교에서 받음(34.3%),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받음(30.0%), 우리 학교에서 받음(22.6%) 등으로 영재교육 참여 경험 여부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우리 학교에서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대학교에서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29> 학생의 영재교육 참여 경험 교차분석 결과

N=2,927

항목		우리 학교에서 받음	대학교에서 받음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받음	사설 학원에서 받음	계	χ^2
영재교육 참여경험	전체	1,108 37.9%	477 16.3%	747 25.5%	595 20.3%	2,927 100.0%	-
	남	641 35.5%	314 17.4%	493 27.3%	360 19.9%	1,808 100.0%	16.586***
	여	467 41.7%	163 14.6%	254 22.7%	235 21.0%	1,119 100.0%	
	초	681 41.8%	174 10.7%	349 21.4%	426 26.1%	1,630 100.0%	215.812***
	중	353 36.4%	191 19.7%	300 30.9%	126 13.0%	970 100.0%	
	고	74 22.6%	112 34.3%	98 30.0%	43 13.1%	327 100.0%	

*** $p < .001$

나. 영재교육 경험 분야

- 학생의 **영재교육 경험 분야**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30>과 같음.
2025년 영재교육 경험 분야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응답을 제외한 2,768(12.3%)건을 분석함.
- 학생의 영재교육 경험 분야는 과학(36.4%), 수학(29.2%), 예술(12.2%), 발명(9.1%), 정보(8.5%), 인문(4.6%)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과학(36.1%), 수학(31.4%), 발명(10.8%) 등이고, 여학생은 과학(36.8%), 수학(25.5%), 예술(20.2%) 등으로 영재교육 경험 분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과학 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과학(35.5%), 수학(34.0%), 예술(13.4%) 등이고, 중학생은 과학(41.0%), 수학(24.2%), 정보(10.8%) 등이고, 고등학생은 과학(27.1%), 정보(21.0%), 수학(17.5%)로 영재교육 경험 분야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과학 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30> 학생의 영재교육 경험분야 교차분석 결과

N=2,768

항목		과학	수학	정보	인문	예술	발명	계	χ^2
영재교육 경험분야	전체	1,007 36.4%	807 29.2%	236 8.5%	128 4.6%	338 12.2%	252 9.1%	2,768 100.0%	-
	남	617 36.1%	537 31.4%	177 10.4%	68 4.0%	124 7.3%	185 10.8%	1,708 100.0%	133.865***
	여	390 36.8%	270 25.5%	59 5.6%	60 5.7%	214 20.2%	67 6.3%	1,060 100.0%	
	초	568 35.5%	544 34.0%	80 5.0%	39 2.4%	215 13.4%	154 9.6%	1,600 100.0%	191.545***
	중	360 41.0%	212 24.2%	95 10.8%	55 6.3%	81 9.2%	74 8.4%	877 100.0%	
	고	79 27.1%	51 17.5%	61 21.0%	34 11.7%	42 14.4%	24 8.2%	291 100.0%	

*** $p < .001$

다.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

- 학생의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31>과 같음. 2025년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1번 응답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2=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려함, 5=매우 그려함)로 응답범주를 재코딩한 후, 3,112(13.9%)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1(SD=1.14)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76(SD=1.15)이고, 여학생 평균은 3.63(SD=1.11)으로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3.98(SD=1.06), 중학생 평균은 3.51(SD=1.13), 고등학생 평균은 3.01(SD=1.09)로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31> 학생의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3,112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영재교육 재능개발 기여도	전체	3,112	3.71	1.14	-	-
	남	1,898	3.76	1.15	3.10***	-
	여	1,214	3.63	1.11		
	초	1,716	3.98	1.06	147.98***	초>중>고
	중	1,027	3.51	1.13		
	고	369	3.01	1.09		

*** $p < .001$

라.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

- 학생의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 인식**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32>와 같음. 2025년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1번 응답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2=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려함, 5=매우 그려함)로 응답범주를 재코딩한 후, 3,160(14.1%)건을 분석함.
- 학생이 인식하는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3(SD=1.18)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3.62(SD=1.19)이고, 여학생 평균은 3.39(SD=1.15)로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3.73(SD=1.15), 중학생 평균은 3.38(SD=1.17), 고등학생 평균은 3.01(SD=1.14)로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32> 학생의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3,160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영재교육 진로선택 기여도	전체	3,160	3.53	1.18	-	-
	남	1,921	3.62	1.19	5.43***	-
	여	1,239	3.39	1.15		
	초	1,756	3.73	1.15	73.90***	초>중>고
	중	1,036	3.38	1.17		
	고	368	3.01	1.1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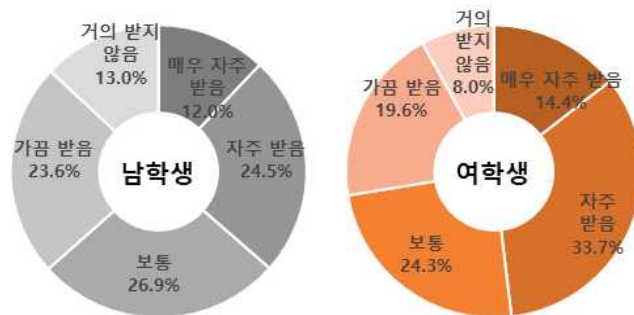
- 학생들의 영재교육 참여는 전반적으로 과학·수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참여 기관과 인식 수준에서 성별 및 학교급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초등학생은 주로 ‘우리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경험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나 사설기관을 통한 참여 비율이 높았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내 영재교육 참여율이 높았으나, 남학생이 영재교육의 재능개발 및 진로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음. 또한 모든 학교급에서 과학 분야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정보’ 분야 참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 그러나 영재교육의 재능개발 기여도와 진로선택 기여도 인식은 초등학생(M=3.98) 시기에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급격히 낮아짐(고등학생 M=3.01). 이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영재교육이 과학·수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문·예술·융합 분야의 잠재적 영재성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도 드러남. 이에, 영재교육은 특정 학문 중심의 선발 체계를 넘어, 인문·예술·과학이 융합된 다영역 기반의 영재교육 체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흥미와 탐색 중심의 창의적 영재교육을 통해 잠재적 재능을 발견하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심화 연구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실질적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인문·예술·융합 분야의 교육 기회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강점 영역을 다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영재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제7절 웰빙

1.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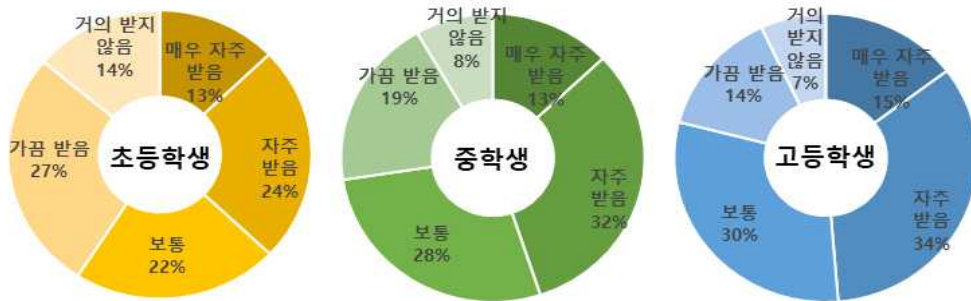
가. 평상시 스트레스

-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33>과 같음.
-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는 자주 받음(29.0%), 보통(25.6%), 가끔 받음(21.6%), 매우 자주 받음(13.2%), 거의 받지 않음(10.5%)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보통(26.9%), 자주 받음(24.5%), 가끔 받음(23.6%) 등이고, 여학생은 자주 받음(33.7%), 보통(24.3%), 가끔 받음(19.6%)으로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6] 남·여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가끔 받음(27.0%), 자주 받음(24.3%), 보통(22.0%) 등이고, 중학생은 자주 받음(32.0%), 보통(27.6%), 가끔 받음(19.1%) 등이고, 고등학생은 자주 받음(34.0%), 보통(30.3%), 매우 자주 받음(14.7%) 등으로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 초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7] 학교급별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표 3-133〉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교차분석 결과

N=22,449

항목		거의 받지 않음	가끔 받음	보통	자주 받음	매우 자주 받음	계	χ^2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전체	2,367 10.5%	4,854 21.6%	5,756 25.6%	6,512 29.0%	2,960 13.2%	22,449 100.0%	-
	남	1,478 13.0%	2,682 23.6%	3,067 26.9%	2,789 24.5%	1,371 12.0%	11,387 100.0%	370.363***
	여	889 8.0%	2,172 19.6%	2,689 24.3%	3,723 33.7%	1,589 14.4%	11,062 100.0%	
	초	1,369 13.9%	2,648 27.0%	2,157 22.0%	2,388 24.3%	1,255 12.8%	9,817 100.0%	704.853***
	중	711 8.3%	1,636 19.1%	2,363 27.6%	2,735 32.0%	1,104 12.9%	8,549 100.0%	
	고	287 7.0%	570 14.0%	1,236 30.3%	1,389 34.0%	601 14.7%	4,083 100.0%	

*** $p < .001$

-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3-134>와 같음.
-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13(SD=1.20)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 평균은 2.99(SD=1.22)이고, 여학생 평균은 3.27(SD=1.17)로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평균은 2.95(SD=1.26), 중학생 평균은 3.22(SD=1.15), 고등학생 평균은 3.35(SD=1.11)로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초등학생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3-58]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표 3-134> 학생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2,449

항목	학교급	N	M	SD	t/F	사후검정 (Games-Howell)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	전체	22,449	3.13	1.20	-	-
	남	11,387	2.99	1.22	-17.36***	-
	여	11,062	3.27	1.17		
	초	9,817	2.95	1.26	209.59***	고>중>초
	중	8,549	3.22	1.15		
	고	4,083	3.35	1.11		

*** $p < .001$

나. 자살생각

- 중·고등학생의 **최근 6개월 동안 자살생각**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35>와 같음.
- 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해 있음(12.4%), 없음(87.6%)으로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있음(11.0%), 없음(89.0%), 여학생은 있음(13.7%), 없음(86.3%)으로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중학생은 있음(11.8%), 없음(88.2%), 고등학생은 있음(13.5%), 없음(86.5%)으로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35> 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 교차분석 결과

N=12,632

항목		있음	없음	계	χ^2
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	전체	1,563 12.4%	11,069 87.6%	12,632 100.0%	-
	남	695 11.0%	5,606 89.0%	6,301 100.0%	20.925***
	여	868 13.7%	5,463 86.3%	6,331 100.0%	
	중	1,012 11.8%	7,537 88.2%	8,549 100.0%	7.000***
	고	551 13.5%	3,532 86.5%	4,083 100.0%	

*** $p < .001$

다. 우울감

- 중고등학생의 최근 6개월 동안 이유 없는 우울감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36>과 같음.
- 중고등학생의 우울감에 대해 있음(37.3%), 없음(62.7%)으로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있음(30.8%), 없음(69.2%)이고, 여학생은 있음(43.7%), 없음(56.3%)로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중학생은 있음(36.8%), 없음(63.2%), 고등학생은 있음(38.1%), 없음(61.0%)로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36>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교차분석 결과

N=12,632

항목		있음	없음	계	χ^2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전체	4,707 37.3%	7,925 62.7%	12,632 100.0%	-
	남	1,942 30.8%	4,359 69.2%	6,301 100.0%	223.178***
	여	2,765 43.7%	3,566 56.3%	6,331 100.0%	
	중	3,150 36.8%	5,399 63.2%	8,549 100.0%	1.959***
	고	1,557 38.1%	2,526 61.9%	4,083 100.0%	

*** $p < .001$, ** $p < .01$, * $p < .05$

-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음. 평상시 스트레스는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주 또는 매우 자주’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과 중·고등학생일수록 스트레스 빈도가 높았음.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학업 경쟁, 진로 불안, 또래 관계의 복잡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여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정서적 민감성과 사회적 기대가 결합되어 스트레스와 우울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 중·고등학생의 최근 6개월간 자살 생각 경험은 약 12% 수준으로, 여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우울감 경험률 또한 37%를 넘어 심리적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경쟁 중심의 교육 구조가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력을 저해하고, 일부 학생들을 극단적인 사고로 몰아갈 위험이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학교는 위기 예방과 조기 개입이 가능한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교직원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상담교사 확충 및 Wee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즉각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예방 중심의 심리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명상, 마음챙김, 예술치유 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정서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성별과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여학생에게는 자아존중감 및 정서 표현력 향상 중심의 프로그램을, 남학생에게는 감정 인식과 대인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학교가 단순한 학업 공간을 넘어,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심리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2 약물건강

가. 흡연경험

- 중·고등학생의 **흡연경험**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37>과 같음.
- 중·고등학생의 흡연경험은 있음(3.1%), 없음(96.9%)으로 흡연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있음(4.3%), 없음(95.7%)이고, 여학생은 있음(2.0%), 없음(98.0%)으로 흡연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중학생은 있음(2.2%), 없음(97.8%)이고, 고등학생은 있음(5.0%), 없음(95.0%)으로 흡연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37> 중·고등학생의 흡연경험 교차분석 결과

N=12,632

항목		있음	없음	계	χ^2
중·고등학생의 흡연경험	전체	394 3.1%	12,238 96.9%	12,632 100.0%	-
	남	270 4.3%	6,031 95.7%	6,301 100.0%	56.562***
	여	124 2.0%	6,207 98.0%	6,331 100.0%	
	중	191 2.2%	8,358 97.8%	8,549 100.0%	68.536***
	고	203 5.0%	3,880 95.0%	4,083 100.0%	

*** $p < .001$

나. 음주경험

- 중고등학생의 **음주경험**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38>과 같음.
- 중고등학생의 음주경험은 있음(10.1%), 없음(89.9%)으로 음주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있음(13.5%), 없음(86.5%)이고, 여학생은 있음(6.7%), 없음(93.3%)으로 음주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중학생은 있음(7.3%), 없음(92.7%)이고, 고등학생은 있음(16.0%), 없음(84.0%)으로 음주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38> 중·고등학생의 음주경험 교차분석 결과

N=12,632

항목		있음	없음	계	χ^2
중·고등학생의 음주경험	전체	1,273 10.1%	11,359 89.9%	12,632 100.0%	-
	남	850 13.5%	5,451 86.5%	6,301 100.0%	161.544***
	여	423 6.7%	5,908 93.3%	6,331 100.0%	
	중	621 7.3%	7,928 92.7%	8,549 100.0%	231.047***
	고	652 16.0%	3,431 84.0%	4,083 100.0%	

*** $p < .001$

- 중·고등학생의 약물 건강 실태를 흡연과 음주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일부 집단에서 우려할 만한 차이가 나타났다. 흡연 경험률은 전체의 3.1%로 낮았으나, 남학생(4.3%)이 여학생(2.0%)보다, 고등학생(5.0%)이 중학생(2.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이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또래 압력과 유해 환경 노출이 증가하고, 특히 남학생들이 사회적 통념이나 집단 내 상징적 행위로서 흡연에 더 취약함을 보여줌. 따라서 단순한 금연 캠페인을 넘어, 고등학교 남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체 활동과 자기조절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음주 경험률은 10.1%로 흡연보다 높았으며, 남학생(13.5%)이 여학생(6.7%)보다, 고등학생(16.0%)이 중학생(7.3%)보다 월등히 높았음.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음주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줌.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정이 미완성된 시기로, 음주가 신경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이를 성인 의식이나 사회적 소통의 일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음주의 위험성과 사회문화적 왜곡 인식을 바로잡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속 음주 묘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나아가 흡연과 음주는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또래 관계, 사회적 압력,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건강 증진 교육체계가 요구됨. 중학생에게는 또래 압력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및 자기통제 능력 향상 교육을, 고등학생에게는 실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전략과 법·보건 정보 중심의 실질적 교육을 제공해야 함. 더불어 학교·보건소·지자체 간 협력 기반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청소년 건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제8절 진로진학

가. 진학(진로)계획

-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39>와 같음.
-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은 일반고/자율형 공립고(65.6%), 예술고/체육고(9.6%),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8.5%), 특성화고(6.5%), 자율형사립고(6.3%),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음(2.0%), 마이스터고(1.4%)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일반고/자율형 공립고(62.4%), 자율형사립고(10.1%),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9.0%) 등이고, 여학생은 일반고/자율형 공립고(68.9%), 예술고/체육고(10.6%),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8.1%) 등으로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일반고/자율형 공립고가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39>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교차분석 결과

N=8,549

항목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음	일반고/ 자공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자사고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	계	χ^2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전체	175	5,610	729	819	535	558	123	8,549	-
		2.0%	65.6%	8.5%	9.6%	6.3%	6.5%	1.4%	100.0%	
	남	98	2,669	385	368	431	227	102	4,280	299.004***
		2.3%	62.4%	9.0%	8.6%	10.1%	5.3%	2.4%	100.0%	
	여	77	2,941	344	451	104	331	21	4,269	
		1.8%	68.9%	8.1%	10.6%	2.4%	7.8%	0.5%	100.0%	

*** $p < .001$

○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시 희망 전공계열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40>과 같음.

○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시 희망 전공계열은 공학계열(26.5%), 예체능계열(17.1%), 사회계열(13.5%), 인문계열(12.7%), 자연계열(11.8%), 의학계열(8.7%),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음(5.6%), 교육계열(4.2%)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공학계열(38.3%), 예체능계열(14.1%), 사회계열(11.4%) 등이고, 여학생은 예체능계열(20.1%), 사회계열(15.5%), 공학계열(15.0%) 등으로,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시 희망 전공계열로 남학생은 공학계열, 여학생은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40>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시 희망 전공계열 교차분석 결과

N=4,083

항목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음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계	χ^2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시 희망 전공계열	전체	228 5.6%	517 12.7%	551 13.5%	171 4.2%	1,083 26.5%	481 11.8%	354 8.7%	698 17.1%	4,083 100.0%	-
	남	166 8.2%	224 11.1%	231 11.4%	60 3.0%	774 38.3%	186 9.2%	96 4.8%	284 14.1%	2,021 100.0%	408.565***
	여	62 3.0%	293 14.2%	320 15.5%	111 5.4%	309 15.0%	295 14.3%	258 12.5%	414 20.1%	2,062 100.0%	

*** $p < .001$

나. 교육포부

- 중고등학생이 희망하는 학력수준에 대한 성별 및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41>과 같음.
- 중고등학생이 희망하는 학력수준은 대학교 졸업(59.8%), 모르겠음(15.4%), 대학원 석사 졸업(7.6%), 대학원 박사 졸업(7.6%), 고등학교 졸업(5.3%), 전문대학 졸업(4.4%)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대학교 졸업(56.2%), 모르겠음(16.6%), 대학원 박사 졸업(8.8%) 등이고, 여학생은 대학교 졸업(63.4%), 모르겠음(14.2%), 대학원 석사 졸업(7.8%) 등으로, 중고등학생이 희망하는 학력수준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3-141> 중·고등학생이 희망하는 학력수준 교차분석 결과

N=12,632

항목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	모르겠음	계	χ^2
중, 고등 학생이 희망하는 학력수준	전체	670	554	7,555	955	955	1,943	12,632	-
		5.3%	4.4%	59.8%	7.6%	7.6%	15.4%	100.0%	
	남	419	284	3,539	459	557	1,043	6,301	110.955***
		6.6%	4.5%	56.2%	7.3%	8.8%	16.6%	100.0%	
	여	251	270	4,016	496	398	900	6,331	
		4.0%	4.3%	63.4%	7.8%	6.3%	14.2%	100.0%	
	중	518	400	5,039	454	553	1,585	8,549	427.226***
		6.1%	4.7%	58.9%	5.3%	6.5%	18.5%	100.0%	
	고	152	154	2,516	501	402	358	4,083	
		3.7%	3.8%	61.6%	12.3%	9.8%	8.8%	100.0%	

*** $p < .001$

- 학생의 진로·진학 계획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계획에서는 남녀 모두 일반고·자율형 공립고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나, 남학생은 자율형사립고(10.1%)와 마이스터고(2.4%), 여학생은 예술고·체육고(10.6%)와 특성화고(7.8%)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여, 이미 중학교 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진로 경로의 분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공 희망으로 더욱 심화되어, 남학생은 공학계열(38.3%)을 압도적으로 선호한 반면, 여학생은 예체능(20.1%), 사회(15.5%), 의학(12.5%) 등 비교적 다양한 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여전히 ‘이공계=남성’, ‘보건·예체능=여성’이라는 전통적 직업 인식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중·고등학생 모두 ‘대학교 졸업’을 가장 희망 학력 수준으로 꼽았으며, 남학생은 박사 과정, 여학생은 석사 또는 학사 수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학력 목표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했음.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이 연구직 등 전문 영역 진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실용적 전문성 및 조기 취업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을 하는 경향으로 해석됨. 그러나 진로·학업 목표를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도 적지 않아, 다수의 학생이 진로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 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중학교 단계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열 체험 및 역량 탐색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전공 및 직무 기반 프로젝트, 대학·산업체 연계형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 진로 설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학생에게는 인문·사회·의료 등 비이공계 분야의 가능성을, 여학생에게는 공학·정보 기술 분야의 진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나아가 개인의 성격·가치·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사회적 기대나 성별 통념이 아닌 자기 주도적 판단을 바탕으로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제9절 소결

1. 가정생활

- 초등은 규칙적 식사·운동·수면을 유지했으나 중·고로 갈수록 아침 결식이 증가하고 운동·수면시간이 감소했음.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아침 결식·수면 부족이 높고 운동 빈도가 낮았음. 여가는 초·중은 활동적·사회적, 고등은 휴식·정서회복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독서는 초등 90%대에서 중·고로 하락했으며 여학생 참여가 높았음. 스마트기기는 남학생 게임, 여학생 SNS 중심 사용이 두드러졌고 중·고에서 의존이 심화되었음.
- 정책적으로는 학교 조식·체력증진·수면교육, 스마트기기 자기조절·학습 활용 프로그램, 성별·학교급별 맞춤형 독서·여가 지원이 요구되었음. 자율학습과 사교육은 수학·영어 편중이 심화되었고, 목적의 '모르겠음' 응답이 적지 않아 공교육 내 수준별·심화형 보충체계와 학부모 안내, 자기결정적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학교생활

- 학교만족도는 전반 긍정적이되 초→중→고로 하락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학교문화·시설 인식은 초등 최고, 중등 급락, 고등 부분 회복의 V자형이었고, 학교주변 안전인식은 부정적이 높았음.
- 수업에서는 토의·토론·모둠활동 긍정 인식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급감했고, 평가는 지필 중심·피드백 효과 저하가 지적되었음. 방과후·동아리 만족도도 초등>중·고였으며, 중·고에선 심화·맞춤형 프로그램과 학생자치·참여 확대, 디지털 수업 품질·안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3. 학생역량

- 성취·이해·흥미에서 성별·교과 차가 뚜렷했음. 대체로 여학생은 언어(국·영), 남학생은 수리·탐구(수·과)에서 우위였고, 중학교 시기 여학생의 수·과 흥미·이해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고등에서는 전반적 흥미가 낮아졌음.

- 자기주도 역량은 남학생·초등이 높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저하되었음. 의사소통·공동체 역량은 여학생·초등이 높고 중학교에서 하락 후 고등에서 일부 회복했음. 이에 성 중립적 교수·형성평가·개별 피드백, 여학생 STEM 흥미 유지(협력·탐구·실생활 연계), 롤모델 멘토링과 학교급 연계 진로교육 강화가 요구됨.

4. 학생특성

- 관계 인식은 전반 긍정적이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교사·학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었음. 친구관계는 초등 최고, 중학교 일시 하락, 고등 회복 양상이었고, 여학생이 관계의 질을 더 중시했음.
- 행복감·자아존중감은 남학생·초등이 높고 여학생·중·고에서 낮았으며,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았음. 과정 중심 평가 확대, 정서지원·상담 강화,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여학생 대상 자기수용·신체이미지 프로그램, 남학생 대상 공감·소통 역량 교육이 필요함.

5. 교육경험

- 과학교육 체험(대덕특구 견학, 축제, 실험수업, AI·코딩 등)은 전반 낮고 격차가 컸으며 참여가 초등 남학생에 집중되는 경향이었음. 초등의 과학도시 자부심은 높았으나 중·고로 급락했음.
- 지역 과학 인프라와 학교교육을 촘촘히 연계해 생활 속 탐구 경험을 확대하고, 여학생 참여 장벽을 낮추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음. 영재교육은 과·수 편중, 초등은 학교 내, 중·고는 대학부설·시설 중심 참여였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재능·진로 기여 인식이 낮아 다영역(인문·예술·융합) 확장과 단계화(초등 탐색형, 중·고 심화형), 지역·대학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6. 웰빙

- 정신건강은 우려 수준이었음. 평상시 스트레스 ‘자주/매우 자주’가 40% 이상이었고, 자살생각 경험 약 12%, 우울감 37% 이상으로 여학생·중·고에서 취약성이 높았음. 게이트키퍼 교육 의무화, 전문상담교사 확충, Wee센터 연계, 전교생 선별검사와 명상·예술치유 등 예방 프로그램이 요구됨.

- 흡연 경험률 3.1%, 음주 10.1%로 전반 낮지만 남학생과 고등학생에서 높았음. 이를 고려하여 고등 남학생 맞춤 금연, 비판적 미디어 교육, 중학생 의사결정·자기통제, 고등생 위험대처·보건·법 정보 교육, 지자체 협력 조기 개입 체계가 필요함.

7. 진로진학

- 중학교에서 이미 성별 분화가 시작되었음(남: 자사고·마이스터고, 여: 예술·특성화고 선호). 고등에서는 남학생 공학계열 집중, 여학생은 예체능·사회·의학 등 다계열 선택 경향이 있었음. 학력 목표는 남학생 박사, 여학생 석·학사 선호 차가 있었고, ‘모르겠음’의 비율도 적지 않았음. 성별 고정관념 해소, 계열 체험·역량 탐색 확대, 전공·직무 기반 프로젝트와 대학·산업체 연계 현장 체험, 남학생 비이공계·여학생 공학·IT 비전 제시, 개인 흥미·가치·적성 반영 맞춤 상담 체계 구축이 필요함.

8. 종합

- 학생의 생활습관에서부터 학습, 정서, 진로·진학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급별·성별 특성에 따른 성장 양상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과 균형 잡힌 생활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기초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 중학교 이후에는 학업 부담과 경쟁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자기관리 능력, 진로 탐색 역량, 디지털 활용 역량 등을 발전시킬 기회를 넓혀가고 있음. 여학생은 언어·공동체 역량에서, 남학생은 수리·탐구 역량에서 강점을 보이며, 서로 다른 발달적 특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음.
-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학업과 진로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교육과 영재교육, 진로탐색의 질적 심화를 위한 탐구·창의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함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교육정책은 단순한 학업 성취 중심에서 나아가, 학생의 생활·정서·역량·진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성장 기반 교육체제로 발전해야 함. 이를 위해 학교급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성별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수·학습 설계, 정신건강 및 행복 교육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함. 궁극적으로 대전교육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행복을 함께 키우는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해야 함.

제4장 학부모(보호자) 결과

제1절 배경

제2절 학교인식

제3절 가정지원

제4절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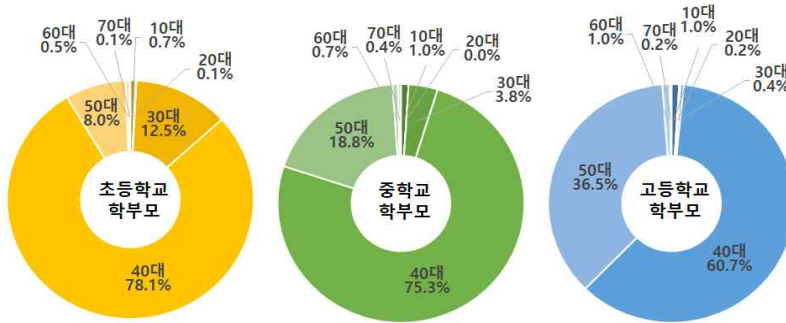
제5절 소결

제4장 학부모(보호자) 결과

제1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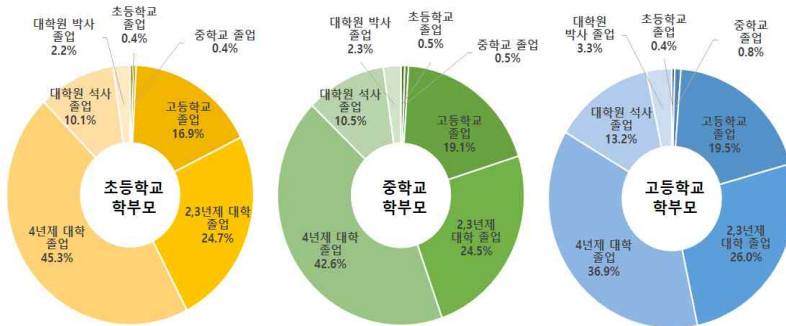
1. 개인배경

- 학부모(보호자, 이하 학부모)의 학교급별 자녀(학생, 이하 자녀)와의 관계,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녀의 형제자매 수에 대한 개인배경 현황은 [그림 4-1], [그림 4-2], <표 4-1>과 같음.
-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어머니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어머니가 4,865명(8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는 606명(11.0%)으로 나타남. 이외에 할머니 24명(0.4%), 할아버지 9명(0.2%), 친·인척 10명(0.2%), 형제·자매 1명(0.0%) 순으로 나타남. 어머니의 참여 응답이 초등학교 2,679명(89.4%), 중학교 1,717명(85.5%), 고등학교 469명(89.7%), 아버지의 참여 응답이 288(9.6%), 268명(13.4%), 50명(9.6%)임. 그 밖에 초등학교의 경우 할머니 15명(0.5%), 친·인척 8명(0.3%), 중학교는 할머니 9명(0.4%), 할아버지 4명(0.2%), 고등학교는 할머니 2명(0.4%) 등이 높은 비중으로 응답함.
- **성별**은 모든 학교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음. 여성이 4,836명(87.6%)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684명(12.4%)임. 초등학교 학부모는 여성 2,659명(88.8%), 남성 336명(11.2%), 중학교 학부모는 여성 1,717명(88.8%), 남성 285명(11.2%), 고등학교 학부모는 여성 460명(88.0%), 남성 63명(12.0%)임.
- **연령**은 40대가 4,164명(75.4%)으로 가장 많음. 50대 807명(14.6%), 30대 453명(8.2%), 10대 45명(0.8%), 60대 33명(0.6%), 70대 14명(0.3%), 20대 4명(0.1%) 순이었음. 초등학교 학부모는 40대 2,342명(78.2%), 30대 374명(12.5%), 50대 239명(8.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중학교 학부모는 40대 1,504명(75.1%), 50대 377명(18.8%), 30대 77명(3.8%) 순임.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40대 318명(60.8%), 50대 191명(36.5%)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 학교급별 학부모 연령

-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 2,404명(43.6%), 2,3년제 대학 졸업자 1,367명(24.8%), 고등학교 졸업자 990명(17.9%) 순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임. 초등학교 학부모는 4년제 대학 졸업자 1,358명(45.3%), 2,3년제 대학 졸업자 741명(24.7%), 고등학교 졸업자 506명(16.9%)임. 중학교 학부모는 4년제 대학 졸업자 853명(42.6%), 2,3년제 대학 졸업자 490명(24.5%), 고등학교 졸업자 382명(19.1%) 순임. 고등학교 학부모는 4년제 대학 졸업자 193명(36.9%), 2,3년제 대학 졸업자 136명(26.0%), 고등학교 졸업자 102명(19.5%)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학교급별 학부모 학력

- **자녀의 형제·자매 수**(해당 학생 미포함)의 경우, 1명이 2,736명(49.6%)으로 가장 많았음. 2명은 1,552명(28.1%), 없음은 825명(14.9%), 3명은 330명(6.0%), 4명 이상은 77명(1.4%).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1명은 1,522명(50.8%), 2명은 813명(27.1%), 없음은 477명(15.9%),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1명은 980명(49.0%), 2명은 573명(28.6%), 없음은 270명(13.5%) 고등학교

교 학부모의 경우, 1명은 234명(44.7%), 2명은 166명(31.7%), 없음은 78명(14.9%)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 학부모 개인배경

N=5,520

항목	구분	초 (n=2,995)		중 (n=2,002)		고 (n=523)		전체 (n=5,52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녀 (학생) 와의 관계	어머니	2,679	89.4%	1,717	85.5%	469	89.7%	4,865	88.1%
	아버지	288	9.6%	268	13.4%	50	9.6%	606	11.0%
	할머니	15	0.5%	9	0.4%	0	0.0%	24	0.4%
	할아버지	3	0.1%	4	0.2%	2	0.4%	9	0.2%
	형제·자매	1	0.0%	0	0.0%	0	0.0%	1	0.0%
	친·인척	8	0.3%	2	0.1%	0	0.0%	10	0.2%
	무응답(결측)	1	0.0%	2	0.1%	2	0.4%	5	0.1%
성별	남	336	11.2%	285	11.2%	63	12.0%	684	12.4%
	여	2,659	88.8%	1,717	88.8%	460	88.0%	4,836	87.6%
연령	10대	20	0.7%	20	1.0%	5	1.0%	45	0.8%
	20대	2	0.1%	1	0.0%	1	0.2%	4	0.1%
	30대	374	12.5%	77	3.8%	2	0.4%	453	8.2%
	40대	2,342	78.2%	1,504	75.1%	318	60.8%	4,164	75.4%
	50대	239	8.0%	377	18.8%	191	36.5%	807	14.6%
	60대	14	0.5%	14	0.7%	5	1.0%	33	0.6%
	70대	4	0.1%	9	0.4%	1	0.2%	14	0.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13	0.4%	10	0.5%	2	0.4%	25	0.5%
	중학교 졸업	11	0.4%	11	0.5%	4	0.8%	26	0.5%
	고등학교 졸업	506	16.9%	382	19.1%	102	19.5%	990	17.9%
	2,3년제 대학 졸업	741	24.7%	490	24.5%	136	26.0%	1,367	24.8%
	4년제 대학 졸업	1,358	45.3%	853	42.6%	193	36.9%	2,404	43.6%
	대학원 석사 졸업	301	10.1%	210	10.5%	69	13.2%	580	10.5%
	대학원 박사 졸업	65	2.2%	46	2.3%	17	3.3%	128	2.3%
자녀의 형제 자매 수	없음	477	15.9%	270	13.5%	78	14.9%	825	14.9%
	1명	1,522	50.8%	980	49.0%	234	44.7%	2,736	49.6%
	2명	813	27.1%	573	28.6%	166	31.7%	1,552	28.1%
	3명	145	4.8%	149	7.4%	36	6.9%	330	6%
	4명 이상	38	1.3%	30	1.5%	9	1.7%	77	1.4%

2. 자녀 학교배경

- 학부모 응답자의 자녀의 학교급별 설립 유형, 고등학교 유형, 학교 규모, 학교 소재지는 <표 4-2>와 같음.
- **설립 유형**은 응답자의 자녀 대다수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공립은 4,792명(86.8%), 사립은 728명(13.2%)임. 초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 2,866명(95.7%), 사립학교에 129명(4.3%), 중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 1,663명(83.1%), 사립학교에 339명(16.9%),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 263명(50.3%), 사립학교에 260명(49.7%)이었음.
-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자공고가 371명(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율형사립고 60명(11.5%), 특성화고 45명(8.6%),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19명(3.6%), 마이스터고 13명(2.5%), 예술고/체육고 3명(0.6%)이었음.
- **학교 규모**는 10학급 미만이 2,542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학급 이상 883명(16.0%), 10학급 이상 15학급 미만 783명(14.2%), 20학급 이상 25학급 미만 471명(8.5%), 25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448명(8.1%), 15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393명(7.1%)이었음. 초등학교는 10학급 미만 1,421명(47.4%), 30학급 이상 707명(23.6%), 중학교는 10학급 미만 975명(48.7%), 10학급 이상 15학급 미만 472명(23.6%), 고등학교는 10학급 이상 15학급 미만 185명(35.4%), 10학급 미만 146명(27.9%), 30학급 이상 79명(15.1%)이었음.
- **학교 소재지**는 서구가 1,666명(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1,509명(27.3%), 중구 1,032명(18.7%), 동구 678명(12.3%), 대덕구 635명(11.5%)이었음. 학교급별로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 초등학교는 서구 971명(32.4%), 유성구 744명(24.8%), 중구 591명(19.7%), 중학교는 유성구 686명(34.3%), 서구 544명(27.2%), 중구 294명(14.7%), 고등학교는 서구 151명(28.9%), 중구 147명(28.1%), 대덕구 93명(17.8%)이었음.

〈표 4-2〉 학부모의 자녀 학교배경

N=5,520

항목	구분	초 (n=2,995)		중 (n=2,002)		고 (n=523)		전체 (n=5,52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설립 유형	공립	2,866	95.7%	1,663	83.1%	263	50.3%	4,792	86.8%
	사립	129	4.3%	339	16.9%	260	49.7%	728	13.2%
고등 학교 유형	일반고/자공고					371	70.9%	371	70.9%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19	3.6%	19	3.6%
	예술고/체육고					3	0.6%	3	0.6%
	자율형사립고					60	11.5%	60	11.5%
	특성화고					45	8.6%	45	8.6%
	마이스터고					13	2.5%	13	2.5%
	무응답(결측)					12	2.3%	12	2.3%
학교 규모	10학급 미만	1,421	47.4%	975	48.7%	146	27.9%	2,542	46.1%
	10학급 이상 15학급 미만	126	4.2%	472	23.6%	185	35.4%	783	14.2%
	15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9	7.0%	157	7.8%	27	5.2%	393	7.1%
	20학급 이상 25학급 미만	285	9.5%	129	6.4%	57	10.9%	471	8.5%
	25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247	8.2%	172	8.6%	29	5.5%	448	8.1%
	30학급 이상	707	23.6%	97	4.8%	79	15.1%	883	16%
학교 소재지	동구	355	11.9%	270	13.5%	53	10.1%	678	12.3%
	중구	591	19.7%	294	14.7%	147	28.1%	1,032	18.7%
	서구	971	32.4%	544	27.2%	151	28.9%	1,666	30.2%
	유성구	744	24.8%	686	34.3%	79	15.1%	1,509	27.3%
	대덕구	334	11.2%	208	10.4%	93	17.8%	635	11.5%

제2절 학교인식

1. 학교만족도

○ 학부모의 자녀 **학교만족도**에 대한 성별 및 자녀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그림 4-3], <표 4-3>과 같음.

○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전체 평균은 3.82(SD=0.80)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96(SD=0.79)으로 여성 학부모 평균 3.80(SD=0.80) 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초등학교의 평균은 3.86(SD=0.79)으로 중학교 3.78(SD=0.80)과 고등학교 3.74(SD=0.88)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4-3] 학부모 학교만족도

<표 4-3> 학부모의 자녀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학교 만족도	전체	5,520	3.82	0.80	-	-
	남	684	3.96	0.79	5.091***	-
	여	4836	3.80	0.80		
	초	3,000	3.86	0.79	8.654***	초>중, 고
	중 고	2,007 513	3.78 3.74	0.80 0.88		

*** $p < .001$

-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평균 이상 수준(3.82)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남성 학부모와 초등학교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이 활발하고,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 학업 경쟁과 진로 부담이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저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소통 강화 학교문화 개선·진로지원 확대 등 맞춤형 개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교사 인식

- 학부모의 자녀 **교사 인식**(교사·학생 소통, 교사 수업열의, 교사의 학생이해, 교사 상담지도)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음.
-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학생 소통의 전체 평균은 3.82(SD=0.83)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94(SD=0.79)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80(SD=0.83)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8(SD=0.81),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4(SD=0.84)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소통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 수업열의의 전체 평균은 3.98(SD=0.79)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4.06(SD=0.78)으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97(SD=0.79)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4.10(SD=0.75),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90(SD=0.82),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3(SD=0.79)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 대비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사의 수업 열의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 학생이해의 전체 평균은 3.94(SD=0.80)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4.01(SD=0.80)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93(SD=0.79)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4.03(SD=0.76),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4(SD=0.82),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3(SD=0.82)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 대비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사의 학생 이해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 상담지도의 전체 평균은 3.84(SD=0.82)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91(SD=0.84)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83(SD=0.82)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90(SD=0.80),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3(SD=0.83), 중학교 학부

모의 평균은 3.74(SD=0.84)로 중학교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사의 상담 지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4〉 학부모의 자녀 교사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교사학생 소통	전체	5,520	3.82	0.83	-	-
	남	684	3.94	0.79	4.362***	-
	여	4836	3.80	0.83		
	초	3,000	3.88	0.81	16.683***	초>중
	중	2,007	3.74	0.84		
	고	513	3.78	0.86		
교사 수업열의	전체	5,520	3.98	0.79	-	-
	남	684	4.06	0.78	2.630**	-
	여	4836	3.97	0.79		
	초	3,000	4.10	0.75	75.361***	초>중, 고
	중	2,007	3.83	0.79		
	고	513	3.90	0.82		
교사 학생이해	전체	5,520	3.94	0.80	-	-
	남	684	4.01	0.80	2.499*	-
	여	4836	3.93	0.79		
	초	3,000	4.03	0.76	45.884***	초>중, 고
	중	2,007	3.83	0.82		
	고	513	3.84	0.82		
교사 상담지도	전체	5,520	3.84	0.82	-	-
	남	684	3.91	0.84	2.545*	-
	여	4836	3.83	0.82		
	초	3,000	3.90	0.80	24.228***	초, 고>중
	중	2,007	3.74	0.84		
	고	513	3.83	0.83		

*** $p<.001$, ** $p<.01$, * $p<.05$

-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3.82~3.98)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초등학교 학부모가 가장 높고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이는 초등학교에서는 자녀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대입 관련 소통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중학교는 사춘기 자녀 특성과 학업·생활 변화로 인해 교사-학부모 간 소통이 상대적으로 줄

어드는 시기임을 시사함.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 교사-학부모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정기 상담, 온라인 소통 창구,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학교교육 인식

-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학생 학습지도, 특기·적성 개발, 학생중심 교육, 평가 다양성)을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음.
-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생 학습지도의 전체 평균은 3.80(SD=0.81)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92(SD=0.84)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78(SD=0.81)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90(SD=0.79),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69(SD=0.83),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65(SD=0.89)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비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 학습지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가 인식하는 특기·적성 개발의 전체 평균은 3.44(SD=0.93)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60(SD=0.93)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42(SD=0.93)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46(SD=0.92),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46(SD=0.97),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41(SD=0.93)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의 특기·적성 개발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생중심 교육의 전체 평균은 3.71(SD=0.82)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82(SD=0.83)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69(SD=0.81)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5(SD=0.79),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2(SD=0.84),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63(SD=0.84)로 중학교 대비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 중심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가 인식하는 평가 다양성의 전체 평균은 3.60(SD=0.85)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71(SD=0.84)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58(SD=0.85)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5(SD=0.83),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61(SD=0.83),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56(SD=0.86)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5〉 학부모의 자녀 학교 교육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학생 학습지도	전체	5,520	3.80	0.81	-	-
	남	684	3.92	0.84	4.260***	-
	여	4836	3.78	0.81		
	초 중 고	3,000 2,007 513	3.90 3.69 3.65	0.79 0.83 0.89	48.196***	초>중, 고
학생 특가· 적성 개발	전체	5,520	3.44	0.93	-	-
	남	684	3.60	0.93	4.681***	-
	여	4836	3.42	0.93		
	초 중 고	3,000 2,007 513	3.46 3.41 3.46	0.92 0.93 0.97	1.957	-
학생중심 교육	전체	5,520	3.71	0.82	-	-
	남	684	3.82	0.83	3.745***	-
	여	4836	3.69	0.81		
	초 중 고	3,000 2,007 513	3.75 3.63 3.72	0.79 0.84 0.84	13.450***	초>중
평가 다양성	전체	5,520	3.60	0.85	-	-
	남	684	3.71	0.84	3.595***	-
	여	4836	3.58	0.85		
	초 중 고	3,000 2,007 513	3.56 3.61 3.75	0.86 0.83 0.83	11.031***	초, 중<고

*** $p < .001$

-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이상 수준(3.44~3.80)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이었으며, 남성 학부모의 인식이 여성보다 높고, 초등학교에서 특히 학습지도와 학생 중심 교육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과 학부모의 참여 체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학교는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동아리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발굴하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특가·적성 개발과 학생 중심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함.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인식

가.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

- 학부모의 자녀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교차 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음. 2025년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의 응답을 제외한 1,529(27.7%)건을 분석함.
- 학부모의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에 대한 전체 응답은 흥미(36.3%), 보충학습(33.3%), 심화학습/진로(21.3%), 친구관계(5.6%), 돌봄(3.5%) 순임. 학부모 성별에서 남성은 흥미(37.5%), 보충학습(28.7%), 심화학습/진로(18.3%) 등이고, 여성 역시 흥미(36.1%), 보충학습(34.1%), 심화학습/진로(2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는 흥미(39.7%), 보충학습(34.5%), 심화학습/진로(14.6%) 등, 중학교는 흥미(45.2%), 보충학습(27.6%), 심화학습/진로(18.2%), 고등학교는 심화학습/진로(47.3%), 보충학습(39.4%), 흥미(10.6%) 등의 순임.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6> 학부모의 자녀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목적 교차분석 결과

N=1,529

항목	구분	보충학습	심화학습/진로	친구관계	돌봄	흥미	계	χ^2
교과학습 방과후 활동 목적	전체	509 33.3%	326 21.3%	86 5.6%	53 3.5%	555 36.3%	1,529 100.0%	-
	남	69 28.7%	44 18.3%	18 7.5%	19 7.9%	90 37.5%	240 100.0%	21.114***
	여	440 34.1%	282 21.9%	68 5.3%	34 2.6%	465 36.1%	1,289 100.0%	
	초	279 34.5%	118 14.6%	44 5.4%	47 5.8%	321 39.7%	809 100.0%	210.146***
	중	126 27.6%	83 18.2%	37 8.1%	4 0.9%	206 45.2%	456 100.0%	
	고	104 39.4%	125 47.3%	5 1.9%	2 0.8%	28 10.6%	264 100.0%	

*** $p < .001$

-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의 주된 목적은 흥미와 보충학습이며, 그 외 심화학습/진로를 위한 목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심화학습/진로 목적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아짐.

(2)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 학부모의 자녀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음.

○ 학부모의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전체 평균 4.43(SD=1.39)로 나타남. 성별에서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는 남성 학부모는 평균 4.49(SD=1.24)이고, 여성 학부모는 평균 4.42(SD=1.42)로 남성 학부모의 만족도가 여성 학부모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초등학교 평균 4.57(SD=1.37), 중학교 평균 4.24(SD=1.48), 고등학교 평균 4.30(SD=1.22)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나타남. 성별의 차이와 학교급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7> 학부모의 자녀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529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교과학습 방과후 활동 만족도	전체	1,529	4.43	1.39	-	-
	남	240	4.49	1.24	0.85**	-
	여	1,289	4.42	1.42		
	초	809	4.57	1.37	9.533***	초>중
	중	456	4.24	1.48		
	고	264	4.30	1.22		

*** $p < .001$, ** $p < .01$

○ 학부모의 자녀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 학부모가 프로그램의 질과 운영 방식 등 세부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방과후학교가 단순한 학습 보충의 기능을 넘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 방과후학교 운영에서는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질 제고와 차별화된 운영 전략이 필요하며,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소통 체계와 참여 기반 운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

- 학부모의 자녀 **교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교차 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음. 2025년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의 응답을 제외한 1,899(34.4%)건을 분석함.
- 학부모의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에 대한 전체 응답은 흥미(64.3%), 보충학습(13.6%), 심화학습/진로(13.0%), 친구관계(6.5%), 돌봄(2.6%) 순임. 학부모 성별에서 남성은 흥미(57.9%), 보충학습(14.2%), 심화학습/진로(10.9%) 등이고, 여성 역시 흥미(65.3%), 보충학습(13.6%), 심화학습/진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부모의 자녀 학교급에서 초등학교는 흥미(66.9%), 보충학습(15.2%), 심화학습/진로(10.0%) 등, 중학교는 흥미(69.8%), 친구관계(11.3%), 심화학습/진로(10.1%), 고등학교는 심화학습/진로(38.0%), 흥미(34.5%), 보충학습(18.5%) 등의 순임.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8> 학부모의 자녀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 교차분석 결과

N=1,899

항목	구분	보충학습	심화학습/진로	친구관계	돌봄	흥미	계	χ^2
특기·적성 방과후 활동 목적	전체	259 13.6%	247 13.0%	123 6.5%	49 2.6%	1,221 64.3%	1,899 100	-
	남	35 14.2%	27 10.9%	29 11.7%	13 5.3%	143 57.9%	247 100.0%	22.875***
	여	224 13.6%	220 13.3%	94 5.7%	36 2.2%	1,078 65.3%	1,652 100.0%	
	초	180 15.2%	119 10.0%	49 4.1%	44 3.7%	794 66.9%	1,186 100.0%	210.146***
	중	42 8.2%	52 10.1%	58 11.3%	3 0.6%	358 69.8%	513 100.0%	
	고	37 18.5%	76 38.0%	16 8.0%	2 1.0%	69 34.5%	200 100.0%	

*** $p < .001$

-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참여 목적은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흥미이며, 고등학교를 제외

한 과반이 흥미 목적으로 해당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함. 고등학교의 경우, 심화학습/진로와 보충학습 목적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아짐.

(2)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학부모의 자녀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음.

○ 학부모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는 전체 평균 4.84(SD=1.49)로 나타남. 성별에서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는 남성 학부모가 평균 4.77(SD=1.00)이고, 여성 학부모가 평균 4.85(SD=1.05)로 남성 학부모의 만족도가 여성 학부모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초등학교 평균 4.95(SD=1.00), 중학교 평균 4.73(SD=1.12), 고등학교 평균 4.52(SD=1.04)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남.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비 초등학교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9> 학부모의 자녀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899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특기·적성 방과후 활동 만족도	전체	1,899	4.84	1.49	-	-
	남	247	4.77	1.00	-1.187	-
	여	1,652	4.85	1.05		
	초	1,186	4.95	1.00	18.902***	초>중, 고
	중	513	4.73	1.12		
	고	200	4.52	1.04		

*** $p < .001$

○ 학부모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목적은 ‘자녀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고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고 학부모가 진로 탐색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향후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단순한 취미 중심을 넘어, 학생의 재능 개발과 진로 역량을 연계할 수 있는 심화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5. 학교시설 인식

- 학부모의 자녀 **학교시설**(학교 내 휴식 공간의 충분성, 디지털수업 지원 시설의 충분성과 교실 환경의 청결성 정도)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음.
- 학부모의 휴식 공간 환경 인식의 전체 평균은 3.12(SD=0.95)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35(SD=0.93)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09(SD=0.94)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30(SD=0.93),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11(SD=0.93),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10(SD=0.96)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 학부모의 휴식 공간의 충분성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디지털수업 환경 인식의 전체 평균은 3.59(SD=0.80)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70(SD=0.78)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57(SD=0.80)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6(SD=0.76),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60(SD=0.79),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53(SD=0.80)임.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디지털수업 지원 시설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의 전체 평균은 3.80(SD=0.78)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89(SD=0.74)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79(SD=0.78)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6(SD=0.76),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5(SD=0.79),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69(SD=0.79)로 중학교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환경의 청결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3.12~3.80)으로 보였으며, 남성 학부모와 고등학교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시설 이용 경험과 기대 수준이 다를음을 보여줌. 따라서 학교급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 개선 과정에서 학부모 성별과 학교급별 요구를 반영한 참여형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해야 함. 또한 학생 휴게 공간 확충, 디지털 수업 환경 개선, 청결도 유지 및 시설 관리 인력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표 4-10〉 학부모의 자녀 학교시설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휴식 공간 환경	전체	5,520	3.12	0.95	-	-
	남	684	3.35	0.93	6.624***	-
	여	4836	3.09	0.94		
	초	3,000	3.11	0.93	9.939***	고>초, 중
	중	2,007	3.10	0.96		
	고	513	3.30	0.93		
디지털 수업 환경	전체	5,520	3.59	0.80	-	-
	남	684	3.70	0.78	3.959***	-
	여	4836	3.57	0.80		
	초	3,000	3.60	0.79	17.813***	고>초>중
	중	2,007	3.53	0.80		
	고	513	3.76	0.76		
학교환경 청결도	전체	5,520	3.80	0.78	-	-
	남	684	3.89	0.74	3.337***	-
	여	4836	3.79	0.78		
	초	3,000	3.86	0.76	28.377***	초, 고>중
	중	2,007	3.69	0.79		
	고	513	3.85	0.79		

*** $p < .001$

6. 학교안전 인식

○ 학부모의 자녀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학교시설 관리의 안전성,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성,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의 안전성, 등하굣길 교통의 안전성, 학교 주변 위험 장소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음.

○ 학부모의 시설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3.78(SD=0.76)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91(SD=0.75)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77(SD=0.76)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5(SD=0.81),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1(SD=0.75),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3(SD=0.77)으로 중학교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2(SD=0.81)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76(SD=0.82)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60(SD=0.81)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0(SD=0.81),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61(SD=0.79),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58(SD=0.83)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폭력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8(SD=0.82)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80(SD=0.84)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67(SD=0.81)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1(SD=0.82),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2(SD=0.80),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63(SD=0.83)로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의 외부인 침입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3.53(SD=0.89)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64(SD=0.86)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51(SD=0.90)보다 높았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53(SD=0.90),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53(SD=0.87),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47(SD=0.91)로 나타났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부모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2.66(SD=0.96)임. 여성 학부모의 평균은 2.66(SD=0.95),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2.65(SD=1.02)였음.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2.65(SD=0.95),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2.65(SD=0.96),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2.71(SD=0.98)임.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4-11〉 학부모의 자녀 학교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시설 안전	전체	5,520	3.78	0.76	-	-
	남	684	3.91	0.75	4.780***	-
	여	4836	3.77	0.76		
	초	3,000	3.81	0.75	9.354***	초, 고>중
	중	2,007	3.73	0.77		
	고	513	3.85	0.81		
학교폭력 안전	전체	5,520	3.62	0.81	-	-
	남	684	3.76	0.82	4.735***	-
	여	4836	3.60	0.81		
	초	3,000	3.61	0.79	15.265***	초, 중<고
	중	2,007	3.58	0.83		
	고	513	3.80	0.81		
외부인 침입 안전	전체	5,520	3.68	0.82	-	-
	남	684	3.80	0.84	4.034***	-
	여	4836	3.67	0.81		
	초	3,000	3.63	0.83	14.012***	초<중, 고
	중	2,007	3.72	0.80		
	고	513	3.81	0.82		
등 하갓길 교통 안전	전체	5,520	3.53	0.89	-	-
	남	684	3.64	0.86	3.631***	-
	여	4836	3.51	0.90		
	초	3,000	3.53	0.90	1.130	-
	중	2,007	3.53	0.87		
	고	513	3.47	0.91		
학교 주변 안전	전체	5,520	2.66	0.96	-	-
	남	684	2.65	1.02	-0.159	-
	여	4836	2.66	0.95		
	초	3,000	2.65	0.95	0.932	-
	중	2,007	2.65	0.96		
	고	513	2.71	0.98		

*** $p<.001$

○ 학부모의 학교안전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이었으나,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 학부모와 초등학교 학부모의 안전 우려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어린 자녀의 등·하교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따라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하교 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함. 더불어 경찰서·지자체 등 관내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취약 지역을 정기 점검하고, 지역사회 연계형 학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7. 정보와 소통 기회

- 학부모의 정보와 소통 기회(학교의 학교일정 정보(학사일정, 행사) 제공, 자녀 학교생활 정보 제공, 교사와 소통 가능성, 학부모 교육 기회 제공,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음.
- 학부모의 학교일정 정보 인식의 전체 평균은 4.13(SD=0.71)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4.13(SD=0.73), 여성 학부모의 평균은 4.13(SD=0.71)로 평균이 동일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4.21(SD=0.67),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4.05(SD=0.78),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4.04(SD=0.74)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비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일정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정보 제공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7(SD=0.90)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81(SD=0.87)로 여성 학부모의 평균 3.65(SD=0.91)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3(SD=0.88),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1(SD=0.89),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58(SD=0.93)로 중학교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교사와 소통 가능성 인식의 전체 평균은 3.93(SD=0.78)임. 성별에서 여성 학부모의 평균은 3.94(SD=0.77), 남성 학부모의 평균은 3.93(SD=0.80)였음.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4.01(SD=0.75),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6(SD=0.80),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4(SD=0.80)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비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교와 소통 가능성 인식이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부모 교육 기회 인식의 전체 평균은 3.84(SD=0.76)임. 성별에서 여성 학부모의 평균은 3.86(SD=0.74)로 남성 학부모의 평균 3.66(SD=0.87)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92(SD=0.76),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5(SD=0.75),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9(SD=0.77)로 중학교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의 부모(보호자) 교육 제공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기회 인식의 전체 평균은 3.77(SD=0.79)임. 성별에서 여성 학부모의 평균은 3.78(SD=0.78)로 남성 학부모의 평균 3.71(SD=0.83)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2(SD=0.80),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1(SD=0.77),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2(SD=0.80)로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모(보호자) 교육 제공 인식이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12〉 학부모의 학교 정보와 소통 기회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학교일정 정보 제공	전체	5,520	4.13	0.71	-	-
	남	684	4.13	0.73	-0.156	-
	여	4,836	4.13	0.71		
	초	3,000	4.21	0.67	39.618***	초> 중, 고
	중 고	2,007 513	4.04 4.05	0.74 0.78		
자녀 학교생활 정보 제공	전체	5,520	3.67	0.90	-	-
	남	684	3.81	0.87	4.362***	-
	여	4,836	3.65	0.91		
	초	3,000	3.73	0.88	17.594***	초, 고>중
	중 고	2,007 513	3.58 3.71	0.93 0.89		
학교 소통 가능성	전체	5,520	3.93	0.78	-	-
	남	684	3.93	0.80	-0.271	-
	여	4,836	3.94	0.77		
	초	3,000	4.01	0.75	30.799***	초>중, 고
	중 고	2,007 513	3.84 3.86	0.80 0.80		
학부모 (보호자) 교육 제공	전체	5,520	3.84	0.76	-	-
	남	684	3.66	0.87	-5.687***	-
	여	4,836	3.86	0.74		
	초	3,000	3.85	0.75	7.999***	초, 고>중
	중 고	2,007 513	3.79 3.92	0.77 0.76		
학부모 (보호자) 참여기회 제 공	전체	5,520	3.77	.079	-	-
	남	684	3.71	0.83	-2.259*	-
	여	4,836	3.78	0.78		
	초	3,000	3.81	0.77	8.807***	초, 고>중
	중 고	2,007 513	3.72 3.82	0.80 0.80		

*** $p < .001$, * $p < .05$

-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의 소통 및 참여 기회 제공 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3.67~4.13)으로 나타났음. 자녀의 학습 및 생활 정보 제공에서는 남성 학부모의 인식이 높았고, 학부모 교육과 참여

기회 제공에서는 여성 학부모의 인식이 더 높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학교가 비교적 활발하게 소통 구조를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각급학교는 교육과정 설명회, 참여형 공개수업,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학부모참여 활동

- 학부모의 **학부모참여 활동**(학교 학부모단체활동, 학교 봉사활동, 학부모 총회, 학부모 연수, 공개수업 참관,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참여 경험)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음.
- 학부모의 학부모 단체활동 경험에 대한 전체 응답은 없음(69.5%), 1회(18.8%), 2회(7.0%), 3회(2.1%), 5회 이상(1.6%), 4회(0.9%) 순임.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학부모는 1회(12.9%), 2회(4.5%), 3회(2.2%), 여성 학부모 역시 1회(19.7%), 2회(7.4%), 3회(2.1%)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 역시 초등학교는 1회(26.1%), 2회(9.7%), 3회(2.4%), 중학교 1회(10.1%), 2회(3.4%), 3회(1.6%), 고등학교 1회(10.3%), 2회(5.5%), 3회(2.1%) 순으로 나타남. 학부모 단체활동 경험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부모 학교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전체 응답은 없음(86.7%), 1회(8.6%), 2회(2.6%), 5회 이상(1.2%), 3회(0.7%), 4회(0.2%) 순임.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학부모는 1회(8.5%), 2회(3.1%), 3회(0.7%), 여성 학부모는 1회(8.7%), 2회(2.5%), 5회 이상(1.3%)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는 1회(12.4%), 2회(3.2%), 5회 이상(1.3%), 중학교는 1회(4.1%), 2회(1.5%), 5회 이상(0.9%), 고등학교는 1회(4.3%), 2회(2.9%), 5회 이상(1.4%) 순으로 나타남. 학부모 학교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부모 총회 참여 경험에 대한 전체 응답은 없음(74.0%), 1회(24.1%), 2회(1.4%), 3회(0.3%), 5회 이상(0.2%), 4회(0.1%) 순임.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학부모는 1회(13.9%), 2회(0.9%), 3회(0.3%), 4회(0.3%), 여성 학부모는 1회(25.5%), 2회(1.5%), 3회(0.2%)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는 1회(23.5%), 2회(1.0%), 3회(0.2%), 중학교는 1회(23.2%), 2회(1.3%), 3회(0.3%), 고등학교는 1회(31.0%), 2회(4.1%), 3회

(0.2%), 5회 이상(0.2%) 순으로 나타남. 학부모 총회 참여 경험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부모 연수 참여 경험에 대한 전체 응답은 없음(89.5%), 1회(8.7%), 2회(1.2%), 3회(0.4%), 5회 이상(0.1%) 순임.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학부모는 1회(3.9%), 2회(0.4%), 3회(0.3%), 여성 학부모 역시 1회(9.4%), 2회(1.3%), 3회(0.4%)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는 1회(8.1%), 2회(1.0%), 3회(0.2%), 중학교는 1회(8.2%), 2회(0.7%), 3회(0.5%), 고등학교는 1회(14.4%), 2회(3.7%), 3회(0.8%) 순으로 나타남. 학부모 연수(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부모 공개수업 참관 경험에 대한 전체 응답은 없음(54.3%), 1회(40.7%), 2회(4.3%), 3회(0.3%), 5회 이상(0.3%), 4회(0.2%) 순임. 참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학부모는 1회(31.6%), 2회(5.3%), 3회(0.4%), 5회 이상(0.4%), 여성 학부모는 1회(42.0%), 2회(4.1%), 3회(0.3%)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는 1회(67.6%), 2회(7.1%), 3회(0.5%), 중학교는 1회(8.8%), 2회(0.9%), 4회(0.1%), 5회 이상(0.1%), 고등학교는 1회(9.0%), 2회(1.0%), 3회(0.4%) 순으로 나타남. 학부모 공개 수업 참관 경험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부모 대면 상담 경험에 대한 전체 응답은 없음(73.0%), 1회(24.1%), 2회(2.3%), 3회(0.3%), 5회 이상(0.2%), 4회(0.0%) 순임.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학부모는 1회(21.6%), 2회(2.0%), 3회(0.6%), 여성 학부모도 1회(24.4%), 2회(2.4%), 3회(0.3%)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에서 역시 초등학교는 1회(22.3%), 2회(2.4%), 3회(0.4%), 중학교는 1회(22.6%), 2회(2.0%), 3회(0.1%), 고등학교는 1회(40.4%), 2회(2.7%), 3회(0.6%) 순으로 나타남. 학부모 담임 대면 상담 경험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부모의 학부모 비대면 상담 경험에 대한 전체 응답은 없음(40.5%), 1회(31.6%), 2회(14.1%), 3회(6.2%), 5회 이상(5.8%), 4회(1.7%) 순임.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학부모는 1회(31.4%), 2회(14.5%), 5회 이상(6.6%), 여성 학부모는 1회(31.7%), 2회(14.1%), 3회(6.4%) 순으로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는 1회(33.5%), 2회(15.5%), 5회 이상(7.6%), 중학교는 1회(30.6%), 2회(13.3%), 3회(4.8%), 고등학교는 1회

(24.6%), 2회(9.2%), 3회(5.7%) 순으로 나타남. 학부모 답임 비대면 상담 경험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13〉 학부모의 학교 소통·참여 경험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χ^2
학부모 단체 활동	전체	3,837 69.5%	1,040 18.8%	387 7.0%	116 2.1%	49 0.9%	91 1.6%	5,520 100.0%	-
	남	529 77.3%	88 12.9%	31 4.5%	15 2.2%	8 1.2%	13 1.9%	684 100.0%	29.551***
	여	3,308 68.4%	952 19.7%	356 7.4%	101 2.1%	41 0.8%	78 1.6%	4,836 100.0%	
	초 중 고	1,752 58.4%	784 26.1%	290 9.7%	72 2.4%	41 1.4%	61 2.0%	3,000 100.0%	397.936***
		1,673 83.4%	203 10.1%	69 3.4%	33 1.6%	5 0.2%	24 1.2%	2,007 100.0%	
		412 80.3%	53 10.3%	28 5.5%	11 2.1%	3 0.6%	6 1.2%	513 100.0%	
	전체	4,788 86.7%	477 8.6%	142 2.6%	36 0.7%	13 0.2%	64 1.2%	5,520 100.0%	-
	남	597 87.3%	58 8.5%	21 3.1%	5 0.7%	2 0.3%	1 0.1%	684 100.0%	7.897
	여	4,191 86.7%	419 8.7%	121 2.5%	31 0.6%	11 0.2%	63 1.3%	4,836 100.0%	
학교 봉사활동	초	2,466 82.2%	372 12.4%	97 3.2%	18 0.6%	9 0.3%	38 1.3%	3,000 100.0%	141.142***
	중 고	1,856 92.5%	83 4.1%	30 1.5%	15 0.7%	4 0.2%	19 0.9%	2,007 100.0%	
		466 90.8%	22 4.3%	15 2.9%	3 0.6%	- 0.0%	7 1.4%	513 100.0%	
	전체	4,084 74.0%	1,328 24.1%	77 1.4%	14 0.3%	6 0.1%	11 0.2%	5,520 100.0%	-
	남	579 84.6%	95 13.9%	6 0.9%	2 0.3%	2 0.3%	- 0.0%	684 100.0%	51.085***
	여	3,505 72.5%	1,233 25.5%	71 1.5%	12 0.2%	4 0.1%	11 0.2%	4,836 100.0%	
	초 중 고	2,250 75.0%	704 23.5%	30 1.0%	6 0.2%	5 0.2%	5 0.2%	3,000 100.0%	52.143***
		1,503 74.9%	465 23.2%	26 1.3%	7 0.3%	1 0.0%	5 0.2%	2,007 100.0%	
		331 64.5%	159 31.0%	21 4.1%	1 0.2%	- 0.0%	1 0.2%	513 100.0%	
학부모총회	전체	4,084 74.0%	1,328 24.1%	77 1.4%	14 0.3%	6 0.1%	11 0.2%	5,520 100.0%	-
	남	579 84.6%	95 13.9%	6 0.9%	2 0.3%	2 0.3%	- 0.0%	684 100.0%	51.085***
	여	3,505 72.5%	1,233 25.5%	71 1.5%	12 0.2%	4 0.1%	11 0.2%	4,836 100.0%	
	초 중 고	2,250 75.0%	704 23.5%	30 1.0%	6 0.2%	5 0.2%	5 0.2%	3,000 100.0%	52.143***
		1,503 74.9%	465 23.2%	26 1.3%	7 0.3%	1 0.0%	5 0.2%	2,007 100.0%	
		331 64.5%	159 31.0%	21 4.1%	1 0.2%	- 0.0%	1 0.2%	513 100.0%	
	전체	4,084 74.0%	1,328 24.1%	77 1.4%	14 0.3%	6 0.1%	11 0.2%	5,520 100.0%	-
	남	579 84.6%	95 13.9%	6 0.9%	2 0.3%	2 0.3%	- 0.0%	684 100.0%	51.085***
	여	3,505 72.5%	1,233 25.5%	71 1.5%	12 0.2%	4 0.1%	11 0.2%	4,836 100.0%	
학부모총회	초	2,250 75.0%	704 23.5%	30 1.0%	6 0.2%	5 0.2%	5 0.2%	3,000 100.0%	52.143***
	중 고	1,503 74.9%	465 23.2%	26 1.3%	7 0.3%	1 0.0%	5 0.2%	2,007 100.0%	
		331 64.5%	159 31.0%	21 4.1%	1 0.2%	- 0.0%	1 0.2%	513 100.0%	
	전체	4,084 74.0%	1,328 24.1%	77 1.4%	14 0.3%	6 0.1%	11 0.2%	5,520 100.0%	-
	남	579 84.6%	95 13.9%	6 0.9%	2 0.3%	2 0.3%	- 0.0%	684 100.0%	51.085***
	여	3,505 72.5%	1,233 25.5%	71 1.5%	12 0.2%	4 0.1%	11 0.2%	4,836 100.0%	
	초 중 고	2,250 75.0%	704 23.5%	30 1.0%	6 0.2%	5 0.2%	5 0.2%	3,000 100.0%	52.143***
		1,503 74.9%	465 23.2%	26 1.3%	7 0.3%	1 0.0%	5 0.2%	2,007 100.0%	
		331 64.5%	159 31.0%	21 4.1%	1 0.2%	- 0.0%	1 0.2%	513 100.0%	

항목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χ^2
학부모 연수	전체	4,941 89.5%	482 8.7%	65 1.2%	21 0.4%	3 0.1%	8 0.1%	5,520 100.0%	-
	남	651 95.2%	27 3.9%	3 0.4%	2 0.3%	1 0.1%	0 0.0%	684 100.0%	29.390***
	여	4,290 88.7%	455 9.4%	62 1.3%	19 0.4%	2 0.0%	8 0.2%	4,836 100.0%	
	초	2,711 90.4%	244 8.1%	31 1.0%	7 0.2%	2 0.1%	5 0.2%	3,000 100.0%	65.817***
	중	1,816 90.5%	164 8.2%	15 0.7%	10 0.5%	1 0.0%	1 0.0%	2,007 100.0%	
	고	414 80.7%	74 14.4%	19 3.7%	4 0.8%	0 0.0%	2 0.4%	513 100.0%	
	전체	2,995 54.3%	2,249 40.7%	235 4.3%	18 0.3%	9 0.2%	14 0.3%	5,520 100.0%	-
	남	424 62.0%	216 31.6%	36 5.3%	3 0.4%	2 0.3%	3 0.4%	684 100.0%	28.706***
공개수업 참관	여	2,571 53.2%	2,033 42.0%	199 4.1%	15 0.3%	7 0.1%	11 0.2%	4,836 100.0%	
	초	727 24.2%	2,027 67.6%	212 7.1%	15 0.5%	7 0.2%	12 0.4%	3,000 100.0%	2389.658***
	중	1,808 90.1%	176 8.8%	18 0.9%	1 0.0%	2 0.1%	2 0.1%	2,007 100.0%	
	고	460 89.7%	46 9.0%	5 1.0%	2 0.4%	0 0.0%	0 0.0%	513 100.0%	
대면 상담	구분	4,030 73.0%	1,328 24.1%	128 2.3%	19 0.3%	2 0.0%	13 0.2%	5,520 100.0%	-
	남	516 75.4%	148 21.6%	14 2.0%	4 0.6%	0 0.0%	2 0.3%	684 100.0%	4.486
	여	3,514 72.7%	1,180 24.4%	114 2.4%	15 0.3%	2 0.0%	11 0.2%	4,836 100.0%	
	초	2,233 74.4%	668 22.3%	73 2.4%	13 0.4%	2 0.1%	11 0.4%	3,000 100.0%	96.396***
	중	1,509 75.2%	453 22.6%	41 2.0%	3 0.1%	0 0.0%	1 0.0%	2,007 100.0%	
	고	288 56.1%	207 40.4%	14 2.7%	3 0.6%	0 0.0%	1 0.2%	513 100.0%	
	전체	2,237 40.5%	1,746 31.6%	779 14.1%	344 6.2%	92 1.7%	322 5.8%	5,520 100.0%	-
	남	289 42.3%	215 31.4%	99 14.5%	33 4.8%	3 0.4%	45 6.6%	684 100.0%	10.946
비대면 상담	여	1,948 40.3%	1,531 31.7%	680 14.1%	311 6.4%	89 1.8%	277 5.7%	4,836 100.0%	
	초	1,018	1,005	465	219	65	228	3,000	161.976***

항목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χ^2
	중 고	33.9%	33.5%	15.5%	7.3%	2.2%	7.6%	100.0%	
		936	615	267	96	22	71	2,007	
		46.6%	30.6%	13.3%	4.8%	1.1%	3.5%	100.0%	
		283	126	47	29	5	23	513	
		55.2%	24.6%	9.2%	5.7%	1.0%	4.5%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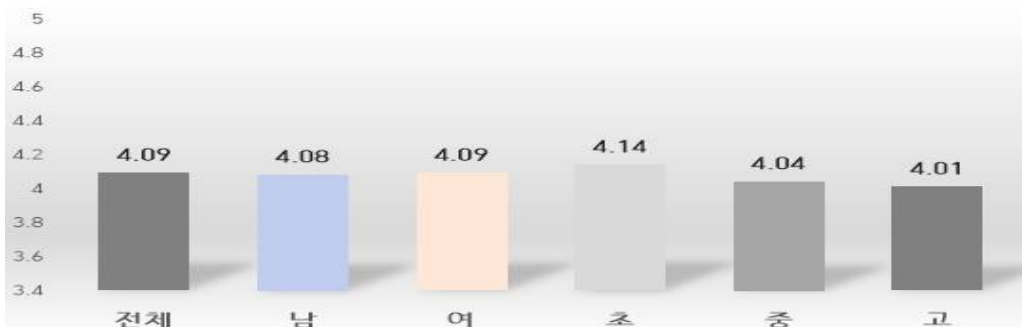
-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주로 개별 상담(대면·비대면)이나 학기 초 학부모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참여는 시기적·형식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학부모 자율 모임 및 소규모 협의체 지원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참여 기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함.

제3절 가정지원

1. 학부모 역할

가. 자녀와의 관계

- 학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그림 4-4], <표 4-14>와 같음.
- 학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의 전체 평균은 4.09(SD=0.56)임. 성별에서 여성 학부모의 평균은 4.09(SD=0.55)로 남성 학부모의 평균 4.08(SD=0.60)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4.14(SD=0.54)로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 4.04(SD=0.57),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 4.01(SD=0.59) 보다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4-4] 학부모 자녀와의 관계

<표 4-14> 학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자녀와의 관계	전체	5,520	4.09	0.56		
	남	684	4.08	0.60	-0.324	-
	여	4,836	4.09	0.55		
	초	3,000	4.14	0.54	25.366***	초>중,고
	중	2,007	4.04	0.57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고	513	4.01	0.59		

*** $p < .001$

-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와의 관계는 보통 이상(4.09)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문항인 칭찬, 학교 생활 관심, 취미 및 여가 활동 공유 항목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이 가장 높았음. 이는 초·고등학생 시기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활동이 많아 정서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중·고등학생 단계에서는 자율성의 확대와 부모 개입의 감소로 인해 상호작용의 형태가 낮을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학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자녀 소통 방식과 상호 유대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나. 학습지원

-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원**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5>와 같음.
- 학부모의 학습지원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1(SD=0.64)임. 성별에서 여성 학부모의 평균은 3.92(SD=0.63)로 남성 학부모의 평균 3.84(SD=0.72) 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96(SD=0.63), 중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87(SD=0.65), 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은 3.76(SD=0.70)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15>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학습지원	전체	5,520	3.91	0.64	-	-
	남	684	3.84	0.72	-2.892**	-
	여	4,836	3.92	0.63		
	초	3,000	3.96	0.63	21.361***	초>중,고
	중	2,007	3.87	0.65		
	고	513	3.76	0.70		

*** $p < .001$, ** $p < .01$

-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학습지원 수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자녀의 발달 단계와 생활 패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됨. 초등학생의 경우 과제 수행, 학교 행사 참여 등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이 활발하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상호작용 기회가 많아 학습 관련 정보 제공과 지원 빈도가 높음. 반면, 중·고등학생은 자율적 학습이 강화되고 부모 개입이 줄어드는 특성상 학습지원의 체감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따라서 학교는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적절한 학습 동기 부여 및 조력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 교육기대

-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대**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4-16>과 같음.
- 학부모의 교육기대에 대한 전체 평균은 대학교 졸업(64.0%), 관계없음(15.4%), 석사 졸업(8.7%), 박사 졸업(8.2%), 전문대학 졸업(2.2%), 고등학교 졸업(1.4%) 순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는 대학교 졸업(58.3%), 관계없음(20.5%), 박사 졸업(8.9%), 여성 학부모는 대학교 졸업(64.8%), 관계없음(14.7%), 석사 졸업(8.9%) 순임. 학교급에서 초등학교는 대학교 졸업(61.4%), 관계없음(18.1%), 석사 졸업(9.1%), 중학교는 대학교 졸업(68.1%), 관계없음(12.5%), 박사 졸업(8.2%), 고등학교는 대학교 졸업(63.7%), 석사 졸업(11.3%), 관계없음(11.1%) 순으로 나타남.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대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16>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대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석사 졸업	박사 졸업	관계없음	계	χ^2
교육 기대	전체	80 1.4%	122 2.2%	3,535 64.0%	479 8.7%	453 8.2%	851 15.4%	5,520 100.0%	-
	남	17 2.5%	19 2.8%	399 58.3%	48 7.0%	61 8.9%	140 20.5%	684 100.0%	26.774***
	여	63 1.3%	103 2.1%	3,136 64.8%	431 8.9%	392 8.1%	711 14.7%	4,836 100.0%	
	초	40 1.3%	49 1.6%	1,842 61.4%	273 9.1%	253 8.4%	543 18.1%	3,000 100.0%	72.830***
	중	29 1.4%	48 2.4%	1,366 68.1%	148 7.4%	165 8.2%	251 12.5%	2,007 100.0%	
	고	11 2.1%	25 4.9%	327 63.7%	58 11.3%	35 6.8%	57 11.1%	513 100.0%	

*** $p < .001$

-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대 수준은 전반적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보다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진학과 진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박사 수준의 학력보다는 석사 수준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 사교육 시간

-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예체능) 참여 시간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국어

- 국어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전체 응답은 받지 않음(54.5%), 2시간 미만(23.9%),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5.4%), 4시간 이상~6시간 미만(3.4%), 8시간 이상(1.5%), 6시간 이상~8시간 미만(1.3%)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29.8%),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4.1%), 4시간 이상~6시간 미만(3.3%), 중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18.7%),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3.8%), 4시간 이상~6시간 미만(3.0%), 고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이상~4시간 미만(29.0%), 2시간 미만(9.9%), 4시간 이상~6시간 미만(4.9%) 순으로 나타남. 국어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17〉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국어	전체	3,009 54.5%	1,321 23.9%	849 15.4%	186 3.4%	73 1.3%	82 1.5%	5,520 100.0%	216.904***
	초	1,513 50.4%	895 29.8%	423 14.1%	100 3.3%	32 1.1%	37 1.2%	3,000 100.0%	
	중	1,230 61.3%	375 18.7%	277 13.8%	61 3.0%	29 1.4%	35 1.7%	2,007 100.0%	
	고	266 51.9%	51 9.9%	149 29.0%	25 4.9%	12 2.3%	10 1.9%	513 100.0%	

*** $p < .001$

나.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수학

-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전체 응답은 받지 않음(25.3%), 4시간 이상~6시간 미만(21.2%), 2시간 이상~4시간 미만(20.9%), 2시간 미만(19.7%), 6시간 이상~8시간 미만(7.7%), 8시간 이상(5.3%)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24.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19.9%),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9.8%), 중학생 학부모는 4시간 이상~6시간 미만(23.3%), 2시간 이상~4시간 미만(22.2%), 2시간 미만(15.7%), 고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이상~4시간 미만(22.2%), 4시간 이상~6시간 미만(20.5%), 6시간 이상~8시간 미만(11.3%)으로 나뉨.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18〉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수학	전체	1,394 25.3%	1,088 19.7%	1,153 20.9%	1,169 21.2%	425 7.7%	291 5.3%	5,520 100.0%	-
	초	791 26.4%	735 24.5%	593 19.8%	596 19.9%	184 6.1%	101 3.4%	3,000 100.0%	200.354***
	중	433 21.6%	316 15.7%	446 22.2%	468 23.3%	183 9.1%	161 8.0%	2,007 100.0%	
	고	170 33.1%	37 7.2%	114 22.2%	105 20.5%	58 11.3%	29 5.7%	513 100.0%	

*** $p < .001$

다.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영어

- 영어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전체 응답은 4시간 이상~6시간 미만(26.0%), 받지 않음(24.0%), 2시간 이상~4시간 미만(20.2%), 2시간 미만(19.8%), 6시간 이상~8시간 미만(7.4%), 8시간 이상(2.6%)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4시간 이상~6시간 미만(28.9%), 2시간 미만(24.0%),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6.6%), 중학생 학부모는 4시간 이상~6시간 미만(24.4%), 2시간 이상~4시간

미만(22.9%), 2시간 미만(15.8%), 고등학교 학부모는 2시간 이상~4시간 미만(31.0%), 4시간 이상~6시간 미만(15.8%), 2시간 미만(10.7%) 순으로 나타남. 영어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19〉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 간 미만	4시간 이상~6시 간 미만	6시간 이상~8시 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영어	전체	1,324 24.0%	1,094 19.8%	1,117 20.2%	1,437 26.0%	407 7.4%	141 2.6%	5,520 100.0%	-
	초	627 20.9%	721 24.0%	499 16.6%	867 28.9%	216 7.2%	70 2.3%	3,000 100.0%	224.475***
	중	505 25.2%	318 15.8%	459 22.9%	489 24.4%	170 8.5%	66 3.3%	2,007 100.0%	
	고	192 37.4%	55 10.7%	159 31.0%	81 15.8%	21 4.1%	5 1.0%	513 100.0%	

*** $p < .001$

라.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과학

- 과학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전체 응답은 받지 않음(71.3%), 2시간 미만(19.1%), 2시간 이상~4시간 미만(7.1%), 4시간 이상~6시간 미만(1.6%), 6시간 이상~8시간 미만(0.7%), 8시간 이상(0.3%)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23.0%), 2시간 이상~4시간 미만(4.8%), 4시간 이상~6시간 미만(1.1%), 중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15.8%), 2시간 이상~4시간 미만(9.4%), 4시간 이상~6시간 미만(1.5%), 고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2.1%), 2시간 미만(8.8%), 4시간 이상~6시간 미만(4.5%) 순으로 나타남. 과학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20〉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 간 미만	4시간 이상~6시 간 미만	6시간 이상~8시 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과학	전체	3,933 71.3%	1,053 19.1%	394 7.1%	86 1.6%	36 0.7%	18 0.3%	5,520 100.0%	190.676***
	초	2,122 70.7%	690 23.0%	144 4.8%	33 1.1%	6 0.2%	5 0.2%	3,000 100.0%	
	중	1,444 71.9%	318 15.8%	188 9.4%	30 1.5%	20 1.0%	7 0.3%	2,007 100.0%	
	고	367 71.5%	45 8.8%	62 12.1%	23 4.5%	10 1.9%	6 1.2%	513 100.0%	

*** $p < .001$

마.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사회

○ 사회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전체 응답은 받지 않음(79.7%), 2시간 미만(15.3%), 2시간 이상~4시간 미만(3.9%), 4시간 이상~6시간 미만(0.7%), 6시간 이상~8시간 미만(0.2%), 8시간 이상(0.1%)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19.8%), 2시간 이상~4시간 미만(4.3%), 4시간 이상~6시간 미만(0.8%), 중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11.0%), 2시간 이상~4시간 미만(3.8%), 4시간 이상~6시간 미만(0.7%), 고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5.8%),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9%), 8시간 이상(0.6%) 순이었음. 사회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21〉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사회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 간 미만	4시간 이상~6시 간 미만	6시간 이상~8시 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사회	전체	4,401 79.7%	844 15.3%	216 3.9%	41 0.7%	10 0.2%	8 0.1%	5,520 100.0%	133.754***
	초	2,243 74.8%	594 19.8%	130 4.3%	25 0.8%	5 0.2%	3 0.1%	3,000 100.0%	
	중	1,690 84.2%	220 11.0%	76 3.8%	15 0.7%	4 0.2%	2 0.1%	2,007 100.0%	
	고	468 91.2%	30 5.8%	10 1.9%	1 0.2%	1 0.2%	3 0.6%	513 100.0%	

*** $p < .001$

바. (1주일) 사교육 참여 시간: 예체능

-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전체 응답은 받지 않음(52.0%), 2시간 미만(20.2%),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2.2%), 4시간 이상~6시간 미만(10.5%), 6시간 이상~8시간 미만(2.7%), 8시간 이상(2.4%),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25.5%),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6.8%), 4시간 이상~6시간 미만(16.3%), 중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15.2%), 2시간 이상~4시간 미만(7.7%), 4시간 이상~6시간 미만(4.2%), 고등학생 학부모는 2시간 미만(9.2%), 8시간 이상(3.5%), 2시간 이상~4시간 미만(2.5%) 순임. 예체능 교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22〉 학부모의 자녀 1주일 평균 예체능 사교육 참여 시간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받지 않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χ^2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전체	2,870 52.0%	1,116 20.2%	671 12.2%	582 10.5%	151 2.7%	130 2.4%	5,520 100.0%	-
	초	1,027 34.2%	764 25.5%	503 16.8%	488 16.3%	128 4.3%	90 3.0%	3,000 100.0%	913.992***
	중	1,422 70.9%	305 15.2%	155 7.7%	85 4.2%	18 0.9%	22 1.1%	2,007 100.0%	
	고	421 82.1%	47 9.2%	13 2.5%	9 1.8%	5 1.0%	18 3.5%	513 100.0%	

*** $p < .001$

- 학부모의 응답 결과, 사교육 참여는 주로 수학과 영어 과목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두 과목이 전체 사교육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영어는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국어는 기초학력 보완 목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반면, 사회와 예체능 영역은 선택적·부가적 성격의 사교육으로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 학부모들이 핵심 교과 중심의 학업 경쟁 대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시사함.

3. 사교육 목적

- 학부모의 사교육(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예체능) 목적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사교육 목적: 국어

- 사교육 참여 응답자(2,224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어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의 전체 응답은 보충학습(50.4%), 선행학습(20.1%), 심화학습(17.4%), 흥미/자기개발(10.0%), 모르겠음(1.7%), 친구관계(0.5%)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50.2%), 선행학습(19.6%), 흥미/자기개발(14.1%), 중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50.5%), 선행학습(21.5%), 심화학습(20.5%), 고등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50.6%), 심화학습(28.0%), 선행학습(18.4%) 순으로 나타남. 국어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23〉 학부모의 자녀 국어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2,224

항목	구분	보충학습	선행학습	심화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관계	모르겠음	계	χ^2
국어	전체	1,120 50.4%	446 20.1%	386 17.4%	222 10.0%	12 0.5%	38 1.7%	2,224 100.0%	-
	초	668 50.2%	261 19.6%	185 13.9%	187 14.1%	5 0.4%	24 1.8%	1,330 100.0%	89.887***
	중	331 50.5%	141 21.5%	134 20.5%	32 4.9%	5 0.8%	12 1.8%	655 100.0%	
	고	121 50.6%	44 18.4%	67 28.0%	3 1.3%	2 0.8%	2 0.8%	239 100.0%	

*** $p < .001$

나. 사교육 목적: 수학

- 사교육 참여 응답자(2,122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의 전체 응답은 보충학습(39.8%), 선행학습(36.2%), 심화학습(20.3%), 흥미/자기개발(2.4%), 모르겠음(1.2%), 친구관계(0.1%)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40.9%), 선행학습(37.7%), 심화학습(17.8%), 중학생 학부모는 선행학습(37.7%), 보충학습(36.5%), 심화학습(21.8%), 고등학생 학부모 역시 보충학습(42.7%), 심화학습(30.2%), 선행학습(23.6%) 순임.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24〉 학부모의 자녀 수학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2,122

항목	구분	보충학습	선행학습	심화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관계	모르겠음	계	χ^2
수학	전체	844 39.8%	768 36.2%	431 20.3%	50 2.4%	3 0.1%	26 1.2%	2,122 100.0%	40.547***
	초	515 40.9%	474 37.7%	224 17.8%	28 2.2%	1 0.1%	16 1.3%	1,258 100.0%	
	중	233 36.5%	241 37.7%	139 21.8%	18 2.8%	- 0.0%	8 1.3%	639 100.0%	
	고	96 42.7%	53 23.6%	68 30.2%	4 1.8%	2 0.9%	2 0.9%	225 100.0%	

*** $p<.001$

다. 사교육 목적: 영어

- 사교육 참여 응답자(2,072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영어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의 전체 응답은 보충학습(37.7%), 선행학습(35.4%), 심화학습(19.3%), 흥미/자기개발(6.1%), 모르겠음(1.4%), 친구관계(0.1%)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선행학습(37.9%), 보충학습(35.2%), 심화학습(16.7%), 중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38.3%), 선행학습(36.7%), 심화학습(20.7%), 고등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50.7%), 심화학습(29.9%), 선행학습(16.6%) 순임. 영어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25〉 학부모의 자녀 영어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2,072

항목	구분	보충학습	선행학습	심화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관계	모르겠음	계	χ^2
영어	전체	781 37.7%	733 35.4%	399 19.3%	126 6.1%	3 0.1%	30 1.4%	2,072 100.0%	-
	초	436 35.2%	470 37.9%	207 16.7%	105 8.5%	1 0.1%	20 1.6%	1,239 100.0%	84.691***
	중	238 38.3%	228 36.7%	129 20.7%	18 2.9%	1 0.2%	8 1.3%	622 100.0%	
	고	107 50.7%	35 16.6%	63 29.9%	3 1.4%	1 0.5%	2 0.9%	211 100.0%	

*** $p < .001$

라. 사교육 목적: 과학

- 사교육 참여 응답자(1,315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학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의 전체 응답은 보충학습(55.1%), 선행학습(25.2%), 심화학습(10.3%), 흥미/자기개발(6.7%), 모르겠음(2.5%), 친구관계(0.2%)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56.9%), 선행학습(24.3%), 흥미/자기개발(8.9%), 중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51.9%), 선행학습(29.6%), 심화학습(12.3%), 고등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53.4%), 심화학습(25.0%), 선행학습(16.4%) 순임. 과학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26〉 학부모의 자녀 과학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1,315

항목	구분	보충학습	선행학습	심화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관계	모르겠음	계	χ^2
과학	전체	724 55.1%	331 25.2%	136 10.3%	88 6.7%	3 0.2%	33 2.5%	1,315 100.0%	-
	초	455 56.9%	194 24.3%	58 7.3%	71 8.9%	2 0.3%	20 2.5%	800 100.0%	59.129***
	중	207 51.9%	118 29.6%	49 12.3%	14 3.5%	- 0.0%	11 2.8%	399 100.0%	
	고	62 53.4%	19 16.4%	29 25.0%	3 2.6%	1 0.9%	2 1.7%	116 100.0%	

*** $p < .001$

마. 사교육 목적: 사회

- 사교육 참여 응답자(1,009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의 전체 응답은 보충학습(62.1%), 선행학습(22.4%), 심화학습(6.8%), 흥미/자기개발(4.9%), 모르겠음(3.3%), 친구관계(0.5%) 순임.
- 초등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60.9%), 선행학습(23.9%), 심화학습(6.4%), 중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65.0%), 선행학습(19.4%), 심화학습(7.6%), 고등학생 학부모는 보충학습(64.6%), 선행학습(16.7%), 심화학습(8.3%) 순으로 나타남. 사회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4-27〉 학부모의 자녀 사회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1,009

항목	구분	보충학습	선행학습	심화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관계	모르겠음	계	χ^2
사회	전체	627 62.1%	226 22.4%	69 6.8%	49 4.9%	5 0.5%	33 3.3%	1,009 100.0%	-
	초	425 60.9%	167 23.9%	45 6.4%	36 5.2%	3 0.4%	22 3.2%	698 100.0%	7.566
	중	171 65.0%	51 19.4%	20 7.6%	10 3.8%	1 0.4%	10 3.8%	263 100.0%	
	고	31 64.6%	8 16.7%	4 8.3%	3 6.3%	1 2.1%	1 2.1%	48 100.0%	

바. 사교육 목적: 예체능

- 사교육 참여 응답자(1,254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과 사교육 참여 목적의 전체 응답은 흥미/자기개발(76.6%), 보충학습(12.2%), 선행학습(3.6%), 친구관계(3.1%), 심화학습(2.6%), 모르겠음(1.9%)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흥미/자기개발(79.0%), 보충학습(10.9%), 선행학습(3.4%), 중학생 학부모는 흥미/자기개발(72.7%), 보충학습(14.1%), 선행학습(4.0%), 고등학생 학부모는 흥미/자기개발(45.0%), 보충학습(32.5%), 선행학습(5.0%) 순으로 나타남.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과 사교육 사교육 참여 목적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28〉 학부모의 자녀 예체능 사교육 목적 교차분석 결과

N=1,254

항목	구분	보충학습	선행학습	심화학습	흥미/ 자기개발	친구관계	모르겠음	계	χ^2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전체	153 12.2%	45 3.6%	32 2.6%	961 76.6%	39 3.1%	24 1.9%	1,254 100.0%	-
	초	105 10.9%	33 3.4%	19 2.0%	762 79.0%	30 3.1%	16 1.7%	965 100.0%	41.157***
	중	35 14.1%	10 4.0%	8 3.2%	181 72.7%	8 3.2%	7 2.8%	249 100.0%	
	고	13 32.5%	2 5.0%	5 12.5%	18 45.0%	1 2.5%	1 2.5%	40 100.0%	

*** $p < .001$

-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교육의 주요 목적은 교과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수학과 영어는 보충·선행·심화학습 중심으로, 성적 향상과 입시 대비를 위한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국어는 기초학습 및 내신 보완, 과학과 사회는 진학 대비 및 입시 준비, 예체능은 흥미와 재능 개발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이는 학부모가 핵심 교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비교과 영역에서는 자아 실현과 흥미 중심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교육 참여가 학업 성취와 진로 탐색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님을 시사함.

4. 사교육 비용

- 학부모의 사교육(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예체능) 비용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1개월) 사교육 비용: 국어

- 사교육 참여 응답자(2,000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어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의 전체 응답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7.5%), 5만원 미만(26.1%),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0.2%),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8.6%),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4.0%), 50만원 이상(2.3%),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4%)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5만원 미만(33.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8.1%),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5.4%),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8.6%), 50만원 이상(2.0%),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6%),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0.6%) 순임. 중학생 학부모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34.0%),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22.8%), 5만원 미만(18.1%),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6.4%),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4.8%), 50만원 이상(2.2%),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7%) 순임. 고등학생 학부모는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63.1%),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4.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6.9%), 5만원 미만(5.1%),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4.6%), 50만원 이상(4.1%),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4%) 순으로 나타남. 국어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29〉 학부모의 자녀 국어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N=2,000

항목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χ^2
국어	전체	522 26.1%	404 20.2%	550 27.5%	372 18.6%	79 4.0%	27 1.4%	46 2.3%	2,000 100.0%	-
	초	406 33.7%	306 25.4%	338 28.1%	103 8.6%	19 1.6%	7 0.6%	24 2.0%	1,203 100.0%	589.794***
	중	105 18.1%	95 16.4%	197 34.0%	132 22.8%	28 4.8%	10 1.7%	13 2.2%	580 100.0%	
	고	11 5.1%	3 1.4%	15 6.9%	137 63.1%	32 14.7%	10 4.6%	9 4.1%	217 100.0%	

*** $p < .001$

나. (1개월) 사교육 비용: 수학

○ 사교육 참여 응답자(2,030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학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의 전체 응답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24.2%),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2.7%), 5만원 미만(15.0%),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2.3%),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1.8%), 50만원 이상(7.7%),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6.4%)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9.9%), 5만원 미만(20.5%),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9.2%),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7.1%),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7.9%),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3.6%), 50만원 이상(1.8%) 순임. 중학생 학부모는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36.5%),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5.0%),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4.2%), 50만원 이상(11.5%),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8.1%), 5만원 미만(7.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6.9%) 순임. 고등학생 학부모는 50만원 이상(29.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26.6%),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6.8%),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6.4%), 5만원 미만(4.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4.2%),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4%) 순임. 수학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30〉 학부모의 자녀 수학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N=2,030

항목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χ^2
수학	전체	304 15.0%	250 12.3%	460 22.7%	491 24.2%	240 11.8%	129 6.4%	156 7.7%	2,030 100.0%	-
	초	245 20.5%	204 17.1%	358 29.9%	230 19.2%	95 7.9%	43 3.6%	21 1.8%	1,196 100.0%	565.128***
	중	49 7.9%	43 6.9%	93 15.0%	226 36.5%	88 14.2%	50 8.1%	71 11.5%	620 100.0%	
	고	10 4.7%	3 1.4%	9 4.2%	35 16.4%	57 26.6%	36 16.8%	64 29.9%	214 100.0%	

*** $p < .001$

다. (1개월) 사교육 비용: 영어

○ 사교육 참여 응답자(1,997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영어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의 전체 응답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37.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9.4%),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6.9%), 5만원 미만(10.4%),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9.9%),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3.8%), 50만원 이상(1.9%)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35.1%),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4.0%), 5만원 미만(12.6%),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2.7%),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0.9%),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3.3%), 50만원 이상(1.4%) 순임. 중학생 학부모는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41.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22.3%),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5.3%), 5만원 미만(7.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7.1%),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3.9%), 50만원 이상(1.6%) 순임. 고등학생 학부모는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40.4%),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36.0%),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6.4%), 50만원 이상(5.4%), 5만원 미

만(5.4%),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4.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5%) 순임. 영어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31〉 학부모의 자녀 영어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N=1,997

항목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χ^2
영어	전체	208 10.4%	197 9.9%	387 19.4%	753 37.7%	338 16.9%	76 3.8%	38 1.9%	1,997 100.0%	187.303***
	초	149 12.6%	151 12.7%	284 24.0%	416 35.1%	129 10.9%	39 3.3%	17 1.4%	1,185 100.0%	
	중	48 7.9%	43 7.1%	93 15.3%	255 41.9%	136 22.3%	24 3.9%	10 1.6%	609 100.0%	
	고	11	3	10	82	73	13	11	203	
		5.4%	1.5%	4.9%	40.4%	36.0%	6.4%	5.4%	100.0%	

*** $p < .001$

라. (1개월) 사교육 비용: 과학

- 사교육 참여 응답자(1,135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학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의 전체 응답은 5만원 미만(44.1%),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3.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7.4%),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9.4%),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2.9%), 50만원 이상(2.3%),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0%)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5만원 미만(54.7%),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6.8%),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4.0%),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2.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0.9%), 50만원 이상(0.4%),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0.3%) 순임. 중학생 학부모는 5만원 미만(32.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5.4%),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0.7%),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5.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4.0%),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2%), 50만원 이상(0.9%) 순임. 고등학생 학부모는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31.4%), 50만원 이상(19.6%), 5만원 미만(13.7%),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2.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2.7%),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4.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4.9%) 순임. 과학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32〉 학부모의 자녀 과학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N=1,135

항목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χ^2
과학	전체	500 44.1%	261 23.0%	197 17.4%	107 9.4%	33 2.9%	11 1.0%	26 2.3%	1,135 100.0%	-
	초	375 54.7%	184 26.8%	96 14.0%	20 2.9%	6 0.9%	2 0.3%	3 0.4%	686 100.0%	398.383***
	중	111 32.0%	72 20.7%	88 25.4%	55 15.9%	14 4.0%	4 1.2%	3 0.9%	347 100.0%	
	고	14 13.7%	5 4.9%	13 12.7%	32 31.4%	13 12.7%	5 4.9%	20 19.6%	102 100.0%	

*** $p < .001$

마. (1개월) 사교육 비용: 사회

- 사교육 참여 응답자(836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의 전체 응답은 5만원 미만(52.8%),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8.9%),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2.3%),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3.6%),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0%),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0.5%)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5만원 미만(56.6%),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7.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1.3%),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2.2%),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0%),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0.2%) 순임. 중학생 학부모는 5만원 미만(43.3%),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34.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6.3%),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4.7%),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0.9%),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0.5%) 순임. 고등학생 학부모는 5만원 미만(44.8%),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24.1%),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7.2%),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6.9%),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3.4%), 50만원 이상(3.4%),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0.0%) 순임. 사회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33〉 학부모의 자녀 사회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N=836

항목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χ^2
사회	전체	441 52.8%	242 28.9%	103 12.3%	30 3.6%	8 1.0%	4 0.5%	8 1.0%	836 100.0%	-
	초	335 56.6%	164 27.7%	67 11.3%	13 2.2%	6 1.0%	1 0.2%	6 1.0%	592 100.0%	81.191***
	중	93 43.3%	73 34.0%	35 16.3%	10 4.7%	2 0.9%	1 0.5%	1 0.5%	215 100.0%	
	고	13 44.8%	5 17.2%	1 3.4%	7 24.1%	- 0.0%	2 6.9%	1 3.4%	29 100.0%	

*** $p < .001$

바. (1개월) 사교육 비용: 예체능

○ 사교육 참여 응답자(1,142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의 전체 응답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52.2%),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5.5%),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4.4%), 5만원 미만(9.3%),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5.2%), 50만원 이상(2.0%),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5%) 순임.

○ 학교급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54.5%),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6.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2.4%), 5만원 미만(8.1%),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5.7%), 50만원 이상(1.2%),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2%) 순임. 중학생 학부모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44.0%),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3.9%), 5만원 미만(12.9%),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0.0%),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3.3%), 50만원 이상(3.3%),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2.4%) 순임. 고등학생 학부모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39.3%), 5만원 미만(21.4%), 50만원 이상(17.9%),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0.7%),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7.1%),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3.6%),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0.0%) 순임.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과 사교육 지출 비용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34〉 학부모의 자녀 예체능 사교육 지출 비용 교차분석 결과

N=1,142

항목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χ^2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전체	106 9.3%	164 14.4%	596 52.2%	177 15.5%	59 5.2%	17 1.5%	23 2.0%	1,142 100.0%	-
	초	73 8.1%	112 12.4%	493 54.5%	153 16.9%	52 5.7%	11 1.2%	11 1.2%	905 100.0%	81.125***
	중	27 12.9%	50 23.9%	92 44.0%	21 10.0%	7 3.3%	5 2.4%	7 3.3%	209 100.0%	
	고	6	2	11	3	-	1	5	28	
		21.4%	7.1%	39.3%	10.7%	0.0%	3.6%	17.9%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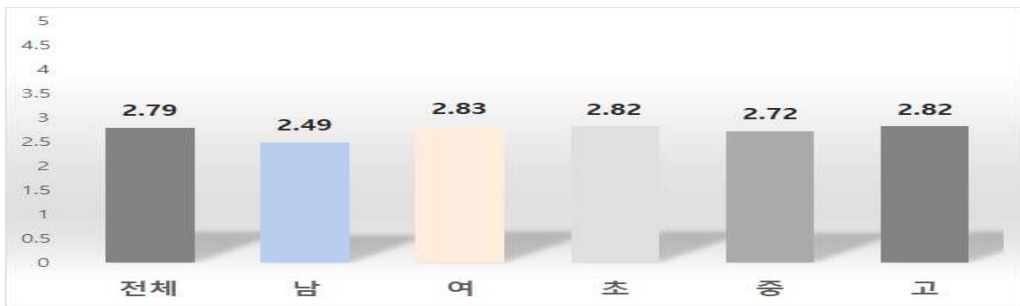
- 학부모의 응답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은 수학과 영어에 가장 집중되어 있었으며, 과학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반면 국어와 사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수준을 보여, 사교육비 구조가 입시 핵심 과목(수학·영어·과학)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영어와 예체능은 모든 학교급에서 일정 수준의 지출이 꾸준히 유지되는 과목으로 나타났음. 영어는 입시 대비뿐 아니라 글로벌 역량 강화, 인증시험, 조기교육 등 장기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으며, 예체능은 취미·특기 계발과 재능 발굴, 진학 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단순한 학업 보충을 넘어 자녀의 경쟁력과 진로 역량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줌.

제4절 웰빙

1. 정신건강

가. 평상시 스트레스

- 학부모의 **평상시 스트레스**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그림 4-8], <표 4-35>과 같음
- 학부모의 **평상시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79(SD=0.95)임.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평균 2.49(SD=0.94) 대비 여성 학부모의 평균 2.83(SD=0.95)이 높았음.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2.82(SD=0.94), 고등학교 2.82(SD=1.02), 중학교 2.72(SD=0.95)로 중학교 대비 초등학교 학부모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평균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4-5] 학부모 평상시 스트레스

<표 4-35> 학부모의 평상시 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스트레스	전체	5,520	2.79	0.95	-	-
	남	684	2.49	0.94	-8.782***	-
	여	4,836	2.83	0.95		
	초	3,000	2.82	0.94	7.169**	초>중
	중	2,007	2.72	0.95		
	고	513	2.82	1.02		

*** $p<.001$, ** $p<.01$

나. 자살생각

- 학부모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4-36>와 같음.
- 학부모의 자살 생각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부정(없음)의 응답 비율이 98.5%. 긍정(있음)의 응답 비율이 1.5%로 나타남. 성별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98% 이상임.
- 성별에서 남성 학부모의 없음의 응답 비율(98.5%)과 여성 학부모의 응답 비율(98.5%)이 같았음. 학교급에서 없음은 중학교 98.9%, 초등학교 98.5%, 고등학교 97.1% 순이었으며, 있음에 대한 응답 비율은 고등학교(2.9%)에서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36> 학부모 자살생각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자살생각	전체	82	5,438	5,520	-
		1.5%	98.5%	100.0%	
	남	10	674	684	0.003
		1.5%	98.5%	100%	
	여	72	4,764	4,836	
		1.5%	98.5%	100%	
	초	44	2,956	3,000	8.842*
		1.5%	98.5%	100.0%	
	중	23	1,984	2,007	
		1.1%	98.9%	100.0%	
	고	15	498	513	
		2.9%	97.1%	100.0%	

* $p < .05$

다. 우울감

- 학부모의 **우울함 여부**(있음, 없음)에 대한 성별과 자녀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4-37>과 같음.
- 학부모의 우울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부정(없음)의 응답 비율이 81.6%, 긍정(있음)의 응답 비율이 18.6%로 나타남.
- 성별에서 없음의 응답 비율이 남성 학부모는 87.9%, 여성 학부모는 80.5%로 나타났으며, 여성

학부모의 긍정 응답 비율(19.5%)이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없음의 비율은 중학교 학부모(84.1%), 초등학교 학부모(80.7%), 고등학교 학부모(75.6%) 순이었으며,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37〉 학부모 우울감 교차분석 결과

N=5,520

항목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우울감	전체	1,024 18.6%	4,496 81.6%	5,520 100.0%	-
	남	83 12.1%	601 87.9%	684 100.0%	21.273***
	여	941 19.5%	3,895 80.5%	4,836 100.0%	
	초	579 19.3%	2,421 80.7%	3,000 100.0%	21.623***
	중	320 15.9%	1,687 84.1%	2,007 100.0%	
	고	125 24.4%	388 75.6%	513 100.0%	

*** $p<.001$

- 학부모의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은 초등과 고등학교 학부모와 여성 학부모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였음. 이는 초등에서는 자녀의 돌봄 그리고 고등에서는 자녀의 진학입시 부담, 학업 관리 등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 대상의 정서 지원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봄과 진로 지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한편 우울감이나 자살생각 경험은 초·중학교보다 고등학교 학부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의 약 25%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는 자녀의 입시 부담과 진로 불안뿐 아니라, 학부모 자신의 연령대·생애주기적 요인(중년기 스트레스, 돌봄·경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적 회복 지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리·사회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후속 심층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제5절 소결

1. 학교인식

- 학부모의 학교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와 가정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 형성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중·고등학교 학부모 집단에서 학업 경쟁과 진로 부담이 커지면서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교사에 대한 인식 또한 초등학교에서 높고 중학교에서 낮았으며, 이는 사춘기 시기의 특성과 교사-학부모 간 소통 감소에 기인함. 따라서 학교급별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활동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함.
- 또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인식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여성 학부모는 프로그램 질과 운영 방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자녀의 흥미 및 진로 탐색과 연계될 때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단순 취미형 활동에서 진로·역량 중심의 심화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시설과 안전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의 평가를 보였으나, 초등학교 학부모와 여성 학부모의 학교 주변 안전 우려가 높게 나타나,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연계 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전반적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상담이나 총회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참여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마련이 필요함.

2. 가정지원

- 학부모의 가정 내 교육지원 인식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초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고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낮은 경향이 확인됨.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고, 여가나 취미 활동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정서적 교류가 활발하였음. 반면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자녀의 자율성 확대와 학업 독립으로 인해 학습지원과 상호작용의 체감도가 낮음. 이에 따라 학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자녀 간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대는 전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 수준으로 높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

교 학부모에서 기대 수준이 더 높음. 사교육 참여는 주로 수학과 영어 중심으로 집중되었고, 과학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음. 국어와 사회는 기초학습 보완 수준, 예체능은 흥미와 재능 개발 중심의 참여 양상을 나타냈음. 영어와 예체능은 전 학교급에서 꾸준히 투자 되는 과목으로, 이는 학부모가 입시 경쟁력과 자녀의 진로 역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지출 패턴을 보여줌. 전반적으로 가정은 학교의 보완적 학습공간이자 정서적 돌봄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학교와의 협력적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가정의 교육역할을 지원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3. 웰빙

- 학부모의 정서적 웰빙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여성 학부모에게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확인되었음.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과 양육 부담, 고등학교에서는 자녀의 진학·입시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학부모의 우울감 경험률은 약 3분의 1로, 스트레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고등학교 학부모의 4명 중 1명이 이유 없는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녀 문제뿐 아니라 중년기 생애주기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되며, 학부모 대상의 정서 지원 및 심리상담, 생애단계별 회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학부모의 웰빙은 자녀의 교육 만족도와 학교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는 학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돌봄·진로·심리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가족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를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 기반의 회복적 교육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4. 종합

- 학부모의 학교 인식은 학교 교육과 교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학교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음. 중·고등학교에서 학업 경쟁과 진로 부담으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음. 특히 여성 및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돌봄과 입시 부담을 완화할 심리·정서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함이 드러났음. 학부모를 단순한 교육참여자가 아닌 학교의 협력적 관계로 인식하고, 가정·학교·지역이 연계된 통합적 교육공동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함.

제5장 교사 결과

제1절 배경

제2절 직무

제3절 학교인식

제4절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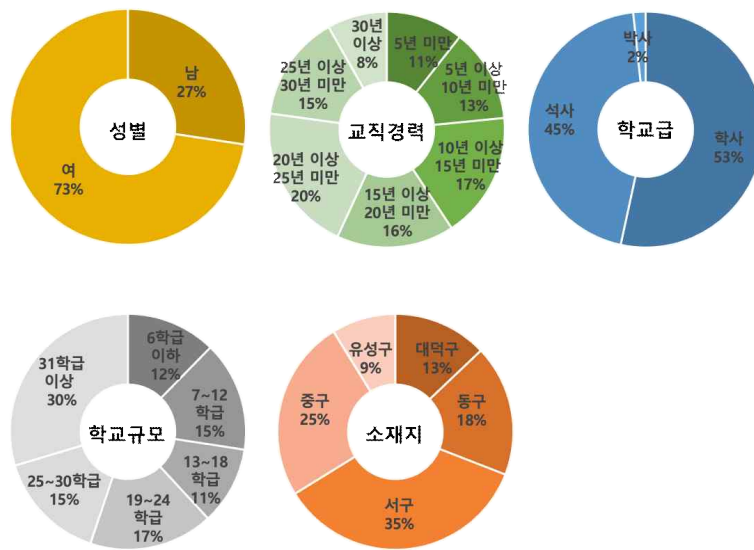
제5절 소결

제5장 교사 결과

제1절 배경

- 교사 응답자의 성별, 교직 경력,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및 최종학력을 포함한 개인배경 및 학교배경 현황은 <표 5-1>과 같음.
- 설문에 응한 교사는 1,437명으로 초등학교 교사 471명(32.8%), 중학교 교사 525명(36.5%), 고등학교 교사 441명(30.7%)이었음.
- 성별은 전체 응답자 중 여교사 72.6%, 남교사 27.4%였음.
- 경력은 전체 응답자 중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이 20.3%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17.3%), 15년 이상 20년 미만(16.1%) 순이었음.
-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은 초등 표시과목(94.9%), 중·고등학교 교사는 국어(8.6%), 수학(9.2%), 영어(7.4%)가 많고,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도덕·윤리, 체육,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교과 자격이 있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전문교과(7.9%) 비율이 높았음.
- 최종학력은 전체 응답자 중 학사 학위가 53.4%, 석사 학위가 44.9%, 박사 학위가 1.7%였음.
-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자공고가 328교(74.4%), 마이스터고 54교(12.2%),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20교(4.5%), 특성화고 21교(4.8%), 자율형사립고 9교(2.0%), 예술고·체육고 9교(2.0%)였음.
- 설립 유형은 공립이 1,152교(80.2%), 사립은 285교(19.8%)였음.

- **학교규모**는 31학급 이상이 426교(29.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9~24학급 244교(17.0%), 25~30학급 219교(15.2%), 7~12학급 217교(15.1%), 6학급 이하 177교(12.3%), 13~18학급 154교(10.7%) 순이었음.
- **학교 소재지**는 서구 507교(35.3%), 중구 359교(25.0%), 동구 259교(18.0%), 대덕구 185교(12.9%), 유성구 127교(8.8%)였음.



[그림 5-1] 교사 응답 현황(성별, 교직경력, 학교급, 학교규모, 소재지)

<표 5-1> 교사 개인 및 학교배경

N=1,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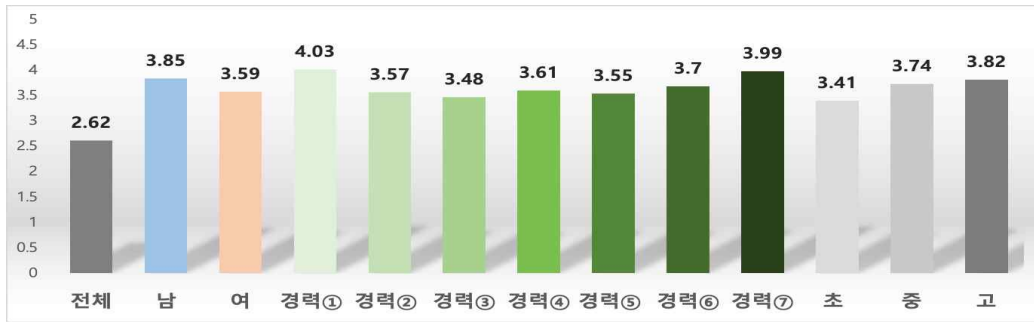
구분	항목	초 (n=471)		중 (n=525)		고 (n=441)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71	32.8%	525	36.5%	441	30.7	1,437	100.0%
성별	남	65	13.8%	130	24.8%	199	45.1%	394	27.4%
	여	406	86.2%	395	75.2%	242	54.9%	1,043	72.6%
교직 경력	5년 미만	13	2.8%	70	13.3%	70	15.9%	153	10.6%
	5년 이상 10년 미만	36	7.6%	72	13.7%	76	17.2%	184	12.8%
	10년 이상 15년 미만	98	20.8%	75	14.3%	76	17.2%	249	17.3%
	15년 이상 20년 미만	97	20.6%	72	13.7%	62	14.1%	231	16.1%
	20년 이상 25년 미만	123	26.1%	105	20.0%	64	14.5%	292	20.3%
	25년 이상 30년 미만	81	17.2%	69	13.1%	60	13.6%	210	14.6%
	30년 이상	23	4.9%	62	11.8%	33	7.5%	118	8.2%

구분	항목	초 (n=471)		중 (n=525)		고 (n=441)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원 자격증 표시 과목	초등	447	94.9%	0	0.0%	0	0.0%	447	31.1%
	국어	1	0.2%	72	13.7%	50	11.3%	123	8.6%
	도덕·윤리	1	0.2%	30	5.7%	17	3.9%	48	3.3%
	공통사회	0	0.0%	3	0.6%	1	0.2%	4	0.3%
	일반사회	1	0.2%	15	2.9%	22	5.0%	38	2.6%
	지리	0	0.0%	5	1.0%	12	2.7%	17	1.2%
	역사	0	0.0%	34	6.5%	25	5.7%	59	4.1%
	수학	4	0.8%	62	11.8%	66	15.0%	132	9.2%
	공통과학	2	0.4%	5	1.0%	0	0.0%	7	0.5%
	물리	0	0.0%	16	3.0%	16	3.6%	32	2.2%
	화학	0	0.0%	15	2.9%	14	3.2%	29	2.0%
	생물	0	0.0%	15	2.9%	19	4.3%	34	2.4%
	지구과학	0	0.0%	10	1.9%	19	4.3%	29	2.0%
	기술	0	0.0%	19	3.6%	2	0.5%	21	1.5%
	가정	0	0.0%	17	3.2%	5	1.1%	22	1.5%
	체육	2	0.4%	36	6.9%	15	3.4%	53	3.7%
	미술	1	0.2%	27	5.1%	13	2.9%	41	2.9%
	음악	1	0.2%	22	4.2%	10	2.3%	33	2.3%
	영어	4	0.8%	58	11.0%	44	10.0%	106	7.4%
	제2외국어(영어 제외)	0	0.0%	4	0.8%	27	6.1%	31	2.2%
	한문	0	0.0%	20	3.8%	3	0.7%	23	1.6%
	진로·진학 상담	0	0.0%	8	1.5%	3	0.7%	11	0.8%
	정보와컴퓨터	0	0.0%	5	1.0%	8	1.8%	13	0.9%
	전문교과	1	0.2%	3	0.6%	35	7.9%	39	2.7%
	기타	6	1.3%	24	4.6%	15	3.4%	45	3.1%
최종 학력	학사	232	49.3%	285	54.3%	251	56.9%	768	53.4%
	석사	234	49.7%	232	44.2%	179	40.6%	645	44.9%
	박사	5	1.1%	8	1.5%	11	2.5%	24	1.7%
고등 학교 유형	일반고/자공고					328	74.40%		
	특성화고					21	4.80%		
	자율형사립고					9	2.00%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20	4.50%		
	마이스터고					54	12.20%		
	예술고/체육고					9	2.00%		
설립 유형	공립	468	99.4%	428	81.5%	256	58.0%	1,152	80.2%
	사립	3	0.6%	97	18.5%	185	42.0%	285	19.8%
학교 규모	6학급 이하	28	5.9%	112	21.3%	37	8.4%	177	12.3%
	7~12학급	55	11.7%	127	24.2%	35	7.9%	217	15.1%
	13~18학급	69	14.6%	74	14.1%	11	2.5%	154	10.7%
	19~24학급	89	18.9%	59	11.2%	96	21.8%	244	17.0%
	25~30학급	71	15.1%	63	12.0%	85	19.3%	219	15.2%
	31학급 이상	159	33.8%	90	17.1%	177	40.1%	426	29.6%
학교 소재지	대덕구	75	15.9%	75	14.3%	35	7.9%	185	12.9%
	동구	66	14.0%	90	17.1%	103	23.4%	259	18.0%
	서구	148	31.4%	193	36.8%	166	37.6%	507	35.3%
	중구	133	28.2%	124	23.6%	102	23.1%	359	25.0%
	유성구	49	10.4%	43	8.2%	35	7.9%	127	8.8%

제2절 직무

1. 직업만족도(교직만족도)

- 교사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그림 5-2], <표 5-2>와 같음.
- 직업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66(SD=1.08)임. 성별에서 남교사의 평균은 3.85(SD=1.06)으로 여교사 평균 3.59(SD=1.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 교사의 평균이 4.03(SD=0.95)으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 3.48(SD=1.21), 15년 이상 20년 미만 3.61(SD=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3.55(SD=1.11) 교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또한 30년 이상 교사(3.99, SD=0.91)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및 20년 이상 25년 미만 교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이 3.41(SD=1.17)으로 가장 낮고, 중학교 평균 3.74(SD=1.03), 고등학교 평균 3.82(SD=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사의 직업만족도는 평균 이상 수준(3.66)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남교사와 근속연수가 짧거나 30년 이상인 교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경력 초기 교사들이 직무 열의와 성장 기대감이 높은 한편 장기 근속 교사들은 직무 안정성과 조직 적응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중간 경력대(10~25년)의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직무 부담이나 역할 갈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교직 경력과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과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함.



[그림 5-2] 교사의 직업만족도

〈표 5-2〉 교사의 직업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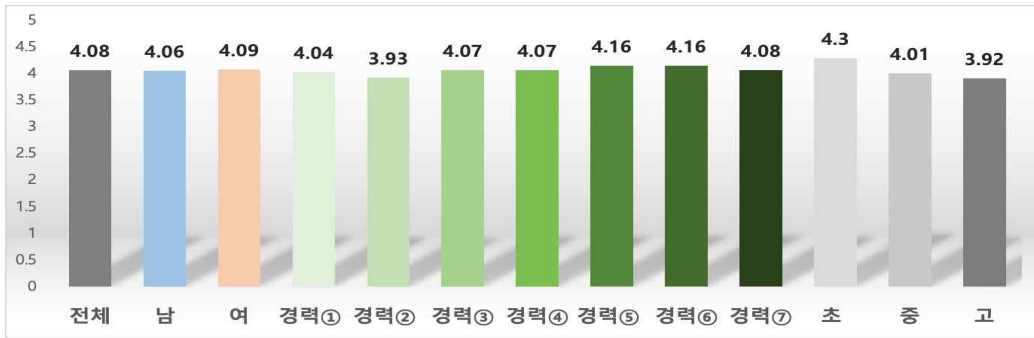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66	1.08	-	-
성별	남	394	3.85	1.06	4.09***	
	여	1043	3.59	1.0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03	0.95	2.66***	②,③,④,⑤<① ③,⑤<⑦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57	1.14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48	1.21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61	1.0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55	1.11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7	0.93		
	⑦ 30년 이상	118	3.99	0.91		
학교급	초	471	3.41	1.17	4.35***	초<중, 고
	중	525	3.74	1.03		
	고	441	3.82	1.00		

*** $p < .001$

2. 수업전문성

가. 교사효능감

- 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평균과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과 같음.
- 교사효능감 전체 평균은 4.08(SD=0.61)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06(SD=0.65), 여교사 평균 4.09(SD=0.59)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04(SD=0.64),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93(SD=0.6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07(SD=0.66),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07(SD=0.5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16(SD=0.61),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16(SD=0.52), 30년 이상 경력 평균 4.08(SD=0.58)로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30(SD=0.53), 중학교 평균 4.01(SD=0.60), 고등학교 평균 3.92(SD=0.62)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사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4.08로 나타났으며, 교직 경력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교직 경력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교사보다 20년 이상 25년 미만 및 25년 이상 30년 미만 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음. 이러한 결과는 경력 축적과 발달단계별 교수환경이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며, 경력 초기 교사의 효능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5-3] 교사효능감

〈표 5-3〉 교사의 교사효능감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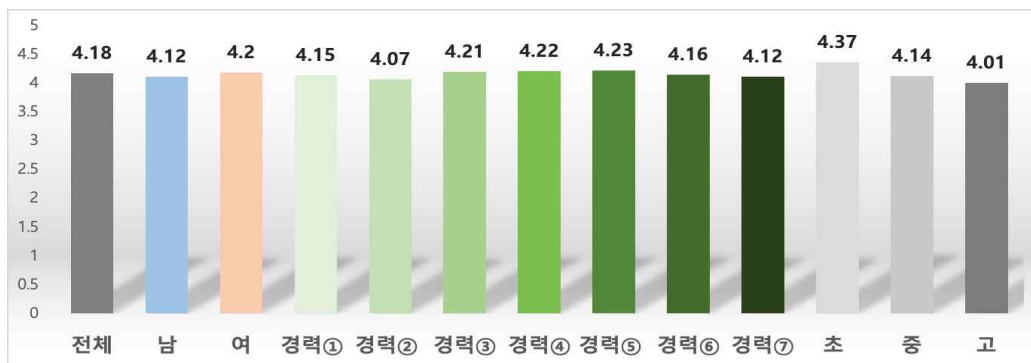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4.08	0.61	-	-
성별	남	394	4.06	0.65	-0.904	
	여	1,043	4.09	0.5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04	0.64	3.476*	②<⑤ ②<⑥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93	0.62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07	0.66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07	0.5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16	0.61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16	0.52		
	⑦ 30년 이상	118	4.08	0.58		
학교급	초	471	4.30	0.53	51.505***	초>중 초>고
	중	525	4.01	0.60		
	고	441	3.92	0.62		

*** $p < .001$, * $p < .05$

나. 교수·학습 설계 전문성

○ 교사의 교수·학습 설계 전문성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평균과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와 같음.

- 교수·학습 설계 전문성 인식 전체 평균은 4.18(SD=0.60)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12(SD=0.62), 여교사 평균 4.20(SD=0.59)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15(SD=0.65),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07(SD=0.65),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21(SD=0.63),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22(SD=0.5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23(SD=0.58),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16(SD=0.51), 30년 이상 경력 평균 4.12(SD=0.56)로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37(SD=0.54), 중학교 평균 4.14(SD=0.58), 고등학교 평균 4.01(SD=0.62)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수·학습 설계 전문성의 전체 평균은 4.18이었으며,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초등학교에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는 환경적 요인과, 여교사의 학습자 중심 수업 접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중등교사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과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요구됨.



[그림 5-4] 교사의 교수·학습 설계 전문성 인식

〈표 5-4〉 교사의 교수·학습 설계 전문성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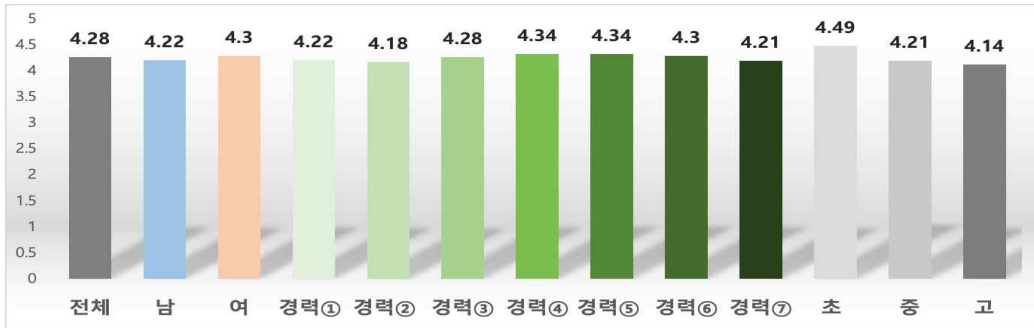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Howell)
전체		1,437	4.18	0.60	-	-
성별	남	394	4.12	0.62	-2.127	0.034
	여	1,043	4.20	0.5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15	0.65	1.757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07	0.65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21	0.63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22	0.5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23	0.58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16	0.51		
	⑦ 30년 이상	118	4.12	0.56		
학교급	초	471	4.37	0.54	45.016**	초>중>고
	중	525	4.14	0.58		
	고	441	4.01	0.62		

** $p < .01$

다. 교수·학습 실행 전문성

- 교사의 교수·학습 실행 전문성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평균과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와 같음.
- 교수·학습 실행 전문성 인식 전체 평균은 4.28(SD=0.56)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22(SD=0.59), 여교사 평균 4.30(SD=0.55)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22(SD=0.59),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18(SD=0.6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28(SD=0.58),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34(SD=0.54),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34(SD=0.56),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30(SD=0.50), 30년 이상 경력 평균 4.21(SD=0.53)로 15년 이상 20년 미만과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49(SD=0.49), 중학교 평균 4.21(SD=0.55), 고등학교 평균 4.14(SD=0.59)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5-5] 교사의 교수·학습 실행 전문성 인식

〈표 5-5〉 교사의 교수·학습 실행 전문성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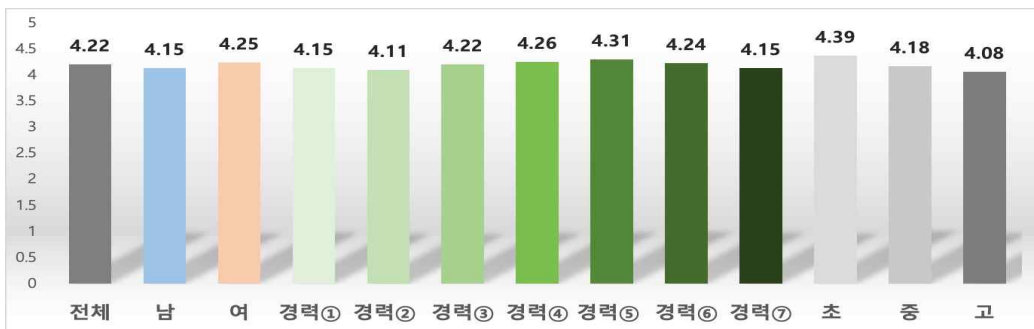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4.28	0.56	-	-
성별	남	394	4.22	0.59	-2.62	
	여	1,043	4.30	0.55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22	0.59	2.49*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18	0.6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28	0.58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34	0.54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34	0.56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30	0.50		
	⑦ 30년 이상	118	4.21	0.53		
학교급	초	471	4.49	0.49	55.29***	초>중 초>고
	중	525	4.21	0.55		
	고	441	4.14	0.59		

*** $p < .001$, * $p < .05$

라.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 교사의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평균과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6>과 같음.
-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전체 평균은 4.22(SD=0.59)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15(SD=0.61), 여교사 평균 4.25(SD=0.59)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15(SD=0.64),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11(SD=0.64),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22(SD=0.63),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26(SD=0.5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31(SD=0.57),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24(SD=0.52), 30년 이상 경력 평균 4.15(SD=0.57)로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39(SD=0.56), 중학교 평균 4.18(SD=0.57), 고등학교 평균 4.08(SD=0.62)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5-6] 교사의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인식

〈표 5-6〉 교사의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4.22	0.59	-	-
성별	남	394	4.15	0.61	-2.89	0.004
	여	1,043	4.25	0.5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15	0.64	2.93**	②<⑤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11	0.64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22	0.63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26	0.5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31	0.57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24	0.52		
	⑦ 30년 이상	118	4.15	0.57		
학교급	초	471	4.39	0.56	34.13	초>중>고
	중	525	4.18	0.57		
	고	441	4.08	0.62		

*** $p<.001$, ** $p<.01$, * $p<.05$

○ 교수·학습 실행 전문성 인식의 전체 평균은 4.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경력·학교급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았고, 경력에서는 15년 이상 20년 미만과 20년 이상 25년 미만 교사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이는 중견 교사층과 초등학교 교사에게서 경험 축적과 교수 자율성이 실행 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줌. 이에 따라 중등학교 교사의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중심 연수와 협력적 학습공동체 운영이 필요함.

○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인식의 전체 평균은 4.22로 나타났으며, 성별·경력·학교급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았고, 20년 이상 25년 미만 교사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교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이는 풍부한 교수 경험과 수행평가 중심의 교수환경이 평가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중등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 피드백 중심의 연수와 평가문화 확산이 필요함.

3. 전문성 개발 지원

가. 전문성 개발 재정 지원

-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재정) 지원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평균과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7>과 같음.
- 전문성 개발 지원(재정)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05(SD=1.10)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29(SD=1.11), 여교사 평균 2.96(SD=1.09)으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12(SD=1.06),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99(SD=1.23),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2.85(SD=1.14),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09(SD=1.12),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00(SD=1.12),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21(SD=0.99), 30년 이상 경력 평균 3.20(SD=0.90)으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과 30년 이상 경력 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사후검정: 30년 이상 경력 >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85(SD=1.15), 중학교 평균 2.76(SD=1.17), 고등학교 평균 2.74(SD=1.16)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7>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재정)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05	1.10	-	-
성별	남	394	3.29	1.11	5.19***	-
	여	1,043	2.96	1.0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12	1.06	2.86**	⑦>③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99	1.23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2.85	1.14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09	1.12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00	1.12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21	0.99		
	⑦ 30년 이상	118	3.20	0.90		
학교급	초	471	2.85	1.15	1.98	-
	중	525	2.76	1.17		
	고	441	2.74	1.16		

*** $p < .001$, ** $p < .01$

나. 전문성 개발 시간 지원

-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시간) 지원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평균과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8>과 같음.
- 전문성 개발 지원(시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2.78(SD=1.16)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2.95(SD=1.20), 여교사 평균 2.72(SD=1.14)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12(SD=1.15),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71(SD=1.2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2.65(SD=1.16),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2.86(SD=1.2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2.71(SD=1.16),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2.77(SD=1.10), 30년 이상 경력 평균 2.79(SD=0.99)로 5년 미만 경력 교사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사후검정: 5년 미만 경력 > 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85(SD=1.15), 중학교 평균 2.76(SD=1.17), 고등학교 평균 2.74(SD=1.16)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8>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시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2.78	1.16	-	-
성별	남	394	2.95	1.20	3.48***	-
	여	1,043	2.72	1.14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12	1.15	3.22**	①>②,③,⑤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71	1.22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2.65	1.16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2.86	1.2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2.71	1.16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2.77	1.10		
	⑦ 30년 이상	118	2.79	0.99		
학교급	초	471	2.85	1.15	1.10	-
	중	525	2.76	1.17		
	고	441	2.74	1.16		

*** $p < .001$, ** $p < .01$

-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재정적·시간적 지원 모두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연수나 연구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활용의 제약과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성별 및 경력별 차이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됨. 남교사는 여교사보다 지원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학교 내 역할 분담과 행정 참여 기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또한 초임 교사와 장기 근속 교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중견 교사는 재정과 시간 모두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여 경력 중기 교사의 전문성 개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이 단순한 예산 증액이나 일회성 연수 기회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교사 경력 단계별 특성과 학교 내 역할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요구됨. 특히 중견 교사에게는 행정·생활지도 업무 경감을 통한 실질적 시간 확보와, 자율적 연수비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나아가 학교 단위의 자율적 연수 예산 운용 및 시간 배분 권한 강화가 필요함. 교사가 스스로 필요를 진단하고 예산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전문성 개발이 형식적 참여를 넘어 자발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학교 내 지속가능한 학습조직 문화가 정착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4. 전문성 개발 기회

- 교사의 **전문성 개발 기회**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응답 빈도와 교차분석 결과는 <표 5-9>와 같음.

가. 기관중심 연수 경험

- **기관 중심 연수(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등) 경험**은 연 12회 439명(30.5%), 연 34회 363명(25.3%), 연 7회 이상 323명(22.5%)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는 연 12회 149명(37.8%), 연 34회 102명(25.9%), 연 0회 16명(4.1%) 순으로 참여하였고, 여교사는 연 12회 290명(27.8%), 연 34회 261명(25.0%), 연 7회

이상 256명(24.5%) 참여하여, 여교사보다 남교사의 참여 빈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참여 횟수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연 12회 71명(46.4%),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연 12회 73명(39.7%),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연 12회 84명(33.7%),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연 34회 70명(30.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연 34회 76명(26.0%),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연 7회 이상 67명(31.9%), 30년 이상 경력 교사는 연 12회 37명(31.4%)였음. 교직 경력에 따른 기관 중심 연수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참여 횟수는 초등학교 연 7회 이상 140명(29.7%), 중학교 연 12회 153명(29.1%), 고등학교 연 12회 166명(37.6%)였음. 학교급에 따른 기관 중심 연수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나. 단위학교 연수 경험

- 교사의 단위학교 중심 연수 참여 빈도는 연 12회 499명(34.7%), 연 34회 456명(31.7%), 연 0회 82명(5.7%)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교사는 연 12회 132명(33.5%), 연 34회 131명(33.2%), 연 0회 24명(6.1%) 순으로, 여교사는 연 12회 367명(35.2%), 연 34회 325명(31.2%), 연 0회 58명(5.6%) 순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별로 5년 미만은 연 12회 59명(38.6%),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 34회 67명(36.4%),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연 12회 87명(34.9%),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연 34회 86명(37.2%),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연 12회 101명(34.6%),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연 34회 71명(33.8%), 30년 이상은 연 1~2회 46명(39.0%)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연 12회 178명(37.8%), 중학교는 연 12회 169명(32.2%), 고등학교는 연 1~2회 152명(34.5%)이었으며, 학교급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다. 교육연구회 경험

- 교사의 **교육연구회 활동 경험**은 연 0회 673명(46.8%), 연 12회 447명(31.1%), 연 34회 158명(11.0%)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교사는 연 0회 150명(38.1%), 연 12회 143명(36.3%), 연 34회 54명(13.7%), 여교사는 연 0회 523명(50.1%), 연 12회 304명(29.1%), 연 34회 104명(10.0%)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은 연 0회 64명(41.8%),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 0회 68명(37.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연 0회 111명(44.6%),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연 0회 111명(48.1%),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연 0회 137명(46.9%),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연 0회 113명(53.8%), 30년 이상은 연 0회 69명(58.5%)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연 0회 264명(56.1%), 중학교는 연 0회 222명(42.3%), 고등학교는 연 0회 187명(42.4%)이었으며, 학교급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라. 교사학습공동체 경험

-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경험**은 연 12회 521명(36.3%), 연 34회 284명(19.8%), 연 0회 259명(18.0%)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교사는 연 12회 145명(36.8%), 연 34회 89명(22.6%), 연 0회 65명(16.5%), 여교사는 연 12회 376명(36.0%), 연 34회 195명(18.7%), 연 0회 194명(18.6%)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은 연 12회 58명(37.9%),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 12회 70명(38.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연 12회 98명(39.4%),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연 12회 80명(34.6%),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연 12회 90명(30.8%),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연 12회 79명(37.6%), 30년 이상은 연 1~2회 46명(39.0%)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연 12회 189명(40.1%), 중학교는 연 12회 160명(30.5%), 고등학교는 연 1~2회 172명(39.0%)이었으며, 학교급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마. 교육청 수업컨설팅 경험

- 교사의 **교육청 수업컨설팅 경험**은 연 0회 776명(54.0%), 연 12회 502명(34.9%), 연 34회 113명(7.9%)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교사는 연 0회 175명(44.4%), 연 12회 156명(39.6%), 연 34회 44명(11.2%), 여교사는 연 0회 601명(57.6%), 연 12회 346명(33.2%), 연 34회 69명(6.6%)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은 연 0회 74명(48.4%),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 0회 97명(52.7%),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연 0회 125명(50.2%),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연 0회 125명(54.1%),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연 0회 164명(56.2%),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연 0회 127명(60.5%), 30년 이상은 연 0회 64명(54.2%)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연 0회 305명(64.8%), 중학교는 연 0회 265명(50.5%), 고등학교는 연 0회 206명(46.7%)이었으며, 학교급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바. 교내 수업장학 경험

- 교사의 **수업장학 경험**은 연 12회 1,064명(74.0%), 연 34회 219명(15.2%), 연 0회 81명(5.6%)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교사는 연 12회 269명(68.3%), 연 34회 71명(18.0%), 연 0회 21명(5.3%), 여교사는 연 12회 795명(76.2%), 연 34회 148명(14.2%), 연 0회 60명(5.8%)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별로 5년 미만은 연 12회 102명(66.7%),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 12회 130명

(70.7%),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연 12회 182명(73.1%),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연 12회 171명(74.0%),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연 12회 226명(77.4%),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연 12회 163명(77.6%), 30년 이상은 연 1~2회 90명(76.3%)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연 12회 383명(81.3%), 중학교는 연 12회 367명(69.9%), 고등학교는 연 1~2회 314명(71.2%)이었으며, 학교급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사.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경험

- 교사의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경험은 연 12회 411명(28.6%), 연 7회 이상 402명(28.0%), 연 34회 316명(22.0%)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남교사는 연 12회 127명(32.2%), 연 34회 92명(23.4%), 연 7회 이상 71명(18.0%), 여교사는 연 12회 284명(27.2%), 연 7회 이상 331명(31.7%), 연 34회 224명(21.5%)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별로 5년 미만은 연 1~2회 53명(34.6%),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 7회 이상 46명(25.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연 7회 이상 76명(30.5%),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연 7회 이상 75명(32.5%),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연 7회 이상 98명(33.6%),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연 7회 이상 60명(28.6%), 30년 이상은 연 7회 이상 27명(22.9%)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연 7회 이상 202명(42.9%), 중학교는 연 12회 166명(31.6%), 고등학교는 연 12회 152명(34.5%)이었으며, 학교급에 따른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9〉 교사의 전문성 개발 기회 인식 교차분석 결과

N=1,437

항목	구분	연 0회	연 1~2회	연 3~4회	연 5~6회	연 7회 이상	계	χ^2
기관 중심 연수 (시·도 교육청, 교육 연수원 등)	전체	47 3.3%	439 30.5%	363 25.3%	265 18.4%	323 22.5%	1,437 100.0%	20.776***
	성별	남	16 4.1%	149 37.8%	102 25.9%	60 15.2%	67 17.0%	394 100.0%
		여	31 3.0%	290 27.8%	261 25.0%	205 19.7%	256 24.5%	1,043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9 5.9%	71 46.4%	38 24.8%	20 13.1%	15 9.8%	153 100.0%
		5년 이상	7 3.8%	73 39.7%	44 23.9%	31 16.8%	29 15.8%	184 100.0%
		10년 미만	11 4.4%	84 33.7%	66 26.5%	45 18.1%	43 17.3%	249 100.0%
		15년 미만	4 1.7%	58 25.1%	70 30.3%	42 18.2%	57 24.7%	231 100.0%
		20년 이상	6 2.1%	60 20.5%	76 26.0%	65 22.3%	85 29.1%	292 100.0%
		25년 미만	7 3.3%	56 26.7%	36 17.1%	44 21.0%	67 31.9%	210 100.0%
		30년 미만	3 2.5%	37 31.4%	33 28.0%	18 15.3%	27 22.9%	118 100.0%
		30년 이상	11 2.3%	120 25.5%	114 24.2%	86 18.3%	140 29.7%	471 100.0%
		중	20 3.8%	153 29.1%	141 26.9%	107 20.4%	104 19.8%	525 100.0%
		고	16 3.6%	166 37.6%	108 24.5%	72 16.3%	79 17.9%	441 100.0%
단위 학교 중심 연수	전체	82 5.7%	499 34.7%	456 31.7%	210 14.6%	190 13.2%	1,437 100.0%	0.892
	성별	남	24 6.1%	132 33.5%	131 33.2%	57 14.5%	50 12.7%	394 100.0%
		여	58 5.6%	367 35.2%	325 31.2%	153 14.7%	140 13.4%	1,043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26 17.0%	59 38.6%	34 22.2%	16 10.5%	18 11.8%	153 100.0%
		5년 이상	11 6.0%	61 33.2%	67 36.4%	22 12.0%	23 12.5%	184 100.0%
		10년 미만	18 7.2%	87 34.9%	77 30.9%	37 14.9%	30 12.0%	249 100.0%
		15년 이상	8 3.5%	78 33.8%	86 37.2%	31 13.4%	28 12.1%	231 100.0%
		20년 미만	8 2.7%	101 34.6%	86 29.5%	55 18.8%	42 14.4%	292 100.0%
		25년 이상	4 1.9%	69 32.9%	71 33.8%	35 16.7%	31 14.8%	210 100.0%
		30년 미만	7 5.9%	44 37.3%	35 29.7%	14 11.9%	18 15.3%	118 100.0%
		30년 이상	13 2.8%	178 37.8%	146 31.0%	69 14.6%	65 13.8%	471 100.0%
		중	34	169	165	81	76	525
		고						
	학교급	초	13 2.8%	178 37.8%	146 31.0%	69 14.6%	65 13.8%	471 100.0%
		중	34	169	165	81	76	525
		고						

항목	구분		연 0회	연 1~2회	연 3~4회	연 5~6회	연 7회 이상	계	χ^2	
	고		6.5%	32.2%	31.4%	15.4%	14.5%	100.0%		
		35	152	145	60	49	441			
		7.9%	34.5%	32.9%	13.6%	11.1%	100.0%			
교육청 차원의 교육 연구회 (교과 교육 연구회, 교사 동아리 등) 활동	전체		673	447	158	74	85	1,437		
			46.8%	31.1%	11.0%	5.1%	5.9%	100.0%		
	성별	남	150	143	54	25	22	394		18.831**
			38.1%	36.3%	13.7%	6.3%	5.6%	100.0%		
			523	304	104	49	63	1,043		
	여	50.1%	29.1%	10.0%	4.7%	6.0%	100.0%			
		5년 미만	64	54	17	10	8	153	32.834	
		5년 이상	41.8%	35.3%	11.1%	6.5%	5.2%	100.0%		
	10년 미만	68	66	26	9	15	184			
	10년 이상	37.0%	35.9%	14.1%	4.9%	8.2%	100.0%			
	15년 미만	111	76	33	15	14	249			
	15년 이상	44.6%	30.5%	13.3%	6.0%	5.6%	100.0%			
	20년 미만	111	62	29	12	17	231			
	20년 이상	48.1%	26.8%	12.6%	5.2%	7.4%	100.0%			
	25년 미만	137	94	25	18	18	292			
	25년 이상	46.9%	32.2%	8.6%	6.2%	6.2%	100.0%			
	30년 미만	113	63	16	7	11	210			
	30년 이상	53.8%	30.0%	7.6%	3.3%	5.2%	100.0%			
	학교급	초	69	32	12	3	2	118	50.982***	
			58.5%	27.1%	10.2%	2.5%	1.7%	100.0%		
			264	136	43	11	17	471		
	중	56.1%	28.9%	9.1%	2.3%	3.6%	100.0%			
		222	150	64	40	49	525			
		42.3%	28.6%	12.2%	7.6%	9.3%	100.0%			
	고	187	161	51	23	19	441			
		42.4%	36.5%	11.6%	5.2%	4.3%	100.0%			
전체		259	521	284	154	219	1,437			
		18.0%	36.3%	19.8%	10.7%	15.2%	100.0%			
성별	남	65	145	89	37	58	394		3.925	
		16.5%	36.8%	22.6%	9.4%	14.7%	100.0%			
		194	376	195	117	161	1,043			
여	18.6%	36.0%	18.7%	11.2%	15.4%	100.0%				
	5년 미만	35	58	33	15	12	153	36.728*		
	5년 이상	22.9%	37.9%	21.6%	9.8%	7.8%	100.0%			
10년 미만	27	70	32	26	29	184				
10년 이상	14.7%	38.0%	17.4%	14.1%	15.8%	100.0%				
15년 미만	50	98	42	30	29	249				
15년 이상	20.1%	39.4%	16.9%	12.0%	11.6%	100.0%				
20년 미만	39	80	45	24	43	231				
20년 이상	16.9%	34.6%	19.5%	10.4%	18.6%	100.0%				
25년 미만	46	90	61	35	60	292				
25년 이상	15.8%	30.8%	20.9%	12.0%	20.5%	100.0%				
30년 미만	35	79	50	14	32	210				
30년 이상	16.7%	37.6%	23.8%	6.7%	15.2%	100.0%				
교내 교사 학습 공동체	학교급	초	27	46	21	10	14	118	43.619***	
			22.9%	39.0%	17.8%	8.5%	11.9%	100.0%		
			74	189	92	38	78	471		
			15.7%	40.1%	19.5%	8.1%	16.6%	100.0%		
			105	160	85	78	97	525		
중	20.0%	30.5%	16.2%	14.9%	18.5%	100.0%				
	80	172	107	38	44	441				

항목	구분		연 0회	연 1~2회	연 3~4회	연 5~6회	연 7회 이상	계	χ^2
교육청 차원의 수업 컨설팅 (요청 장학 포함)	전체		18.1%	39.0%	24.3%	8.6%	10.0%	100.0%	
			776	502	113	30	16	1,437	
			54.0%	34.9%	7.9%	2.1%	1.1%	100.0%	
	성별	남	175	156	44	13	6	394	24.781***
			44.4%	39.6%	11.2%	3.3%	1.5%	100.0%	
		여	601	346	69	17	10	1,043	
	교직 경력	5년 미만	74	63	9	6	1	153	34.178
			48.4%	41.2%	5.9%	3.9%	0.7%	100.0%	
		5년 이상	97	60	19	8	0.0%	184	
		10년 미만	125	96	21	5	2	249	
			50.2%	38.6%	8.4%	2.0%	0.8%	100.0%	
		15년 이상	125	74	23	3	6	231	
		20년 미만	164	99	19	7	3	292	
			56.2%	33.9%	6.5%	2.4%	1.0%	100.0%	
		25년 이상	127	68	11	1	3	210	
		30년 미만	64	42	11	0.0%	1	118	
		30년 이상	54.2%	35.6%	9.3%	0.0%	0.8%	100.0%	
	학교급	초	305	139	22	1	4	471	47.089***
			64.8%	29.5%	4.7%	0.2%	0.8%	100.0%	
		중	265	190	46	19	5	525	
		고	206	173	45	10	7	441	
수업장 학(자기 또는 동료 장학 등)	전체		81	1064	219	38	35	1,437	
			5.6%	74.0%	15.2%	2.6%	2.4%	100.0%	
	성별	남	21	269	71	17	16	394	16.898**
			5.3%	68.3%	18.0%	4.3%	4.1%	100.0%	
		여	60	795	148	21	19	1,043	
	교직 경력	5년 미만	22	102	21	6	2	153	54.290***
			14.4%	66.7%	13.7%	3.9%	1.3%	100.0%	
		5년 이상	17	130	26	5	6	184	
		10년 미만	9.2%	70.7%	14.1%	2.7%	3.3%	100.0%	
		10년 이상	15	182	42	5	5	249	
		15년 미만	6.0%	73.1%	16.9%	2.0%	2.0%	100.0%	
		15년 이상	12	171	39	3	6	231	
		20년 미만	5.2%	74.0%	16.9%	1.3%	2.6%	100.0%	
		20년 이상	9	226	39	12	6	292	
		25년 미만	3.1%	77.4%	13.4%	4.1%	2.1%	100.0%	
	학교급	25년 이상	4	163	31	3	9	210	62.256***
		30년 미만	1.9%	77.6%	14.8%	1.4%	4.3%	100.0%	
		30년 이상	2	90	21	4	1	118	
			1.7%	76.3%	17.8%	3.4%	0.8%	100.0%	
	학교급	초	8	383	76	0.0%	4	471	
			1.7%	81.3%	16.1%	0.0%	0.8%	100.0%	
		중	34	367	81	28	15	525	
		고	39	314	62	10	16	441	
			8.8%	71.2%	14.1%	2.3%	3.6%	100.0%	

항목	구분		연 0회	연 1~2회	연 3~4회	연 5~6회	연 7회 이상	계	χ^2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독서, 대학원 수강 등)	전체		140 9.7%	411 28.6%	316 22.0%	168 11.7%	402 28.0%	1,437 100.0%	30.585***
	성별	남	53 13.5%	127 32.2%	92 23.4%	51 12.9%	71 18.0%	394 100.0%	
		여	87 8.3%	284 27.2%	224 21.5%	117 11.2%	331 31.7%	1,043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29 19.0%	53 34.6%	33 21.6%	18 11.8%	20 13.1%	153 100.0%	51.913***
		5년 이상	22 12.0%	57 31.0%	39 21.2%	20 10.9%	46 25.0%	184 100.0%	
		10년 미만	26 10.4%	73 29.3%	50 20.1%	24 9.6%	76 30.5%	249 100.0%	
		10년 이상	13 5.6%	64 27.7%	56 24.2%	23 10.0%	75 32.5%	231 100.0%	
		15년 미만	24 8.2%	72 24.7%	60 20.5%	38 13.0%	98 33.6%	292 100.0%	
		15년 이상	14 6.7%	53 25.2%	52 24.8%	31 14.8%	60 28.6%	210 100.0%	
		20년 미만	12 10.2%	39 33.1%	26 22.0%	14 11.9%	27 22.9%	118 100.0%	
		20년 이상	22 4.7%	93 19.7%	103 21.9%	51 10.8%	202 42.9%	471 100.0%	
		25년 미만	65 12.4%	166 31.6%	104 19.8%	67 12.8%	123 23.4%	525 100.0%	
		25년 이상	53 12.0%	152 34.5%	109 24.7%	50 11.3%	77 17.5%	441 100.0%	
	학교급	초	22 4.7%	93 19.7%	103 21.9%	51 10.8%	202 42.9%	471 100.0%	100.663***
		중	65 12.4%	166 31.6%	104 19.8%	67 12.8%	123 23.4%	525 100.0%	
		고	53 12.0%	152 34.5%	109 24.7%	50 11.3%	77 17.5%	441 100.0%	

*** $p < .001$, ** $p < .01$, * $p < .05$

- 기관 중심 연수 경험은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참여 빈도가 낮았으며, 경력이 짧은 교사일수록 연수 참여 비율이 높았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보다 연수 참여가 활발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연수 접근성과 참여 여건이 성별 및 경력,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력 교사와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 기회 확대가 필요함.
- 단위학교 연수 경험은 교직 경력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5년 미만 교사와 30년 이상 교사에게서 참여 빈도가 높았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음. 이는 학교 내 연수 기회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등학교에서의 학교기반 연수 활성화와 경력별 연수 참여 균형이 요구됨.
- 교육연구대회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모두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남교사는 여교사보다 연구대회 참여율이 높았으며,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연구대회 참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반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은 경력과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견 교사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음. 이는 연구 중심 활동은 경험이 적은 교사에게, 협력 중심 활동은 경험이 많은 교사에게 각각 적합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교육청 수업컨설팅, 교내 수업장학,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경험 모두에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여교사는 남교사보다 컨설팅 및 장학 참여가 활발하였으며, 경력이 길수록 수업장학 참여가 증가하였음. 또한 초등학교 교사가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를 보였음. 이는 초등학교의 조직문화와 자율적 전문성 개발 기회가 더 활성화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중등학교에서도 교사 자율성과 연구·장학 활동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5. 전문성 개발 효과

가. 기관중심 연수 효과

- 교사의 기관중심 연수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0>과 같음.
- 기관중심 연수 효과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40 (SD=1.13)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4.35 (SD=1.18), 여교사 평균 4.42(SD=1.11)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29(SD=1.27),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26 (SD=1.18),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35(SD=1.12),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46(SD=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46(SD=1.13),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45(SD=1.10), 30년 이상 경력 평균 4.54(SD=0.98)로 30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2(SD=1.14), 중학교 평균 4.37(SD=1.11), 고등학교 평균 4.33 (SD=1.14)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10> 교사의 기관중심 연수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 Howell)
전체		1,437	4.40	1.13	-	-
성별	남	394	4.35	1.18	-1.14	-
	여	1,043	4.42	1.11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29	1.27	1.43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26	1.18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35	1.12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46	1.0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46	1.13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45	1.10		
	⑦ 30년 이상	118	4.54	0.98		
학교급	초	471	4.52	1.14	3.68*	①>③
	중	525	4.37	1.11		
	고	441	4.33	1.14		

* $p < .05$

나. 단위학교 연수 효과

- 교사의 **단위학교 연수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1>과 같음.
- 단위학교 연수 효과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49(SD=1.07)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45(SD=1.17), 여교사 평균 4.51(SD=1.03)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14(SD=1.43),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27(SD=1.15),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45(SD=1.08),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61(SD=1.0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59(SD=0.95),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69(SD=0.89), 30년 이상 경력 평균 4.58(SD=0.89)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9(SD=1.00), 중학교 평균 4.46(SD=1.10), 고등학교 평균 4.42(SD=1.10)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11> 교사의 단위학교 연수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4.58	0.89	-	-
성별	남	394	4.45	1.17	-0.95	-
	여	1,043	4.51	1.03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14	1.43	6.50***	⑥>①④⑤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27	1.15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45	1.08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61	1.0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59	0.95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69	0.89		
	⑦ 30년 이상	118	4.58	0.89		
학교급	초	471	4.59	1.00	3.09*	①>③
	중	525	4.46	1.10		
	고	441	4.42	1.10		

*** $p < .001$, * $p < .05$

다. 교육연구회 활동 효과

- 교사의 **교육연구회 활동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2>와 같음.
- 교육연구회 활동 효과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89(SD=1.64)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3.92(SD=1.64), 여교사 평균 3.87(SD=1.65)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76(SD=1.77),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94(SD=1.57),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06(SD=1.55),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07(SD=1.65),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89(SD=1.66),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75(SD=1.65), 30년 이상 경력 평균 3.46(SD=1.68)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86(SD=1.67), 중학교 평균 3.95(SD=1.65), 고등학교 평균 3.84(SD=1.62)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12> 교사의 교육연구회 활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89	1.65	-	-
성별	남	394	3.92	1.64	0.54	-
	여	1,043	3.87	1.65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76	1.77	2.70*	③④>⑦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94	1.57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06	1.55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07	1.65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89	1.66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75	1.65		
	⑦ 30년 이상	118	3.46	1.68		
학교급	초	471	3.86	1.67	0.69	-
	중	525	3.95	1.65		
	고	441	3.84	1.62		

* $p < .05$

라.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효과

-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3>과 같음.
- 교사학습공동체 효과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46(SD=1.33)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4.48(SD=1.33), 여교사 평균 4.45(SD=1.33)로 남교사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24(SD=1.55),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54(SD=1.2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46(SD=1.31),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58(SD=1.2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48(SD=1.32),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58(SD=1.22), 30년 이상 경력 평균 4.11(SD=1.51)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과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7(SD=1.34), 중학교 평균 4.41(SD=1.34), 고등학교 평균 4.41(SD=1.30)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13>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4.46	1.33	-	-
성별	남	394	4.48	1.33	0.33	-
	여	1,043	4.45	1.33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24	1.55	2.81*	④⑥>⑦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54	1.2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46	1.31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58	1.2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48	1.32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58	1.22		
	⑦ 30년 이상	118	4.11	1.51		
학교급	초	471	4.57	1.34	2.52	-
	중	525	4.41	1.34		
	고	441	4.41	1.30		

* $p < .05$

마. 교육청 수업컨설팅 효과

- 교사의 **교육청 수업컨설팅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4>와 같음.
- 교육청 수업컨설팅 효과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3(SD=1.57)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70(SD=1.55), 여교사 평균 3.61(SD=1.58)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71(SD=1.68),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65(SD=1.54),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67(SD=1.53),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61(SD=1.60),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68(SD=1.54),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59(SD=1.59), 30년 이상 경력 평균 3.43(SD=1.59)로 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47(SD=1.67), 중학교 평균 3.71(SD=1.56), 고등학교 평균 3.72(SD=1.48)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14> 교사의 교육청 수업컨설팅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63	1.57	-	-
성별	남	394	3.63	1.57	0.96	-
	여	1,043	3.7	1.55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61	1.58	0.49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71	1.68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65	1.54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67	1.53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61	1.6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68	1.54		
	⑦ 30년 이상	118	3.59	1.59		
학교급	초	471	3.43	1.59	3.72*	②③>①
	중	525	3.47	1.67		
	고	441	3.71	1.56		

* $p < .05$

바. 교내 수업장학 효과

- 교사의 교내 수업장학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5>와 같음.
- 교내 수업장학 효과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16(SD=1.14)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22(SD=1.17), 여교사 평균 4.14(SD=1.13)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21(SD=1.35),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03(SD=1.23),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06(SD=1.23),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11(SD=1.15),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14(SD=1.08),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31(SD=0.96), 30년 이상 경력 평균 4.40(SD=0.84)로 30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10(SD=1.20), 중학교 평균 4.27(SD=1.08), 고등학교 평균 4.10(SD=1.14)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15> 교사의 교내 수업장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Howell)
전체		1,437	4.16	1.14	-	-
성별	남	394	4.22	1.17	1.27	-
	여	1,043	4.14	1.13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21	1.35	2.37	⑥⑦)②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03	1.23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06	1.23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11	1.15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14	1.08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31	0.96		
	⑦ 30년 이상	118	4.40	0.84		
학교급	초	471	4.10	1.20	3.68	②)①③
	중	525	4.27	1.08		
	고	441	4.10	1.14		

* $p < .05$

사.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효과

- 교사의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효과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6>과 같음.
-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효과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89(SD=1.13)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74(SD=1.23), 여교사 평균 4.95(SD=1.09)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51(SD=1.47),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88(SD=1.10),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5.00(SD=1.10),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5.05(SD=0.96),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94(SD=1.12),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93(SD=1.06), 30년 이상 경력 평균 4.72(SD=1.13)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5.22(SD=0.95), 중학교 평균 4.69(SD=1.24), 고등학교 평균 4.79(SD=1.10)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16> 교사의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 효과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Howell)
전체		1,437	4.89	1.13	-	-
성별	남	394	4.74	1.23	-3.278*	여>남
	여	1,043	4.95	1.0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51	1.47	4.67***	③,④>①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88	1.10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5.00	1.10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5.05	0.96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94	1.12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93	1.06		
	⑦ 30년 이상	118	4.72	1.13		
학교급	초	471	5.22	0.95	30.29***	초>중,고
	중	525	4.69	1.24		
	고	441	4.79	1.10		

*** $p < .001$, ** $p < .01$

- 교원 전문성 개발 효과에 대한 교사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의 평균이 3.6 이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임. 특히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M=4.89)과 단위학교 연수(M=4.49)는 가장 높은 인식을 보여, 교사 스스로의 성장 및 학교 단위의 자율적 연수 체계가 전문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음. 반면, 교육청 수업컨설팅(M=3.63)과 교육연구회 활동(M=3.8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외부 기관 중심의 일회성 연수나 협의체 활동보다는 실질적·자율적 학습이 더 중요하게 인식됨을 시사함. 성별에 따라서는 대체로 여교사의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에서 여교사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율적 전문성 개발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음을 보여줌.
- 경력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15년 이상 중견 교사 집단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특히 단위학교 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25년 이상 30년 미만 교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중견 교사가 학교 내 연수나 협력적 학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교육연구회와 수업컨설팅에서는 경력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저경력 교사(5년 미만)나 고경력 교사(30년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이 나타나, 경험 부족 혹은 참여 동기 저하의 양극화 현상이 확인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기관중심 연수, 단위학교 연수, 개별 전문성 개발 활동에서 고등학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기반 연수나 학습공동체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함. 반면, 교육청 수업컨설팅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보다 높은 평균을 보여, 학문 중심의 교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환경적 차이를 보여줌.
- 종합적으로, 교사들은 외부 주도의 단기 연수보다 학교 내 협력적 학습, 자율적 연수, 자기주도적 전문성 개발을 더 효과적인 성장 방식으로 인식함. 이는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정책이 '참여 중심·학교 중심·자율 성장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중견 교사를 중심으로 한 학습공동체 운영과 멘토링 체계 강화, 그리고 여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의 자기주도적 전문성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연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교육청 중심의 하향식 컨설팅보다는 현장 교사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컨설팅 구조로의 개선이 요구됨.

6. 업무 스트레스

가. 수업

- 교사의 수업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7>과 같음.
-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20(SD=1.03)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08(SD=1.08), 여교사 평균 3.25(SD=1.00)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01(SD=1.09),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16(SD=1.07),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18(SD=1.05),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26(SD=1.0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28(SD=1.05),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22(SD=0.91), 30년 이상 경력 평균 3.26(SD=1.00)으로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04(SD=1.04), 중학교 평균 3.28(SD=0.98), 고등학교 평균 3.29(SD=1.05)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17> 교사의 수업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Howell)
전체		1,437	3.2.0	1.03	-	-
성별	남	394	3.08	1.08	-2.86**	여>남
	여	1,043	3.25	1.00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01	1.09	1.50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16	1.07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18	1.05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26	1.0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28	1.05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22	0.91		
	⑦ 30년 이상	118	3.26	1.00		
학교급	초	471	3.04	1.04	9.11***	중,고>초
	중	525	3.28	0.98		
	고	441	3.29	1.05		

*** $p < .001$, ** $p < .01$

나. 학생평가

- 교사의 **학생평가에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8>과 같음.
-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45(SD=1.0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41(SD=1.11), 여교사 평균 3.47(SD=1.07)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20(SD=1.08),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48(SD=1.08),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36(SD=1.05),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43(SD=1.1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51(SD=1.10),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59(SD=1.04), 30년 이상 경력 평균 3.60(SD=1.09)으로 30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99(SD=1.00), 중학교 평균 3.56(SD=1.03), 고등학교 평균 3.82(SD=1.06)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18> 교사의 학생평가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45	1.08	-	-
성별	남	394	3.41	1.11	-0.97	-
	여	1,043	3.47	1.07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20	1.08	2.75*	⑥, ⑦) ①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48	1.08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36	1.05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43	1.1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51	1.10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59	1.04		
	⑦ 30년 이상	118	3.60	1.09		
학교급	초	471	2.99	1.00	77.91***	고>중>초
	중	525	3.56	1.03		
	고	441	3.82	1.06		

*** $p < .001$, * $p < .05$

다. 학력책임

- 교사의 **학력책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9>와 같음.
- 학력책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55(SD=1.04)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45(SD=1.10), 여교사 평균 3.59(SD=1.01)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35(SD=1.05),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43(SD=1.03),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49(SD=1.07),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62(SD=1.04),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64(SD=1.03),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67(SD=0.98), 30년 이상 경력 평균 3.56(SD=1.02)으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51(SD=1.03), 중학교 평균 3.43(SD=1.02), 고등학교 평균 3.73(SD=1.05)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19> 교사의 학력책임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55	1.04	-	-
성별	남	394	3.45	1.10	-2.24*	여>남
	여	1,043	3.59	1.01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35	1.05	2.49*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43	1.03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49	1.07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62	1.04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64	1.03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67	0.98		
	⑦ 30년 이상	118	3.56	1.02		
학교급	초	471	3.51	1.03	10.62***	고>초, 고>중
	중	525	3.43	1.02		
	고	441	3.73	1.05		

*** $p < .001$, * $p < .05$

라. 학교생활기록부작성

-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작성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0>과 같음.
- 학교생활기록부작성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04(SD=0.9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03(SD=1.04), 여교사 평균 4.04(SD=0.96)로 여교사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92(SD=1.00),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08(SD=1.04),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05(SD=1.02),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03(SD=0.9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99(SD=1.01),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14(SD=0.88), 30년 이상 경력 평균 4.04(SD=1.02)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85(SD=0.97), 중학교 평균 3.88(SD=0.99), 고등학교 평균 4.43(SD=0.86)으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20>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작성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4.04	0.98	-	-
성별	남	394	4.03	1.04	-0.32	-
	여	1,043	4.04	0.96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92	1.00	0.93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08	1.04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05	1.02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03	0.9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99	1.01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14	0.88		
	⑦ 30년 이상	118	4.04	1.02		
학교급	초	471	3.85	0.97	55.42***	고>초,중
	중	525	3.88	0.99		
	고	441	4.43	0.86		

*** $p < .001$

마. 동아리활동 지도

- 교사의 동아리활동 지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1>과 같음.
- 동아리활동 지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17(SD=1.02)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11(SD=1.07), 여교사 평균 3.20(SD=1.00)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2.93(SD=1.10),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16(SD=1.09),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16(SD=1.05),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21(SD=0.95),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21(SD=1.03),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25(SD=0.88), 30년 이상 경력 평균 3.22(SD=1.08)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89(SD=0.96), 중학교 평균 3.23(SD=0.99), 고등학교 평균 3.40(SD=1.05)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21> 교사의 동아리활동 지도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17	1.02	-	-
성별	남	394	3.11	1.07	-1.48	-
	여	1,043	3.20	1.00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2.93	1.10	1.76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16	1.09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16	1.05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21	0.95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21	1.03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25	0.88		
	⑦ 30년 이상	118	3.22	1.08		
학교급	초	471	2.89	0.96	31.56***	고>중>초
	중	525	3.23	0.99		
	고	441	3.40	1.05		

*** $p<.001$

바. 각종대회 지도

- 교사의 **각종대회 지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2>와 같음.
- 각종대회 지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06(SD=1.1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2.91(SD=1.20), 여교사 평균 3.12(SD=1.16)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2.80(SD=1.23),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99(SD=1.24),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12(SD=1.21),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18(SD=1.08),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07(SD=1.12),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10(SD=1.16), 30년 이상 경력 평균 3.09(SD=1.27)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06(SD=1.14), 중학교 평균 3.06(SD=1.19), 고등학교 평균 3.07(SD=1.20)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근소하게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22> 교사의 각종대회 지도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06	1.18		
성별	남	394	2.91	1.20	-3.10**	여>남
	여	1,043	3.12	1.16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2.80	1.23	1.92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99	1.24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12	1.21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18	1.08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07	1.12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10	1.16		
	⑦ 30년 이상	118	3.09	1.27		
학교급	초	471	3.06	1.14	0.02	-
	중	525	3.06	1.19		
	고	441	3.07	1.20		

** $p < .01$

사. 교외활동 지도

- 교사의 **교외활동 지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3>과 같음.
- 교외활동 지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90(SD=1.1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51(SD=1.23), 여교사 평균 4.05(SD=1.12)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12(SD=1.27),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89(SD=1.1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96(SD=1.15),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08(SD=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08(SD=1.11),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10(SD=1.11), 30년 이상 경력 평균 3.70(SD=1.26)으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21(SD=1.11), 중학교 평균 3.82(SD=1.15), 고등학교 평균 3.68(SD=1.21)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23> 교사의 교외활동 지도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90	1.18		
성별	남	394	3.51	1.23	-7.90***	여>남
	여	1,043	4.05	1.12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12	1.27	15.92***	①,②,③,④,⑤,⑥, ⑦>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89	1.12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96	1.15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08	1.0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08	1.11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10	1.11		
	⑦ 30년 이상	118	3.70	1.26		
학교급	초	471	4.21	1.11	25.93***	초>중,고
	중	525	3.82	1.15		
	고	441	3.68	1.21		

*** $p < .001$

아. 생활지도 상담

- 교사의 생활지도 상담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4>와 같음.
- 생활지도 상담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08(SD=0.99)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76(SD=1.08), 여교사 평균 4.20(SD=0.93)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46(SD=1.16),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11(SD=0.94),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14(SD=0.96),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16(SD=0.95),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23(SD=0.93),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20(SD=0.96), 30년 이상 경력 평균 3.91(SD=0.94)로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39(SD=0.90), 중학교 평균 4.02(SD=0.97), 고등학교 평균 3.80(SD=1.03)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24> 교사의 생활지도 상담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4.08	0.99		
성별	남	394	3.76	1.08	-7.64***	여>남
	여	1,043	4.20	0.93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46	1.16	13.05***	②,③,④,⑤,⑥>①, ⑤>⑦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11	0.94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14	0.96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16	0.95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23	0.93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2	0.96		
	⑦ 30년 이상	118	3.91	0.94		
학교급	초	471	4.39	0.90	43.62***	초>중>고
	중	525	4.02	0.97		
	고	441	3.80	1.03		

*** $p<.001$

자. 안전사고, 학교폭력

- 교사의 **안전사고, 학교폭력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5>와 같음.
-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29(SD=0.9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99(SD=1.10), 여교사 평균 4.40(SD=0.90)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69(SD=1.22),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30(SD=0.9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34(SD=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44(SD=0.8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44(SD=0.86),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36(SD=0.92), 30년 이상 경력 평균 4.13(SD=0.97)으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과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63(SD=0.74), 중학교 평균 4.22(SD=0.95), 고등학교 평균 4.00(SD=1.12)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25> 교사의 안전사고, 학교폭력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4.29	0.98		
성별	남	394	3.99	1.10	-7.26***	여>남
	여	1,043	4.40	0.90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69	1.22	13.17***	②,③,④,⑤,⑥>①, ⑤>⑦, ④>⑦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30	0.9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34	1.00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44	0.8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44	0.86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36	0.92		
	⑦ 30년 이상	118	4.13	0.97		
학교급	초	471	4.63	0.74	54.13***	초>중, 초>고, 중>고
	중	525	4.22	0.95		
	고	441	4.00	1.12		

*** $p < .001$

차. 학부모 상담

- 교사의 **학부모 상담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6>과 같음.
- 학부모 상담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05(SD=1.06)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70(SD=1.12), 여교사 평균 4.18(SD=1.00)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56(SD=1.27),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20(SD=0.94),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08(SD=1.06),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19(SD=0.9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17(SD=0.99),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06(SD=1.03), 30년 이상 경력 평균 3.79(SD=1.14)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38(SD=0.92), 중학교 평균 3.96(SD=1.02), 고등학교 평균 3.80(SD=1.13)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26> 교사의 학부모 상담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Howell)
전체		1,437	4.05	1.06	-	-
성별	남	394	3.70	1.12	-7.94***	여>남
	여	1,043	4.18	1.00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56	1.27	8.80***	⑤,⑥,④,②,③>①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20	0.94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08	1.06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19	0.93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17	0.99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06	1.03		
	⑦ 30년 이상	118	3.79	1.14		
학교급	초	471	4.38	0.92	39.61***	초>중, 초>고
	중	525	3.96	1.02		
	고	441	3.80	1.130		

*** $p < .001$

카. 공문처리

- 교사의 **공문처리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7>과 같음.
- 공문처리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76(SD=1.02)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65(SD=1.09), 여교사 평균 3.80(SD=0.99)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34(SD=1.08),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72(SD=1.0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74(SD=1.07),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79(SD=1.00),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88(SD=0.98),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91(SD=0.91), 30년 이상 경력 평균 3.75(SD=1.02)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85(SD=1.02), 중학교 평균 3.75(SD=0.97), 고등학교 평균 3.66(SD=1.06)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27> 교사의 공문처리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76	1.02	-	-
성별	남	394	3.65	1.09	-2.38*	여>남
	여	1,043	3.80	0.9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34	1.08	6.01***	⑤,⑥,④,③>①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72	1.02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74	1.07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79	1.00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88	0.98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91	0.91		
	⑦ 30년 이상	118	3.75	1.02		
학교급	초	471	3.85	1.02	3.76*	초>고
	중	525	3.75	0.97		
	고	441	3.66	1.06		

*** $p < .001$, * $p < .05$

타. 민원대응

- 교사의 **민원대응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8>과 같음.
- 민원대응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20(SD=1.01)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93(SD=1.07), 여교사 평균 4.30(SD=0.97)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56(SD=1.28),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28(SD=0.9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31(SD=0.90),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36(SD=0.9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35(SD=0.87),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28(SD=1.00), 30년 이상 경력 평균 3.83(SD=1.15)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4(SD=0.78), 중학교 평균 4.07(SD=1.03), 고등학교 평균 3.98(SD=1.11)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28> 교사의 민원대응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4.20	1.01	-	-
성별	남	394	3.93	1.07	-6.28***	여>남
	여	1,043	4.30	0.97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56	1.28	16.70***	②,③,④,⑤,⑥>①, ②,③,④,⑤,⑥>⑦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28	0.92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31	0.9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36	0.9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35	0.87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28	1.00		
	⑦ 30년 이상	118	3.83	1.15		
학교급	초	471	4.54	0.78	44.29***	초>중, 초>고
	중	525	4.07	1.03		
	고	441	3.98	1.11		

*** $p<.001$, ** $p<.01$, * $p<.05$

파. 업무회의

- 교사의 **업무회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29>와 같음.
- 업무회의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08(SD=1.03)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08(SD=1.13), 여교사 평균 3.08(SD=0.99)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2.66(SD=1.1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95(SD=1.03),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02(SD=0.99),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17(SD=1.00),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16(SD=1.03),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27(SD=0.95), 30년 이상 경력 평균 3.21(SD=1.02)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99(SD=1.03), 중학교 평균 3.10(SD=0.99), 고등학교 평균 3.15(SD=1.08)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29> 교사의 업무회의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08	1.03	-	-
성별	남	394	3.08	1.13	0.1	-
	여	1,043	3.08	0.9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2.66	1.11	7.23***	⑥,⑤,④,⑦>①, ⑥>②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95	1.03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02	0.99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17	1.00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16	1.03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27	0.95		
	⑦ 30년 이상	118	3.21	1.02		
학교급	초	471	2.99	1.03	3.17*	고>초
	중	525	3.10	0.99		
	고	441	3.15	1.08		

*** $p < .001$, * $p < .05$

하. 학교행사

- 교사의 **학교행사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0>과 같음.
- 학교행사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42(SD=1.03)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26(SD=1.10), 여교사 평균 3.48(SD=0.99)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2.97(SD=1.10),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40(SD=1.07),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37(SD=1.03),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50(SD=0.9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54(SD=0.98),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61(SD=0.95), 30년 이상 경력 평균 3.31(SD=1.02)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56(SD=1.02), 중학교 평균 3.34(SD=0.96), 고등학교 평균 3.36(SD=1.10)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30> 교사의 학교행사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42	1.03	-	-
성별	남	394	3.26	1.10	-3.59***	여>남
	여	1,043	3.48	0.9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2.97	1.10	7.67***	②,③,④,⑤,⑥>①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40	1.07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37	1.03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5	0.9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54	0.98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61	0.95		
	⑦ 30년 이상	118	3.31	1.02		
학교급	초	471	3.56	1.02	6.68**	초>중, 초>고
	중	525	3.34	0.96		
	고	441	3.36	1.10		

*** $p<.001$, ** $p<.01$, * $p<.05$

A. 학부모 교권침해

- 교사의 **학부모 교권침해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1>과 같음.
-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48(SD=1.36)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2.95(SD=1.33), 여교사 평균 3.69(SD=1.32)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03(SD=1.44),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38(SD=1.35),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50(SD=1.37),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56(SD=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69(SD=1.32),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60(SD=1.36), 30년 이상 경력 평균 3.33(SD=1.38)으로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70(SD=1.36), 중학교 평균 3.51(SD=1.29), 고등학교 평균 3.21(SD=1.42)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31> 교사의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 스트레스 수준의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Howell)
전체		1,437	3.48	1.36	-	-
성별	남	394	2.95	1.33	-9.43***	여>남
	여	1,043	3.69	1.32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03	1.44	4.77***	⑤,⑥,④>①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38	1.35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5	1.37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56	1.3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69	1.32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60	1.36		
	⑦ 30년 이상	118	3.33	1.38		
학교급	초	471	3.70	1.36	15.05***	초>고, 중>고
	중	525	3.51	1.29		
	고	441	3.21	1.42		

*** $p<.001$, ** $p<.01$, * $p<.05$

B. 학생 교권침해

- 교사의 **학생 교권침해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2>와 같음.
- 학생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56(SD=1.34)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12(SD=1.33), 여교사 평균 3.73(SD=1.31)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2.99(SD=1.42),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53(SD=1.29),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61(SD=1.33),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69(SD=1.30),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73(SD=1.30),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68(SD=1.32), 30년 이상 경력 평균 3.36(SD=1.37)로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85(SD=1.30), 중학교 평균 3.57(SD=1.25), 고등학교 평균 3.25(SD=1.41)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32> 교사의 학생 교권침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56	1.34	-	-
성별	남	394	3.12	1.33	-7.87***	여>남
	여	1,043	3.73	1.31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2.99	1.42	6.63***	②,③,④,⑤,⑥>①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53	1.29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61	1.33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69	1.30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73	1.30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68	1.32		
	⑦ 30년 이상	118	3.36	1.37		
학교급	초	471	3.85	1.30	23.74***	초>중, 초>고, 중>고
	중	525	3.57	1.25		
	고	441	3.25	1.41		

*** $p<.001$

C. 동료교사 관계

- 교사의 **동료교사 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3>과 같음.
- 동료교사 관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2.55(SD=1.17)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2.56(SD=1.19), 여교사 평균 2.54(SD=1.16)로 남교사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2.47(SD=1.2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52(SD=1.19),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2.48(SD=1.17),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2.59(SD=1.14),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2.58(SD=1.21),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2.56(SD=1.08), 30년 이상 경력 평균 2.62(SD=1.16)로 30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34(SD=1.16), 중학교 평균 2.56(SD=1.13), 고등학교 평균 2.75(SD=1.18)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33> 교사의 동료교사 관계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2.55	1.17	-	-
성별	남	394	2.56	1.19	0.29	-
	여	1,043	2.54	1.16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2.47	1.21	0.44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52	1.19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2.48	1.17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2.59	1.14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2.58	1.21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2.56	1.08		
	⑦ 30년 이상	118	2.62	1.16		
학교급	초	471	2.34	1.16	14.51***	중>초, 고>초, 고>중
	중	525	2.56	1.13		
	고	441	2.75	1.18		

*** $p < .001$

D. 관리자 관계

- 교사의 관리자 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4>와 같음.
- 관리자 관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2.65(SD=1.1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2.59(SD=1.21), 여교사 평균 2.68(SD=1.16)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2.49(SD=1.18),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70(SD=1.2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2.65(SD=1.19),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2.68(SD=1.1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2.68(SD=1.25),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2.69(SD=1.07), 30년 이상 경력 평균 2.64(SD=1.11)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54(SD=1.20), 중학교 평균 2.66(SD=1.13), 고등학교 평균 2.77(SD=1.21)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34> 교사의 관리자 관계 스트레스 수준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Howell)
전체		1,437	2.65	1.18	-	-
성별	남	394	2.59	1.21	-1.33	-
	여	1,043	2.68	1.16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2.49	1.18	0.61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70	1.22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2.65	1.19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2.68	1.1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2.68	1.25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2.69	1.07		
	⑦ 30년 이상	118	2.64	1.11		
학교급	초	471	2.54	1.20	4.37*	고>초
	중	525	2.66	1.13		
	고	441	2.77	1.2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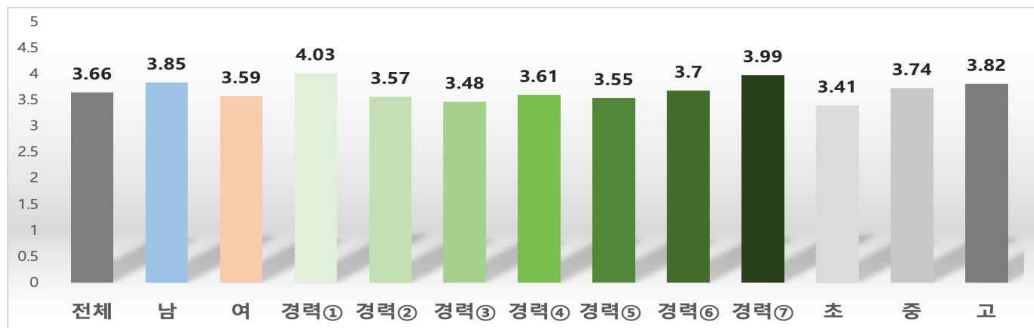
- 교사의 수업 관련 업무 인식은 중간 수준으로, 교사들이 교수활동의 중요성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업 및 평가 과정에서의 세밀한 준비나 학생 이해에 대한 관여가 높은 경향을 반영함. 저경력 교사보다 중·고경력 교사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나, 경험의 축적이 교수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인식으로 이어짐을 시사함.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이 가장 높는데 수업과 평가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른 인식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로 해석됨. 이는 고등학교에서 학업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교수·평가 책임이 강화된 구조적 요인을 반영함.
- 교과 외 지도 업무 인식은 중간 이하 수준으로 수업 관련 업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전체 평균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진학과 연계된 기록 업무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반면 동아리활동 지도와 각종 대회 지도는 평균이 낮고, 유의한 성별·경력 차이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비교적 일상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성별에서는 여교사가 대체로 높았고, 경력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음. 이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활동의 결과나 대외성과 관리가 중요시되기 때문으로 해석됨.
- 학생생활 및 상담 관련 업무 인식은 전체 평균이 3.9~4.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교사들이 학생지도 및 상담을 핵심 직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일관되게 높았으며, 경력에서는 15년 이상 중·고경력 교사에서 높았고,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음. 이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여교사와 중경력 교사가 학생의 정서·생활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민원대응, 학부모 상담 등 대외적 소통 업무에서 여교사와 중·고경력 교사의 인식이 높았고, 공문처리 및 업무회의 등 내부 행정업무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교사의 직무가 단순한 교수활동을 넘어, 학부모·행정·학교조직 내 다양한 관계 조정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교권 및 관계 영역의 전체 평균은 2.5~3.6 수준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게 인식했으나, 전반적으로 교권 및 관계 인식은 중간 이하로 낮아, 교사 간 및 교사-관리자 간의 관계적 부담이 상존함을 시사함. 경력에서는 중경력 교사에게 약간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 이는 초등학교에서 조직 내 협력과 교권 보호 인식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반영함.

- 종합적으로, 수업과 평가 중심의 본원적 업무에서는 경험과 학교급에 따라 인식 수준이 달라지는 반면, 생활지도와 상담 등 학생생활 관련 업무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여교사가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높은 인식을 보인 것은 학교 내 돌봄·상담·행정 등 다양한 역할이 여교사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시사함. 이에 따라 교사의 직무경감 정책은 단순히 업무량 축소보다, 업무의 성격별·학교급별 차이를 반영한 분담체계와 지원구조의 세분화가 필요함.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평가·기록·민원 중심의 행정업무 경감, 초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상담 중심의 정서적 지원, 중학교에서는 행정과 생활지도의 균형적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시됨.

제3절 학교인식

1. 학교만족도

- 교사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5>와 같음.
- 학교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66(SD=1.08)임. 성별에서 남교사의 평균은 3.85(SD=1.06)로 여교사 평균 3.59(SD=1.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 교사의 평균이 4.03(SD=0.95)으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 3.48(SD=1.21), 15년 이상 20년 미만 3.61(SD=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3.55(SD=1.11) 교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또한 30년 이상 교사(3.99, SD=0.91)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및 20년 이상 25년 미만 교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평균이 3.41(SD=1.17)로 가장 낮고, 중학교 평균 3.74(SD=1.03), 고등학교 평균 3.82(SD=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사의 학교만족도는 평균 이상 수준(3.66)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남교사와 근속연수가 짧거나 30년 이상인 교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경력 초반의 교사들이 업무 열의와 학교 적응 과정에서의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한편 고경력 교사들은 조직문화 적응과 직무 안정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중간 경력대(10~25년)의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중·고등학교보다 교육활동 부담이나 조직 내 역할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교직 경력과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전략이 요구됨.



[그림 5-7] 교사의 학교만족도

〈표 5-35〉 교사의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성별	전체	1,437	3.66	1.08	-	-
	남	394	3.85	1.06	4.09***	
	여	1,043	3.59	1.0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03	0.95	7.07***	②③④⑤<① ③,⑤<⑦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57	1.14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48	1.21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61	1.0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55	1.11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70	0.93		
	⑦ 30년 이상	118	3.99	0.91		
학교급	초	471	3.41	1.17	4.35***	초<중,고
	중	525	3.74	1.03		
	고	441	3.82	1.00		

*** $p < .001$

2. (개방적) 학교문화

- 교사의 (개방적) **학교문화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평균과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6>과 같음.
- 학교문화의 전체 평균은 3.91(SD=0.81)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88(SD=0.82), 여교사 평균 3.93(SD=0.80)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83(SD=0.86),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70(SD=0.8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93(SD=0.80),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97(SD=0.8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96(SD=0.84),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02(SD=0.71), 30년 이상 경력 평균 3.91(SD=0.76)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14(SD=0.75), 중학교 평균 3.88(SD=0.75), 고등학교 평균 3.70(SD=0.87)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5-8] 교사의 학교문화 인식

〈표 5-36〉 교사의 학교문화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91	0.81	-	-
성별	남	394	3.88	0.82	-1.054	0.292
	여	1043	3.93	0.80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83	0.86	3.519**	②<⑥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70	0.8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93	0.80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97	0.8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96	0.84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02	0.71		
	⑦ 30년 이상	118	3.91	0.76		
학교급	초	471	4.14	0.75	36.25***	초>중>고
	중	525	3.88	0.75		
	고	441	3.70	0.87		

*** $p < .001$, ** $p < .01$

○ 교사의 개방적 학교문화 인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직 경력과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교직 경력에서는 25년 이상 30년 미만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이 가장 낮아 경력이 쌓일수록 학교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수준의 학교문화 인식을 보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순으로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교직 내 경험 축적과 학교급의 조직 분위기 차이가 학교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초등학교의 개방적 학교문화 인식은 협력적 분위기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수평적인 조직구조로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의 낮은 평균은 입시 중심의 경쟁적 환경과 교사 간 소통 제약 등으로 인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 간 협력 강화, 소통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관리자 리더십의 공유적 전환 등을 통해 긍정적 학교문화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력 초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 적응 및 협력문화 경험 확대 지원이 요구됨.

3. 학교장 리더십

- 교사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평균과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7>과 같음.
- 학교장 리더십의 전체 평균은 3.96(SD=0.95)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96(SD=0.99), 여교사 평균 3.96(SD=0.94)으로 평균이 동일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85(SD=0.96),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77(SD=0.99),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92(SD=0.95),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02(SD=0.9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05(SD=0.97),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06(SD=0.86), 30년 이상 경력 평균 3.94(SD=0.98)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16(SD=0.87), 중학교 평균 3.93(SD=0.93), 고등학교 평균 3.78(SD=1.01)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5-9] 교사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

〈표 5-37〉 교사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3.96	0.95	-	-
성별	남	394	3.96	0.99	0.024	0.981
	여	1,043	3.96	0.94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85	0.96	2.674*	②<⑤, ⑥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77	0.99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92	0.95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02	0.93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05	0.97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06	0.86		
	⑦ 30년 이상	118	3.94	0.98		
학교급	초	471	4.16	0.87	19.633**	초>중>고
	중	525	3.93	0.93		
	고	441	3.78	1.01		

** $p<.01$, * $p<.05$

○ 교사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교직 경력과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교직 경력에서는 25년 이상 30년 미만 교사가 가장 높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교사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 경력의 축적과 함께 학교장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교직 내 경험의 누적과 학교급별 조직 분위기의 차이가 학교장의 리더십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초등학교의 높은 학교장 리더십 평가는 학교장이 교사와의 의사소통 및 참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고등학교의 낮은 평가는 입시 중심의 경직된 학교문화와 관리자-교사 간 수직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참여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교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견 및 경력 초기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리더십의 공유와 소통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4. 교사 자율성

가.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8>과 같음.
-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13(SD=0.84)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01(SD=0.89), 여교사 평균 4.17(SD=0.82)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03(SD=0.84),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01(SD=0.88),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13(SD=0.84),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23(SD=0.82),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18(SD=0.87),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16(SD=0.77), 30년 이상 경력 평균 4.07(SD=0.82)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39(SD=0.68), 중학교 평균 4.07(SD=0.83), 고등학교 평균 3.92(SD=0.92)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38>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4.13	0.84	-	-
성별	남	394	4.01	0.89	-3.38**	여>남
	여	1,043	4.17	0.82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03	0.84	1.96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01	0.88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13	0.84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23	0.82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18	0.87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16	0.77		
	⑦ 30년 이상	118	4.07	0.82		
학교급	초	471	4.39	0.68	39.97***	초>중>고
	중	525	4.07	0.83		
	고	441	3.92	0.92		

*** $p < .001$, ** $p < .01$

나. 수업내용 결정 자율성

- 교사의 수업내용 결정 자율성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9>와 같음.
- 수업내용 결정 자율성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30(SD=0.74)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4.21(SD=0.79), 여교사 평균 4.33(SD=0.71)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22(SD=0.75),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20(SD=0.83),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27(SD=0.79),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33(SD=0.80),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37(SD=0.68),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35(SD=0.61), 30년 이상 경력 평균 4.30(SD=0.65)으로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48(SD=0.64), 중학교 평균 4.25(SD=0.73), 고등학교 평균 4.16(SD=0.80)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39> 교사의 수업내용 재구성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4.30	0.74	-	-
성별	남	394	4.21	0.79	-2.97**	여>남
	여	1,043	4.33	0.71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22	0.75	1.66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20	0.83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27	0.79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33	0.80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37	0.68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35	0.61		
	⑦ 30년 이상	118	4.30	0.65		
학교급	초	471	4.48	0.64	24.36***	초>중, 고
	중	525	4.25	0.73		
	고	441	4.16	0.80		

*** $p < .001$, ** $p < .01$

다. 교수방법 결정 자율성

- 교사의 교수방법 결정 자율성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0>과 같음.
- 교수방법 결정 자율성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33(SD=0.69)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4.23(SD=0.72), 여교사 평균 4.37(SD=0.68)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20(SD=0.76),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4.19(SD=0.76),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4.33(SD=0.73),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38(SD=0.6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43(SD=0.64),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38(SD=0.62), 30년 이상 경력 평균 4.31(SD=0.64)로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3(SD=0.60), 중학교 평균 4.27(SD=0.71), 고등학교 평균 4.20(SD=0.73)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40> 교사의 교수방법 결정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4.33	0.69	-	-
성별	남	394	4.23	0.72	-3.47**	여>남
	여	1,043	4.37	0.68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20	0.76	3.50**	⑤>①,②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4.19	0.76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4.33	0.73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38	0.6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43	0.64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38	0.62		
	⑦ 30년 이상	118	4.31	0.64		
학교급	초	471	4.53	0.60	30.50***	초>중, 초>고
	중	525	4.27	0.71		
	고	441	4.20	0.73		

*** $p < .001$, ** $p < .01$

라. 평가방법 결정 자율성

- 교사의 **평가방법 결정 자율성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1>과 같음.
- 평가방법 결정 자율성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4.05(SD=0.87)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4.03(SD=0.88), 여교사 평균 4.06(SD=0.87)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4.07(SD=0.82),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86(SD=0.97),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94(SD=0.95),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07(SD=0.92),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16(SD=0.83),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13(SD=0.72), 30년 이상 경력 평균 4.13(SD=0.79)으로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16(SD=0.86), 중학교 평균 4.06(SD=0.85), 고등학교 평균 3.93(SD=0.90)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41> 교사의 평가방법 결정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Howell)
전체		1,437	4.05	0.87	-	-
성별	남	394	4.03	0.88	-0.69	-
	여	1,043	4.06	0.87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4.07	0.82	3.52**	⑤,⑥>②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86	0.97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94	0.95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07	0.92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16	0.83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13	0.72		
	⑦ 30년 이상	118	4.13	0.79		
학교급	초	471	4.16	0.86	8.15***	초>고
	중	525	4.06	0.85		
	고	441	3.93	0.90		

*** $p < .001$, ** $p < .01$

마. 학생 생활지도 결정 자율성

-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결정 자율성**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2>와 같음.
- 학생 생활지도 결정 자율성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97(SD=0.90)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87(SD=0.92), 여교사 평균 4.01(SD=0.90)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90(SD=0.95),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68(SD=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93(SD=0.93),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4.04(SD=0.9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4.07(SD=0.87),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09(SD=0.78), 30년 이상 경력 평균 4.01(SD=0.77)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22(SD=0.83), 중학교 평균 3.91(SD=0.88), 고등학교 평균 3.77(SD=0.94)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42>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결정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Howell)
전체		1,437	3.97	0.9	-	-
성별	남	394	3.87	0.92	-2.57*	여>남
	여	1,043	4.01	0.90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9	0.95	4.87***	④,⑤,⑥>②, ⑦>②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68	1.00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93	0.93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4.04	0.93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4.07	0.87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09	0.78		
	⑦ 30년 이상	118	4.01	0.77		
학교급	초	471	4.22	0.83	31.06***	초>중, 초>고
	중	525	3.91	0.88		
	고	441	3.77	0.94		

** $p<.01$, * $p<.05$

바. 행정업무 자율성

- 교사의 **행정업무 자율성**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3>과 같음.
- 행정업무 자율성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20(SD=1.12)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34(SD=1.09), 여교사 평균 3.15(SD=1.13)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30(SD=1.06),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96(SD=1.16),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06(SD=1.12),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21(SD=1.19),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24(SD=1.15),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34(SD=0.98), 30년 이상 경력 평균 3.41(SD=1.06)로 30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15(SD=1.20), 중학교 평균 3.26(SD=1.06), 고등학교 평균 3.19(SD=1.11)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43> 교사의 행정업무 자율성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Howell)
전체		1,437	3.20	1.12	-	-
성별	남	394	3.34	1.09	2.92**	남>여
	여	1,043	3.15	1.13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30	1.06	3.61**	⑥, ⑦>②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96	1.16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06	1.12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21	1.19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24	1.15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34	0.98		
	⑦ 30년 이상	118	3.41	1.06		
학교급	초	471	3.15	1.20	1.11	-
	중	525	3.26	1.06		
	고	441	3.19	1.1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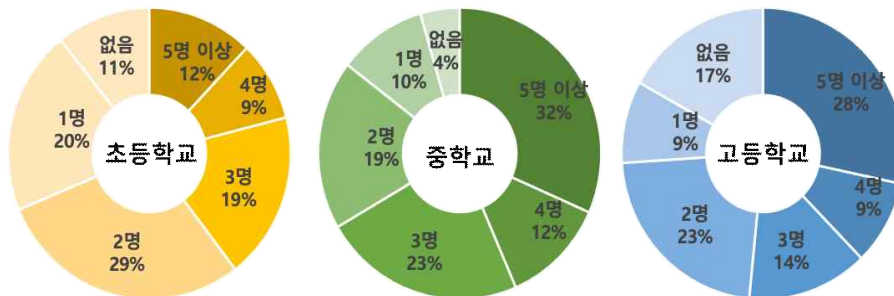
- 교사의 교수·학습 자율성 인식의 전체 평균은 전반적으로 4.0 이상이었으며, 교사들이 교수활동과 평가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성별로는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일관되게 높았으며, 경력으로는 15년 이상 중·고경력 교사에서 평균이 높아, 경험 축적이 수업 및 평가 자율성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보다 유의하게 높아, 초등학교의 교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가지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교과별·평가 중심 구조로 인해 자율성 제한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초등학교의 교사 중심 수업 설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상급학교에서는 교과·평가 기준의 제약이 더 강하게 작용함을 의미함.
- 교사의 생활지도, 행정업무와 같은 학생생활 및 행정 관련 자율성 인식 전체 평균은 각각 3.97과 3.20으로, 교수활동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음. 학생생활지도 자율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교사들이 학생지도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반면, 행정업무 자율성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교사들이 행정 관련 업무에서 재량보다는 지시·규정 중심의 수행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줌. 성별에서는 생활지도 자율성은 여교사가, 행정업무 자율성은 남교사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생활·상담 업무가 여성 교사에게, 행정·관리 업무가 남성 교사에게 상대적으로 더 배분되는 경향을 반영함. 경력별로는 생활지도 자율성이 중·고경력 구간에서 높고, 행정업무 자율성은 경력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경험 축적이 자율성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자율성은 초등학교 교사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지도 자율성 또한 초등학교에서 유의하게 높았음. 반면, 행정업무 자율성은 중학교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급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종합적으로, 교사들은 수업 및 평가 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행정업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제약과 통제 요소를 경험하고 있음. 또한 성별·경력별로 자율성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자율성을, 고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자율성을 인식함.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수업 중심 영역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행정적 업무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음을 시사함. 따라서 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 단계의 교사 재량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되, 행정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위기학생 지원

- 담임교사가 응답한 **위기학생 지원 관련 학생 수(담임 학급 기준)**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 급별 응답 빈도와 교차분석 결과는 <표 5-44>와 같음.

가. 학습부진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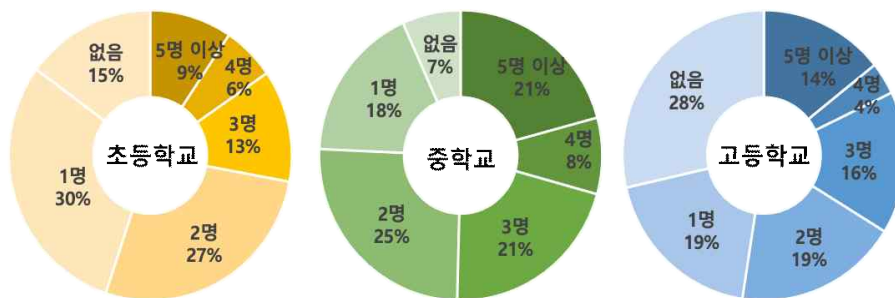
- 학습부진 학생 수는 2명 239명(23.6%), 5명 이상 237명(23.4%), 3명 193명(19.1%) 순으로 많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는 5명 이상 71명(27.2%), 2명 60명(23.0%), 없음 31명(11.9%)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교사는 2명 179명(23.8%), 3명 149명(19.8%), 5명 이상 166명(22.1%)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학습의욕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학생 수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16명(14.8%),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교사는 2명 43명(30.3%),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교사는 5명 이상 52명(27.8%),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교사는 5명 이상 41명(24.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는 2명 56명(26.5%),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교사는 3명 33명(24.1%), 30년 이상 경력 교사는 5명 이상 18명(31.0%)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학습의욕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학생 수는 초등학교 2명 111명(29.1%), 중학교 5명 이상 119명(31.6%), 고등학교 5명 이상 72명(28.3%)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학습의욕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5-10] 학급 내 학습부진 학생 수(담임교사 응답)

나.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수

- 담임교사가 응답한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수(담임 학급 기준)는 2명 246명(24.4%), 1명 229명(22.7%), 없음 154명(15.2%) 순으로 많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는 1명 66명(25.4%), 없음 51명(19.6%), 2명 55명(21.2%)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교사는 2명 191명(25.5%), 1명 163명(21.7%), 없음 103명(13.7%)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문제행동, 정서불안 등 심리상담 필요’ 학생 수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학생 수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30명(27.8%),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교사는 1명 33명(23.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교사는 1명 44명(23.7%),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교사는 1명 51명(30.2%),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는 2명 54명(25.5%),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교사는 2명 44명(32.4%), 30년 이상 경력 교사는 5명 이상 14명(24.6%)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문제행동, 정서불안 등 심리상담 필요’ 학생 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학생 수는 초등학교 1명 115명(30.0%), 중학교 5명 이상 78명(20.8%), 고등학교 없음 72명(28.6%)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문제행동, 정서불안 등 심리상담 필요’ 학생 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5-11] 학급 내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수(담임교사 응답)

〈표 5-44〉 학급 내 위기학생(학습부진, 정서행동) 수 교차분석 결과

N=1,437

항목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χ^2
학습 부진	전체		101 10.0%	139 13.7%	239 23.6%	193 19.1%	103 10.2%	237 23.4%	1012 100.0%	5.74
	성별	남	31 11.9%	33 12.6%	60 23.0%	44 16.9%	22 8.4%	71 27.2%	261 100.0%	
		여	70 9.3%	106 14.1%	179 23.8%	149 19.8%	81 10.8%	166 22.1%	751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16 14.8%	13 12.0%	25 23.1%	19 17.6%	11 10.2%	24 22.2%	108 100.0%	39.15
		5년 이상	17 12.0%	19 13.4%	43 30.3%	16 11.3%	14 9.9%	33 23.2%	142 100.0%	
		10년 미만	18 12.0%	24 13.4%	42 30.3%	35 11.3%	16 9.9%	52 23.2%	187 100.0%	
		10년 이상	18 9.6%	24 12.8%	42 22.5%	35 18.7%	16 8.6%	52 27.8%	187 100.0%	
		15년 미만	20 9.6%	30 12.8%	34 22.5%	25 18.7%	19 8.6%	41 27.8%	169 100.0%	
		15년 이상	20 11.8%	30 17.8%	34 20.1%	25 14.8%	19 11.2%	41 24.3%	169 100.0%	
		20년 미만	18 8.5%	25 11.8%	56 26.5%	56 26.5%	20 9.5%	36 17.1%	211 100.0%	
		20년 이상	18 8.5%	25 11.8%	56 26.5%	56 26.5%	20 9.5%	36 17.1%	211 100.0%	
		25년 미만	9 6.6%	21 15.3%	25 18.2%	33 24.1%	16 11.7%	33 24.1%	137 100.0%	
		25년 이상	9 6.6%	21 15.3%	25 18.2%	33 24.1%	16 11.7%	33 24.1%	137 100.0%	
		30년 미만	3 5.2%	7 12.1%	14 24.1%	9 15.5%	7 12.1%	18 31.0%	58 100.0%	
		30년 이상	3 5.2%	7 12.1%	14 24.1%	9 15.5%	7 12.1%	18 31.0%	58 100.0%	
	학교급	초	41 10.8%	78 20.5%	111 29.1%	71 18.6%	34 8.9%	46 12.1%	381 100.0%	95.91***
		중	17 4.5%	38 10.1%	71 18.8%	87 23.1%	45 11.9%	119 31.6%	377 100.0%	
		고	43 16.9%	23 9.1%	57 22.4%	35 13.8%	24 9.4%	72 28.3%	254 100.0%	
		고	43 16.9%	23 9.1%	57 22.4%	35 13.8%	24 9.4%	72 28.3%	254 100.0%	
정서 행동	전체		154 15.2%	229 22.7%	246 24.4%	167 16.5%	64 6.3%	150 14.9%	1010 100.0%	8.42
	성별	남	51 19.6%	66 25.4%	55 21.2%	37 14.2%	16 6.2%	35 13.5%	260 100.0%	
		여	103 13.7%	163 21.7%	191 25.5%	130 17.3%	48 6.4%	115 15.3%	750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30 27.8%	27 25.0%	25 23.1%	14 13.0%	6 5.6%	6 5.6%	108 100.0%	50.38**
		5년 이상	27 19.0%	33 23.2%	32 22.5%	23 16.2%	10 7.0%	17 12.0%	142 100.0%	
		10년 미만	29 15.6%	44 23.7%	42 22.6%	33 17.7%	9 4.8%	29 15.6%	186 100.0%	
		10년 이상	29 15.6%	44 23.7%	42 22.6%	33 17.7%	9 4.8%	29 15.6%	186 100.0%	
		15년 미만	17 10.1%	51 30.2%	38 22.5%	25 14.8%	12 7.1%	26 15.4%	169 100.0%	
		15년 이상	17 10.1%	51 30.2%	38 22.5%	25 14.8%	12 7.1%	26 15.4%	169 100.0%	
		20년 미만	31 14.6%	41 19.3%	54 25.5%	40 18.9%	14 6.6%	32 15.1%	212 100.0%	
		20년 이상	31 14.6%	41 19.3%	54 25.5%	40 18.9%	14 6.6%	32 15.1%	212 100.0%	
		25년 미만	13 9.6%	23 16.9%	44 32.4%	19 14.0%	11 8.1%	26 19.1%	136 100.0%	
		25년 이상	13 9.6%	23 16.9%	44 32.4%	19 14.0%	11 8.1%	26 19.1%	136 100.0%	
		30년 미만	7 12.3%	10 17.5%	11 19.3%	13 22.8%	2 3.5%	14 24.6%	57 100.0%	
		30년 이상	7 12.3%	10 17.5%	11 19.3%	13 22.8%	2 3.5%	14 24.6%	57 100.0%	
	학교급	초	57 14.9%	115 30.0%	104 27.2%	48 12.5%	23 6.0%	36 9.4%	383 100.0%	98.13***
		중	25 6.7%	66 17.6%	95 25.3%	79 21.1%	32 8.5%	78 20.8%	375 100.0%	
		고	72 28.6%	48 19.0%	47 18.7%	40 15.9%	9 3.6%	36 14.3%	252 100.0%	
		고	72 28.6%	48 19.0%	47 18.7%	40 15.9%	9 3.6%	36 14.3%	252 100.0%	

*** $p<.001$, ** $p<.01$, * $p<.05$

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책지원

- 교사의 학습부진 학생 정책지원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5>과 같음.
- 학습부진 학생 정책지원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38(SD=1.00)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34(SD=1.03), 여교사 평균 3.39(SD=0.99)로 여교사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44(SD=0.90),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17(SD=1.0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29(SD=1.11),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43(SD=0.94),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38(SD=1.04),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45(SD=0.98), 30년 이상 경력 평균 3.54(SD=0.89)로 30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42(SD=1.00), 중학교 평균 3.49(SD=0.94), 고등학교 평균 3.19(SD=1.04)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45> 교사의 학습부진 학생 정책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3.38	1.00	-	-
성별	남	394	3.34	1.03	-0.93	-
	여	1,043	3.39	0.9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44	0.90	2.54*	⑦>②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17	1.0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29	1.11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43	0.94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38	1.04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45	0.98		
	⑦ 30년 이상	118	3.54	0.89		
학교급	초	471	3.42	1.00	11.98***	초, 중>고
	중	525	3.49	0.94		
	고	441	3.19	1.04		

*** $p<.001$, * $p<.05$

라.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가정 지원

- 교사의 **학습부진 학생 가정 지원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6>과 같음.
- 학습부진 학생 가정 지원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2.83(SD=1.11)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2.95(SD=1.11), 여교사 평균 2.78(SD=1.11)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08(SD=1.08),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70(SD=1.09),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2.73(SD=1.19),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2.88(SD=1.08),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2.85(SD=1.13),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2.69(SD=1.07), 30년 이상 경력 평균 2.96(SD=1.05)으로 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71(SD=1.14), 중학교 평균 2.95(SD=1.10), 고등학교 평균 2.80(SD=1.08)으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46> 교사의 학습부진 학생 가정 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2.83	1.11	-	-
성별	남	394	2.95	1.11	2.59*	남>여
	여	1,043	2.78	1.11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08	1.08	2.99**	①,⑥>②,③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70	1.09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2.73	1.19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2.88	1.08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2.85	1.13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2.69	1.07		
	⑦ 30년 이상	118	2.96	1.05		
학교급	초	471	2.71	1.14	6.13**	중>초
	중	525	2.95	1.10		
	고	441	2.80	1.08		

** $p<.01$, * $p<.05$

마.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에 대한 정책지원

- 교사의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정책지원 인식에 대한 교사 인식의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7>과 같음.
-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정책지원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31(SD=1.01)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36(SD=1.02), 여교사 평균 3.29(SD=1.01)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39(SD=0.93),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07(SD=1.0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22(SD=1.07),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41(SD=0.96),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31(SD=1.04),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38(SD=1.02), 30년 이상 경력 평균 3.46(SD=0.92)으로 30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24(SD=1.06), 중학교 평균 3.42(SD=0.95), 고등학교 평균 3.25(SD=1.02)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47> 교사의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정책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3.31	1.01	-	-
성별	남	394	3.36	1.02	1.11	-
	여	1,043	3.29	1.01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39	0.93	3.22**	①,④,⑤,⑥,⑦)②, ④,⑤,⑥,⑦)③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07	1.02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22	1.07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41	0.96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31	1.04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38	1.02		
	⑦ 30년 이상	118	3.46	0.92		
학교급	초	471	3.24	1.06	5.05**	중>초, 중>고
	중	525	3.42	0.95		
	고	441	3.25	1.02		

** $p < .01$, * $p < .05$

바.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가정 지원

- 교사의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가정 지원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8>과 같음.
-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가정 지원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2.90(SD=1.12)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06(SD=1.11), 여교사 평균 2.83(SD=1.12)으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15(SD=1.10),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72(SD=1.1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2.80(SD=1.16),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2.94(SD=1.08),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2.89(SD=1.14),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2.84(SD=1.13), 30년 이상 경력 평균 3.08(SD=1.03)로 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65(SD=1.16), 중학교 평균 3.07(SD=1.06), 고등학교 평균 2.96(SD=1.10)으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48> 교사의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가정 지원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2.90	1.12	-	-
성별	남	394	3.06	1.11	3.49***	남>여
	여	1,043	2.83	1.12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15	1.10	3.06**	①>②,③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72	1.1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2.8	1.16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2.94	1.08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2.89	1.14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2.84	1.13		
	⑦ 30년 이상	118	3.08	1.03		
학교급	초	471	2.65	1.16	18.97***	중,고>초
	중	525	3.07	1.06		
	고	441	2.96	1.10		

*** $p<.001$,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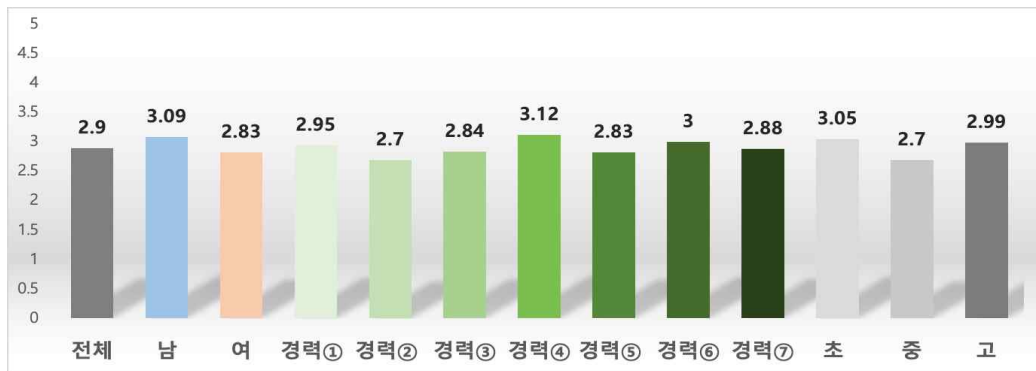
- 학습부진 및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수는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초등은 소수 중심, 중·고등은 다수 중심의 분포로 나타남.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은 초등에서 개별 사례가, 중학교에서 다수 사례가, 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됨. 이는 학교급별 학생 발달 단계와 학습·생활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양상으로 해석됨.
- 학습부진 및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지원 영역(정책지원·가정지원)의 교사 인식은 전반적으로 3 점대 초반 수준으로 나타나, 교수활동이나 생활지도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음. 교사들은 정책 차원의 지원보다는 가정과 연계된 지원에서 더 낮은 인식을 보여, 학교 외부 자원과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함. 성별에 따라서는 정책지원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가정지원 항목에서는 남교사의 인식이 여교사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이는 가정 연계 지원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개별 교사의 경험이나 역할 범위에 따라 인식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 경력별로 보면, 네 항목 모두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대체로 중·고경력(15년 이상) 교사에서 인식 수준이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음. 특히 정책지원 항목에서는 30년 이상 교사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는 경력과 경험이 누적될수록 학생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높아짐을 시사함. 반면 가정지원 항목에서는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가 오히려 높은 평균을 보여, 비교적 최근 임용된 교사들이 가정과의 직접적 소통에 적극적인 경향을 반영함.
- 학교급별로는, 네 항목 모두 중학교 교사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학습부진 및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지원에 대한 인식이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낮고, 고등학교는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음. 이는 학습격차와 정서행동 문제의 표출이 중학교 시기에 두드러지는 현실적 맥락을 반영함.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조기개입 및 맞춤형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정책 지원의 실효성이나 연계체계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종합적으로, 교사들은 학습부진 및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인식하고 있으나, 가정과의 연계나 지속적 지원의 체계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음. 이는 학교 중심의 정책이 현장 교사에게 실질적인 자율성과 지원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학생 지원 정책은 교사 주도의 협력적 실행체제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정·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대한 교사 교육과 지원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또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형 지원체계, 즉 중학교 중심의 집중 지원과 함께 초등학교 단계의 조기 개입 강화, 고등학교의 학업·진로 연계형 지원 확대가 필요함.

6. 학교시설 인식

가. 휴식공간 환경

- 교사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49>와 같음.
- 휴식공간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2.90(SD=1.27)임. 성별에서는 남교사의 평균이 3.09(SD=1.26)로 여교사 평균 2.83(SD=1.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교사의 평균이 3.12(SD=1.33)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교사 평균 2.70(SD=1.25)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중간 경력대의 교사들이 휴식공간 환경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이 3.05(SD=1.32), 고등학교 교사 2.99(SD=1.25), 중학교 교사 2.70(SD=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보다 휴식공간 환경을 낮게 평가하였음.
- 교사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2.90)으로, 학교 내 물리적·정서적 휴식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남교사와 중간 경력대(15~20년 미만)의 교사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여교사와 중학교 교사는 낮은 수준을 보여 휴게공간의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냄. 이는 학교급 및 시설 여건에 따라 휴식공간 이용 가능성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직원 휴게공간의 접근성·쾌적성 개선이 요구됨.



[그림 5-12] 교사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표 5-49〉 교사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2.90	1.27	-	-
성별	남	394	3.09	1.26	3.42**	
	여	1,043	2.83	1.26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2.95	1.25	1.57*	②<④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70	1.25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2.84	1.28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12	1.33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2.83	1.29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00	1.21		
	⑦ 30년 이상	118	2.88	1.16		
학교급	초	471	3.05	1.32	3.33***	중<초, 고
	중	525	2.70	1.21		
	고	441	2.99	1.25		

*** $p < .001$, ** $p < .01$, * $p < .05$

나. 디지털수업 환경

- 교사의 **디지털 수업 환경**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0>과 같음.
- 디지털 수업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1(SD=0.99)임. 성별에서는 남교사의 평균이 3.82(SD=0.97)으로 여교사 평균 3.66(SD=1.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교사의 평균이 3.78(SD=0.96)으로 가장 높았고, 20년 이상 25년 미만 3.75(SD=1.00), 25년 이상 30년 미만 3.78(SD=0.98)으로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경력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전반적으로 교직 경력이 길수록 디지털 수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이 3.83(SD=0.99)으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3.70(SD=0.99), 중학교 3.61(SD=0.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디지털 수업 환경을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교사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은 평균 이상 수준(3.71)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남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음.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교실 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중학교 교사의 인식이 다소 낮은 것은 교과 중심 수업 구조나 평가 부담 등으로 인해 디지털 활용의 여건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학교급별 수업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단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교사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



[그림 5-13] 교사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

〈표 5-50〉 교사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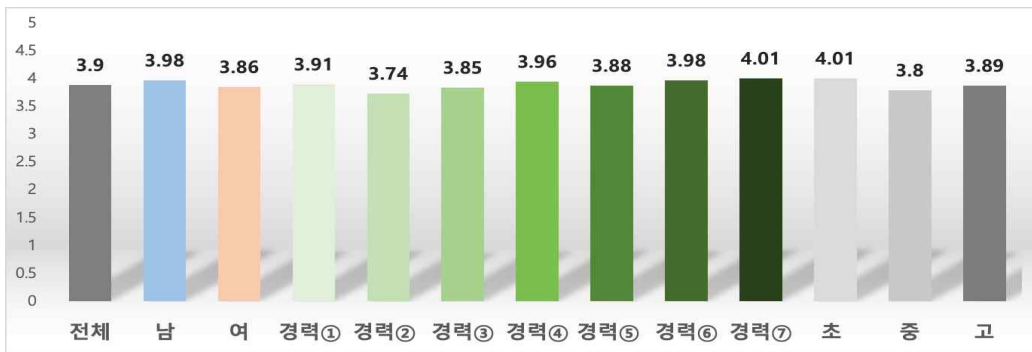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71	0.99	-	-
성별	남	394	3.82	0.97	2.73**	
	여	1,043	3.66	1.00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67	0.99	1.54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53	1.0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68	1.09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78	0.96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75	1.00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78	0.98		
	⑦ 30년 이상	118	3.70	0.78		
학교급	초	471	3.83	0.99	6.09*	초>중
	중	525	3.61	0.98		
	고	441	3.70	0.99		

** $p < .01$, * $p < .05$

다. 청결한 학교 환경

- 교사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1〉와 같음.
- 청결한 학교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0(SD=0.94)임. 성별에서는 남교사의 평균이 3.98(SD=0.88)로 여교사 평균 3.86(SD=0.9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30년 이상 교사의 평균이 4.01(SD=0.72)로 가장 높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3.96(SD=0.90), 25년 이상 30년 미만 3.98(SD=0.90)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경력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전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청결한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이 4.01(SD=0.94)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3.89(SD=0.92), 중학교 3.80(SD=0.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중학교보다 청결한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음.

- 교사의 청결한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이상 수준(3.90)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남교사와 근속연수가 긴 교사,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급 단위 청소 및 환경정비 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반면, 중학교 교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여, 학교 규모 확장과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관리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학교급별 환경 관리 체계의 차이를 고려한 청결 유지 지원과 시설 관리 인력 확충이 필요함.



[그림 5-14] 교사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표 5-51〉 교사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90	0.94	-	-
성별	남	394	3.98	0.88	2.19*	
	여	1,043	3.86	0.95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91	0.87	1.73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74	1.03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85	1.02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96	0.90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88	0.94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98	0.90		
	⑦ 30년 이상	118	4.01	0.72		
학교급	초	471	4.01	0.94	6.72**	초>중
	중	525	3.80	0.93		
	고	441	3.89	0.92		

** $p < .01$, * $p < .05$

7. 학교안전 인식

가. 시설 안전

- 교사의 **학교시설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2>와 같음.
- 시설 안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97(SD=0.89)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03(SD=0.83), 여교사 평균 3.94(SD=0.92)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95(SD=0.86),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83(SD=0.96),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97(SD=0.94),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98(SD=0.90),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96(SD=0.92),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4.06(SD=0.83), 30년 이상 경력 평균 4.01(SD=0.72)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08(SD=0.91), 중학교 평균 3.88(SD=0.90), 고등학교 평균 3.95(SD=0.86)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52> 교사의 학교시설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Howell)
전체		1,437	3.97	0.89	-	-
성별	남	394	4.03	0.83	1.75	-
	여	1,043	3.94	0.92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95	0.86	1.13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83	0.96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97	0.94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98	0.90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96	0.92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4.06	0.83		
	⑦ 30년 이상	118	4.01	0.72		
학교급	초	471	4.08	0.91	6.14**	초>중
	중	525	3.88	0.90		
	고	441	3.95	0.86		

**p<.01

나. 학교폭력 안전

- 교사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3>과 같음.
- 학교폭력 안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1(SD=0.95)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80(SD=0.94), 여교사 평균 3.54(SD=0.94)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74(SD=0.83),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35(SD=1.09),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57(SD=0.97),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62(SD=0.97),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63(SD=0.96),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73(SD=0.82), 30년 이상 경력 평균 3.63(SD=0.89)으로 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62(SD=0.98), 중학교 평균 3.54(SD=0.94), 고등학교 평균 3.68(SD=0.91)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53> 교사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3.61	0.95	-	-
성별	남	394	3.80	0.94	4.70***	남>여
	여	1,043	3.54	0.94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74	0.83	3.47**	①,⑥>②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35	1.09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57	0.97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62	0.97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63	0.96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73	0.82		
	⑦ 30년 이상	118	3.63	0.89		
학교급	초	471	3.62	0.98	2.82	-
	중	525	3.54	0.94		
	고	441	3.68	0.91		

*** $p<.001$, ** $p<.01$

다. 외부침입 안전

- 교사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4>와 같음.
- 외부침입 안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1(SD=1.02)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80(SD=0.95), 여교사 평균 3.54(SD=1.04)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88(SD=0.9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47(SD=1.0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55(SD=1.07),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61(SD=1.05),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57(SD=1.05),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67(SD=1.00), 30년 이상 경력 평균 3.63(SD=0.92)으로 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52(SD=1.15), 중학교 평균 3.65(SD=0.93), 고등학교 평균 3.66(SD=0.98)으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54> 교사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3.61	1.02	-	-
성별	남	394	3.80	0.95	4.32***	남>여
	여	1,043	3.54	1.04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88	0.91	2.67*	①,⑤>②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47	1.02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55	1.07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61	1.05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57	1.05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67	1.00		
	⑦ 30년 이상	118	3.63	0.92		
학교급	초	471	3.52	1.15	2.79	-
	중	525	3.65	0.93		
	고	441	3.66	0.98		

*** $p < .001$, * $p < .05$

라. 등하굣길 교통 안전

- 교사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5>와 같음.
- 등하굣길 교통 안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45(SD=1.01)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54(SD=1.01), 여교사 평균 3.42(SD=1.01)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48(SD=1.04),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22(SD=1.0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47(SD=1.04),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48(SD=1.0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50(SD=0.99),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51(SD=1.01), 30년 이상 경력 평균 3.45(SD=0.89)로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55(SD=1.05), 중학교 평균 3.42(SD=0.97), 고등학교 평균 3.38(SD=1.00)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55> 교사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Howell)
전체		1,437	3.45	1.01	-	-
성별	남	394	3.54	1.01	1.97*	남>여
	여	1,043	3.42	1.01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48	1.04	1.96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22	1.0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47	1.04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48	1.03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50	0.99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51	1.01		
	⑦ 30년 이상	118	3.45	0.89		
학교급	초	471	3.55	1.05	3.69*	초>고
	중	525	3.42	0.97		
	고	441	3.38	1.00		

* $p < .05$

마. 학교 주변 안전

- 교사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6>과 같음.
- 학교주변 안전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2.93(SD=1.06)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05(SD=1.10), 여교사 평균 2.89(SD=1.04)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2.73(SD=1.16),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2.96(SD=1.0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04(SD=1.08),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2.95(SD=1.06),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2.88(SD=1.06),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03(SD=0.98), 30년 이상 경력 평균 2.87(SD=1.00)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2.86(SD=1.10), 중학교 평균 2.92(SD=1.03), 고등학교 평균 3.04(SD=1.04)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56> 교사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Howell)
전체		1,437	2.93	1.06	-	-
성별	남	394	3.05	1.10	2.51*	남>여
	여	1,043	2.89	1.04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2.73	1.16	1.86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2.96	1.02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04	1.08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2.95	1.06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2.88	1.06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03	0.98		
	⑦ 30년 이상	118	2.87	1.00		
학교급	초	471	2.86	1.10	3.37*	고>초
	중	525	2.92	1.03		
	고	441	3.04	1.04		

* $p < .05$

- 안전 영역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전반적으로 3점대 중후반 수준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항목별로 차이를 보였음. 시설 안전의 인식이 가장 높았고($M=3.97$), 학교주변 안전의 인식이 가장 낮았음($M=2.93$). 성별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교사의 평균이 여교사보다 높았으며, 특히 학교폭력·외부침입·교통안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이는 남교사가 물리적 안전관리나 외부 위험요소 인식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로 해석됨. 경력별로는 대체로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와 25년 이상 교사 집단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이는 초기 교사들의 경각심과 장기 근속자의 경험적 판단이 각각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학교급별로는 시설 안전과 교통 안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학교폭력·외부침입·학교주변 안전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다소 높았음. 특히 초등학교에서 시설 및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 연령 특성상 안전관리의 비중이 크고, 교사가 직접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자율성이 높아 외부 위험이나 학교폭력 등의 통제 한계를 더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만큼 교사의 안전 대응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학교는 대부분 항목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학교 안전 환경의 과도기적 특성을 반영함.
- 종합적으로, 교사들은 교내 시설 및 교통 안전에는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보이지만, 학교 외부 환경과 사회적 위험요소(학교폭력·외부침입·주변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이는 학교 내부 안전체계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외부 연계형 안전관리(지역사회 협력·학교주변 환경개선)는 아직 미흡함을 의미함. 따라서 학교 안전정책은 교내 중심의 시설·관리체계 유지와 함께, 외부위험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모델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생 자율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함.

8. 학부모·지역사회 협력

- 교사의 **학부모·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응답 빈도와 교차분석 결과는 <표 5-57>과 같음.

가. 학부모 상담 경험

- 교사의 **학부모 상담 경험** 빈도는 4회 이상 742명(51.6%), 2회 227명(15.8%), 없음 198명(13.8%)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는 4회 이상 173명(43.9%), 2회 86명(21.8%), 1회 53명(13.5%)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교사는 4회 이상 569명(54.6%), 2회 141명(13.5%), 없음 147명(14.1%) 순으로 응답하였음.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지원 빈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참여 횟수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36명(23.5%),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교사는 4회 이상 107명(58.2%),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교사는 4회 이상 145명(58.2%),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교사는 4회 이상 132명(57.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는 4회 이상 166명(56.8%),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교사는 4회 이상 99명(47.1%), 30년 이상 경력 교사는 없음 24명(20.3%)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학부모 상담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참여 횟수는 초등학교 4회 이상 296명(62.8%), 중학교 4회 이상 270명(51.4%), 고등학교 4회 이상 176명(39.9%)였음.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상담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나. 학부모 공개수업 경험

- 교사의 **학부모 공개수업 경험** 빈도는 1회 675명(47.0%), 없음 464명(32.3%), 2회 221명(15.4%)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는 1회 158명(40.1%), 없음 120명(30.5%), 2회 89명(22.6%)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교사는 1회 517명(49.6%), 없음 344명(33.0%), 2회 132명(12.7%) 순으로 응답하였음.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학부모 공개수업 경험 빈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참여 횟수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84명(54.9%),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79명(42.9%),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교사는 1회 121명(48.6%),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교사는 1회 112명(48.5%),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는 1회 143명(49.0%),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교사는 1회 122명(58.1%), 30년 이상 경력 교사는 1회 51명(43.2%)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학부모 공개수업 경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참여 횟수는 초등학교 1회 367명(77.9%), 중학교 없음 259명(49.3%), 고등학교 없음 172명(39.0%)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공개수업 경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다. 지역사회 연계 경험

- 교사의 **지역사회 연계 경험** 빈도는 없음 581명(40.4%), 1회 345명(24.0%), 2회 251명(17.5%) 순으로 높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는 없음 174명(44.2%), 1회 92명(23.4%), 2회 68명(17.3%)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교사는 없음 407명(39.0%), 1회 253명(24.3%), 2회 183명(17.5%) 순으로 응답하였음.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지역사회 연계 경험 빈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참여 횟수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95명(62.1%),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81명(44.0%),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98명(39.4%),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77명(33.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98명(33.6%),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교사는 없음 82명(39.0%), 30년 이상 경력 교사는 없음 50명(42.4%)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경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참여 횟수는 초등학교 4회 이상 99명(21.0%), 중학교 없음 230명(43.8%), 고등학교 없음 213명(48.3%)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경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57〉 교사의 학부모·지역사회 협력 빈도 교차분석 결과

N=1,437

항목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χ^2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상담하기	전체	198 13.8%	172 12.0%	227 15.8%	98 6.8%	742 51.6%	1,437 100.0%	20.92***
	성별	남	51 12.9%	53 13.5%	86 21.8%	31 7.9%	173 100.0%	
		여	147 14.1%	119 11.4%	141 13.5%	67 6.4%	569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36 23.5%	23 15.0%	26 17.0%	11 7.2%	57 100.0%	
		5년 이상	21	21	22	13	107	69.83***
							184	

		10년 미만	11.4%	11.4%	12.0%	7.1%	58.2%	100.0%		
		10년 이상	25	30	40	9	145	249		
		15년 미만	10.0%	12.0%	16.1%	3.6%	58.2%	100.0%		
		15년 이상	28	19	37	15	132	231		
		20년 미만	12.1%	8.2%	16.0%	6.5%	57.1%	100.0%		
		20년 이상	31	24	49	22	166	292		
		25년 미만	10.6%	8.2%	16.8%	7.5%	56.8%	100.0%		
		25년 이상	33	33	31	14	99	210		
		30년 미만	15.7%	15.7%	14.8%	6.7%	47.1%	100.0%		
		30년 이상	24	22	22	14	36	118		
학교급	초	47	40	60	28	296	471	60.79***		
	중	59	67	87	42	270	525			
	고	92	65	80	28	176	441			
		20.9%	14.7%	18.1%	6.3%	39.9%	100.0%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피드백 받기	전체		464	675	221	22	55	1,437	30.08***	
			32.3%	47.0%	15.4%	1.5%	3.8%	100.0%		
	성별	남	120	158	89	11	16	394		100.0%
		여	344	517	132	11	39	1,043		
	교직 경력	5년 미만	84	51	12	2	4	153		79.05***
		5년 이상	79	75	23	2	5	184		
		10년 미만	42.9%	40.8%	12.5%	1.1%	2.7%	100.0%		
		10년 이상	73	121	40	4	11	249		
		15년 미만	29.3%	48.6%	16.1%	1.6%	4.4%	100.0%		
		15년 이상	67	112	36	2	14	231		
		20년 미만	29.0%	48.5%	15.6%	0.9%	6.1%	100.0%		
		20년 이상	79	143	48	8	14	292		
		25년 미만	27.1%	49.0%	16.4%	2.7%	4.8%	100.0%		
		25년 이상	44	122	37	2	5	210		
	30년 미만	21.0%	58.1%	17.6%	1.0%	2.4%	100.0%			
		30년 이상	38	51	25	2	2	118		
			32.2%	43.2%	21.2%	1.7%	1.7%	100.0%		
		학교급	초	33	367	46	5	20		471
	중		259	162	76	8	20	525		
	고		172	146	99	9	15	441		
	39.0%		33.1%	22.4%	2.0%	3.4%	100.0%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업 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체		581	345	251	78	182	1,437	8.95	
			40.4%	24.0%	17.5%	5.4%	12.7%	100.0%		
	성별	남	174	92	68	25	35	394		100.0%
		여	407	253	183	53	147	1,043		
	교직 경력	5년 미만	95	30	20	4	4	153		61.27***
		5년 이상	81	40	32	11	20	184		
		10년 미만	44.0%	21.7%	17.4%	6.0%	10.9%	100.0%		
		10년 이상	98	59	46	16	30	249		
		15년 미만	39.4%	23.7%	18.5%	6.4%	12.0%	100.0%		
		15년 이상	77	52	43	15	44	231		
		20년 미만	33.3%	22.5%	18.6%	6.5%	19.0%	100.0%		
		20년 이상	98	73	54	18	49	292		
		25년 미만	33.6%	25.0%	18.5%	6.2%	16.8%	100.0%		

	25년 이상	82	58	39	9	22	210	
	30년 미만	39.0%	27.6%	18.6%	4.3%	10.5%	100.0%	
	30년 이상	50	33	17	5	13	118	
		42.4%	28.0%	14.4%	4.2%	11.0%	100.0%	
학교급	초	138	101	103	30	99	471	77.64***
		29.3%	21.4%	21.9%	6.4%	21.0%	100.0%	
	중	230	132	79	26	58	525	
		43.8%	25.1%	15.0%	5.0%	11.0%	100.0%	
	고	213	112	69	22	25	441	
		48.3%	25.4%	15.6%	5.0%	5.7%	100.0%	

*** $p<.001$

9. 학부모·지역사회 인식

가. 학부모 역할 인식

- 교사의 **학부모 역할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8>과 같음.
- 학부모 역할 인식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92(SD=0.89)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01(SD=0.88), 여교사 평균 3.89(SD=0.90)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98(SD=0.85),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84(SD=1.0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90(SD=0.95),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86(SD=0.9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98(SD=0.81),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97(SD=0.87), 30년 이상 경력 평균 3.92(SD=0.79)로 5년 미만 경력과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99(SD=0.92), 중학교 평균 3.92(SD=0.87), 고등학교 평균 3.85(SD=0.88)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58〉 교사의 학부모 역할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3.92	0.89	-	-
성별	남	394	4.01	0.88	2.29*	남>여
	여	1,043	3.89	0.90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98	0.85	0.90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84	1.0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9	0.95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86	0.93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98	0.81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97	0.87		
	⑦ 30년 이상	118	3.92	0.79		
학교급	초	471	3.99	0.92	2.43	-
	중	525	3.92	0.87		
	고	441	3.85	0.88		

** $p < .01$, * $p < .05$

나. 학부모 참여 인식

- 교사의 **학부모 참여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59〉와 같음.
- 학부모 참여 인식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22(SD=1.20)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46(SD=1.19), 여교사 평균 3.13(SD=1.19)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48(SD=1.13),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23(SD=1.25),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09(SD=1.29),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21(SD=1.16),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14(SD=1.22),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23(SD=1.15), 30년 이상 경력 평균 3.39(SD=1.07)로 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09(SD=1.32), 중학교 평균 3.26(SD=1.11), 고등학교 평균 3.32(SD=1.16)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59〉 교사의 학부모 참여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Howell)
전체		1,437	3.22	1.20	-	-
성별	남	394	3.46	1.19	4.71***	남>여
	여	1,043	3.13	1.19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48	1.13	2.28*	①>③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23	1.25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09	1.29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21	1.16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14	1.22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23	1.15		
	⑦ 30년 이상	118	3.39	1.07		
학교급	초	471	3.09	1.32	4.75**	고>초
	중	525	3.26	1.11		
	고	441	3.32	1.16		

** $p<.01$, * $p<.05$

다.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

- 교사의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60〉와 같음.
-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78(SD=0.92)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86(SD=0.90), 여교사 평균 3.75(SD=0.92)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84(SD=0.99),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71(SD=0.99),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87(SD=0.88),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75(SD=0.9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78(SD=0.95),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76(SD=0.88), 30년 이상 경력 평균 3.71(SD=0.76)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

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86(SD=0.96), 중학교 평균 3.71(SD=0.86), 고등학교 평균 3.78(SD=0.93)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60〉 교사의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Howell)
전체		1,437	3.78	0.92	-	-
성별	남	394	3.86	0.90	2.11*	남>여
	여	1,043	3.75	0.92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84	0.99	0.81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71	0.99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87	0.88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75	0.9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78	0.95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76	0.88		
	⑦ 30년 이상	118	3.71	0.76		
학교급	초	471	3.86	0.96	3.32*	초>중
	중	525	3.71	0.86		
	고	441	3.78	0.93		

* $p < .05$

라. 지역사회 협력 인식

- 교사의 **지역사회 협력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61〉과 같음.
- 지역사회 협력 인식에 대한 교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71(SD=0.9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77(SD=1.00), 여교사 평균 3.68(SD=0.97)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경력 평균 3.85(SD=0.99),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평균 3.73(SD=1.0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평균 3.71(SD=0.98),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평균 3.67(SD=0.9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평균 3.69(SD=1.08),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평균 3.70(SD=0.95), 30년 이상 경력 평균 3.59(SD=0.78)로 5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74(SD=1.01), 중학교 평균 3.66(SD=0.93), 고등학교 평균 3.73(SD=0.99)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61〉 교사의 지역사회 협력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437	3.71	0.98	-	-
성별	남	394	3.77	1.00	1.60	-
	여	1,043	3.68	0.97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85	0.99	0.90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73	1.01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71	0.98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67	0.93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69	1.08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70	0.95		
	⑦ 30년 이상	118	3.59	0.78		
학교급	초	471	3.74	1.01	1.01	-
	중	525	3.66	0.93		
	고	441	3.73	0.99		

-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교사 인식은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부모 역할 인식(평균 3.92)과 지역사회 관련 인식(평균 3.7~3.8 수준)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학부모 참여 인식(평균 3.22)은 다소 낮게 나타났음. 이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학교 참여의 질적 수준이나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성별에서는 대부분 항목에서 남교사의 평균이 여교사보다 높았고, 특히 학부모 참여와 지역사회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이는 남교사가 학부모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제도적·형식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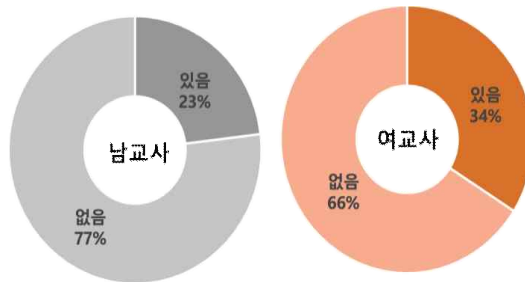
- 경력별로 보면, 학부모 관련 인식에서는 저경력 교사와 중·고경력 교사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지역사회 관련 인식에서는 10~15년 미만 교사에서 가장 높았음. 이는 경력이 적을수록 외부 협력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견 교사층은 학교 내 업무 중심으로 내재화되어 외부협력 인식이 다소 낮아지는 현상을 시사함. 반면, 고경력 교사는 경험을 기반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양상을 보임.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교의 학부모 참여 비율이 높고, 지역사회 기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임.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부모 접촉 기회가 제한되고 학교운영 구조가 교과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어 협력 인식이 낮게 나타남.
- 종합적으로, 교사들은 학부모와 사회의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참여 및 협력의 실행 수준은 낮다고 평가함. 이는 학교 내외의 교육공동체 간 연계가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학부모 참여의 질적 전환(단순 참여→협력적 의사결정 참여)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체계화(교육과정 내 통합형 운영)가 필요함.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참여를 교과 지원 중심에서 교육공동체 협력모델로 확장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웰빙

1. 교육활동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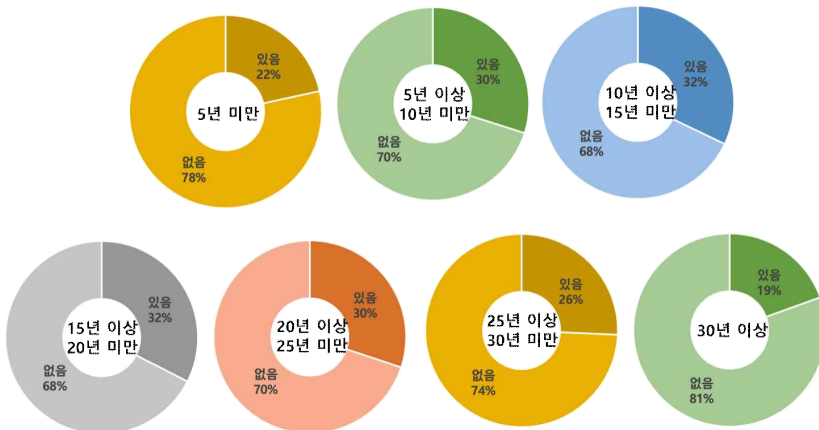
가. 교권침해 경험

-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응답 빈도와 교차분석 결과는 <표 5-26>과 같음. 긍정응답은 28.4%, 부정응답은 71.6%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의 긍정응답은 23.1%, 부정응답은 76.9%였으며, 여교사의 긍정응답은 30.4%, 부정응답은 69.6%였음.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침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교사의 성별에 따른 침해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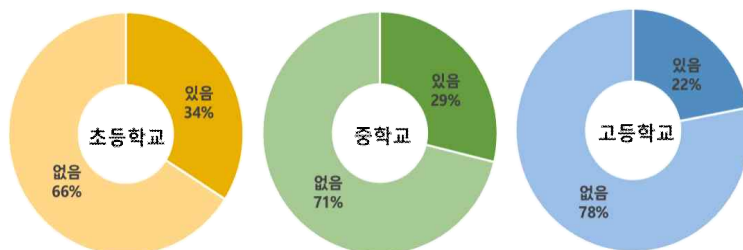
[그림 5-15]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성별)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의 긍정응답 32.5%,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의 긍정응답 32.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의 긍정응답 30.1% 순으로 높았음. 교직 경력에 따른 침해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5-16]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경력별)

-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의 긍정응답 34.0%, 중학교의 긍정응답 28.8%, 고등학교의 긍정응답 22.0%로 초등학교의 침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침해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5-17]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학교급별)

〈표 5-62〉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 교차분석 결과

N=1,437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전체		408 28.4%	1029 71.6%	1,437 100.0%	
성별	남	91 23.1%	303 76.9%	394 100.0%	7.49**
	여	317 30.4%	726 69.6%	1,043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33 21.6%	120 78.4%	153 100.0%	13.08*
	5년 이상 10년 미만	55 29.9%	129 70.1%	184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80 32.1%	169 67.9%	249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75 32.5%	156 67.5%	231 100.0%	
	20년 이상 25년 미만	88 30.1%	204 69.9%	292 100.0%	
	25년 이상 30년 미만	54 25.7%	156 74.3%	210 100.0%	
	30년 이상	23 19.5%	95 80.5%	118 100.0%	
학교급	초	160 34.0%	311 66.0%	471 100.0%	16.12***
	중	151 28.8%	374 71.2%	525 100.0%	
	고	97 22.0%	344 78.0%	441 100.0%	

*** $p<.001$, ** $p<.01$, * $p<.05$

나. 교권침해 주체

- 교권침해 주체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응답 빈도는 〈표 5-27〉과 같음. 전체 응답에서

‘경험 없음’은 886건(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440건(25.7%), ‘학부모’ 294건(17.2%), ‘관리자’ 53건(3.1%), ‘동료직원’ 31건(1.8%), ‘기타’ 9건(0.5%)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의 경우 ‘경험 없음’ 274건(61.0%), ‘학생’ 100건(22.3%), ‘학부모’ 56건(12.5%)이었음. 여교사의 경우 ‘경험 없음’ 612건(48.4%), ‘학생’ 340건(26.9%), ‘학부모’ 238건(18.8%)으로 나타났다. 남교사보다 여교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침해 주체로 지목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 교사의 경우 ‘경험 없음’ 111건(68.1%), ‘학생’ 31건(19.0%), ‘학부모’ 15건(9.2%)이었음. 10년 이상 15년 미만 교사는 ‘경험 없음’ 140건(44.6%), ‘학생’ 89건(28.3%), ‘학부모’ 62건(19.7%)으로 나타나, 초임 교사에 비해 침해 경험 비율이 높았음. 20년 이상 25년 미만 교사는 ‘경험 없음’ 176건(51.3%), ‘학생’ 86건(25.1%), ‘학부모’ 63건(18.4%)이었으며, 30년 이상 교사는 ‘경험 없음’ 77건(55.4%), ‘학생’ 38건(27.3%), ‘학부모’ 18건(12.9%)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경력이 증가할수록 ‘경험 없음’ 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경험 없음’ 260건(45.0%), ‘학생’ 145건(25.1%), ‘학부모’ 139건(24.0%)으로 학부모 침해 응답 비율이 높음. 중학교 교사는 ‘경험 없음’ 320건(51.7%), ‘학생’ 176건(28.4%), ‘학부모’ 97건(15.7%)으로 학생 침해 비율이 두드러졌음. 고등학교 교사는 ‘경험 없음’ 306건(59.3%), ‘학생’ 119건(23.1%), ‘학부모’ 58건(11.2%)으로 나타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경험 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63〉 교권침해 주체별 빈도(복수 응답 가능)

N=1,437

구분		경험 없음	학생	학부모	관리자	동료직원	기타
전체		886 51.7%	440 25.7%	294 17.2%	53 3.1%	31 1.8%	9 0.5%
성별	남	274 61.0%	100 22.3%	56 12.5%	10 2.2%	7 1.6%	2 0.4%
	여	612 48.4%	340 26.9%	238 18.8%	43 3.4%	24 1.9%	7 0.6%
교직 경력	5년 미만	111 68.1%	31 19.0%	15 9.2%	3 1.8%	3 1.8%	0 0%
	5년 이상 10년 미만	117 53.7%	56 25.7%	31 14.2%	9 4.1%	3 1.4%	2 0.9%
	10년 이상 15년 미만	140 44.6%	89 28.3%	62 19.7%	14 4.5%	6 1.9%	3 1%
	15년 이상 20년 미만	138 48.4%	77 27%	55 19.3%	8 2.8%	6 2.1%	1 0.4%
	20년 이상 25년 미만	176	86	63	10	5	3

	25년 이상 30년 미만	51.3% 127	25.1% 63	18.4% 50	2.9% 5	1.5% 6	0.9% 0
	30년 이상	50.6% 77	25.1% 38	19.9% 18	2% 4	2.4% 2	0% 0
학교급	초	55.4% 260	27.3% 145	12.9% 139	2.9% 21	1.4% 9	0% 4
	중	45.0% 320	25.1% 176	24% 97	3.6% 13	1.6% 10	0.7% 3
	고	51.7% 306	28.4% 119	15.7% 58	2.1% 19	1.6% 12	0.5% 2
		59.3% 	23.1% 	11.2% 	3.7% 	2.3% 	0.4%

다. 교권침해 유형

- **교권침해 유형**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응답 빈도는 <표 5-28>과 같음. 전체 응답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336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 220건(20.0%), ‘공부(업무) 방해’ 187건(17.0%), ‘반복적 부당한 간섭’ 184건(16.8%) 순으로 나타남. 그 외의 유형은 모두 10% 미만 수준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103건(30%대), ‘명예훼손 또는 모욕’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각각 20%와 15%였음. 여교사의 경우에도 남교사와 동일하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230건(30%대)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 160건(20%대), ‘공부(업무) 방해’ 130건(15% 이상) 순으로 나타남. 특히 여교사에서 성희롱·성폭력 범죄 응답이 남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 교사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30% 미만으로 비교적 낮고, 협박·명예훼손·공부 방해 응답이 높은 편이었음. 10년 이상 15년 미만 교사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30% 이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20% 수준으로 나타났음. 20년 이상 교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응답 건수가 줄어들면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중심으로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났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30% 미만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과 ‘공부(업무) 방해’가 주요 응답 유형으로 나타났음. 중학교 교사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30%대, ‘공부(업무) 방해’와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각각 15~20% 수준이었으며, 협박 응답 비율이 다른 학교급보다 높았음.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과 ‘학생에 의한 반복적 간섭’이었음.

〈표 5-64〉 교권침해 유형별 빈도(복수 응답 가능)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16 2.9	79 14.8	220 38	4 0.8	4 0.5	38 5	187 33.6	184 35.6	11 1.9	19 3.2	336 63.8
성별	남	3 1.4	17 7.7	38 17.3	1 0.5	0 0	2 0.9	36 16.4	43 19.5	2 0.9	3 1.4	75 34.1
	여	13 1.5	62 7.1	182 20.7	3 0.3	4 0.5	36 4.1	151 17.2	141 16.1	9 1	16 1.8	261 29.7
교직 경력	5년 미만	1 1.2	8 9.4	16 18.8	1 1.2	2 2.4	5 5.9	11 12.9	15 17.6	4 4.7	1 1.2	21 24.7
	5년 이상	2	9	29	0	0	11	24	24	2	3	45
	10년 미만	1.3	6	19.5	0	0	7.4	16.1	16.1	1.3	2	30.2
	10년 이상	4	17	43	1	0	9	38	45	3	5	65
	15년 미만	1.7	7.4	18.7	0.4	0	3.9	16.5	19.6	1.3	2.2	28.3
	15년 이상	3	12	35	0	1	3	32	34	1	2	57
	20년 미만	1.7	6.7	19.4	0	0.6	1.7	17.8	18.9	0.6	1.1	31.7
	20년 이상	4	12	45	0	0	3	40	33	1	3	71
	25년 미만	1.9	5.7	21.2	0	0	1.4	18.9	15.6	0.5	1.4	33.5
	25년 이상	2	15	35	1	1	4	30	25	0	4	45
	30년 미만	1.2	9.3	21.6	0.6	0.6	2.5	18.5	15.4	0	2.5	27.8
	30년 이상	0	6	17	1	0	3	12	8	0	1	32
		0	7.5	21.2	1.2	0	3.8	15	10	0	1.2	40
학교급	초	10 2.4	34 8.1	79 18.8	2 0.5	0 0	7 1.7	79 18.8	91 21.6	3 0.7	2 0.5	114 27.1
	중	3 0.7	29 7.2	88 21.8	2 0.5	3 0.7	18 4.5	61 15.1	50 12.4	5 1.2	14 3.5	130 32.3
	고	3 1.1	16 5.8	53 19.3	0 0	1 0.4	13 4.7	47 17.2	43 15.7	3 1.1	3 1.1	92 33.6

note: ① 상해 또는 폭행/② 협박/③ 명예훼손 또는 모욕/④ 손괴/⑤ 성폭력 범죄/⑥ 성희롱/⑦ 공부(업무) 방해/⑧ 반복적 부당한 간섭/⑨ 불법정보유통행위/⑩ 영상, 화상, 음성 등 촬영, 녹음, 합성하여 무단배포/⑪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라. 교권침해 빈도

○ **교권침해 빈도**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응답 빈도와 교차분석 결과는 〈표 5-29〉와 같음. 동일 대상으로부터의 교권침해 빈도는 학기 13회 326명(69.7%), 월 13회 65명(13.9%), 주 1~3회 40명(8.5%), 주 4회 이상 37명(7.9%)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는 학기 13회가 83명(84.7%)으로 가장 많았고, 여교사는 학기 13회가 243명(6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교사보다 남교사의 동일 대상으로부터의 교권침해

해 빈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 별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빈도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는 학기 13회 22명(66.7%),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교사는 학기 13회 44명(72.1%),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 교사는 학기 13회 63명(67.0%),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 교사는 학기 13회 55명(69.6%),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는 학기 13회 74명(71.8%),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교사는 학기 13회 53명(75.7%), 30년 이상 경력 교사는 학기 1~3회 15명(53.6%)이었음. 교직 경력에 따른 동일 대상으로부터의 교권침해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참여 횟수는 초등학교 학기 13회 116명(57.1%), 중학교 학기 13회 126명(78.8%), 고등학교 학기 1~3회 84명(80.0%)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동일 대상으로부터의 교권침해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5-65〉 동일 대상으로부터의 교권침해 빈도 교차분석 결과

N=468

구분		학기 1~3회	월 1~3회	주 1~3회	주 4회 이상	계	χ^2
전체		326 69.70%	65 13.90%	40 8.50%	37 7.90%	468 100.0%	
성별	남	83 84.70%	10 10.20%	1 1.00%	4 4.10%	98 100.0%	15.74**
	여	243 65.70%	55 14.90%	39 10.50%	33 8.90%	370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22 66.70%	4 12.10%	4 12.10%	3 9.10%	33 100.0%	20.36**
	5년 이상 10년 미만	44 72.10%	8 13.10%	8 13.10%	1 1.60%	61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3 67.00%	13 13.80%	6 6.40%	12 12.80%	94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5 69.60%	14 17.70%	4 5.10%	6 7.60%	79 100.0%	
	20년 이상 25년 미만	74 71.80%	11 10.70%	9 8.70%	9 8.70%	103 100.0%	
	25년 이상 30년 미만	53 75.70%	11 15.70%	4 5.70%	2 2.90%	70 100.0%	
	30년 이상	15 53.60%	4 14.30%	5 17.90%	4 14.30%	28 100.0%	
학교급	초	116 57.10%	35 17.20%	25 12.30%	27 13.30%	203 100.0%	30.32***
	중	126 78.80%	18 11.30%	9 5.60%	7 4.40%	160 100.0%	
	고	84 80.00%	12 11.40%	6 5.70%	3 2.90%	105 100.0%	

*** $p < .001$, ** $p < .01$

-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은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여교사·중경력·초등학교 교사에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침해 주체는 학생(25.7%)과 학부모(17.2%)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초등학교는 학부모, 중학교는 학생 관련 응답이 많았음. 주요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30.6%), 명예훼손·모욕(20.0%), 수업 방해(17.0%), 반복적 간섭(16.8%)으로, 특히 여교사에서 성희롱·성폭력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음. 침해 빈도는 ‘학기 1~3회’가 가장 많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언어적·행동적 침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심리적·물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특히 초·중학교의 예방체계 강화가 요구되며, 학부모-교사 간 의사소통 절차 표준화, 생활지도 관련 보호규정 명확화, 학교 내 즉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 또한 여교사 대상 성희롱 예방 및 법률·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경력 교사에 대한 상담·법적 대응 역량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교권침해 발생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관리자 책임 강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2. 정신건강

가. 평상시 스트레스

- 교사의 **평상시 스트레스**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5-30>과 같음.
- 평상시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3.12(SD=1.11)임. 성별에서는 여교사의 평균이 3.21(SD=1.10)로 남교사 평균 2.89(SD=1.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교사의 평균이 3.25(SD=1.13), 20년 이상 25년 미만 교사의 평균이 3.23(SD=1.11)으로 30년 이상 교사 평균 2.83(SD=1.0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중간 경력대(10~25년)의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음.
-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이 3.24(SD=1.12)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3.09(SD=1.09), 중학교 3.06(SD=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음.

- 교사의 평상시 스트레스는 평균 수준(3.12)으로, 중간 정도의 빈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양상임. 여교사와 중간 경력대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응대 등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음. 반면, 30년 이상 고경력 교사는 직무 안정성과 경험 축적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음. 따라서 경력 중·초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서 지원과 근무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함.



[그림 5-18] 교사 평상시 스트레스

〈표 5-66〉 교사 평상시 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437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전체		1,437	3.12	1.11	-	-
성별	남	394	2.89	1.10	-4.90***	여>남
	여	1,043	3.21	1.10		
교직 경력	① 5년 미만	153	3.06	1.13	3.01**	③,⑤>⑦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184	3.12	1.14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49	3.25	1.13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231	3.17	1.11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292	3.23	1.11		
	⑥ 25년 이상 30년 미만	210	3.00	1.02		
	⑦ 30년 이상	118	2.83	1.07		
학교급	초	471	3.24	1.12	3.62*	초>중
	중	525	3.06	1.11		
	고	441	3.09	1.09		

*** $p < .001$, ** $p < .01$, * $p < .05$

나. 자살생각

- 교사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응답 빈도와 교차분석 결과는 <표 5-31>과 같음. 자살생각에 대한 긍정응답은 5.1%, 부정응답은 94.9%였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의 긍정응답은 3.3%, 부정응답은 96.7%였으며, 여교사의 긍정응답은 5.8%, 부정응답은 94.2%였음.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자살생각 비율이 높았으며, 교사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의 긍정응답 6.4%,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의 긍정응답 6.1%,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의 긍정응답 5.8% 순으로 높았음. 교직 경력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의 긍정응답 5.5%, 중학교의 긍정응답 4.6%, 고등학교의 긍정응답 5.2%로 초등학교의 자살생각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67> 교사의 자살생각 경험(최근 6개월) 교차분석 결과

N=1,437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전체		73 5.1%	1364 94.9%	1,437 100.0%	-
성별	남	13 3.3%	381 96.7%	394 100.0%	3.569
	여	60 5.8%	983 94.2%	1,043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3 2.0%	150 98.0%	153 100.0%	5.533
	5년 이상 10년 미만	9 4.9%	175 95.1%	184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6 6.4%	233 93.6%	249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4 6.1%	217 93.9%	231 100.0%	
	20년 이상 25년 미만	17 5.8%	275 94.2%	292 100.0%	
	25년 이상 30년 미만	8 3.8%	202 96.2%	210 100.0%	
	30년 이상	6 5.1%	112 94.9%	118 100.0%	

학교급	초	26 5.5%	445 94.5%	471 100.0%	0.488
	중	24 4.6%	501 95.4%	525 100.0%	
	고	23 5.2%	418 94.8%	441 100.0%	

다. 우울감

- 교사의 **우울감** 경험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응답 빈도와 교차분석 결과는 <표 5-32>와 같음. 우울감 경험에 대한 긍정응답은 35.4%, 부정응답은 64.6%였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의 긍정응답은 27.4%, 부정응답은 72.6%였으며, 여교사의 긍정응답은 38.4%, 부정응답은 61.6%였음.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우울감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교사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의 긍정응답 43.3%,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의 긍정응답 38.4%,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의 긍정응답 36.5% 순으로 높았음. 교직 경력에 따른 우울감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의 긍정응답 39.1%, 중학교의 긍정응답 32.6%, 고등학교의 긍정응답 34.7%로 초등학교의 우울감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우울감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68> 교사의 우울감 경험(최근 6개월) 교차분석 결과

N=1,437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전체		508 35.4%	929 64.6%	1,437 100.0%	-
성별	남	108 27.4%	286 72.6%	394 100.0%	14.98
	여	400 38.4%	643 61.6%	1,043 100.0%	
교직 경력	5년 미만	43 28.1%	110 71.9%	153 100.0%	16.03
	5년 이상 10년 미만	65 35.3%	119 64.7%	184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91	158	249	

		36.5%	63.5%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00	131	231	
		43.3%	56.7%	100.0%	
	20년 이상 25년 미만	112	180	292	
		38.4%	61.6%	100.0%	
	25년 이상 30년 미만	63	147	210	
		30.0%	70.0%	100.0%	
	30년 이상	34	84	118	
		28.8%	71.2%	100.0%	
학교급	초	184	287	471	4.70
		39.1%	60.9%	100.0%	
	중	171	354	525	
		32.6%	67.4%	100.0%	
	고	153	288	441	
		34.7%	65.3%	100.0%	

- 교사의 정신건강은 중경력 교사와 여교사, 초등학교 교사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남. 평상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이들 집단에서 높게 보고되었으며, 반면 장기근속 교사는 정서적 안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자살생각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여교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정신건강이 성별과 경력,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줌. 특히 여교사와 중경력 교사에게 정서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근무 강도 완화와 심리적 회복 지원이 필요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되며, 정기적 정신건강 진단과 상담 연계,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함.

제5절 소결

1. 직무

- 교사의 직무 관련 분석 결과, 교수·학습 전문성과 교사효능감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M=4.0 이상)을 보였으며, 성별·경력·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초등학교 교사와 여교사의 효능감 및 교수·학습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등학교 교사와 경력 초기 교사는 낮은 경향을 보였음. 따라서 경력 초기 교사와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천 중심 연수, 학교 기반 협력학습 공동체, 평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전문성 개발에서 재정 지원은 긍정적이었으나 시간 지원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아, 업무 경감 및 시간 중심의 연수 참여 여건 개선이 필요함.
- 한편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학교급·경력·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음.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평가·기록 업무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상담·안전지도 등 대면 업무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중견 교사층은 행정 및 민원 부담이 누적되어 피로가 심화되고 있음. 여교사는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업무에서 스트레스가 높아 성별 편중 완화가 필요함. 따라서 학교급별 특화된 행정 경감 정책과 정서적 지원 체계, 경력 교사 회복 프로그램, 초임 교사 멘토링 강화 등이 요구됨.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교사의 직무 효능감과 심리적 안정이 함께 향상되며 교육의 질 또한 실질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학교인식

- 교사의 학교만족도와 조직 인식 전반은 평균 이상 수준임. 남교사와 근속연수가 짧거나 30년 이상인 교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교직 경력 중간 구간과 초등학교 교사는 만족도가 낮아 근무환경 및 역할 갈등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개방적 학교 문화 인식과 학교장 리더십 인식은 성별 차이는 없으나 경력과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일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았음. 이는 교직 경험 축적과 학교급의 조직 분위기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 간 협력과 소통 중심의 문화 확산, 참여적 리더십 강화가 요구됨. 또한 교수·학습 자율성은 전반적으로 높으나, 행정업무 자율성은 낮아 제도적 통제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자율성을 보였음. 종합하면, 교사의 직무 만족과 자율성은 수업 중심 영역에서 보장되는

반면 행정 영역에서는 개선 여지가 커, 경력·학교급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함.

- 한편 학교 안전과 위기학생 지원, 학부모·지역사회 협력 영역에서는 제도적 미비와 체감 격차가 확인되었음. 물리적 안전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하나, 학교폭력·외부침입·교통안전 등 사회적·심리적 안전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여전히 높았으며, 특히 여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저경력 교사에서 불안 인식이 두드러졌음.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및 학습부진 학생 지원에서 가정 연계의 한계가 확인되어,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학부모 상담은 활발하나 지역사회 연계는 미흡하여,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협력 체계가 취약함. 이에 따라 학교급별 위험요인에 맞춘 안전관리체계 강화, 지역 연계형 돌봄·상담 플랫폼 구축, 교사-가정-지역 간 협력 기반의 교육공동체 조성이 시시됨.

3. 웰빙

- 교사의 웰빙 분석 결과, 교권침해와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주요한 취약 요인으로 나타남. 교권침해는 전체 교사의 약 30%가 경험했으며, 특히 여교사·중경력·초등학교 교사에서 비율이 높았음. 침해 주체는 초등학교는 학부모, 중학교는 학생 비중이 높았음. 주요 유형은 생활지도 불응,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을 보여줌. 이에 따라 초·중학교 중심의 교사 보호체계 강화, 생활지도 절차 표준화, 성희롱 예방,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중경력 교사 대상 상담·법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교사의 정신건강은 성별·경력·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여교사·중경력·초등학교 교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남. 이는 학생·학부모 응대 부담과 행정 과중에서 비롯된 결과로, 정기적 심리 진단,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근무강도 완화 등 심리지원 체계 확충이 필요함. 특히 여교사와 중경력 교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교사가 안정된 정서 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망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이 요구됨.

4. 종합

- 이번 분석 결과, 교사의 직무, 학교인식, 웰빙 전반은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나, 학교급·경력·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음. 초등학교 교사는 교수·학습 전문성과

효능감, 학교만족도, 리더십 인식, 자율성 등 전반에서 높은 긍정도를 보인 반면, 중·고등학교 교사는 입시 중심의 환경과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여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역량과 자율성 인식이 높았으나,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대면 업무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중견 교사는 행정·민원 부담 누적과 심리적 피로가 두드러졌음.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별·경력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특히 중등학교에는 행정 경감 및 평가·기록 중심 업무 완화, 경력 초기 교사에는 실천 중심 연수와 멘토링 강화, 중견 교사에는 회복 프로그램 및 정서 지원이 요구됨. 또한 전문성 개발 기회의 불균형과 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 경감과 자율적 연수 참여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한편 교사의 웰빙과 학교문화의 질은 교육활동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교권 침해는 약 30% 수준으로, 여교사·중경력·초등학교 교사에서 집중되었으며, 주로 생활지도 불응·명예훼손·수업 방해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남.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정서적 소진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초·중학교 중심의 교권 보호체계 강화와 법적·심리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또한 여교사와 중경력 교사, 초등학교 교사의 정신건강 취약성이 두드러져, 정기적 심리진단,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감정노동 완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함. 종합적으로, 교사의 직무 효능감 향상과 심리적 안정은 학교만족도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학교급별 특성과 교사 생애주기를 반영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제6장 학교장 결과

제1절 배경

제2절 직무

제3절 학교인식

제4절 웰빙

제5절 소결

제6장 학교장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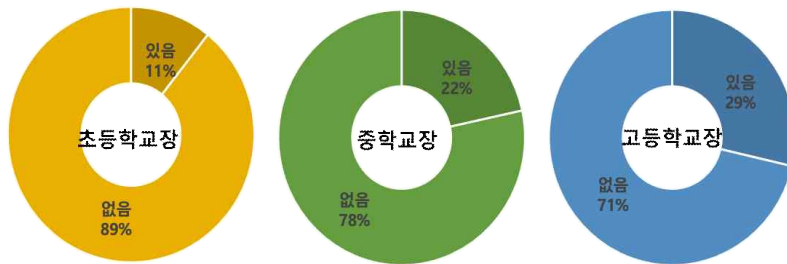
제1절 배경

- 학교장 응답자 121명의 성별, 교직경력, 학교장 경력,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및 최종학력을 포함한 개인배경 및 학교배경 현황은 <표 6-1>과 같음.
- 성별은 전체 응답자 121명 중 남교장 59명(48.8%), 여교장 62명(51.2%)이었음.
- 총 교직 경력은 25년 이상 30년 미만이 11명(9.1%), 30년 이상이 109명(90.1%)으로, 대부분이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음.



[그림 6-1] 학교장의 학교급에 따른 총 교직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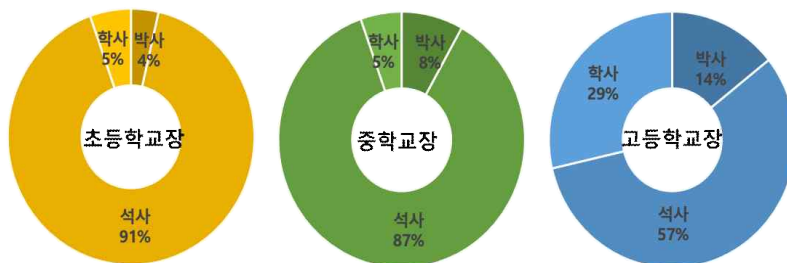
- 학교장 경력은 2년 미만이 56명(46.3%), 2년 이상 4년 미만이 42명(34.7%), 4년 이상 6년 미만이 12명(9.9%), 6년 이상 8년 미만이 9명(7.4%), 8년 이상이 2명(1.7%)이었음.
- 교육전문직 경험 유무는 경험이 있음이 22명(18.2%), 없음이 99명(81.8%)으로 나타남.



[그림 6-2] 학교장의 학교급에 따른 교육전문직 경험 유무

○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은 초등이 52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어 8명(6.6%), 도덕·윤리 4명(3.3%), 일반사회 4명(3.3%), 역사 4명(3.3%), 수학 6명(5.0%), 물리 4명(3.3%), 생물 3명(2.5%), 체육 5명(4.1%), 음악 3명(2.5%), 영어 4명(3.3%), 전문교과 9명(7.4%) 등이 뒤를 이었음.

○ **최종학력**은 학사가 13명(10.7%), 석사가 99명(81.8%), 박사가 9명(7.4%)으로, 석사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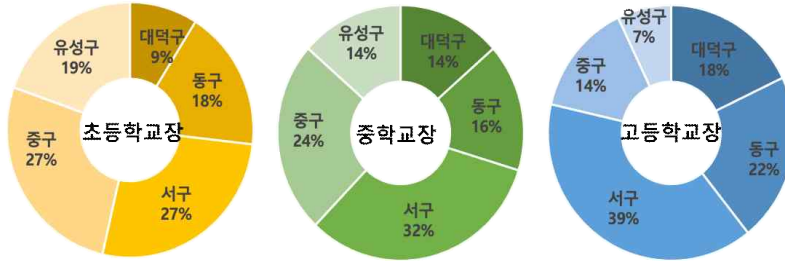
[그림 6-3] 학교장의 학교급에 따른 최종학력

○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자공고가 20명(71.4%), 특성화고 2명(7.1%), 자율형사립고 2명(7.1%),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1명(3.6%), 마이스터고 3명(10.7%), 예술고/체육고 9명(2.0%)이었음.

○ **학교 설립 유형**은 공립이 99명(81.8%), 사립이 22명(18.2%)이었음.

○ **학교규모**는 6학급 이하가 13명(10.7%), 7~12학급 18명(14.9%), 13~18학급 12명(9.9%), 19~24학급 20명(16.5%), 25~30학급 23명(19.0%), 31학급 이상이 35명(28.9%)으로, 31학급 이상이 가장 많았음.

- 학교 소재지는 대덕구가 15명(12.4%), 동구 22명(18.2%), 서구 38명(31.4%), 중구 28명(23.1%), 유성구 18명(14.9%)으로, 서구가 가장 많았음.



[그림 6-4] 학교장의 학교급에 따른 학교 소재지

〈표 6-1〉 학교장 개인 및 학교배경

N=121

구분	항목	초 (n=56)		중 (n=37)		고 (n=28)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6	46.3	37	30.6	28	23.1	121	100.0
성별	남	20	35.7	18	48.6	21	75.0	59	48.8
	여	36	64.3	19	51.4	7	25.0	62	51.2
총 교직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	0	0	0	0	1	3.6	1	0.8
	20년 이상 25년 미만	0	0	0	0	0	0	0	0
	25년 이상 30년 미만	2	3.6	5	13.5	4	14.3	11	9.1
	30년 이상	54	96.4	32	86.5	23	82.1	109	90.1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1	22	39.30%	21	56.80%	13	46.40%	56
	2년 이상 4년 미만	2	18	32.10%	13	35.10%	11	39.30%	42
	4년 이상 6년 미만	3	6	10.70%	3	8.10%	3	10.70%	12
	6년 이상 8년 미만	4	8	14.30%	0	0.00%	1	3.60%	9
	8년 이상	5	2	3.60%	0	0.00%	0	0.00%	2
교육전문직 경력 유무	예	6	10.7	8	21.6	8	28.6	22	18.2
	아니오	50	89.3	29	78.4	20	71.4	99	81.8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초등	52	92.9%	0	0.0%	0	0.0%	52	43.0%
	국어	0	0.0%	7	18.9%	1	3.6%	8	6.6%
	도덕·윤리	0	0.0%	4	10.8%	0	0.0%	4	3.3%
	공동사회	0	0.0%	0	0.0%	0	0.0%	0	0.0%
	일반사회	0	0.0%	2	5.4%	2	7.1%	4	3.3%
	지리	0	0.0%	1	2.7%	2	7.1%	3	2.5%
	역사	0	0.0%	1	2.7%	3	10.7%	4	3.3%
	수학	0	0.0%	1	2.7%	5	17.9%	6	5.0%
	공동과학	0	0.0%	0	0.0%	0	0.0%	0	0.0%
	물리	0	0.0%	2	5.4%	2	7.1%	4	3.3%
	화학	0	0.0%	0	0.0%	0	0.0%	0	0.0%

구분	항목	초 (n=56)		중 (n=37)		고 (n=28)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물	0	0.0%	1	2.7%	2	7.1%	3	2.5%
	지구과학	0	0.0%	0	0.0%	0	0.0%	0	0.0%
	기술	0	0.0%	2	5.4%	0	0.0%	2	1.7%
	가정	0	0.0%	1	2.7%	0	0.0%	1	0.8%
	체육	1	1.8%	2	5.4%	2	7.1%	5	4.1%
	미술	0	0.0%	2	5.4%	0	0.0%	2	1.7%
	음악	0	0.0%	2	5.4%	1	3.6%	3	2.5%
	영어	0	0.0%	2	5.4%	2	7.1%	4	3.3%
	제2외국어(영어 제외)	0	0.0%	0	0.0%	0	0.0%	0	0.0%
	한문	0	0.0%	0	0.0%	2	7.1%	2	1.7%
	진로·진학 상담	1	1.8%	1	2.7%	0	0.0%	2	1.7%
	정보와컴퓨터	0	0.0%	0	0.0%	1	3.6%	1	0.8%
	전문교과	0	0.0%	6	16.2%	3	10.7%	9	7.4%
	기타	2	3.6%	0	0.0%	0	0.0%	2	1.7%
최종 학력	학사	3	5.4%	2	5.4%	8	28.6%	13	10.7%
	석사	51	91.1%	32	86.5%	16	57.1%	99	81.8%
	박사	2	3.6%	3	8.1%	4	14.3%	9	7.4%
고등 학교 유형	일반고/자공고					20	71.4%		
	특성화고					2	7.1%		
	자율형사립고					2	7.1%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1	3.6%		
	마이스터고					3	10.7%		
	예술고/체육고					9	2.00%		
	소계					441	100.0%		
학교 설립 유형	공립	55	98.2%	28	75.7%	16	57.1%	99	81.8%
	사립	1	1.8%	9	24.3%	12	42.9%	22	18.2%
학교 규모	6학급 이하	6	10.7%	7	18.9%	0	0.0%	13	10.7%
	7~12학급	7	12.5%	11	29.7%	0	0.0%	18	14.9%
	13~18학급	5	8.9%	4	10.8%	3	10.7%	12	9.9%
	19~24학급	13	23.2%	3	8.1%	4	14.3%	20	16.5%
	25~30학급	9	16.1%	6	16.2%	8	28.6%	23	19.0%
	31학급 이상	16	28.6%	6	16.2%	13	46.4%	35	28.9%
학교 소재지	대덕구	5	8.9%	5	13.5%	5	17.9%	15	12.4%
	동구	10	17.9%	6	16.2%	6	21.4%	22	18.2%
	서구	15	26.8%	12	32.4%	11	39.3%	38	31.4%
	중구	15	26.8%	9	24.3%	4	14.3%	28	23.1%
	유성구	11	19.6%	5	13.5%	2	7.1%	18	14.9%

제2절 직무

1. 직무만족도

- 학교장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와 같음. 직무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82(SD=0.98)임. 성별에서는 남교장의 평균이 4.02(SD=0.86)로 여교장 평균 3.63(SD=1.0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의 학교장이 4.02(SD=0.84)로 가장 높았으며, 4년 이상 학교장 평균 3.39(SD=0.99)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재임 기간이 짧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장기 재임자의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음.
- 학교급에서는 중학교 학교장의 평균이 4.19(SD=0.74)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4.14(SD=0.76), 초등학교 3.41(SD=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음.
- 학교장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이상 수준(3.82)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남교장과 재임 2년 미만의 학교장,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신규 학교장이 직무 수행에 대한 동기와 열의가 높고, 중·고등학교의 행정 체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반면, 초등학교 학교장은 다양한 업무와 생활 지도의 부담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학교급별 직무 여건의 불균형이 드러남. 따라서 초등학교 학교장을 중심으로 행정 지원 강화와 업무 경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림 6-5] 학교장의 직무만족도

〈표 6-2〉 학교장의 직무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3.82	0.98	-	-
성별	남	59	4.02	0.86	2.22*	
	여	62	3.63	1.04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02	0.84	3.55*	2년 미만>4년 이상
	2년 이상 4년 미만	42	3.79	1.07		
	4년 이상	23	3.39	0.99		
학교급	초	56	3.41	1.06	10.59**	초<중, 고
	중	37	4.19	0.74		
	고	28	4.14	0.76		

** $p < .01$, * $p < .05$

2. 직무역량 인식

가. 교수학습 전문성 지원

- 학교장의 **교수학습 전문성 지원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3>과 같음.
- 교수학습 전문성 지원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31(SD=0.67)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29(SD=0.59), 여교사 평균 4.32(SD=0.74)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29(SD=0.65),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24(SD=0.69), 4년 이상 경력 평균 4.48(SD=0.67)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21(SD=0.73), 중학교 평균 4.43(SD=0.60), 고등학교 평균 4.32(SD=0.61)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3> 학교장의 교수학습 전문성 지원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31	0.67	-	-
성별	남	59	4.29	0.59	-0.28	-
	여	62	4.32	0.74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29	0.65	1.01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24	0.69		
	4년 이상	23	4.48	0.67		
학교급	초	56	4.21	0.73	1.20	-
	중	37	4.43	0.60		
	고	28	4.32	0.61		

나. 교육계획 수립 및 학사 운영

- 학교장의 **교육계획 수립 및 학사 운영** 인식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 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4>와 같음.
- 교육계획 수립 및 학사 운영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36(SD=0.6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41(SD=0.56), 여교사 평균 4.32(SD=0.79)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45(SD=0.63),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19(SD=0.77), 4년 이상 경력 평균 4.48(SD=0.59)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30(SD=0.71), 중학교 평균 4.38(SD=0.68), 고등학교 평균 4.46(SD=0.64)으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4> 학교장의 교육계획 수립 및 학사 운영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36	0.68	-	-
성별	남	59	4.41	0.56	0.68	-
	여	62	4.32	0.79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45	0.63	2.12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19	0.77		
	4년 이상	23	4.48	0.59		
학교급	초	56	4.30	0.71	0.53	-
	중	37	4.38	0.68		
	고	28	4.46	0.64		

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 학교장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5>와 같음.
-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36(SD=0.6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4.29(SD=0.65), 여교사 평균 4.42(SD=0.71)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34(SD=0.64),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26(SD=0.73), 4년 이상 경력 평균 4.57(SD=0.66)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30(SD=0.69), 중학교 평균 4.46(SD=0.65), 고등학교 평균 4.32(SD=0.72)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5> 학교장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36	0.68	-	-
성별	남	59	4.29	0.65	-1.06	-
	여	62	4.42	0.71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34	0.64	1.51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26	0.73		
	4년 이상	23	4.57	0.66		
학교급	초	56	4.30	0.69	0.62	-
	중	37	4.46	0.65		
	고	28	4.32	0.72		

라. 학생중심교육 운영

- 학교장의 **학생중심교육 운영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6>과 같음.
- 학생중심교육 운영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56(SD=0.5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4.53(SD=0.60), 여교사 평균 4.60(SD=0.56)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55(SD=0.54),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50(SD=0.67), 4년 이상 경력 평균 4.70(SD=0.47)으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7(SD=0.57), 중학교 평균 4.62(SD=0.55), 고등학교 평균 4.46(SD=0.64)으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6> 학교장의 학생중심교육 운영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56	0.58	-	-
성별	남	59	4.53	0.60	-0.68	-
	여	62	4.60	0.56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55	0.54	0.87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50	0.67		
	4년 이상	23	4.70	0.47		
학교급	초	56	4.57	0.57	0.61	-
	중	37	4.62	0.55		
	고	28	4.46	0.64		

마. 교직원 인사 및 조직 관리

- 학교장의 **교직원 인사 및 조직 관리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 분석 결과는 <표 6-7>과 같음.
- 교직원 인사 및 조직 관리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54(SD=0.5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56(SD=0.60), 여교사 평균 4.52(SD=0.57)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59(SD=0.53),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38(SD=0.66), 4년 이상 경력 평균 4.70(SD=0.47)으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4(SD=0.57), 중학교 평균 4.57(SD=0.56), 고등학교 평균 4.50(SD=0.64)으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7> 학교장의 교직원 인사 및 조직 관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54	0.58	-	-
성별	남	59	4.56	0.60	0.41	-
	여	62	4.52	0.57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59	0.53	2.70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38	0.66		
	4년 이상	23	4.70	0.47		
학교급	초	56	4.54	0.57	0.11	-
	중	37	4.57	0.56		
	고	28	4.5	0.64		

바.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협력

- 학교장의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협력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 분석 결과는 <표 6-8>과 같음.
-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협력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22(SD=0.74)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08(SD=0.77), 여교사 평균 4.35(SD=0.68)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16(SD=0.73),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12(SD=0.80), 4년 이상 경력 평균 4.57(SD=0.51)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27(SD=0.70), 중학교 평균 4.30(SD=0.78), 고등학교 평균 4.04(SD=0.74)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8> 학교장의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협력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22	0.74	-	-
성별	남	59	4.08	0.77	-2.05*	여>남
	여	62	4.35	0.68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16	0.73	3.22*	4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2	4.12	0.80		
	4년 이상	23	4.57	0.51		
학교급	초	56	4.27	0.70	1.2	-
	중	37	4.30	0.78		
	고	28	4.04	0.74		

* $p < .05$

사. 학교시설 및 재정 관리

- 학교장의 **학교시설 및 재정 관리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9>와 같음.
- 학교시설 및 재정 관리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74(SD=0.49)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68(SD=0.54), 여교사 평균 4.81(SD=0.44)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71(SD=0.53),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76(SD=0.48), 4년 이상 경력 평균 4.78(SD=0.42)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79(SD=0.46), 중학교 평균 4.81(SD=0.46), 고등학교 평균 4.57(SD=0.57)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9> 학교장의 학교시설 및 재정 관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74	0.49	-	-
성별	남	59	4.68	0.54	-1.44	-
	여	62	4.81	0.44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71	0.53	0.20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76	0.48		
	4년 이상	23	4.78	0.42		
학교급	초	56	4.79	0.46	2.31	-
	중	37	4.81	0.46		
	고	28	4.57	0.57		

아. 비전 제시 및 목표 관리

- 학교장의 비전 제시 및 목표 관리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0>과 같음.
- 비전 제시 및 목표 관리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48(SD=0.62)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37(SD=0.64), 여교사 평균 4.58(SD=0.59)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45(SD=0.60),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43(SD=0.67), 4년 이상 경력 평균 4.65(SD=0.57)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2(SD=0.57), 중학교 평균 4.46(SD=0.69), 고등학교 평균 4.43(SD=0.63)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10> 학교장의 비전 제시 및 목표 관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48	0.62	-	-
성별	남	59	4.37	0.64	-1.86	-
	여	62	4.58	0.59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45	0.6	1.11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43	0.67		
	4년 이상	23	4.65	0.57		
학교급	초	56	4.52	0.57	0.22	-
	중	37	4.46	0.69		
	고	28	4.43	0.63		

- 학교장 직무역량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4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특히 학교시설 및 재정 관리, 학생중심교육 운영, 교직원 인사 및 조직 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학사 운영 등은 평

균이 높게 나타나, 학교장이 학교 운영과 관리 전반에서 안정적인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학부모·지역사회 연계 협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학교 외부와의 협력 활동이 다른 영역보다 어려운 과제로 인식됨. 이 항목에서는 성별과 경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여교장과 경력 4년 이상 학교장의 평균이 높았음. 이는 학교 외부와의 협력 영역에서 경험과 관계 중심적 접근이 인식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함.

- 학교장 경력에 따른 인식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재직 기간이 길수록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음. 다만, 학부모·지역사회 연계 협력에서는 경력 4년 이상 학교장의 평균이 두드러져, 경험 축적이 협력 기반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음. 다만, 중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 행정 체계와 교육과정 조정 간 균형이 강조되는 학교급의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 조직 및 행정 관리, 재정 운영 등 학교 내부 관리 역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인식함. 그러나 학부모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면서도, 유일하게 성별과 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으로, 학교 외부와의 협력 역량이 학교장의 경험과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에 따라 향후 학교장 역량 개발에서는 학교 내부의 행정·운영 중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함.

3. 리더십역량 인식

가. 변혁 지향성

- 학교장 **변혁 지향성 역량 인식**에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1>과 같음.
- 변혁 지향성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50(SD=0.62)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44(SD=0.60), 여교사 평균 4.55(SD=0.65)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41(SD=0.68),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52(SD=0.59), 4년 이상 경력 평균 4.65(SD=0.49)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0(SD=0.60), 중학교 평균 4.49(SD=0.69), 고등학교 평균 4.50(SD=0.58)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11〉 학교장의 변혁 지향성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50	0.62	-	-
성별	남	59	4.44	0.60	-0.95	-
	여	62	4.55	0.65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41	0.68	1.31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52	0.59		
	4년 이상	23	4.65	0.49		
학교급	초	56	4.50	0.60	0.01	-
	중	37	4.49	0.69		
	고	28	4.50	0.58		

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 학교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역량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2〉와 같음.
-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53(SD=0.65)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56(SD=0.60), 여교사 평균 4.50(SD=0.70)으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54(SD=0.63),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43(SD=0.74), 4년 이상 경력 평균 4.70(SD=0.47)으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5(SD=0.66), 중학교 평균 4.57(SD=0.60), 고등학교 평균 4.43(SD=0.69)으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12〉 학교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53	0.65	-	-
성별	남	59	4.56	0.60	0.50	-
	여	62	4.50	0.70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54	0.63	1.28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43	0.74		
	4년 이상	23	4.70	0.47		
학교급	초	56	4.55	0.66	0.44	-
	중	37	4.57	0.60		
	고	28	4.43	0.69		

다.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

- 학교장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 역량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3〉과 같음.
-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53(SD=0.62)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46(SD=0.65), 여교사 평균 4.60(SD=0.59)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50(SD=0.66),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48(SD=0.63), 4년 이상 경력 평균 4.70(SD=0.47)으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2(SD=0.63), 중학교 평균 4.62(SD=0.59), 고등학교 평균 4.43(SD=0.63)으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13〉 학교장의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53	0.62	-	-
성별	남	59	4.46	0.65	-1.24	-
	여	62	4.6	0.59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5	0.66	1.05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48	0.63		
	4년 이상	23	4.7	0.47		
학교급	초	56	4.52	0.63	0.79	-
	중	37	4.62	0.59		
	고	28	4.43	0.63		

라. 윤리 의식과 공정성

- 학교장 윤리 의식과 공정성 인식에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4〉와 같음.
- 윤리 의식과 공정성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85(SD=0.3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4.78(SD=0.46), 여교사 평균 4.92(SD=0.28)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87(SD=0.33),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83(SD=0.44), 4년 이상 경력 평균 4.83(SD=0.39)로 2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89(SD=0.31), 중학교 평균 4.89(SD=0.39), 고등학교 평균 4.71(SD=0.46)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14〉 학교장의 윤리 의식과 공정성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85	0.38	-	-
성별	남	59	4.78	0.46	-2.05*	여>남
	여	62	4.92	0.28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87	0.33	0.20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83	0.44		
	4년 이상	23	4.83	0.39		
학교급	초	56	4.89	0.31	2.42	-
	중	37	4.89	0.39		
	고	28	4.71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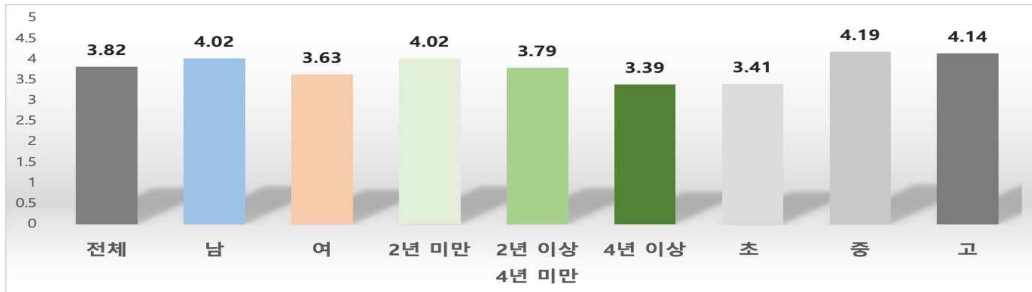
* $p < .05$

- 학교장의 리더십 역량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이 4.5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특히 윤리 의식과 공정성(4.85),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4.53),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4.53), 변혁 지향성(4.50) 모두 높은 수준을 보여,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서 윤리적 기준과 공정한 판단, 소통 중심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 중 윤리 의식과 공정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교장의 평균이 남교장보다 높았음. 이는 학교 운영에서 투명성과 신뢰 형성을 중시하는 리더십 특성이 여성 학교장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학교장 경력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4년 이상 경력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 증가에 따라 인식 수준이 완만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다만, 윤리 의식과 공정성에서는 오히려 2년 미만의 초임 학교장이 다소 높은 평균을 보여, 경력과 관계없이 윤리적 기준을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평균이 대체로 비슷하고 고등학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종합적으로, 학교장은 윤리성과 공정성,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역량 등 리더십의 기본 요소를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의 방향 설정과 구성원 신뢰 형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임. 특히 윤리 의식과 공정성은 유일하게 성별 차이가 확인된 항목으로, 향후 리더십 개발에서 성별과 경험에 따른 리더십 스타일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연수나 지원 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보임.

제3절 학교인식

1. 학교만족도

- 학교장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5>와 같음. 학교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4.30(SD=0.65)임. 성별에서는 남교장의 평균이 4.36(SD=0.61)로 여교장 평균 4.24(SD=0.69)보다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서는 2년 이상 4년 미만 학교장의 평균이 4.43(SD=0.63)으로 가장 높고, 4년 이상 학교장 4.26(SD=0.69), 2년 미만 학교장 4.21(SD=0.65) 순으로 나타났으나, 경력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전반적으로 학교장 경력에 따른 학교만족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
-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장의 평균이 4.46(SD=0.51)로 가장 높고, 중학교 4.43(SD=0.60), 초등학교 4.13(SD=0.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고등학교보다 학교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음.



[그림 6-6] 학교장의 학교만족도

〈표 6-15〉 학교장의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30	0.65	-	-
성별	남	59	4.36	0.61	0.96	
	여	62	4.24	0.69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21	0.65	1.34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43	0.63		
	4년 이상	23	4.26	0.69		
학교급	초	56	4.13	0.72	3.82*	초<고
	중	37	4.43	0.60		
	고	28	4.46	0.5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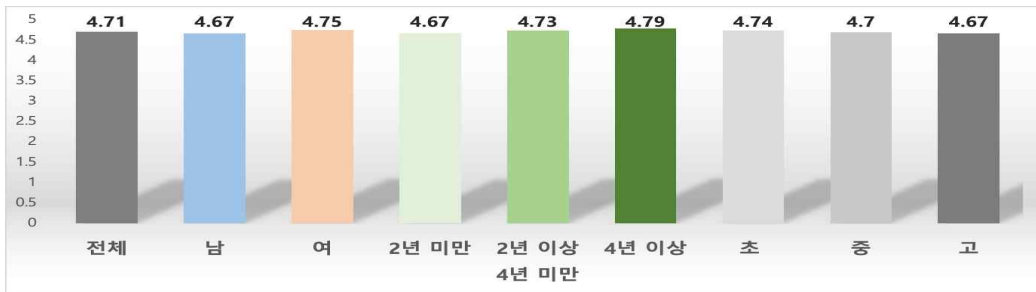
- 학교장의 학교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M=4.30$)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직무·조직 경험을 반영함. 특히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장이 높은 만족도를 보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조직 안정성이 긍정적 인식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됨. 반면, 초등학교 학교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다층적 행정업무와 생활지도의 과중이 만족감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초등학교 학교장을 중심으로 업무 경감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

2. 학교장 리더십

- 학교장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6〉과 같음.
- 학교장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 전체 평균은 4.71($SD=0.3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교장의 평균은 4.67($SD=0.33$)이고, 여교장의 평균은 4.75($SD=0.36$)로 학교장 리더십은 여교장의 리더십 평균이 남교장의 리더십 평균보다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른 학교장 리더십 인식 평균은 2년 미만 경력이 4.67($SD=0.34$),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이 4.73($SD=0.40$), 4년 이상 경력이 4.79($SD=0.35$)로 4년 이상 경력이 가장 높고,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순이었음.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른 학교장 리더십 인식 평균은 초등학교 4.74(SD=0.35), 중학교 4.70(SD=0.40), 고등학교 4.67(SD=0.36)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의 리더십 인식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M=4.71)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나타남. 여교장과 장기 재임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더십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학교 운영 경험과 의사소통 역량, 구성원 신뢰 확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전반적으로 학교급 간 차이는 미미하나, 초등학교 학교장이 다소 높은 인식을 보여 학교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리더십이 비교적 잘 발휘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학교장의 리더십 지속 향상을 위해 경력 단계별 전문성 개발과 조직 내 피드백 문화 강화가 요구됨.



[그림 6-7] 학교장의 학교장 리더십

〈표 6-16〉 학교장의 학교장 리더십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71	0.36	-	-
성별	남	59	4.67	0.33	1.38	-
	여	62	4.75	0.36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67	0.34	0.94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73	0.40		
	4년 이상	23	4.79	0.35		
학교급	초	56	4.74	0.35	0.32	-
	중	37	4.70	0.40		
	고	28	4.67	0.36		

3. 학부모·지역사회 인식

가. 학부모 역할

- 학교장의 **학부모 역할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7>과 같음.
- 학부모 역할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59(SD=0.57)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53(SD=0.63), 여교사 평균 4.65(SD=0.52)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59(SD=0.53),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57(SD=0.67), 4년 이상 경력 평균 4.61(SD=0.50)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68(SD=0.51), 중학교 평균 4.49(SD=0.65), 고등학교 평균 4.54(SD=0.58)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17> 학교장의 학부모 역할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59	0.57	-	-
성별	남	59	4.53	0.63	-1.15	-
	여	62	4.65	0.52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59	0.53	0.03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57	0.67		
	4년 이상	23	4.61	0.5		
학교급	초	56	4.68	0.51	1.41	-
	중	37	4.49	0.65		
	고	28	4.54	0.58		

나. 학부모 참여

- 학교장의 **학부모 참여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8>과 같음.
- 학부모 참여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26(SD=0.76)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25(SD=0.76), 여교사 평균 4.26(SD=0.77)로 여교사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16(SD=0.78),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33(SD=0.75), 4년 이상 경력 평균 4.35(SD=0.71)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23(SD=0.76), 중학교 평균 4.27(SD=0.77), 고등학교 평균 4.29(SD=0.76)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18> 학교장의 학부모 참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26	0.76	-	-
성별	남	59	4.25	0.76	-0.03	-
	여	62	4.26	0.77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16	0.78	0.83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33	0.75		
	4년 이상	23	4.35	0.71		
학교급	초	56	4.23	0.76	0.05	-
	중	37	4.27	0.77		
	고	28	4.29	0.76		

다. 지역사회 교육소재

- 학교장의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19>와 같음.
- 지역사회 교육소재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40(SD=0.65)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 교사 평균 4.31(SD=0.75), 여교사 평균 4.48(SD=0.54)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30(SD=0.69),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43(SD=0.67), 4년 이상 경력 평균 4.57(SD=0.51)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5(SD=0.50), 중학교 평균 4.30(SD=0.74), 고등학교 평균 4.21(SD=0.74)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19> 학교장의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40	0.65	-	-
성별	남	59	4.31	0.75	-1.52	-
	여	62	4.48	0.54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30	0.69	1.40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43	0.67		
	4년 이상	23	4.57	0.51		
학교급	초	56	4.55	0.50	3.27*	-
	중	37	4.30	0.74		
	고	28	4.21	0.74		

* $p < .05$

라. 지역사회 협력

- 학교장의 **지역사회 협력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0>과 같음.
-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40(SD=0.6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34(SD=0.73), 여교사 평균 4.47(SD=0.62)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36(SD=0.70),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48(SD=0.67), 4년 이상 경력 평균 4.39(SD=0.66)로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55(SD=0.60), 중학교 평균 4.32(SD=0.71), 고등학교 평균 4.21(SD=0.74)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20> 학교장의 지역사회 협력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40	0.68	-	-
성별	남	59	4.34	0.73	-1.04	-
	여	62	4.47	0.62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36	0.70	0.37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48	0.67		
	4년 이상	23	4.39	0.66		
학교급	초	56	4.55	0.60	2.80	-
	중	37	4.32	0.71		
	고	28	4.21	0.74		

- 학교장의 학부모·지역사회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학부모 역할, 학부모 참여, 지역사회 교육소재, 지역사회 협력 모두에서 '그리함 이상'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학부모 역할 인식이 가장 높았음. 성별과 경력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에서만 여성 교장의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장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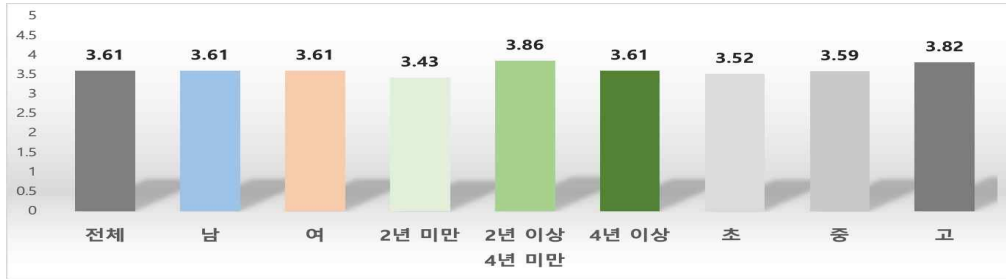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협력 기반이 더 잘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다만 학부모 참여 항목의 상대적 응답 수준이 낮은 점은 실질적 참여 확대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의미함. 향후에는 학교급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교육자원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학교시설 인식

가. 휴식공간 환경

- 학교장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1>과 같음.
- 휴식공간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1(SD=0.77)임. 성별에서는 남교장 평균 3.61(SD=0.77)과 여교장 평균 3.61(SD=0.78)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서는 2년 이상 4년 미만 학교장의 평균이 3.86(SD=0.84)로 가장 높았고, 2년 미만 학교장 평균 3.43(SD=0.68)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이는 일정 기간의 근무 경험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이나 공간 활용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반영함.
-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장의 평균이 3.82(SD=0.82)로 가장 높고, 중학교 3.59(SD=0.80), 초등학교 3.52(SD=0.71) 순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은 평균 이상 수준(3.61)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학교 내 휴게 및 회복 공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임. 특히 재임 2년 이상 4년 미만의 학교장이 높은 인식을 보여, 조직 운영 경험이 쌓일수록 공간 관리나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반면, 초임(2년 미만) 학교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는데, 이는

행정업무 적응과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여건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임. 따라서 신규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학교 환경 관리 역량 강화와 공간 활용 지원이 필요함.



[그림 6-8] 학교장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

〈표 6-21〉 학교장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에 대한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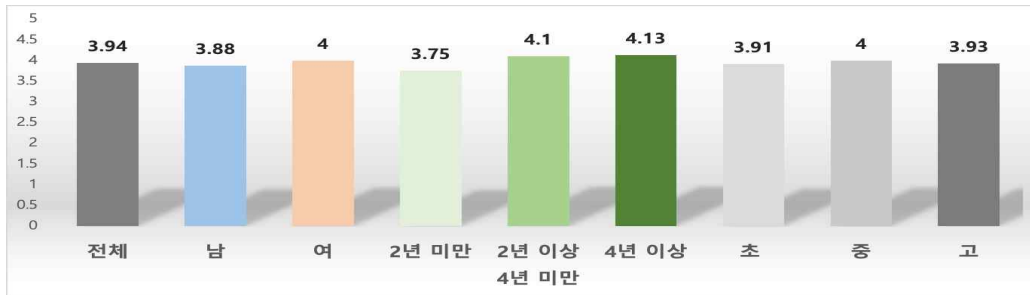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3.61	0.77	-	-
성별	남	59	3.61	0.77	0.00	-
	여	62	3.61	0.78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3.43	0.68	3.92*	2년 미만<2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2	3.86	0.84		
	4년 이상	23	3.61	0.72		
학교급	초	56	3.52	0.71	1.48	-
	중	37	3.59	0.80		
	고	28	3.82	0.82		

* $p < .05$

나. 디지털수업 환경

- 학교장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2〉와 같음. 디지털 수업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4(SD=0.82)임. 성별에서는 여교장의 평균이 4.00(SD=0.83)으로 남교장 평균 3.88(SD=0.81)보다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서는 4년 이상 학교장의 평균이 4.13(SD=0.76), 2년 이상 4년 미만 4.10(SD=0.82), 2년 미만 3.75(SD=0.82) 순으로 나타났으나, 경력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전반적으로 재임 기간이 길수록 디지털 수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학교급에서는 중학교 학교장의 평균이 4.00(SD=0.88)으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3.93(SD=0.81), 초등학교 3.91(SD=0.79)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은 평균 이상 수준(M=3.94)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여교장과 경력 2년 이상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음. 이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행정 지원 체계가 안정화되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학교 내 ICT 인프라 활용도와 수업 환경 만족도가 향상된 결과로 해석됨. 전반적으로 학교급 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기기 관리 및 기술 지원 인력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 지원이 요구됨.



[그림 6-9] 학교장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

〈표 6-22〉 학교장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에 대한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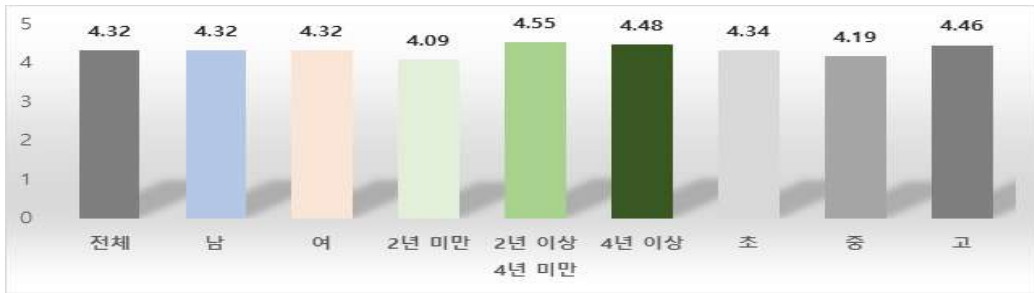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3.94	0.82	-	-
성별	남	59	3.88	0.81	0.80	-
	여	62	4.00	0.83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3.75	0.82	2.97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10	0.82		
	4년 이상	23	4.13	0.76		
학교급	초	56	3.91	0.79	0.14	-
	중	37	4.00	0.88		
	고	28	3.93	0.81		

다. 청결한 학교 환경

- 학교장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에 대한 성별, 교직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2〉와 같음. 디지털 수업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4(SD=0.82)임. 성별에서는 여교장의 평균이 4.00(SD=0.83)으로 남교장 평균 3.88(SD=0.81)보다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서는 4년 이상 학교장의 평균이 4.13(SD=0.76), 2년 이상 4년 미만 4.10(SD=0.82), 2년 미만 3.75(SD=0.82) 순으로 나타났으나, 경력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전반적으로 재임 기간이 길수록 디지털 수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학교급에서는 중학교 학교장의 평균이 4.00(SD=0.88)으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3.93(SD=0.81), 초등학교 3.91(SD=0.79)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은 평균 이상 수준(M=3.94)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여교장과 경력 2년 이상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음. 이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행정 지원 체계가 안정화되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학교 내 ICT 인프라 활용도와 수업 환경 만족도가 향상된 결과로 해석됨. 전반적으로 학교급 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초등학교의 경

우 기기 관리 및 기술 지원 인력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 지원이 요구됨.



[그림 6-10] 학교장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표 6-23〉 학교장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32	0.77	-	-
성별	남	59	4.32	0.75	0.00	-
	여	62	4.32	0.79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09	0.75	5.23**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2	4.55	0.77		
	4년 이상	23	4.48	0.67		
학교급	초	56	4.34	0.79	1.05	-
	중	37	4.19	0.81		
	고	28	4.46	0.64		

** $p < .01$

4. 학교안전 인식

가. 시설 안전

- 학교장의 시설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4>와 같음.
- 시설 안전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39(SD=0.70)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31(SD=0.70), 여교사 평균 4.47(SD=0.69)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18(SD=0.74),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57(SD=0.63), 4년 이상 경력 평균 4.57(SD=0.59)로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과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36(SD=0.72), 중학교 평균 4.51(SD=0.65), 고등학교 평균 4.29(SD=0.71)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24> 학교장의 시설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39	0.70	-	-
성별	남	59	4.31	0.70	-1.28	-
	여	62	4.47	0.69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18	0.74	5.00**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2	4.57	0.63		
	4년 이상	23	4.57	0.59		
학교급	초	56	4.36	0.72	0.95	-
	중	37	4.51	0.65		
	고	28	4.29	0.71		

** $p < .01$

나. 학교폭력 안전

- 학교장의 **학교폭력 안전**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5>와 같음.
- 학교폭력 안전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26(SD=0.64)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24(SD=0.60), 여교사 평균 4.29(SD=0.69)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09(SD=0.67),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43(SD=0.63), 4년 이상 경력 평균 4.39(SD=0.50)로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4.20(SD=0.67), 중학교 평균 4.24(SD=0.64), 고등학교 평균 4.43(SD=0.57)로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25> 학교장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26	0.64	-	-
성별	남	59	4.24	0.60	-0.45	-
	여	62	4.29	0.69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09	0.67	4.10*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2	4.43	0.63		
	4년 이상	23	4.39	0.50		
학교급	초	56	4.20	0.67	1.25	-
	중	37	4.24	0.64		
	고	28	4.43	0.57		

* $p < .05$

다. 외부침입 안전

- 학교장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6>과 같음.
- 외부침입 안전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4.04(SD=0.70)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4.02(SD=0.68), 여교사 평균 4.06(SD=0.72)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4.04(SD=0.71),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4.05(SD=0.73), 4년 이상 경력 평균 4.04(SD=0.64)로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96(SD=0.76), 중학교 평균 4.11(SD=0.61), 고등학교 평균 4.11(SD=0.69)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26> 학교장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4.04	0.70	-	-
성별	남	59	4.02	0.68	-0.37	-
	여	62	4.06	0.72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4.04	0.71	0.00	-
	2년 이상 4년 미만	42	4.05	0.73		
	4년 이상	23	4.04	0.64		
학교급	초	56	3.96	0.76	0.63	-
	중	37	4.11	0.61		
	고	28	4.11	0.69		

라. 등하굣길 교통 안전

- 학교장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7>과 같음.
- 등하굣길 교통 안전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3.75(SD=0.78)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81(SD=0.78), 여교사 평균 3.69(SD=0.78)로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3.77(SD=0.79),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3.64(SD=0.73), 4년 이상 경력 평균 3.91(SD=0.85)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70(SD=0.85), 중학교 평균 3.89(SD=0.74), 고등학교 평균 3.68(SD=0.67)로 중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27> 학교장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3.75	0.78	-	-
성별	남	59	3.81	0.78	0.85	-
	여	62	3.69	0.78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3.77	0.79	0.92	-
	2년 이상 4년 미만	42	3.64	0.73		
	4년 이상	23	3.91	0.85		
학교급	초	56	3.70	0.85	0.87	-
	중	37	3.89	0.74		
	고	28	3.68	0.67		

마. 학교주변 안전

- 학교장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6-28>과 같음.
- 학교주변 안전에 대한 학교장 인식의 전체 평균은 3.42(SD=0.64)이었음. 성별에 따라 남교사 평균 3.39(SD=0.64), 여교사 평균 3.45(SD=0.65)로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 평균 3.41(SD=0.57),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 평균 3.38(SD=0.66), 4년 이상 경력 평균 3.52(SD=0.79)로 4년 이상 경력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장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평균 3.48(SD=0.63), 중학교 평균 3.38(SD=0.64), 고등학교 평균 3.36(SD=0.68)으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28> 학교장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 t 검정 또는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3.42	0.64	-	-
성별	남	59	3.39	0.64	-0.53	-
	여	62	3.45	0.65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3.41	0.57	0.37	-
	2년 이상 4년 미만	42	3.38	0.66		
	4년 이상	23	3.52	0.79		
학교급	초	56	3.48	0.63	0.47	-
	중	37	3.38	0.64		
	고	28	3.36	0.68		

- 학교장의 학교 안전 관련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3.4 이상의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이었음. 특히 시설 안전(M=4.39)과 학교폭력 안전(M=4.26)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여, 학교장이 물리적 환경과 학생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학교주변 안전

(M=3.42)과 등하굣길 교통 안전(M=3.75)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교내보다 교외 영역에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임.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녀 학교장 모두 유사한 인식을 보였음.

- 학교장 경력별로는 시설 안전과 학교폭력 안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두 항목 모두에서 2년 이상 4년 미만, 그리고 4년 이상 경력의 학교장이 2년 미만의 학교장보다 높은 평균을 보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이 안전 관리 인식의 성숙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함. 이는 초기 학교장보다 일정 경력을 거친 학교장이 학교시설 점검, 위기 대응 체계,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다소 높은 평균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종합적으로, 학교장은 교내 물리적 안전과 학생 보호체계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교외 안전(등하굣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특히 경력이 짧은 학교장의 경우 안전관리 경험 축적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장 경력 초기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연수 및 멘토링 강화가 필요함. 더불어 학교급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세분화하여, 교내·교외 안전의 균형적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함.

제4절 웰빙

1. 정신건강

가. 평상시 스트레스

- 학교장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를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6-29>와 같음.
- 평상시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99(SD=0.83)임. 성별에서는 여교장의 평균이 3.10(SD=0.86)으로 남교장 평균 2.88(SD=0.79)보다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 경력에 따라서는 2년 이상 4년 미만 학교장의 평균이 3.02(SD=0.87)로 가장 높고, 4년 이상 2.96(SD=0.71), 2년 미만 2.98(SD=0.86) 순으로 나타났으나, 경력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전반적으로 학교장 경력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
-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장의 평균이 3.14(SD=0.80)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3.09(SD=0.90), 중학교 2.73(SD=0.69)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장의 평상시 스트레스는 평균 수준(2.99)으로,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양상임. 여교장이 남교장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입시 중심 행정, 평가 및 진학 관리 등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중학교 학교장은 비교적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 구조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학교급별로 직무 특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완화 지원 및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그림 6-11] 학교장의 평상시 스트레스

〈표 6-29〉 학교장의 평상시 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121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Games_Howell)
전체		121	2.99	0.83	-	-
성별	남	59	2.88	0.79	1.43	-
	여	62	3.10	0.86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56	2.98	0.86	0.06	-
	2년 이상 4년 미만	42	3.02	0.87		
	4년 이상	23	2.96	0.71		
학교급	초	56	3.09	0.90	2.76	-
	중	37	2.73	0.69		
	고	28	3.14	0.80		

나. 자살생각

- 학교장의 **자살생각** 여부를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6-30〉과 같음. 자살생각 여부에 대한 전체 학교장의 응답은 있음 2.5%, 없음 97.5%로, 없음 비율이 많았음.
- 성별에 따라, 남교장은 있음 0.0%, 없음 100.0%, 여교장은 있음 4.8%, 없음 95.2%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교직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은 있음 0.0%, 없음 100.0%,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은 있음 4.8%, 없음 95.2%, 4년 이상 경력은 있음 4.3%, 없음 95.7%로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의

있음 비율이 가장 많았음.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장은 있음 5.4%, 없음 94.6%, 중학교장은 있음 0.0%, 없음 100.0%, 고등학교장은 있음 0.0%, 없음 100.0%로, 초등학교장의 있음 비율이 가장 많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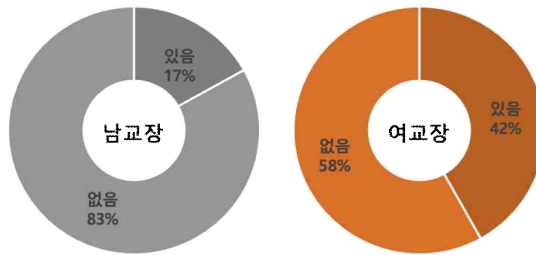
〈표 6-30〉 학교장의 자살생각(최근 6개월 간) 경험 교차분석 결과

N=121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전체		3 2.5%	118 97.5%	121 100.0%	-
성별	남	0 0.0%	59 100.0%	59 100.0%	2.93
	여	3 4.8%	59 95.2%	62 100.0%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0 0.0%	56 100.0%	56 100.0%	2.66
	2년 이상 4년 미만	2 4.8%	40 95.2%	42 100.0%	
	4년 이상	1 4.3%	22 95.7%	23 100.0%	
학교급	초	3 5.4%	53 94.6%	56 100.0%	3.57
	중	0 0.0%	37 100.0%	37 100.0%	
	고	0 0.0%	28 100.0%	28 100.0%	

다. 우울감

- 학교장의 **우울감** 경험 여부를 성별, 학교장 경력, 학교급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6-31〉과 같음. 우울감 경험에 대한 전체 학교장의 응답은 있음 29.8%, 없음 70.2%로, 없음비율이 더 많았음.
- 성별에 따라, 남교장은 있음 16.9%, 없음 83.1%, 여교장은 있음 41.9%, 없음 58.1%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그림 6-12] 학교장의 우울감 경험 유무(성별)

- 교직경력에 따라, 2년 미만 경력은 있음 32.1%, 없음 67.9%,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은 있음 21.4%, 없음 78.6%, 4년 이상 경력은 있음 39.1%, 없음 60.9%로 4년 이상경력의 있음 비율이 가장 많았음.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장은 있음 39.3%, 없음 60.7%, 중학교장은 있음 18.9%, 없음 81.1%, 고등학교장은 있음 25.0%, 없음 75.0%로, 초등학교장의 있음 비율이 가장 많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6-31〉 학교장의 우울감 경험(최근 6개월 간) 교차분석 결과

N=121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전체		36 29.8%	85 70.2%	121 100.0%	-
성별	남	10 16.9%	49 83.1%	59 100.0%	9.03*
	여	26 41.9%	36 58.1%	62 100.0%	
학교장 경력	2년 미만	18 32.1%	38 67.9%	56 100.0%	2.51
	2년 이상 4년 미만	9 21.4%	33 78.6%	42 100.0%	
	4년 이상	9 39.1%	14 60.9%	23 100.0%	
학교급	초	22 39.3%	34 60.7%	56 100.0%	4.82
	중	7 18.9%	30 81.1%	37 100.0%	
	고	7 25.0%	21 75.0%	28 100.0%	

* $p < .05$

- 학교장은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인식하는 양상임. 평상시 스트레스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며, 자살생각은 매우 드문 편임. 다만 성별에 따라 여교장이 남교장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장이 다른 학교급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수준이 다소 높게 인식되는 양상임.

- 이러한 결과는 학교장의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임을 시사함. 그러나 일부 집단(특히 여교장과 초등학교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부담이 확인되어, 성별·학교급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가 필요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기적 심리상담, 조직 내 정서적 지지 강화, 휴식·재충전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학교장의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지원이 요구됨.

제5절 소결

1. 직무

- 학교장의 직무 관련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남. 직무만족도는 평균 이상으로, 대체로 학교 운영과 직무 수행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음. 특히 남교장, 재임 초기의 학교장, 중·고등학교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초기 직무 동기와 체계적 행정 구조가 직무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반면 초등학교 학교장은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의 병행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학교급 간 직무환경의 불균형이 드러남.
- 직무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 인사관리, 조직운영 등 주요 직무 수행에서 자신감을 보임. 이러한 양상은 경험 축적과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 역량이 안정적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장기 재임 학교장에서 높은 인식이 나타남.
- 리더십역량 또한 매우 높게 평가되어, 학교장은 구성원 간 신뢰 구축과 협력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윤리 의식, 공정성, 갈등관리, 의사결정 등에서 긍정적 인식이 두드러지며, 여교장과 장기 재임 학교장에서 높은 수준이 관찰됨. 이는 관계 중심 리더십이 학교조직의 안정성과 신뢰 형성에 기여함을 보여줌.
- 종합적으로, 학교장은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안정적 리더십을 수행하는 관리 집단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초등학교 학교장의 과중한 업무를 완화하고, 학교급별 직무 구조를 조정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경력 단계별로 전문성 강화와 리더십 지속개발을 위한 체계적 연수 지원이 요구됨.

2. 학교인식

- 학교장의 학교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음, 학교 운영 환경과 조직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중·고등학교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학교운영 자율성과 안정된 인사·재정 체계가 만족감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반면 초등학교 학교장은 복합적 업무 부담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학교급 간 행정지원 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학부모·지역사회 협력 인식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으로, 여교장과 장기 재임 학교장에서 인식 수준이 높았음. 이는 경험과 관계 중심 리더십이 외부 협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함.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 중심 운영으로 인해 지역사회 연계가 제한되는 경향이 관찰됨.
- 학교환경 및 안전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교내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등하굣길·학교주변 안전 등 교외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특히 경력 2년 이상 학교장이 초임보다 높은 안전 인식을 보여, 경험이 안전관리 인식 향상에 기여함을 시사함.
- 종합적으로, 학교장은 학교 내부 운영의 안정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보이지만, 외부 협력과 교외 안전 영역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학교급별 행정지원 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교외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함.

3. 웰빙

- 학교장의 정신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남.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정도로, 과도하지 않은 부담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여교장과 초등학교 학교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성별·학교급 특성을 고려한 정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임시·평가 중심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반면 중학교 학교장은 안정된 조직운영 구조로 인해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음. 이러한 차이는 학교급별 업무 구조의 복잡성이 심리적 부담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 우울감과 자살생각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 대체로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집단에서 정서적 피로와 업무 과중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중심의 정기상담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도입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학교장은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자기조절 역량이 높은 안정적 집단으로 평가되며,

웰빙 수준은 직무 및 조직 인식과도 긍정적으로 연관됨.

4 종합

- 학교장은 전문적 역량, 윤리성,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핵심 교육 리더 집단으로, 직무·학교·웰빙 전 영역에서 긍정적 인식을 보임. 그러나 학교급·경력·성별에 따른 구조적 격차와 심리적 부담의 차이가 공존함. 이는 학교장의 복합적 역할이 제도적 지원 없이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함.
- 직무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학교장의 행정·생활지도 부담 완화, 학교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협력과 교외 안전 강화, 웰빙 영역에서는 여교장과 초등학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심리·정서 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이에 따라 학교급별 맞춤형 행정지원 체계 마련, 리더십 단계별 전문성 심화 연수 운영, 심리·정서 복지 중심의 학교장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교 내외 협력 기반의 분권형 리더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학교장의 인식과 경험은 학교조직의 건강성과 교육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서, 향후 정책은 ‘관리 중심 리더십’에서 ‘공동체·웰빙 중심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지향해야 함. 이를 통해 학교장의 전문성·심리적 안정·조직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학교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제7장 행정실 직원 결과

제1절 배경

제2절 직무

제3절 학교인식

제4절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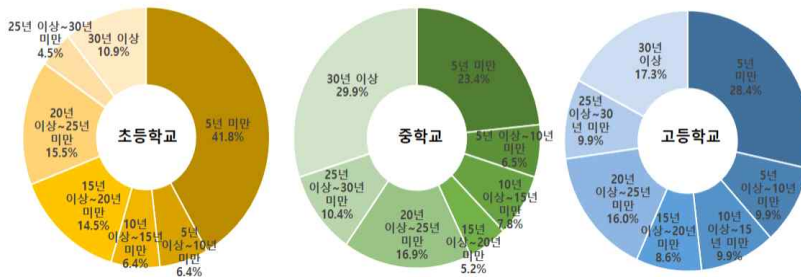
제5절 소결

제7장 행정실 직원 결과

제1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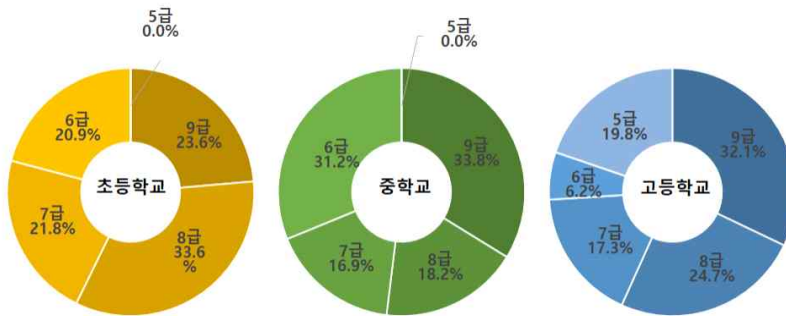
1. 개인배경

- 설문에 참여한 행정실 직원의 **학교급별 성별, 근무경력, 최종학력, 직급** 등의 개인배경은 [그림 7-1], [그림 7-2], <표 7-1>과 같음.
- **성별**은 모든 학교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음. 초등학교는 여성 80명(72.7%), 남성 30명(27.3%), 중학교는 여성 47명(61.0%), 남성 30명(39.0%), 고등학교는 여성 42명(51.9%), 남성 39명(48.1%)임.
- **근무경력**은 초등학교가 5년 미만 46명(41.8%)이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25년 미만 17명(15.5%), 15년 이상~20년 미만 14명(14.5%) 등 순임. 중학교는 30년 이상 23명(29.9%), 5년 미만 18명(23.4%), 20년 이상~25년 미만 13명(16.6%) 등 순임. 고등학교는 5년 미만 23명(28.4%), 30년 이상 14명(17.3%), 20년 미만 13명(16%) 등 순임.



[그림 7-1] 학교급별 행정실 직원 근무경력

- **최종학력**은 4년제 학사 졸업이 가장 많았음. 초등학교는 학사 졸업 87명(79.1%), 고등학교 졸업 15명(13.6%), 대학원 석사 졸업 8명(7.3%) 등 순임. 중학교는 학사 졸업 58명(75.3%), 고등학교 졸업 12명(15.6%), 대학원 석사 졸업 6명(7.8%) 등 순임. 고등학교는 학사 졸업 62명(76.5%), 고등학교 졸업 7명(14.8%) 등 순임.
- **직급**은 초등학교는 8급 37명(33.6%), 9급 26명(23.6%), 7급 24명(21.8%) 순임. 중학교는 9급 26명(33.8%), 6급 24명(31.2%), 8급(18.2%), 고등학교는 9급 26명(32.1%), 8급 20명(24.7%), 5급 16명(19.8%) 순임.



[그림 7-2] 학교급별 행정실 직원 직급

〈표 7-1〉 행정실 직원 개인배경

N=268

항목	구분	초 (N=110)		중 (N=77)		고 (N=8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30	27.3%	30	39.0%	39	48.1%
	여	80	72.7%	47	61.0%	42	51.9%
근무 경력	5년 미만	46	41.8%	18	23.4%	23	28.4%
	5년 이상~10년 미만	7	6.4%	5	6.5%	8	9.9%
	10년 이상~15년 미만	7	6.4%	6	7.8%	8	9.9%
	15년 이상~20년 미만	16	14.5%	4	5.2%	7	8.6%
	20년 이상~25년 미만	17	15.5%	13	16.9%	13	16.0%
	25년 이상~30년 미만	5	4.5%	8	10.4%	8	9.9%
	30년 이상	12	10.9%	23	29.9%	14	17.3%

항목	구분	초 (N=110)		중 (N=77)		고 (N=8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0	0.0%	1	1.3%	0	0.0%
	고등학교 졸업	15	13.6%	12	15.6%	12	14.8%
	학사	87	79.1%	58	75.3%	62	76.5%
	석사	8	7.3%	6	7.8%	7	8.6%
	박사	0	0.0%	0	0.0%	0	0.0%
직급	9급	26	23.6%	26	33.8%	26	32.1%
	8급	37	33.6%	14	18.2%	20	24.7%
	7급	24	21.8%	13	16.9%	14	17.3%
	6급	23	20.9%	24	31.2%	5	6.2%
	5급	0	0.0%	0	0.0%	16	19.8%

2. 학교배경

- 소속학교의 **설립 유형**, **고등학교 유형**, **학교 규모**, **학교 소재지**는 <표 7-2>와 같음.
- **설립 유형**은 초등학교에서 공립 108명(98.2%)이 사립 2명(1.8%)보다 많았고, 중학교도 공립 63명(81.8%)이 사립 14명(18.2%)보다 많았음. 고등학교는 공립 48명(59.3%)이 사립 35명(40.7%)보다 많았음. 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일반계고/자공고가 57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15명(18.5%),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자율형사립고가 각각 3명(3.7%)로 나타남.
- **고등학교 유형**의 경우, 일반고/자공고가 57명(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고 15명(18.5%),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자율형사립고가 각 3명(각 3.7%)이었음.
- **학교 규모**는 초등학교에서 30학급 이상이 34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25학급 이상 30학급 이하 24명(21.8%), 10학급 미만과 10학급 이상~15학급 미만이 각각 17명(15.5%)임. 중학교는 10학급 미만 24명(31.2%), 10학급 이상~15학급 미만 19명(24.7%), 15학급 이상~20학급 미만 10명(13%)임. 고등학교는 30학급 이상 34명(42%), 25학급 이상 30학급 이하 24명(29.6%), 20학급 이상~25학급 미만 12명(14.8%) 순임.

- **학교 소재지**는 초등학교 유성구 36명(32.7%), 서구 35명(31.8%), 중학교 서구 30명(39.0%), 대덕구 18명(23.4%), 고등학교 서구 33명(40.7%), 유성구 21명(25.9%) 순임.

〈표 7-2〉 행정실 직원 소속 학교 배경

N=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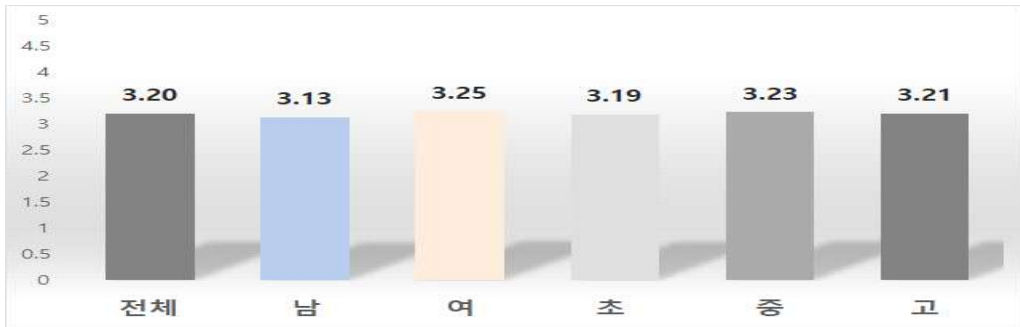
항목	구분	초 (N=110)		중 (N=77)		고 (N=8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설립 유형	공립	108	98.2%	63	81.8%	48	59.3%
	사립	2	1.8%	14	18.2%	33	40.7%
고등 학교 유형	일반고/자공고					57	70.4%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3	3.7%
	예술고/체육고					3	3.7%
	자율형사립고					3	3.7%
	특성화고					15	18.5%
	마이스터고					0	0.0%
학교 규모	10학급 미만	17	15.5%	24	31.2%	4	4.9%
	10학급 이상~15학급 미만	17	15.5%	19	24.7%	4	4.9%
	15학급 이상~20학급 미만	5	4.5%	10	13.0%	3	3.7%
	20학급 이상~25학급 미만	13	11.8%	9	11.7%	12	14.8%
	25학급 이상~30학급 미만	24	21.8%	6	7.8%	24	29.6%
	30학급 이상	34	30.9%	9	11.7%	34	42.0%
학교 소재지	동구	12	10.9%	8	10.4%	2	2.5%
	중구	14	12.7%	10	13.0%	18	22.2%
	서구	35	31.8%	30	39.0%	33	40.7%
	유성구	36	32.7%	11	14.3%	21	25.9%
	대덕구	13	11.8%	18	23.4%	7	8.6%

제2절 직무

1. 직무수행

가. 직무요구

- 행정실 직원의 **직무요구**(직무 소요 시간, 작년 대비 증가 업무량, 능력 초과 업무 요구,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일과 생활의 불균형)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그림 7-3], [그림 7-4], <표 7-3>과 같음.
- 행정실 직원의 직무 요구 전체 평균은 3.20(SD=0.44)임. 성별에서 여성의 평균은 3.25(SD=0.44)로 남성 평균 3.13(SD=0.45) 보다 높았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학교급에서 중학교 평균 3.23(SD=0.43), 고등학교 평균 3.21(SD=0.47), 초등학교 평균 3.19(SD=0.43) 순으로 높았음. 근무경력별 직무요구 평균은 25년 이상~30년 미만 평균 3.30(SD=0.43), 30년 이상 평균 3.26(SD=0.47), 20년 이상~25년 미만 평균 3.22(SD=0.37)의 순이었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그림 7-3] 행정실 직원의 직무요구(성별·학교급별)



[그림 7-4] 행정실 직원의 직무요구(경력별)

〈표 7-3〉 행정실 직원 직무요구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직무요구	전체	268	3.20	0.44	-	-
	남	99	3.13	0.45	-2.109*	-
	여	169	3.25	0.44		
	초	110	3.19	0.43	0.180	-
	중	77	3.23	0.43		
	고	81	3.21	0.47		
	5년 미만	87	3.17	0.44	0.459	-
	5년 이상~10년 미만	20	3.19	0.44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17	0.46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16	0.54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22	0.37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30	0.43		
	30년 이상	49	3.26	0.47		

* $p < .05$

- 행정실 직원의 직무 요구는 평균 이상 수준(3.20)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행정실 직원과 중·고등학교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 부담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근무경력에 길수록 직무요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5년 이상 장기근속 집단에서 직무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5년 미만~20년 미만의 저·중경력 집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학교급과 경력에 따른 업무 강도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특히 여성과 장기근속자의 누적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직무 재설계와 행정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나. 직무 만족도

- 행정실 직원의 **직무 만족도**(직무 전반에 대한 만족, 직무가 적성에 맞는 정도, 직무 수행에 대한 자부심,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그림 7-5], [그림 7-6], 〈표 7-4〉와 같음.
- 행정실 직원의 직무 만족도 전체 평균은 3.33(SD=0.71)임. 성별에서 여성의 평균은 3.39(SD=0.72)로 남성 평균 3.22(SD=0.67) 보다 높았음. 학교급은 고등학교 3.44(SD=0.73), 중학교 3.34(SD=0.63), 초등학교 3.24(SD=0.74) 순임. 근무경력에서 25년 이상~30년 미만은 평균 3.44(SD=0.78), 30년 이상은 평균 3.43(SD=0.57)으로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그림 7-5] 행정실 직원의 직무만족도(성별·학교급별)



[그림 7-6] 행정실 직원의 직무만족도(경력별)

〈표 7-4〉 행정실 직원의 직무 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직무 만족도	전체	268	3.33	0.71	-	-
	남	99	3.22	0.67	-1.971	-
	여	169	3.39	0.72		
	초	110	3.24	0.74	1.944	-
	중	77	3.34	0.63		
	고	81	3.44	0.73		
	5년 미만	87	3.29	0.65	0.747	-
	5년 이상~10년 미만	20	3.33	0.82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26	0.87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13	0.71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39	0.80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44	0.78		
	30년 이상	49	3.43	0.57		

- 행정실 직원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이상 수준(3.33)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여성 행정실 직원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 초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가 확인되었으며, 근무경력별로는 25년 이상 집단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그러나 직무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번아웃, 이직 의도, 생산성 저하 등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직 차원에서 근무환경 개선, 심리적 회복 지원, 동기 부여 중심의 직무 만족도 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함.

2. 전문성 개발

- 행정실 직원의 **전문성 개발**(직무 관련 교육기회, 직무 관련 교육 지원, 직무교육의 도움도)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7-5>와 같음.
- 행정실 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기회 전체 평균은 3.21(SD=0.90)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3.31(SD=0.85)로 여성 평균 3.15(SD=0.93)보다 높았음. 학교급의 평균은 초등학교 2.97(SD=0.91), 중학교 3.43(SD=0.79), 고등학교 3.32(SD=0.93)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초등학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근무경력에서 5년 미만과 10년 이상~15년 미만의 평균이 각각 3.43(SD=0.86), 3.29(SD=0.78)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음
- 행정실 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지원 전체 평균은 3.24(SD=1.03)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3.37(SD=0.90)로 여성의 평균 3.16(SD=1.10)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2.99(SD=1.05), 중학교 3.38(SD=0.99), 고등학교 3.44(SD=0.99)였음. 근무경력에서 10년 이상~15년 미만의 평균은 3.33(SD=0.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음.
- 행정실 직원의 직무교육 도움도 전체 평균은 3.51(SD=0.85)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3.52(SD=0.86)로 여성 평균 3.51(SD=0.85)보다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 중학교 평균 3.66(SD=0.77)이 초등학교 평균 3.36(SD=0.93)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근무경력에서 5년 미만과 20년 이상~25년 미만의 평균은 각각 3.53(SD=0.83)과 3.53(SD=0.74)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7-5〉 행정실 직원의 전문성 개발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직무 관련 교육기회	전체	268	3.21	0.90	-	-
	남	99	3.31	0.85	1.447	-
	여	169	3.15	0.93		
	초	110	2.97	0.91	6.943**	초<중, 고
	중	77	3.43	0.79		
	고	81	3.32	0.93		
	5년 미만	87	3.43	0.86	1.745	-
	5년 이상~10년 미만	20	3.15	1.14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29	0.78		
	15년 이상~20년 미만	27	2.93	1.04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09	0.75		
	25년 이상~30년 미만	21	2.95	0.92		
	30년 이상	49	3.18	0.93		
직무 관련 교육지원	전체	268	3.24	1.03	-	-
	남	99	3.37	0.90	1.730	-
	여	169	3.16	1.10		
	초	110	2.99	1.05	5.652**	초<중, 고
	중	77	3.38	0.99		
	고	81	3.44	0.99		
	5년 미만	87	3.32	0.90	0.353	-
	5년 이상~10년 미만	20	3.15	1.23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33	0.97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15	1.17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16	1.04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05	1.16		
	30년 이상	49	3.29	1.10		
직무 교육 도움도	전체	268	3.51	0.85	-	-
	남	99	3.52	0.86	0.003	-
	여	169	3.51	0.85		
	초	110	3.36	0.93	3.157*	초<중
	중	77	3.66	0.77		
	고	81	3.58	0.80		
	5년 미만	87	3.53	0.83	0.709	-
	5년 이상~10년 미만	20	3.45	1.10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48	0.81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44	0.97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53	0.74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24	0.83		
	30년 이상	49	3.67	0.85		

** $p<.01$, * $p<.05$

○ 행정실 직원의 전문성 개발 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남성의 평균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음.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경력별로는 경력 초기·중기 집단에서 행정기관의 지원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과 경력, 성별에 따라 전문성 개발 기회와 지원이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직무 특성과 경력 단계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성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실 직원이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제3절 학교인식

1. 학교만족도

- 행정실 직원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그림 7-7], [그림 7-8], <표 7-6>과 같음.
- 행정실 직원의 학교만족도 전체 평균은 3.73(SD=0.95)임.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3.82(SD=0.93), 여성은 평균 3.68(SD=0.95)로 남성이 높았음. 학교급에서 중학교는 평균 4.06(SD=0.73), 고등학교는 평균 3.63(SD=0.94), 초등학교는 평균 3.57(SD=1.03) 순임. 성별과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근무경력에서 30년 이상의 평균이 3.92(SD=0.84)로 가장 높았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그림 7-7] 행정실 직원 학교만족도(성별·학교급별)



[그림 7-8] 행정실 직원 학교만족도(경력별)

〈표 7-6〉 행정실 직원의 학교만족도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학교만족도	전체	268	3.73	0.95	-	-
	남	99	3.82	0.93	1.152**	-
	여	169	3.68	0.95		
	초	110	3.57	1.03	7.122**	중>초, 고
	중	77	4.06	0.73		
	고	81	3.63	0.94		
	5년 미만	87	3.70	0.97	0.696	-
	5년 이상~10년 미만	20	3.70	0.98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86	0.85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59	1.05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58	0.88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81	1.17		
	30년 이상	49	3.92	0.84		

** $p<.01$

- 행정실 직원의 학교만족도는 평균 이상 수준(3.73)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남성 행정실 직원과 중학교 근무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소속 행정실 직원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근무 환경이나 조직 문화에 대한 체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함. 따라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근무 여건, 업무 분담, 조직 내 소통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및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조직문화

- 행정실 직원의 **조직문화**(관계지향 조직문화, 성취지향 조직문화, 변화지향 조직문화), **학교장 역할 중재**, **학교장 업무배정**, **교사와 행정실 직원 소통**, **행정실 직원 간 소통**, **학교와 민원인 소통**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7-7〉과 같음.
- 행정실 직원의 관계지향 조직문화 인식의 전체 평균은 3.90(SD=0.81)임. 성별에서 여성은 평균 3.93(SD=0.81), 남성은 평균 3.86(SD=0.82)으로 여성이 높았음. 학교급은 고등학교 3.99(SD=0.87), 중학교 3.95(SD=0.69), 초등학교 3.80(SD=0.83) 순이었음. 근무경력에서 5년 이상~10년 미만 4.07(SD=0.96)과 30년 이상 3.93(SD=0.62)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성별, 학교급,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행정실 직원의 성취지향 조직문화 인식의 전체 평균은 3.57(SD=0.71)임. 성별에서 여성은 평균 3.59(SD=0.76), 남성은 평균 3.54(SD=0.61)로 여성이 높았음. 학교급은 고등학교 3.65(SD=0.68), 중학교 3.61(SD=0.65), 초등학교 3.49(SD=0.77) 순이었음. 근무경력에서 10년 이상~15년 미만 3.73(SD=0.57)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성별, 학교급,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행정실 직원의 변화지향 조직문화 인식의 전체 평균은 3.49(SD=0.85)로 성별에서 여성은 평균 3.56(SD=0.87), 남성은 평균 3.38(SD=0.80)로 여성이 높았음. 학교급은 고등학교 3.63(SD=0.92), 중학교 3.52(SD=0.75), 초등학교 3.37(SD=0.85) 순이었음. 근무경력에서 10년 이상~15년 미만 3.68(SD=0.89), 5년 이상~10년 미만 3.68(SD=0.94)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성별, 학교급,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행정실 직원의 학교장 역할중재 인식의 전체 평균은 3.78(SD=0.96)임.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3.95(SD=0.84), 여성은 평균 3.67(SD=1.01)로 여성이 높았음. 학교급에서 중학교 3.99(SD=0.95)가 초등학교 3.58(SD=1.01) 보다 높았음. 근무경력에서 25년 이상~30년 미만 4.00(SD=1.00)과 30년 이상 3.86(SD=0.89)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행정실 직원의 학교장 업무배정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9(SD=0.88)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3.86(SD=0.76)로 여성의 평균 3.59(SD=0.93) 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중학교의 평균은 3.87(SD=0.82)로 초등학교 평균 3.57(SD=0.90)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근무경력에서 30년 이상의 평균은 3.78(SD=0.87)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의 평균은 3.50(SD=0.89)로 가장 낮았음. 성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행정실 직원의 교사와 행정실 직원 소통 인식의 전체 평균은 3.80(SD=0.90)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3.99(SD=0.72)로 여성의 평균 3.69(SD=0.98) 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중학교의 평균은 3.95(SD=0.89)로 초등학교 평균 3.61(SD=0.97) 대비 높게 나타남. 근무경력에서 30년 이상 평균 4.00(SD=0.74), 5년 미만 평균 3.97(SD=0.78) 순으로 높았음. 성별, 학교급,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행정실 직원의 행정실 직원 간 소통 인식의 전체 평균은 4.11(SD=0.78)임.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4.16(SD=0.75), 여성은 평균 4.08(SD=0.79)임. 학교급에서 중학교 4.25(SD=0.73), 고등학교 4.15(SD=0.79), 초등학교 3.99(SD=0.78) 순임. 근무경력에서 30년 이상은 평균 4.00(SD=0.74), 5년 미만은 3.97(SD=0.78)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성별, 학교급,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행정실 직원의 학교와 민원인 소통 인식의 전체 평균은 3.87(SD=0.77)로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3.95(SD=0.73), 여성은 평균 3.82(SD=0.78)로 나타남. 학교급에서 중학교 3.97(SD=0.74), 고등학교 3.93(SD=0.80), 초등학교 3.75(SD=0.75) 순이었음. 5년 이상~10년 미만의 평균은 4.20(SD=0.62)으로 가장 높았으나 성별, 학교급,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7-7〉 행정실 직원의 학교문화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관계지향 조직문화	전체	268	3.90	0.81	-	-
	남	99	3.86	0.82	-0.616	-
	여	169	3.93	0.81		
	초	110	3.80	0.83	1.455	-
	중	77	3.95	0.69		
	고	81	3.99	0.87	0.209	-
	5년 미만	87	3.90	0.79		
	5년 이상~10년 미만	20	4.07	0.96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83	0.90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88	0.88		
성취지향 조직문화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85	0.90	0.209	-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89	0.81		
	30년 이상	49	3.93	0.62		
	전체	268	3.57	0.71	-	-
	남	99	3.54	0.61	-0.551	-
	여	169	3.59	0.76		
	초	110	3.49	0.77	1.429	-
	중	77	3.61	0.65		
	고	81	3.65	0.68	0.771	-
	5년 미만	87	3.54	0.70		
	5년 이상~10년 미만	20	3.67	0.89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73	0.57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57	0.85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48	0.64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40	0.71		
	30년 이상	49	3.68	0.69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변화지향 조직문화	전체	268	3.49	0.85	-	-
	남	99	3.38	0.80	-1.688	-
	여	169	3.56	0.87		
	초	110	3.37	0.85	2.140	-
	중	77	3.52	0.75		
	고	81	3.63	0.92	0.812	-
	5년 미만	87	3.46	0.79		
	5년 이상~10년 미만	20	3.68	0.94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68	0.89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33	1.01		
학교장 역할중재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43	0.87	4.425*	초<중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33	0.88		
	30년 이상	49	3.60	0.78	0.670	-
	전체	268	3.78	0.96		
	남	99	3.95	0.84		
	여	169	3.67	1.01		
	초	110	3.58	1.01		
	중	77	3.99	0.95		
	고	81	3.84	0.84		
	5년 미만	87	3.78	0.99		
학교장 업무배정	5년 이상~10년 미만	20	3.80	0.89	2.615**	-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62	0.74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52	1.31	2.663	-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79	0.80		
	25년 이상~30년 미만	21	4.00	1.00	0.971	-
	30년 이상	49	3.86	0.89		
	전체	268	3.69	0.88		
	남	99	3.86	0.76		
	여	169	3.59	0.93		
교사와 행정실 직원 소통	초	110	3.57	0.90	2.907**	-
	중	77	3.87	0.82		
	고	81	3.67	0.88	4.246*	초<중
	5년 미만	87	3.76	0.83		
	5년 이상~10년 미만	20	3.50	0.89	2.623*	-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62	0.67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37	1.31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74	0.69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71	0.90		
	30년 이상	49	3.78	0.87		
교사와 행정실 직원 소통	전체	268	3.80	0.90	4.246*	초<중
	남	99	3.99	0.72		
	여	169	3.69	0.98	2.907**	-
	초	110	3.61	0.97		
	중	77	3.95	0.89	2.623*	-
	고	81	3.91	0.78		
	5년 미만	87	3.97	0.78		
	5년 이상~10년 미만	20	3.85	0.88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43	0.81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44	1.15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60	0.98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81	1.08		
	30년 이상	49	4.00	0.74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행정실 직원 간 소통	전체	268	4.11	0.78	-	-
	남	99	4.16	0.75	0.802	-
	여	169	4.08	0.79		
	초	110	3.99	0.78	2.622	-
	중	77	4.25	0.73		
	고	81	4.15	0.79	0.364	-
	5년 미만	87	3.97	0.78		
	5년 이상~10년 미만	20	3.85	0.88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43	0.81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44	1.15		
학교와 민원인 소통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60	0.98	2.130	-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81	1.08		
	30년 이상	49	4.00	0.74		
	전체	268	3.87	0.77	-	-
	남	99	3.95	0.73	1.371	-
	여	169	3.82	0.78		
	초	110	3.75	0.75	2.393	-
	중	77	3.97	0.74		
	고	81	3.93	0.80	2.130	-
	5년 미만	87	4.14	0.72		
	5년 이상~10년 미만	20	4.20	0.62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90	0.83		
	15년 이상~20년 미만	27	4.04	0.98		
	20년 이상~25년 미만	43	4.12	0.70		
	25년 이상~30년 미만	21	4.14	0.96		
	30년 이상	49	4.14	0.79		

** $p < .01$, * $p < .05$

- 행정실 직원의 조직문화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M=3.49 \sim 4.11$)으로 안정적인 편이었으나, 학교장의 역할과 교사-행정실 직원 간 소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행정실 직원 내부의 소통은 원활한 반면, 교사와의 협업 및 학교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남성 및 중학교 근무자의 인식 수준이 초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직 내 의사소통 구조나 업무 배분 방식이 학교급별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배분을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이고, 업무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조정하는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학교시설 인식

- 행정실 직원의 **학교시설**(학교의 휴식 공간의 충분성, 디지털 수업 지원 시설의 충분성과 교실 환경의 청결성 정도)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7-8>과 같음.
- 행정실 직원의 휴식공간 환경 인식의 전체 평균은 2.99(SD=1.16)로 학교시설 관련 항목 중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 3.27(SD=1.06)이 여성의 평균 2.82(SD=1.19)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중학교 평균 3.21(SD=1.07)과 고등학교 평균 3.31(SD=1.11)이 초등학교 평균 2.60(SD=1.16)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5년 미만의 평균은 3.31(SD=1.08)로 15년 이상~20년 미만의 평균 2.44(SD=1.09)보다 높았음. 성별, 학교급,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행정실 직원의 디지털수업 환경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8(SD=0.83)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3.84(SD=0.83)로 여성의 평균 3.59(SD=0.82)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평균 3.50(SD=0.80) 대비 고등학교의 평균 3.83(SD=0.85)이 높았음. 근무경력에서 10년 이상~15년 미만 경력의 평균은 4.05(SD=0.74)로 가장 높았음. 성별, 학교급, 근무환경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행정실 직원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의 전체 평균은 3.94(SD=0.83)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4.05(SD=0.79)로 여성 평균 3.87(SD=0.86)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3.80(SD=0.79), 중학교 4.01(SD=0.92), 고등학교 4.05(SD=0.79) 순이었음. 25년 이상~30년 미만은 평균 4.24(SD=0.83), 10년 이상~15년 미만은 평균 4.10(SD=0.7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성별, 학교급,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7-8> 행정실 직원의 학교시설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휴식공간 환경	전체	268	2.99	1.16	-	-
	남	99	3.27	1.06	3.207**	-
	여	169	2.82	1.19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초	110	2.60	1.16	11.405***	초<중, 고
	중	77	3.21	1.07		
	고	81	3.31	1.11		
	5년 미만	87	3.31	1.08	2.799*	5년 미만>15년이 상 20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20	3.25	1.33		
	10년 이상~15년 미만	21	2.95	1.02		
	15년 이상~20년 미만	27	2.44	1.09		
	20년 이상~25년 미만	43	2.77	1.15		
	25년 이상~30년 미만	21	2.76	0.94		
	30년 이상	49	2.92	1.29		
디지털수업 환경	전체	268	3.68	0.83	-	-
	남	99	3.84	0.83	2.368*	-
	여	169	3.59	0.82		
	초	110	3.50	0.80	4.685*	초<고
	중	77	3.79	0.82		
	고	81	3.83	0.85		
	5년 미만	87	3.85	0.79	2.876**	-
	5년 이상~10년 미만	20	3.85	0.81		
	10년 이상~15년 미만	21	4.05	0.74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37	1.01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47	0.67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62	0.80		
	30년 이상	49	3.55	0.89		
청결한 학교 환경	전체	268	3.94	0.83	-	-
	남	99	4.05	0.79	1.717	-
	여	169	3.87	0.86		
	초	110	3.80	0.79	4.565	-
	중	77	4.01	0.92		
	고	81	4.05	0.79		
	5년 미만	87	3.95	0.81	1.281	-
	5년 이상~10년 미만	20	4.05	0.89		
	10년 이상~15년 미만	21	4.10	0.70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63	1.04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72	0.80		
	25년 이상~30년 미만	21	4.24	0.83		
	30년 이상	49	4.02	0.78		

*** $p<.001$, ** $p<.01$, * $p<.05$

○ 행정실 직원의 학교 내 휴식 공간 환경 인식은 평균 이하 수준(2.99)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휴식 공간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여성·초등학교·중장기 근속 집단의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었음. 이는 기본적인 청결 유지에는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휴식공간과 디지털 학습 환경 등 근무환경 인프라에서 학교급·성별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줌. 따라서 학교급, 성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 휴게 공간 확충과 디지털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인력 및 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4. 학교안전 인식

- 행정실 직원의 **학교 안전**(학교시설 관리의 안전성,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성,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의 안전성, 등하굣길 교통의 안전성, 학교 주변 위험 장소로부터의 안전성) 인식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7-9>와 같음.
- 행정실 직원의 시설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3.99(SD=0.85)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4.15(SD=0.80)로 여성의 평균 3.89(SD=0.86) 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중학교 평균은 4.12(SD=0.83), 고등학교 평균은 4.11(SD=0.74)로 초등학교의 평균 3.80(SD=0.91)보다 높게 나타남. 근무경력에서 25년 이상~30년 미만의 평균은 4.24(SD=0.77)로 가장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행정실 직원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8(SD=0.85)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3.87(SD=0.85)로 여성의 평균 3.57(SD=0.84) 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평균은 3.77(SD=0.81)로 가장 높았음. 근무경력에서 30년 이상은 평균 3.84(SD=0.80), 25년 이상~30년 미만은 평균 3.81(SD=0.9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성별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행정실 직원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6(SD=0.92)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3.85(SD=0.96)로 여성 평균인 3.54(SD=0.88) 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중학교 평균 3.88(SD=0.93)과 고등학교 평균 3.78(SD=0.87)이 초등학교 평균 3.41(SD=0.90) 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25년 이상~30년 미만의 평균은 3.86(SD=0.96)으로 가장 높았음.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행정실 직원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3.47(SD=1.02)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3.61(SD=1.05)로 여성 평균인 3.40(SD=1.00) 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중학교 평균은 3.52(SD=1.11)로 가장 높았음. 5년 미만 경력 집단의 평균은 3.72(SD=0.94)로 15년 이상~20년 미만 경력 집단의 평균 2.85(SD=1.20) 보다 높게 나타남.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행정실 직원의 학교주변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2.64(SD=1.03)로 항목 중 평균이 가장 낮았음.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은 2.70(SD=1.16)으로 여성 평균인 2.60(SD=0.95) 보다 높았음. 학교급에서 중학교 평균은 2.45(SD=1.03)로 고등학교 평균 2.88(SD=1.03) 보다 낮았으며,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근무경력에서 10년 이상~15년 미만의 평균은 3.00(SD=1.18)로 가장 높았음. 학교급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7-9〉 행정실 직원의 학교 안전 인식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시설 안전	전체	268	3.99	0.85	-	-
	남	99	4.15	0.80	2.483*	-
	여	169	3.89	0.86		
	초	110	3.80	0.91	4.565*	초<중, 고
	중	77	4.12	0.83		
	고	81	4.11	0.74		
	5년 미만	87	4.01	0.83	1.281	-
	5년 이상~10년 미만	20	4.10	0.72		
	10년 이상~15년 미만	21	4.14	0.65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74	1.10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79	0.80		
	25년 이상~30년 미만	21	4.24	0.77		
	30년 이상	49	4.02	0.90		
학교폭력 안전	전체	268	3.68	0.85	-	-
	남	99	3.87	0.85	2.820**	-
	여	169	3.57	0.84		
	초	110	3.57	0.83	7.336	-
	중	77	3.74	0.92		
	고	81	3.77	0.81		
	5년 미만	87	3.78	0.81	1.781	-
	5년 이상~10년 미만	20	3.50	0.95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71	0.85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33	0.88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51	0.86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81	0.93		
	30년 이상	49	3.84	0.80		
외부 침입 안전	전체	268	3.66	0.92	-	-
	남	99	3.85	0.96	2.638*	-
	여	169	3.54	0.88		
	초	110	3.41	0.90	7.336***	초<중, 고
	중	77	3.88	0.93		
	고	81	3.78	0.87		
	5년 미만	87	3.77	0.90	1.781	-
	5년 이상~10년 미만	20	3.65	0.93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76	0.83		
	15년 이상~20년 미만	27	3.19	1.08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53	0.80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86	0.96		
	30년 이상	49	3.69	0.94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등 하곳길 교통 안전	전체	268	3.47	1.02	-	-
	남	99	3.61	1.05	1.626	-
	여	169	3.40	1.00		
	초	110	3.45	0.93	0.107	-
	중	77	3.52	1.11		
	고	81	3.46	1.06		
	5년 미만	87	3.72	0.94	3.186**	5년 미만>15년이상 20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20	3.20	1.01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52	1.03		
	15년 이상~20년 미만	27	2.85	1.20		
	20년 이상~25년 미만	43	3.40	0.85		
	25년 이상~30년 미만	21	3.71	1.01		
	30년 이상	49	3.43	1.08		
학교 주변 안전	전체	268	2.64	1.03	-	-
	남	99	2.70	1.16	0.677	-
	여	169	2.60	0.95		
	초	110	2.59	1.02	3.543*	중<고
	중	77	2.45	1.03		
	고	81	2.88	1.03		
	5년 미만	87	2.55	1.04	0.998	-
	5년 이상~10년 미만	20	2.80	0.95		
	10년 이상~15년 미만	21	3.00	1.18		
	15년 이상~20년 미만	27	2.63	1.01		
	20년 이상~25년 미만	43	2.77	0.97		
	25년 이상~30년 미만	21	2.67	1.15		
	30년 이상	49	2.45	1.00		

*** $p<.001$, ** $p<.01$, * $p<.05$

- 행정실 직원의 학교 안전 인식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 및 초등 학교 소속 직원의 안전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초등학교가 학생 수용 연령이 낮고 외부인 출입 가능성이 높아 시설 및 출입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 큰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설 점검 및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취약 지역을 정기 점검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직원 전체의 교내·외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 체계 강화도 병행되어야 함.

제4절 웰빙

1. 정신건강

가. 평상시 스트레스

- 행정실 직원의 **평상시 스트레스 빈도**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는 [그림 7-9], [그림 7-10], <표 7-10>과 같음.
- 행정실 직원의 평상시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91(SD=1.03)임. 성별에서 남성의 평균 2.76(SD=1.00) 대비 여성의 평균 3.01(SD=1.03)이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은 초등학교 3.02(SD=0.79), 고등학교 2.94(SD=1.04), 중학교 2.74(SD=1.02) 순임. 근무경력에서 20년 이상~26년 미만의 평균 3.38(SD=0.97)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6년 이상~30년 미만의 평균은 2.73(SD=0.93)으로 낮았음.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음.



[그림 7-9] 행정실 직원의 평상시 스트레스(성별·학교급별)



[그림 7-10] 행정실 직원의 평상시 스트레스(경력별)

〈표 7-10〉 행정실 직원의 평상시 스트레스 t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N	M	SD	t/F	사후검정 (Scheffé/ Games_Howell)
평상시 스트레스	전체	268	2.91	1.03	-	-
	남	99	2.76	1.00	-1.922	-
	여	169	3.01	1.03		
	초	110	3.02	1.01	1.703	-
	중	77	2.74	1.02		
	고	81	2.94	1.04		
	5년 미만	20	3.25	1.29	1.838	-
	5년 이상~10년 미만	21	2.81	0.81		
	10년 이상~15년 미만	27	3.15	0.99		
	15년 이상~20년 미만	43	2.77	0.90		
	20년 이상~25년 미만	21	3.38	0.97		
	25년 이상~30년 미만	49	2.73	0.93		
	30년 이상	49	2.74	0.930		

- 행정실 직원의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이하(2.91)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여성 직원의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이나 경력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개인별 업무 강도와 정서적 부담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행정실 직원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조직 내 심리적 지원 체계와 상담 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자살생각

- 행정실 직원의 자살생각(예, 아니오)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7-11〉과 같음.
- 행정실 직원의 자살생각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부정(없음)의 응답 비율이 94.4%, 긍정(있음)의 응답 비율이 5.6%로 나타남. 모든 성별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은 90%이상으로 나타남.
- 성별에서 남성의 없음(97.0%)의 비율이 여성의 없음(92.9%)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학교급에서 없

음 응답은 중학교 98.7%, 고등학교 95.1%, 초등학교 90.9% 순이었으며, 있음에 대한 응답은 초등학교(9.1%)에서 가장 높았음. 근무경력에서 25년 이상~30년 미만(9.5%), 5년 미만(8.0%), 15년 이상~20년 미만(7.4%) 순으로 있음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한편 배경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7-11〉 행정실 직원의 자살생각 교차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자살생각	전체	15 5.6%	253 94.4%	268 100.0%	-
	남	3 3.0%	96 97.0%	99 100.0%	1.957
	여	12 7.1%	157 92.9%	169 100.0%	
	초	10 9.1%	100 90.9%	110 100.0%	5.300
	중	1 1.3%	76 98.7%	77 100.0%	
	고	4 4.9%	77 95.1%	81 100.0%	
	5년 미만	7 8.0%	80 92.0%	87 100.0%	4.272
	5년 이상~10년 미만	1 5.0%	19 95.0%	20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0 0.0%	21 100.0%	21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2 7.4%	25 92.6%	27 100.0%	
	20년 이상~25년 미만	2 4.7%	41 95.3%	43 100.0%	
	25년 이상~30년 미만	2 9.5%	19 90.5%	21 100.0%	
	30년 이상	1 2.0%	48 98.0%	49 100.0%	

- 행정실 직원의 자살생각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이 '없음'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인 심리 안정 상태를 보였음. 그러나 초등학교 근무자, 일부 경력 집단(5년 미만·15~20년·25~30년 미만), 여성 직원에서 '있음'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이는 전체적으로 위험 수준은 낮지만, 특정 집단에서 상대적 취약성이 존재함을 의미함. 따라서 정기적인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조기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가 있는 직원에게 심리·정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우울감

- 행정실 직원의 **우울감 여부**(있음, 없음)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근무경력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7-12>와 같음.
- 행정실 직원의 우울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부정(없음)의 응답 비율이 66.0%, 긍정(있음)의 응답 비율이 34.0%로 나타남.
- 성별에서 없음의 응답 비율이 남성은 74.7%, 여성은 60.9%로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학교급에서 없음의 응답 비율은 중학교 71.4%, 초등학교 66.0%, 고등학교 65.4% 순이었으며, 있음에 대한 응답 비율은 고등학교(34.6%)에서 가장 높았음. 근무경력에서 15년 이상~20년 미만(51.9%), 20년 이상~25년 미만(51.2%)의 있음에 대한 응답이 특히 높았음. 한편 성별과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7-12> 행정실 직원의 우울감 교차분석 결과

N=268

항목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우울감	전체	91 34.0%	177 66.0%	268 100.0%	-
	남	25 25.3%	74 74.7%	99 100.0%	5.302*
	여	66 39.1%	103 60.9%	169 100.0%	
	초	91 34.0%	177 66.0%	268 100.0%	1.549
	중	22 28.6%	55 71.4%	77 100.0%	
	고	28 34.6%	53 65.4%	81 100.0%	
	5년 미만	22 25.3%	65 74.7%	87 100.0%	19.252**
	5년 이상~10년 미만	9 45.0%	11 55.0%	20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4 19.0%	17 81.0%	21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14 51.9%	13 48.1%	27 100.0%	
	20년 이상~25년 미만	22 51.2%	21 48.8%	43 100.0%	
	25년 이상~30년 미만	9 42.9%	12 57.1%	21 100.0%	
	30년 이상	11 22.4%	38 77.6%	49 100.0%	

** $p < .01$, * $p < .05$

- 행정실 직원의 우울감 경험 비율은 약 34%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고등학교 근무자·중경력 집단(15~25년 미만)에서 특히 높게 확인되었음. 이는 중장기 근속 과정에서 누적된 업무 피로와 정서적 부담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함. 따라서 해당 집단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심리 지원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우울감이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저하, 이직 의도 등과 연관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 예방 관리와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해야 함.

제5절 소결

1. 직무

- 행정실 직원의 직무 관련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성별·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특히 여성과 중·고등학교 근무자, 장기근속자 집단에서 직무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학교 규모와 행정 업무 복잡도, 조직 내 역할 비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반면 직무만족도는 평균 이상($M=3.33$)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을 보였으나, 초등학교 근무자와 일부 중·저경력 집단에서 낮은 만족도가 나타나 업무 피로감과 동기 저하 가능성이 내재됨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행정실 직원의 직무환경이 학교급과 경력에 따라 상이하게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맞춤형 직무 재설계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근무환경을 비교·분석하여 업무 강도와 지원체계의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여성과 장기근속자의 누적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 지원 강화, 공정한 업무 배분, 근무여건 개선과 더불어 심리적 회복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됨. 또한 중·고등학교나 경력 중기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행정기관의 지원 체계와 역량 개발 사례를 전 학교급으로 확산하여, 모든 행정실 직원이 경력과 근무학교에 관계없이 균등한 전문성 개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행정실 직원이 안정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직무 효능감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행정 조직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인식

- 행정실 직원의 학교 관련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을 보였으나,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체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학교만족도는 중간 이상($M=3.73$)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근무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근무 여건, 업무 분담, 조직문화 등의 개선이 요구

됨. 특히 중학교 근무자의 만족도와 남성 직원의 평가가 높은 것은 조직 내 의사소통 구조와 역할 배분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조직문화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M=3.49\sim4.11$)이었으나, 학교장의 역할과 교사-행정실 직원 간 소통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학교장의 리더십과 공정한 업무 조정이 조직 신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무환경 인식에서는 휴식공간과 안전에 대한 격차가 두드러졌음. 특히 여성과 초등학교 근무자의 휴식공간 만족도와 안전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 학교급·성별·경력별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강화가 필요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출입 통제 및 시설 점검 체계의 정비,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요구되며, 동시에 행정실 직원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휴식공간 확충, 디지털 근무환경 개선, 청소 인력 확충 등 구체적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직무 만족 제고의 핵심 과제로 제시됨.

3. 웰빙

- 행정실 직원의 웰빙 수준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으나, 일부 집단에서 정서적 취약성이 확인되었음.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이하($M=2.91$)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여성 직원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정서적 부담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함. 또한 자살생각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지만, 초등학교 근무자와 일부 경력 집단(5년 미만·15~20년·25~30년 미만)에서 다소 높은 응답이 나타나, 특정 집단에 대한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울감은 약 3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 여성·고등학교 근무자·중경력층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중장기 근속으로 인한 업무 누적과 심리적 피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고위험군을 조기 선별할 수 있는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특히 여성과 중·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정서 회복,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조직 차원에서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일터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4. 종합

- 이번 조사 결과, 행정실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직무 만족도와 안정된 조직 인식을 보였으나, 학교급·성별·경력에 따른 근무환경 및 정서적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중·고등학교 근무자

와 여성, 장기근속자의 직무요구 수준이 높고 업무 부담이 누적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직원은 근무환경 만족도와 안전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임. 또한 우울감(약 34%)과 스트레스, 일부 집단의 정서적 취약성이 확인되어, 심리적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학교급별·성별·경력별 맞춤형 직무 재설계와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개발 기회 확대, 정서 지원 강화를 통해 행정실 직원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제8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제8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 학생 성장

가. 학생 가정생활

- 대전 **학생의 가정생활 기본습관**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초등학생은 비교적 규칙적인 식사·수면·운동 습관을 유지하였으나, 중·고등학생은 아침 결식이 늘고 운동 및 수면시간이 감소하는 등 생활 불규칙성이 심화되었음.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아침 결식 비율과 수면 부족 수준이 높고 신체활동은 낮게 나타나 성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음. 이는 학업 부담 증가, 포래문화 영향, 자기관리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학령 상승과 함께 건강한 생활리듬이 약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됨. 특히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학교와 가정의 적극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대전 **학생의 여가 시간**은 평일에는 2~3시간이 가장 많았고, 주말에는 5시간 이상이 가장 많이 분포함. 여가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음. 여가 활동에서도 학교급·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초·중학생은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여가를 선호한 반면, 고등학생은 휴식 중심의 수동적 활동을 선호하였음. 또한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여행 등 활발한 여가를 선호함에도 실제로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소극적 활동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여가가 단순한 시간 소비가 아닌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보상적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학교 안팎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환경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전 **학생의 독서활동**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컸으며, 성별에 따른 선호 주제의 차이도 확인되었음. 초등학생의 독서 참여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중·고등학생은 독서량이 크게

줄어듦. 남학생은 과학·기술 분야, 여학생은 문학·예술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남학생의 ‘독서 미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초등 시기의 독서 습관이 중·고등학교 수준의 긴 글 읽기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줌. 따라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독서 역량을 체계적으로 심화하고, 중·고등학생 대상의 지속 가능한 독서 교육 정책(예: ‘온책읽기’)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전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여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온라인게임 시간은 남학생에서 더 높았으나, 채팅·SNS 중심의 사회적 매체 활용은 여학생에서 더 두드러졌음. 이는 스마트기기가 또래관계, 정서 조절, 여가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다만 스마트기기 과도 사용은 정서 건강 저하와 학습 몰입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자기조절 능력과 생산적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적 지원이 요구됨. 학교급별 특성과 활용 목적을 고려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학습적 활용을 촉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함.

나. 학생 자율학습과 사교육

- 대전 **학생의 하루 평균 자율학습 시간**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음. 남녀 모두 1~2시간 미만 학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은 전반적으로 자율학습 시간이 더 긴 반면, 남학생은 ‘학습하지 않음’ 비율(8.0%)이 더 높고 5시간 이상 장시간 학습 비율도 높아 자율학습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음. 학교급별로는 초·중학생은 1~2시간 미만, 고등학생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아 학년 상승과 함께 학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교과별로는 국어·수학·영어 중심의 학습이 뚜렷하고, 과학과 사회는 ‘학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학생들의 학습 흥미 및 중요도 인식의 편차가 존재함이 드러났음. 이러한 결과는 자율학습이 입시 중심 핵심 교과에 집중되는 경향과 더불어, 일부 학생은 학습에서 이탈하는 이중의 문제를 시사함.
-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수학·영어 중심의 학습 편중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 및 발달 특성에 기반한 선택적 학습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계획·시간관리 지도, 학교급 특성을 반영한 학습 습관 형성 프로그램, 과학·사회 등 비중이 낮은 교과의 학습동기 제고를 위한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확대가 요구됨. 또한 장시간 학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서 지원과 학습 부담 조절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균형 잡힌 학습경험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대전 **학생의 사교육 참여**는 교과와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초등학생은 국어·영어·예체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학습·흥미 중심으로 참여했으나, 중학생은 수학 중심, 고등학생은 수학·영어·과학 집중 경향이 나타났음. 특히 사교육 비용은 초등에서 영어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과학 사교육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과 난이도와 입시 구조가 사교육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 또한 학생은 사교육을 선행학습으로, 학부모는 보충학습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나타나 사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도 학교급 및 역할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줌.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사교육이 학습 보완보다 경쟁 대비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에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수준별 맞춤 지도와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교육 의존 없이도 학생의 학습 격차와 진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수학·영어 중심의 사교육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진로 및 적성 기반의 선택형 학습과 체험 활동 지원, 예체능 활동 지속을 위한 학교-지역 연계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 투자 판단을 줄일 수 있는 정확한 학습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이 요구됨. 이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다. 학생 역량

- 대전 **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 인식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음. 초·중 및 중학교 단계에서는 국어·영어에서 여학생이, 수학·과학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성취도 인식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음. 사회 교과는 초등에서는 남학생,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인식이 높았으며, 이러한 교과별 성취도 인식 성별 우위 구도가 학교급 상승과 함께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과학뿐 아니라 국어·영어에서도 남학생 성취도 인식이 여학생을 상회하였으며, 사회 교과에서만 여학생의 높은 인식이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에서의 문·이과 계열화와 입시 경쟁 심화가 성별 성취 격차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인식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A~E의 최근 성적을 기재하도록 하여 일정 수준의 현실성을 확보하였음. 분석 결과, 여학생은 언어 교과에서, 남학생은 수리·탐구 교과에서 높은 학업성취도 인식을 인식하는 경향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경향은 수학·과학 성취도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TIMSS 2019)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주요 15개 참여국의 초4와 중2 성취도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남학생의 성취가 더 높은 국가군에 속하였음(예: 초4 수학 남학생 상위 국가 27개, 중2 수학 남학생 상위 국가

6개)(김경희 외, 2020).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인식 성별 차이가 단순한 점수 격차를 넘어, 성 역할 기대와 교육 경험이 상호작용한 구조적 현상임을 시사함.

- 따라서 성별에 따른 학습 자신감 및 성취 기대의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성 중립적 교수 전략을 도입하여 언어·수리·탐구 역량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필요가 있음. 더불어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여학생의 수학·과학 학습 동기와 효능감을 유지하기 위한 진로 연계형 수업, 문제해결 중심 탐구활동, 여성 롤모델 기반 멘토링 등의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 이러한 접근은 성별에 따른 성취 격차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학습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임.
- 대전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생에서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되었음. 이는 초등학교에서 놀이·탐구 중심 학습을 통해 자율적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받다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경쟁 중심 수업과 성적 압박이 내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해석됨.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자율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오히려 자기주도성이 저하되어, 입시 체제가 학습자 주도성을 억누르는 문제를 드러냄. 따라서 초·중·고 연계적 자기조절 학습 훈련과 성찰 기반 학습지원(학습일지, 멘토링 등)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자율성을 함께 기르는 전인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임.
- 대전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고 중·고등학생은 낮음. 이는 의사소통 기회와도 연계될 것이며, 또래 상호작용과 협력 중심 활동이 풍부한 초등학교 보다 상대적으로 강의식 수업 및 문제풀이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 간 대화와 협력의 기회가 또한 감소하는 것을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특히 남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저하는 참여 기회 부족과 학급문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전 학년에 걸쳐 토의·토론 수업, 역할극,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상호작용 중심 수업문화를 확대하고, 남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경험을 제공하는 남학생 맞춤형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전 **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V자형 양상이 확인되었음. 중학교 시기 공동체 의식의 저하는 사춘기 특성 및 경쟁적 학교 환경 속에서 자기중심성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는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공동체 의식이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 지속적인 관계교육과 사회참여 경험이 뒷받

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운영과 연계하여 ‘공동체성 회복의 결정적 시기’로 설정하고, 학급자치·봉사활동·회복적 생활교육 등 참여 기반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력 프로젝트 및 실천적 활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전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생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았음. 이는 초등 시기에는 진로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는 반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진로 탐색 의지가 약화되는 결과로 해석됨. 특히 여학생의 낮은 진로성숙도는 사회적 기대와 진로 정보 접근성 부족, 여성 롤모델 부재 등의 구조적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폭넓고 체험 기반의 직업탐색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기이해 기반의 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해야 함. 더불어 여학생 대상 여성 전문가 멘토링, 진학·경력 설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대전 **학생의 디지털 활용 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체되는 양상이 확인됨. 이는 디지털 기초 기능 중심의 교육이 상급학교에서 AI·데이터 기반 역량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역량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의 괴리를 보여줌. 따라서 단순한 기기 활용 수준을 넘어 AI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역량, 디지털 시민성 등 고차원적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대전 **학생의 생태환경 역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이었음. 중학교의 낮은 수준은 환경 교육이 지식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생 참여가 부족한 결과로 해석됨. 향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필수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생태환경 역량은 선택적 가치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DGs)의 핵심임. 따라서 학교급별로 체험 기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환경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한편 남학생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별 맞춤형 환경교육 전략이 더욱 요구됨.

라. 학생 특성

- 대전 **학생의 관계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성별 및 학교급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

났음. 친구·교사 관계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던 반면, 학부모와의 관계 인식은 남학생이 더 긍정적이었음. 특히 의사소통·공동체 의식이 높은 여학생의 학부모 관계 인식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난 점은, 사춘기 시기 정서적 민감성 증가와 갈등 빈도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후속 연구가 요구됨.

- 학교급별로는 친구와의 관계 인식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나타나, 중학교 시기의 또래 관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춘기 발달 특성과 또래 갈등 증가로 인한 일시적 저하로 해석할 수 있음. 반면 고등학생은 사회적 자아가 성숙하면서 친구 관계 인식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향을 보임. 교사와의 관계 인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사-학생 관계가 정서적 지지보다 학습지도 중심으로 전환되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정서적 돌봄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상담시간 확대 및 사례동행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개별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와의 관계 인식은 남학생과 초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에서는 자율성 욕구 증가와 또래 중심성이 강화되면서 심리적 거리가 커지는 특성을 보임. 반면 학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모-자녀 간 관계 평가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중학교 시기는 갈등이 증가하고 정서적 소통이 어려워지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학부모 대상 관계 이해 교육과 가족 공감 프로그램 등 가정 내 소통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전 **학생의 행복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뚜렷하게 감소하는 하락 곡선을 보였음. 이는 입시 경쟁 심화, 진로 불안, 또래 관계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결과로 해석됨. 특히 여학생의 행복감이 현저히 낮은 것은 외모 기준에 대한 사회적 압력, 정서적 민감성, 집단 내 비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면 부족, 낮은 운동 참여, 불규칙한 아침식사 등의 생활습관을 보임. 학생의 행복감에 학교만족도, 보호자와의 관계, 진로성숙도, 충분한 수면 등이 유의한 정적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 결과(이지혜, 2024)를 반영하여, 학생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핵심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학생의 생활건강 지원, 학부모와의 관계 개선 지원 등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전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임. 이는 외모 중심의 사회문화, 또래 비교 심화, 신체 변화에 따른 불안 등 발달 단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특히 여학생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외모 관련 정서적 민감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자기개념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의 필요성을 시사함.
- 대전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나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고등학교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급격한 학습환경 변화와 상대적 학업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심리적 압박이 누적되고, 이것이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학생의 자기수용을 촉진하고 강점 기반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 개선과 스트레스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됨.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 학업 대응 지원, 입시 스트레스 완화 전략 등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마. AI·과학도시 대전교육

- 대전 **학생의 대덕특구 연구소 견학, 과학축제 참여, 실험 중심의 과학수업, AI·코딩 교육** 등 다양한 대전 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에서 ‘경험 없음’ 응답이 많았고, 참여 경험은 초등학교 남학생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이 드러남. 이는 학교 간 과학교육 접근성의 불균형,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따른 체험·탐구 활동 감소, 여학생 참여 저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 결과로 해석됨. 특히 여학생의 낮은 참여율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잠재적 과학 인재의 유입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여학생을 위한 맞춤형 과학·AI 체험 프로그램, 여성 과학자 멘토링, 성별 편향을 해소하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
- 대전 **학생의 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 인식과 과학도시 자부심**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이는 중·고등학생과 차이가 컸음. 초등학교 시기 과학은 놀이·탐구 기반으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업 부담과 입시 중심의 수업으로 인해 흥미와 자발성이 약화되고 진로 탐색과의 연계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이에 과학기술 중심 도시인 대전의 지역 특성과 대덕특구 기반의 풍부한 연구 자원을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학교 안팎에서 탐구·진로

연계 과학교육 생태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학생들이 과학을 지식 습득 과목이 아니라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활동으로 경험하도록 지원해야 함. 이를 통해 대전 학생들이 과학기술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과학교육 정책을 강화해야 함.

바. 교육경험

- 대전 **학생의 영재교육 참여**는 전반적으로 과학·수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별과 학교급별 참여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초등학생은 주로 학교 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반면, 중·고등학생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참여 비율이 높았음. 여학생의 학교 내 영재교육 참여율은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남학생이 영재교육이 재능 개발 및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과학 중심 구조 속에서 ‘정보 분야’ 참여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영재교육의 재능개발 기여도와 진로선택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낮았음. 이는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영재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탐구 중심 학습과 진로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고등 단계에서는 입시 중심 환경으로 인해 영재교육 본연의 목적과 경험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영재교육은 과학·수학 중심의 선발 및 프로그램 구조에 치우쳐 있어, 인문·예술·융합 분야에 내재된 다양한 영재성 발굴 노력이 요구됨. 이에 영재교육은 다영역 기반의 융합형 영재교육 체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흥미·탐색 중심 창의교육을 통해 잠재적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대학·연구기관·지역사회 연계 심화 프로젝트를 강화하여 실질적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인문·예술·AI·과학기술이 통합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기관 및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를 연결한 개방형 영재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영재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함.

사. 진로·진학 계획

- 대전 **중학생의 진로계획**은 남·여학생 모두 일반고/자공고(남 62.4%, 여68.9%)의 진학계획이 가장 많았고, 남학생의 경우 자사고(10.1%)와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9.0%)의 순이며, 여학생은 예술고/체육고(10.6%),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8.1%)의 순이었음. 마이스터고의 경우 남학생

의 진학계획율이 훨씬 높았음.

- 대전 **고등학생의 대학 희망 전공계열**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음. 남학생은 공학계열(38.3%)을 압도적으로 선호하였으며, 예체능계열(14.1%), 사회계열(11.4%), 인문계열(11.1%) 순으로 나타남. 반면 여학생은 예체능계열(20.1%)이 가장 높았고, 사회계열(15.5%)과 공학계열(15.0%)이 뒤를 이어, 남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은 남학생이 8.2%로 여학생 3.0%보다 높았음.
- 과거에 비해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인기가 특히 높아진 반면, 교육계열은 전공 희망 비율이 가장 낮아 감소 추세를 보였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진학 선호가 전통적 전공 수요에서 산업 변화 및 문화 흐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대학입시 정책과 취업 연계 지원에도 이러한 경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성별에 따른 진로 분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맞춤형 진로 상담과 계열 간 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대전 **중고등학생의 교육포부**는 모든 집단에서 대학교 졸업을 목표로 하는 비율(59.8%)이 가장 높고, 모르겠음(15.4%), 그리고 대학원 석사 졸업(7.6%)과 대학원 박사 졸업(7.6%)의 순임. 성별의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모르겠음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아 불확실성이 높고, 대학원 박사 졸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아 남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진로 편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대전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 또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기대하는 학력 수준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학생의 교육 포부와 학부모의 교육 기대 수준을 비교하면 성별 및 학교급별 경향은 유사하나, 학부모가 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력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진로·진학과 관련한 정보 격차와 기대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정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실제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시사함.

2. 교육공동체 학교인식

가. 학교만족도(집단 공통문항)

- 대전 교육공동체의 학교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이나, 성별·학교급·경력별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낮아져 학업 부담 증가, 입시 경쟁 심화, 또래 관계와 진로 불안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한편 초등학생 학부모가 만족도가 높고,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학교만족도가 낮아지는 학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교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이었으나 중간 경력대(10년 이상 ~ 25년 미만)에서 만족도가 낮아, 직무 피로 누적과 역할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학교장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초등학교 학교장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시사함. 행정실 직원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급별 근무환경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집단별 학교만족도 평균을 비교하면 학교장(M=4.30), 학부모(M=3.82), 행정실 직원(M=3.73), 학생(M=3.66)과 교사(M=3.66)의 순임. 이러한 결과는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성취감이 높은 학교장은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반면, 학생과 교사는 학교 현장의 직접적인 업무·학업 부담과 대면 관계 스트레스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또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자녀의 실제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생과의 인식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대전교육은 각 집단별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정서적 지원 강화, 업무 경감, 소통 체계 개선 등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중·고등학생의 만족도 하락과 중경력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증가는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확인됨. 따라서 초등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단계에 집중된 정서·진로·관계 지원, 고등학교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 여학생 대상 스트레스 관리 지원 강화 등 학교급·성별 특성을 고려한 개입 전략이 필요함. 또한 교사 중간 경력대의 번아웃 예방과 초등학교 학교장 및 직원의 업무 경감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학교 조직 내 협업 문화 개선과 소통 체계 강화를 통해 교육공동체 전체의 긍정적 경험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나. 학교시설 인식

- 대전 **교육공동체의 휴식공간 인식**은 학교장(M=3.61), 학생(M=3.44), 학부모(M=3.12), 행정실 직원(M=2.99), 교사(M=2.90)의 순으로 교사와 행정실 직원 집단에서 학교 휴식공간에 대해 가장 낮게 체감하고 있었음. 학생의 경우 평균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나, 초등학교(M=3.77)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M=3.23), 중학교(M=3.15)의 순으로 집단 간 차이가 큼. 교사는 중학교 교사(M=2.70) 집단에서, 그리고 행정실 직원은 초등 행정실 직원(M=2.60)이 가장 낮은 인식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학교급에서 중학교가 학교 휴식공간 인식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음. 그러므로 학교 환경개선의 우선순위로 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 전용 휴게 공간 신설 및 개선, 그리고 여교사와 여직원 대상 안전프라이버시 보장 전용 구역 확보가 필요함.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쉼터공간 조성 마련 정책이 필요함.
- 대전 **교육공동체의 디지털 수업 환경 인식**은 전 집단에서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임. 긍정 인식은 학교장(M=3.94), 교사(M=3.71), 학생(M=3.70), 행정직원(M=3.68), 학부모(M=3.59)의 순으로 학교에 디지털 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학생은 초등학생(M=4.06), 중학생(M=3.45), 고등학생(M=3.37) 순으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긍정적임. 교사 역시 초등학교 교사(M=3.83), 고등학교 교사(M=3.70), 중학교 교사(M=3.61) 순으로 중학교가 긍정 인식이 낮음. 학부모는 고등학생 학부모(M=3.76), 초등학생 학부모(M=3.60), 중학생 학부모(M=3.53) 순이며, 학교장은 중학교장(M=4.00), 고등학교장(M=3.93), 초등학교장(M=3.91) 순으로 집단마다 인식 순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디지털 수업을 직접 경험하는 학생과 교사 집단에서 초등학교 긍정 인식이 높았고, 관리자인 학교장의 경우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은 집단 간 막연한 기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각 학교급에 맞는 디지털 수업 환경은 무엇인지 정확히 조사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대전 **교육공동체의 청결한 학교 환경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임. 학교장(M=4.00), 행정실 직원(M=3.94), 교사(M=3.90), 학부모(M=3.80), 학생(M=3.54)의 순으로 학생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임. 운영 주체 집단(학교장, 행정실 직원, 교사)과 학생-학부모 사이 현장 체감 및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성별로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이며, 학교급에서는 중학교(중학생, 중학교 학부모, 중학교 여교사 및 행정실 여직원 등)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음. 청결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 나아가 정서적 안정과 회복에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 특히 ‘청결한 학교 환경’은 교실, 교무실, 화장실, 급식실, 복도 및 실외공간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의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단일 지표만으로는 취약 영역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

음. 따라서 집단별 생활 동선과 이용 공간을 기반으로, 어떤 장소에서 청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세부 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함.

다. 학교안전 인식

- 대전 **교육공동체의 시설 안전 인식**은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학교장(M=4.39)과 교사(M=3.97)의 평가는 높아 관리의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로 나타남. 그러나 학생(M=3.83)과 학부모(M=3.78)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성별로는 대부분 남성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학교급별로는 학생·교사 집단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학년 중심의 보호체계가 더 견고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M=3.78)의 시설 안전 인식이 가장 낮았음. 따라서 노후시설 개선 및 정보를 개방하는 투명한 시설 관리 체계가 필요함.
- 대전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은 학교장(M=4.26)이 가장 높고, 학생(M=3.65), 학부모(M=3.62), 교사(M=3.61)는 비슷하게 낮게 평가하였음. 또한 성별에 따라 남학생과 남교사가 여학생과 여교사보다 더 안전하게 느끼는 차이가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장의 체감과 관리자의 인식 간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주므로, 학교폭력 대응체계 점검 시 체감지표 반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학교급별로는 학생 기준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위험 체감이 증가하였음. 특히 중학교 여학생(M=3.39), 중학교 교사(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M=3.35), 중학교 학부모(M=3.58)가 가장 낮아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정책이 필요함.
- 대전 **교육공동체의 외부침입 안전 인식**은 학교장(M=4.04)과 학생(M=3.95)의 경우 비교적 높게 인식한 반면, 교사(M=3.61), 학부모(M=3.68), 행정실 직원(M=3.66)은 낮게 평가하였음. 특히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교문 개방형 운영이 많은 고등학교의 취약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출입통제 기술 도입(지문·QR), 사각지대 CCTV 보강, 야간 자율학습 시간 보안 강화가 필요함.
- 대전 **교육공동체의 하굣길 교통 안전 인식**은 학생(M=3.77), 학교장(M=3.75), 학부모(M=3.53), 행정실 직원(M=3.47), 교사(M=3.45)의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 체감이 낮아지는 공통 경향이 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에게서 확인되었음(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이는 도심 이동 경로 다양화, 야간 귀가,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연관되므로, 교육청-지자체 협력

기반의 생활권형 교통안전 정책(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 등)이 필요함.

- 대전 **교육공동체의 학교 주변 안전 인식**은 학교안전 인식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학교장 M=3.42, 교사 M=2.93, 학부모 M=2.66, 행정실 직원 M=2.64, 학생 M=2.51). 특히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인식이 가장 높고(M=3.48), 반대로 초등학생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M=2.39) 관리자와 학생 간 인식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였음. 이는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이용자(학생)과 관리자(학교장)의 체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결과임.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학생의 위험 체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청소년기의 유해환경 노출 확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영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범지대 정비, CCTV 및 보안등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강화 등 교육청-지자체-경찰이 연계된 협업 체제 구축이 시급함.

라. 학교문화 인식

- 대전 **학생의 학교문화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초등학생은 교사-학생 간 소통, 학생회 운영, 학급 협력과 질서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중학생 시기에 급격히 낮아지고 고등학생에서 다소 회복되는 V자형 변화를 나타냈음. 이는 사춘기 발달 단계에서 자율성과 또래 중심 관계가 강화되며 교사나 규범에 대한 인식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으로 해석됨.
- 대전 **학생의 수업과 평가 인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음. 초등학생은 토의·토론, 모둠활동, 교사의 피드백, 평가 다양성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긍정적이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음. 중·고등학교는 입시 중심 수업과 지필평가 위주의 환경으로 인해 학생 주도적 학습과 협력적 학습 경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가 또한 학습 성장보다는 성적 산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학습을 위한 평가'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의 확대를 통해 학습의 의미와 참여 동기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대전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 교육 인식**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학생은 교사의 지식·수업 전문성, 피드백, 도구 활용 등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교사의 수업 다양성과 개별 피드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학교교육

전반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 가장 긍정적이며, 중·고등학교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는데, 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 중심의 환경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중심성 체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대전 **학부모의 경우 자녀 교사에 대한 인식**의 4가지 항목(교사·학생 소통, 교사 수업열의, 교사 학생이해, 교사 상담지도)에서 초등학교 학부모가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고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의 순으로 중학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의 인식과 다소 다른 결과임. 이는 사춘기 자녀의 변화와 교사-학부모 간 소통 기회 감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서로 다른 교육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대전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진로교육 인식**은 전반적으로 모두 초등학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음.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과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만족도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 한편 진로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순으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가장 낮아, 자유학년제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가 오히려 만족도를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음.
- 대전 학부모의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는 남성(아버지)이 여성(어머니)보다 높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의 순임. 한편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에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고,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의 순이었음. 중학교에서 학생과 달리 학부모의 교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학생과 다른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정확한 현상과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함.

3. 교직원의 직무 인식

- 대전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하면,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낮게 나타남. 이는 초등학교의 자율적 수업 환경과 협력적 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중·고등학교는 평가·기록 등 행정 부담이 높기 때문임. 학교장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중학교가 중간,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고등학교의 자율적 운영과 명확한 목표 설정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됨. 행정실 직원 역시 고등학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초등학교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인력 규모와 업무 분담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초등학교는 교사 중심 만족도가, 고등학교는 관리직(학교장·행정실 직원) 중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학교급별 조직 구조와 역할 특성에 따른 차이로, 각 급의 직군별 만족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환경 개선이 필요함.
- 대전 **교사의 효능감**은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초등의 경우 학급 단위 자율성이 높고, 교과 통합 수업 설계와 학생 이해 중심의 교수 환경이 용이한 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경쟁 중심 환경 속에서 교수활동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이는 학교급별 수업 구조와 역할 차이가 교사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대전 **학교장의 직무역량** 인식과 직무만족도는 모두 학교급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즉, 고등학교장은 조직적 자율성과 명확한 목표 구조 속에서 높은 역량 인식과 직무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초등학교장은 복합적 행정·돌봄·생활지도 부담으로 인해 두 지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음.
- 대전 **교직원 전문성 개발**의 경우 교사와 행정실 직원 모두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회 접근성’과 ‘시간적 여건’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 교사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함. 행정·수업 외 업무로 인해 전문성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그 경향이 두드러짐. 행정실 직원은 전문성 개발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인식하지만, 학교급·경력별로 불균등한 기회 제공을 지적함. 요약하면, 교사는 시간 부족으로 인한 참여 제약, 행정실 직원은 기회 불균형으로 인한 성장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두 집단 모두 경력단계별 맞춤형 연수 체계와 실질적 참여 여건 개선이 필요함.

4. 학부모·지역사회의 역할과 교육 참여

- 대전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의 정보와 소통**(학교 일정정보 제공, 학교생활 정보 제공, 학교 소통 가능성, 학부모 교육 제공, 학부모 참여기회 제공)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M=3.67\sim4.13$)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교 일정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아, 모든 집단에서 평균 4.04 이상을 보였으며, 초등학생 학부모는 교사와의 소통 가능성을 평균 4.1로 높게 평가하였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나타나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초등학교는 돌봄·생활지원 중심 소통, 고등학교는 입시·진학 관련 소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중학교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통 방식이 단순하거나 획일화되어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 채널 다변화, 맞춤형 안내 확대, 학부모 참여 연계 강화를 통해 소통 구조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 대전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비대면 상담(1회 이상 59.5%)과 공개수업 참관(1회 이상 45.7%)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반면, 학부모 연수(없음 89.5%)와 학교 봉사활동(없음 86.7%)은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대면 상담 참여(1회 이상 43.9%)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는 비대면 상담 참여(초 66.1%, 중 53.4%) 비율이 더 높았음. 특히 공개수업 참관은 초등학교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참여 기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 환경과 학습 과정에 대해 직접 이해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도 공개수업 확대 및 참여 친화적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학교-가정 간 교육적 연대 강화가 필요함. 또한 학부모가 상담 및 공개수업 참여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 봉사활동과 학부모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동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참여 동기 부여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대전 **교사 학부모·지역사회 협력 경험**은(학부모 상담, 학부모 공개수업, 지역사회 연계) 활동 유형과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교사들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부모 상담을 매우 높은 수준(1회 이상 86.2%)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나, 이는 학부모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며 학교-가정 간 소통 인식의 괴리를 시사함. 또한 5년 이상~25년 미만의 중경력 교사들의 상담 경험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상담 빈도가 높아 학부모 인식과 마찬가지로 학교급 간 차이가 존재했음. 한편 학부모 공개수업 및 피드백 경험은 초

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도 절반 이상이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학부모 참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응답 격차가 나타나 이는 학부모 참여율의 영향으로 해석됨. 반면, 지역사회 연계 경험은 ‘없음’ 응답이 가장 높아(40.4%), 세 영역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참여 부족이 두드러져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사회참여 학습 기회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 대전 **교사와 학교장의 학부모·지역사회 인식**(학부모 역할 인식, 학부모 참여 인식, 지역사회 교육소재 인식, 지역사회 협력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을 보였음. 학교장은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M=4.21\sim4.68$)의 인식을 나타낸 반면, 교사는 중간 이상 수준($M=3.09\sim3.99$)으로 학교장에 비해 다소 낮게 인식하였음. 특히 학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여 학부모의 교육적 동반자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학부모 참여 인식에서는 교사 집단이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교사의 인식 수준이 가장 낮았음. 또한 남교사보다 여교사,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교사에서 낮은 인식이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교권보호 이슈와 학부모 민원 부담이 교사의 참여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됨. 한편 지역사회 교육소재 활용과 지역사회 협력 인식은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나타나,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연계 교육 실천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해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안전한 소통 체계 구축, 지역사회 연계 자원의 확충 및 운영 체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교육과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학부모 참여는 단순 정보 전달 → 공동 의사결정 참여로 전환하는 정책 발전 방향이 요구됨.

5. 교육공동체의 정신건강(웰빙)

- 대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행정실 직원의 정신건강(웰빙) 실태를 종합**하면, 5개 집단 가운데 대전 학생과 교사 집단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고등학생·초등교사·중경력 교사가 가장 취약 집단으로 확인됨. 평상시 스트레스 경험은 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학교급별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음. 교사의 경우에도 초등교사가 중·고등교사보다 스트레스가 높으며, 경력 10~15년 및 20~25년 중경력 교사에게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반면 학교장과 행정실 직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대전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복감은 남학생과 초등학생에서 높고, 여학생과 고등학생에서 낮게 나타난 반면, 우울감, 자살생각, 학업스트레스는 여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임. 특히 학업스트레스는 고등학교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2024년 중단연구)와 일관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에 학업 부담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중학교 시기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심층 조사와 조기 개입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대전 **교사 평상시 스트레스** 결과에서는 특히 초등교사의 취약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생활지도 부담, 학부모 민원 대응, 교실에서의 대면 돌봄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또한 중경력 교사(10~25년)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점은, 직무 피로 누적과 리더십·업무 확대에 인한 역할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적 요인을 반영함. 주목할 점은, 저경력 교사(5년 이하)의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대전 지역 특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교권보호 정책 및 신규교사 지원제도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대전 **학부모의 평상시 스트레스**는 여성 학부모(어머니)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학부모와 고등학생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학습과 생활 전반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집중되는 반면, 고등학생 학부모는 대학입시와 진로 불안이 주요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한편 자살생각과 우울감은 고등학생 학부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입시 부담과 더불어 학부모 본인의 중년기 생애주기 특성(경제 부담, 건강 및 가족관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자녀 지원과 함께 학부모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녀 이해 교육, 가정 내 소통 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장과 행정실 직원의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초등학교에서 행정업무 과중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특히 학교장은 고등학교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보고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학교급별 조직 문화 및 권한 구조에 따른 체감 차이로 해석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신건강 취약 지점은 학생과 교사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발달 과업 변화가 큰 여학생과 고등학생, 직무 부담이 큰 초등교사와 중경력 교사를 중심으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나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 지원, 학업경감 정책, 교사 업무 재구조화, 심리 지원 전문 인력 확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대전교육공동체 전체의 정신건강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6. 위기학생·교권보호

- 대전 담임교사 응답으로 파악한 **학급 내 위기학생 수(학습부진, 정서·행동 어려움)학습부진 학생** 수는 2명(23.6%), 5명 이상(23.4%), 3명(19.1%) 순임. 단순 비교를 위해 5명 이상으로 응답한 사례를 '5명'으로 가정하여 평균을 산출했을 경우, 한 학급 내 학습부진 학생 수는 평균 2.76명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3.23명), 고등학교(2.75명) 초등학교(2.31명) 순으로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수는 2명(24.4%), 1명 (22.7%), 없음(15.2%)의 순으로 많았고, 평균 2.21명으로 학습부진 학생보다 다소 적었으나, 역시 중학교(2.70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학습격차와 정서·행동 문제가 중학교 시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표출됨을 시사함.
- 교사들은 학습부진 및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평균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가정과의 연계지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학습부진에 대한 정책지원 인식은 고등학교에서, 가정지원 인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정서·행동 지원 인식은 중학교가 비교적 높았음. 이는 학교 밖 지원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며, 교사 개인의 경험에 따라 인식 편차가 존재함을 의미함. 따라서 중학교 중심의 집중 지원 강화와 함께 초등 단계 조기개입, 고등학교의 진로 연계 지원 확대가 요구되며,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사에게 실질적 지원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대전 교사의 2026년 기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은 남교사 23%, 여교사 34%로 전체 약 30% 수준이며, 특히 여교사가 교권침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았고, 15년 이상~30년 미만 중경력 교사에서 경험 비율이 두드러졌음. 교권침해 주체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침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30.6%), 명예훼손·모욕(20.0%), 수업(업무) 방해(17.0%), 반복적 부당 간섭(16.8%) 등의 순임. 특히 초등학교는 동일 대상으로부터 교권침해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현장 대응 체계를 정교화하고, 교권보호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또한 여교사·초등교사 등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보호 체계 구축이 요구됨.

제2절 제언

1. 학생 성장 지원

가. 생활리듬을 통합 관리를 위한 학생 가정생활 회복 모델 제시

-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 그리고 여학생에게 특히 취약한 아침결식, 수면부족, 운동저하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침급식+수면건강+신체활동'을 3축으로 하는 가정생활 기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평일 짧은 여가·주말 디지털 과다 사용을 고려하여 활동형 여가(마을스포츠, 도보여행, 동아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중·고등학생의 독서 이행 단절을 줄이는 '온책읽기'와 같은 실효성 있는 독서 연계 정책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나. 자율학습 양극화 완화와 사교육 의존 감소 정책

- 학생의 학습 격차와 교과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담임 및 진로전담 교사가 참여하는 학습습관 코칭과 학년별 기초·보충 지도를 체계화하고, 희망 학생에 대한 맞춤형 튜터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교육 목적에 대한 학생·학부모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학습 현황을 객관적으로 안내하고 공교육 내 학습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사교육 의존 부담을 낮추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양질의 예체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체능분야 사교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다. 균형잡힌 학생역량 발달 지원 체계 마련

- 초등부터 성중립적인 교수전략 활용으로 언어·수리·탐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고, 중·고에서는 여학생 대상 STEM 멘토링·프로젝트와 남학생 대상 의사소통 경험 확장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과정중심 평가, 성찰일지, 멘토링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조절 역량을 기르고, AI리터러시, 데이터분석 능력, 디지털 시민성 등을 포함하여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디지털 역량이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제 계획 수립이 필요함.

라. 관계·정서 전환기 집중지원, 가정소통 강화

- 중학교의 또래관계와 교사관계 인식 저하, 여학생의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중학교를 중심으로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상담시수 확대, 회복적 생활교육을 포함한 '전

환기 집중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학부모 대상 관계이해 교육과 가족공감 프로그램을 확하는 정책이 필요함.

마. 대전 '학교 밖 과학·AI 협력 체계' 구축해야 함.

- 대덕특구·연구기관과 연계한 학교 밖 과학·AI 체험 바우처와 이동형 랩·마이크로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학생 맞춤 트랙(여성과학자 멘토링, 팀기반 문제해결)을 운영하며, 교과 연계 탐구·진로 통합 모듈을 학년군별 표준화하여 과학도시 정체성을 학생의 실제 학습 경험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바. 다영역 영재 개발 및 지역 영재교육 네트워크 구축

- 인문·예술·AI·과학기술을 통합한 선발 및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학교급별로 초등은 탐색·잠재력 발굴, 중·고는 대학·연구소·기업과 연계한 심화 프로젝트 중심으로 단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와 고등교육기관을 연결한 개방형 영재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능 개발과 진로 연계 효과를 함께 높여야 함.

사. 편향을 완화하고 역량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진로·진학 체계 구축

-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역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학·취업 정보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 제공을 강화하고, 계열 간 이동이 가능한 모듈형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함. 또한 직업세계 탐색, 현장연계 경험, 가족 동반 진로상담 등을 정례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차이를 줄이고 과도한 입시 편향에서 벗어난 합리적 진로결정을 지원해야 함.

2. 교육공동체의 학교 인식 개선

가. 학교 시설 및 안전 인식 개선

- 대전 교육공동체의 학교시설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중학교 학생, 교사와 행정실 직원 인식이 낮았음. 특히 휴식공간 부족, 청결 환경 취약, 디지털 수업 환경 격차가 확인되었음. 또한 학생·학부모와 학교장 간 시설안전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여, 소통 기반의 시설 관리가 요구되었음. 이에 중학교 우선 환경개선, 전용 휴게공간 확충,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시설 안전 정보 공개 확대가 요구되었음. 학교안전 인식 중학교의 학교 주변 안전 인식이 가장 낮았고, 특히 중학생과 초등학생에게 등하굣길 교통안전 인식과 학교폭력 안전 체감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음. 중학생, 특히 여학생의 학교폭력 안전 인식이 매우 낮았음. 초등학생의 경우 2024년 종단연구 결과에 비해 다소 학교폭력 안전 인식이 낮아진 결과임. 이에 생활권 안전망 구축, 학교 주변 위험지역 정비, 스마트 보안 강화, 학교폭력 체감 기반 예방정책 확대 등을 통해 안전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음.

나. 학교문화와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인식 격차 해소

- 학교문화와 수업·평가 인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긍정적이며, 고등학교, 중학교의 순으로 낮은 V자형 형태가 나타났음. 이는 초등학교의 비교적 낮은 입시 부담과 고등학교의 명확한 목표 구조에 비해, 중학교가 학업·관계·정체성 측면에서 변화가 집중되는 과도기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사춘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관계·문화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방과후학교·동아리·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생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부모가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임. 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 경험의 다양성과 체감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를 시사함. 따라서 중학교 중심의 진로탐색 지원, 학교급별 맞춤형 방과후·동아리 프로그램 확대, 학생·학부모 간 교육정보 공유 체계 개선을 통해 교육경험의 질을 높이고 인식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교직원의 직무 인식 개선

가. 교직원 직무만족도 및 교사효능감 제고 방안

- 대전 초등교사는 교사효능감은 가장 높지만 직무만족도는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음. 이는 학생 이해 및 수업역량 등 교육 본연의 역할은 높은 성취감을 느끼지만, 행정, 돌봄, 학부모 응대 부담등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역할 과부하 스트레스로 해석됨. 반면 중·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자율성과 학생 관계성이 감소함에 따라 효능감은 낮지만, 운영 구조의 안정성과 업무 분장 체계로 인해 만족도가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초등교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대응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 전문성이 학교 운영 중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 배분이 필요함.

나. 전문성 개발 실효성 제고 및 교직원 지원 체계 강화

- 대전 교직원은 전문성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교사는 시간 부족, 행정실 직원은 기회 불균

형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하였음. 이에 직군 및 학교급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신규 교사·직원에게는 적응 및 실무 역량 강화 중심, 중경력 교사에게는 전문성 심화와 번아웃 예방 중심, 고경력자에게는 멘토링과 관리역량 중심으로 설계하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됨. 이를 통해 교직원의 직무만족 → 교육의 질 향상 → 학생 성장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학부모·지역사회 역할과 참여 인식 개선

가. 중학교 중심의 학부모 소통 및 참여 활성화

- 대전 학부모의 소통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체감도가 확인되었음. 또한 학부모 참여는 상담·공개수업에 편중되고, 연수·봉사활동 참여는 매우 저조하여 학교와의 공동 책임 인식이 낮음이 확인됨. 이에 중학교 단계에서 소통 체계(앱, 알림톡, 설명회 등) 다변화, 참여 친화적 공개수업 확대, 학부모 연수·봉사활동의 동기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더불어 교사의 상담 노력 대비 학부모의 인식이 낮은 괴리가 존재하므로, 상담 기록 공유·투명한 소통 절차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단순 정보 수령자에서 공동 의사결정자로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나. 지역사회 연계 기반 교육협력 체계 구축

- 교사들의 지역사회 연계 경험은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부족함이 두드러짐. 이는 자유학년제 운영, 진로탐색 활성화 정책과 현장의 연계 역량 간 차이가 드러난 결과임. 따라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로·탐구·봉사 영역에서 학교-지자체-기업-대학 간 공동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사 업무 부담을 고려한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지역교육자원 데이터베이스 제공, 안전한 운영 매뉴얼 제도와 등을 통해 학교 밖 학습 생태계를 확장해야 함.

5. 정신건강 취약 집단 집중 지원체계 구축

가. 학생 정신건강 취약집단 집중 지원

- 대전 학생 정신건강 실태는 여학생과 고등학생에서 특히 취약하였으며, 우울감·자살생각·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에 학업 부담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

하는 특성도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학교급별 차별화 지원이 필요함. 중학교 단계에서는 적응 지원 및 기초 정서회복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되며, 고등학교에서는 학업경감 정책과 진로 불안을 완화할 심리·정서 기반 진학상담 지원이 중요함. 특히 여학생을 목표로 한 정서 돌봄 강화, 관계·스트레스 대처 교육, 안전한 또래문화 조성을 중심으로 심리 위기 예방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함.

나. 교사 스트레스 완화 및 회복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 교사 집단의 정신건강은 초등교사 및 10~25년 중경력 교사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타났으며, 생활지도 부담 및 학부모 민원 대응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신규교사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지원체계가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중경력 교사 대상 직무경감 정책, 감정노동 대응 프로그램, 회복적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초등학교에서 높은 스트레스 체감도를 고려해 행정업무 감축, 보조인력 확충, 생활지도 지원체계 정착이 필요함. 더불어 교육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조기 발견-개입-회복 연계형 학교 기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웰빙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전환해야 함.

6. 위기학생 지원과 교권보호

가. 학습·정서 위기학생 대상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 학습부진 및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은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정책지원은 평균 이상으로 인식되었으나 가정연계 지원은 낮게 평가되어, 학교 밖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함. 이에 초등 조기개입 강화, 중학교 집중 지원, 고등학교 진로·학업 연계 지원의 학교급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정서·학습 전문가 확충,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 연계, 위기신호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나. 교권보호 취약집단 맞춤형 보호체계 확립

- 대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경험은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교사와 초등교사, 15년 이상 ~30년 미만 중경력 교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교권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모욕, 수업 방해 등으로 나타나 학습권과 교권이 동시에 훼손되는 문제가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민원 부담 증가, 생활지도 갈등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추정됨. 따라서 여교사·초등교사 대상 보호 강화, 감정노동 및 법률지원 체계 확립, 신속한 대응 매뉴얼 실천력 향상,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운영, 교권보호법 시행효과 모니터링 등으로 교사와 학생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함.

- 본 연구 결과는 2025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교육의 전반적인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각 항목별 변화의 구체적 원인과 인과 구조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함. 또한 2024년 조사 결과와의 종단적 비교 분석을 통해 변화 추이와 주요 영향 요인을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매년 「대전교육종단연구 저널」 발간과 대전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 데이터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단순한 현상 진단을 넘어, 정책 효과성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심층 분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 고길곤, 신수현, 박세나, 김경동, 정다원. (2019).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사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이지혜, 나종민, 노민정, 김다솔, 김유리. (2024). 제1차 대전교육종단연구 결과 분석 보고서(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24-61).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 이지혜. (2024). 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대전교육종단연구저널 통권 제3호).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학지사.
- 안영은, 송진주, 이승연. (2021). 지역수준 종단자료 기반 연구의 정책지식생산 양상 분석: 「서울교육종단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9(1), 143-171.
- 정송, 노언경, 이청아. (2020). 증거기반 정책수립 활성화 방안: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을 중심으로. (서교연 2020-6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경희, 박상욱, 진성균, 박미미, 이재원. (2020).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 TIMSS 2019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2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교육 ODA 사업평가의 종단설계 가능성 탐색: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을 중심으로(2019 KERIS 이슈리포트).
- Menard, S. W. (2002). *Longitudinal research* (Vol. 76). Sage.
- UK Data Service. (2015). Analysing change over time: repeated cross sectional and longitudinal survey data.

〈2025 자체연구 보고서〉

2025년 대전교육종단연구 결과 분석 보고서

발 행 일 2025년 11월

발 행 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발 행 처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341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50

전 화 042)865-6396

홈페이지 <http://desre.djsch.kr/>

※ 이 연구 내용은 연구진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